

1932년 상하이 폭탄사건 후의 윤봉길

1932년 상하이 폭탄사건 후의 윤봉길



(06773)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현로 99 (양재동 236) 매현기념관
TEL: (02) 578-3388 FAX: (02) 572-8426 www.yunbongil.or.kr



매천윤봉길의사기념관

1932년 상하이 폭탄 사건과 그후의 윤봉길

차례

- 00 시작하며
- 01 前史
- 02 1932·4·29 홍커우 대역전
- 03 상하이 파견군군법회의
- 04 판결
- 05 상하이로부터 오사카로 다시 가나자와까지
- 06 처형
- 07 윤봉길 처형당시 기록
- 08 윤봉길의 어디에서 처형되었는가
- 09 시신 이송과 안장
- 10 유해 발굴
- 11 4·29 상하이의 거기에 이르기까지 정세
- 12 4·29 상하이의 거리의 충격
- 13 현대에서 바라본 윤봉길
- 14 상하이의 거와 윤봉길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시작하며

올해(2012년)는 상하이 폭탄 사건이 발생한 지 80년째 되는 해이다. 사건 전년도인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으로 15년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듬해 1월 28일에는 제1차 상하이 사변, 3월 1일에는 만주국 수립(중국 동북부 침략)이 이루어졌으며, 상하이 파견군이 4월 29일 천장절(天長節:일왕의 생일)에 상하이에서 전승 축하 군사 행진과 행사를 열었다. 윤봉길은 폭탄을 던져 단상 위에 있던 전쟁 책임자를 모조리 타도시켰다.

1932년이라 하면 조선 강제 병합이 이루어진 지 이미 20년이 지나 조선 인민의 독립운동은 중국에서부터 일본 본토까지 퍼진 해로, 윤봉길도 상하이로 건너가 수만 명의 재외 독립운동가 중 한 사람으로서 김구와 함께 상하이 폭탄 사건으로 일제 침략군에게 타격을 가했다. 윤봉길과 상하이 폭탄 사건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와 중국 침략 전쟁으로의 돌입, 그리고 오늘날에는 과거 청산 전쟁 책임 문제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윤봉길은 체포 후 극심한 고문을 당했고 상하이 파견군 군법회의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12월 19일에 가나자와 미쓰코지(三小牛山) 공병 작업장에서 처형되었다. 그러나 의거에서부터 체포, 조사, 재판, 판결, 처형, 매장에 이르기까지 비밀의 베일에 싸여 아직도 전체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윤봉길 암장의 땅, 가나자와에서』, 『4월 29일의 윤봉길』, 『평전 윤봉길』 등 우수한 저서들이 출판되고 있으며, 이 소책자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배우면서 사건 후의 윤봉길을 심층 있게 분석하기 위한 시론(試論)이다. (2012. 4. 18 기록)

01 전사(前史) ('평전 윤봉길' 요약 인용)

1. 윤봉길이 태어난 1908년은 의병투쟁이 최고조에 달하자 일제는 근대식 병기를 도입해 촌락을 모조리 불태워버리는 초토(焦土)작전으로 일본군의 '우위'를 확보했다. 1910년 '한일합병'까지 17,000명의 조선인 의병을 학살했고 1909년에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해 처형되었다. 윤봉길이 두 살이 되던 해, 1910년에는 한국이 강제 합병되었다.

2. 1919년 3월, 열두 살 소년 윤봉길은 시장에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는 모습을 목격하고 '민족 독립'의 의지를 완고히 형성했다.

1919년 '3.1 독립 만세 운동'은 조선 전역 방방곡곡에서 이루어져 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월슨에 대한 기대로 시작된 '3.1 운동'은 1917년 러시아 혁명 쪽으로 관심이 향하는 상황 속에서 끝났다. 일제의 탄압은 가혹하여 7000명이 학살당했다. (중국에서는 '5.4 운동', 일본에서는 쌀 소동이 일어났다)

3. 1921년(당시 14세), '3.1 독립운동'을 경험한 윤봉길은 일제의 식민지 교육을 거부하고 오치서숙(烏峙書塾)의 매곡(梅谷) 성주록 선생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동아일보' '개벽' '성서' 등과 친숙해지며 세계관을 넓혔다.

'3.1 독립운동'은 사회주의적 민족 운동을 향한 이행을 촉진시켰다. 국외에서는 '의열단' '독립군' 등이 러시아 혁명으로 생겨난 유리한 조건으로 1920년경 최고 전성기에 달했다.

국내에서는 '3.1 독립운동'으로 형성된 합법적 운동의 영역을 이용해 사회 운동, 문화 운동

이 이루어져 독립운동의 기반이 강화되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합법화). 식자(識字) 교육, 농촌 계몽 운동, 민립대학 설립 운동 등이 일어났다. 청년 지식층은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4. 1926년(당시 19세), 윤봉길은 오치서숙을 떠나 일제의 수탈로 피해를 입은 농촌의 부흥 계몽 운동으로 친구들과 야학당(夜學堂)을 세워 국어(글자), 역사, 산술, 과학, 영농 지식 등을 가르쳤다.

1927년 3월, 윤봉길은 농촌 부흥을 위해 '목계농민회'를 만들고 '부흥원'을 설립했다. 그 목표로는 ①증산(增産), ②공동구매조합, ③국산품 애용 운동, ④부업(양돈, 양계) 장려, ⑤생활 환경의 개선을 내걸었다.

그 후 '시조사(時兆社)'의 기자라고 밝힌 이흑룡(李黑龍)이 찾아왔다. 이흑룡은 대한 독립군 김좌진 장군의 지휘하에 있는 활동가로, 이흑룡의 방문은 윤봉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1919년 재외활동가가 중심이었던 고려공산당이 결성되었으나, 조선의 마르크스주의는 '3.1 독립운동' 후인 1920년대 초반에 보급 정착되었다. 1925년 4월에 조선공산당이 결성되었고 11월에는 일제의 일제(一齊)검거라는 탄압이 있었으나 12월에는 좌파가 제2차 조선공산당을 조직했다. 1926년, 탄압과 분열을 뛰어넘어 우파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은 '6.10 독립 만세 운동'을 실행했으나, 미연에 탄압을 받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5. 윤봉길은 1927년 11월(당시 20세), 신간회(新幹會)의 예산(禮山) 지회를 결성했다.



1927.2.14. 조선일보

1927년 2월, 민족공동 전선의 필요성을 느껴, 허헌 등은 민족 운동과 사회 운동을 내걸어 싸우는 합법적 대중 단체인 신간회를 창립했다 ('신한회(新韓會)'는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해 '신간회'라 했다).

신간회는 전국 3분의 2에 해당하는 군(140여 곳)에 지회를 결성하고, 회원 4만 명을 모았다. 당면 과제로 ①농민 교육, ②경작권 확보, ③조선인 본위의 교육, ④언론, 집회, 결사(結社), 출판의 자유 확보 ⑤협동조합운동, ⑥염색한 의복 착용, 단발, 백의와 상투의 폐지를 내걸었다.

1931년 코민테른은 '소비에트 연방을 지켜라' '부르주아 계층과의 연계를 끊어라'라고 지도하며 신간회를 해체했다. 신간회의 활동은 적색노동조합, 농민조합의 투쟁으로 계승되었고, 특히 적색농민조합은 소작쟁의(경제투쟁)에 그치지 않고, 반제국주의 투쟁을 직접 담당하는 대중 운동으로 1930년대 후반까지 싸

워나갔다.

윤봉길은 '수암체육회'를 만들어 체력과 인격 함양에 부지런히 힘썼으며, 1920년 7월에 조선체육회가 창립되어 1934년까지 전국에 90개 이상의 체육 단체가 결성되었다. 윤봉길도 ①협동심 함양, ②패기와 야망의 육성, ③체격 체위의 향상, ④친선, ⑤현대 스포츠 체득을 내걸고 '수암체육관'을 설립, 강가의 부지를 정비하고 운동장을 만들었으며 축구팀을 창설했다.

윤봉길과 청년들은 아침 일찍 운동장에 모여 축구로 체력을 단련시켰고, 낮에는 농작업으로 땀을 흘렸으며 밤에는 야학당에 모여 학문에 힘쓰면서 체력과 인격 양성에 정진했다.

6. 1929년 4월 23일(당시 22세), 윤봉길은 농촌계몽운동을 위해 ①농가의 부업장려, ②산림, 과수 재배, ③농민의 교양 향상을 위한 학술 검토회와 학예회라는 목표를 세우고 '월진회(月進會)'를 조직했다. 학예회에서 '토끼와 여우'를 연출한 것이 일제 비판이라는 감시를 받아 윤봉길은 덕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윤봉길은 이희룡과 만남을 거듭하며 조선의 독립운동 상황과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고 조선독립군의 무장투쟁을 용인하게 되었다.

같은 해 11월, 광주학생의거가 일어나 윤봉길은 12월 5일 일기에 '광주 고등보통학교의 민족충돌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피 끓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적었으며, 7일 일기에는 '경성에 보성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만세를 외쳤다. 첫 번째는 일본 제국주의 타파 만세! 두 번째는 약소민족의 해방 만세! 세 번째는 노예적 교육의 철폐 만세! 아아! 이 얼마나 가슴 후련한 소식 아닌가!'라고 적었다.

윤봉길의 마음은 이미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향하고 있었다. 윤봉길은 '나의 철권으로 적을 즉각 토멸하는 각오. 23세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우리 압박과 우리의 고통은 증가할 따름이다. 나는 여기에 한 가지 각오가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뻗뻗이 말라가는 삼천리강산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水火(수화)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대로 태연히 앉아 볼 수는 없었다. 여기에 각오는 별것이 아니다. 나의 철권으로 적을 즉각 부수려 한 것이다. 이 철권은 널(棺) 속에 들어가면 무소용이다. 늙어지면 무용이다.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상하이 임시정부였다. 多言不要(다언불요)'라며 망명에 대한 각오를 굳혔다.

7. 1930년 3월 6일(당시 23세), 윤봉길은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 대장부가 집을 떠나니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이라는 글을 남기고 집을 떠났다. 삽교역까지 8km의 길을 걸어가 서울에서 경의선으로 갈아타 신의주로 향했으나 선천역에서 강제하차를 당해 보름간 경찰에 구류되었다. 석방된 윤봉길은 이희룡과 다시 합류해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드디어 중국(안동=단동)에 입성했다. 윤봉길은 중국 동북부(만주)의 독립군을 방문했는데 이때 조선 동포의 독립 전선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윤봉길은 중국 상하이에 향하기로 했다.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은 중국 전국시대의 자객, 형가(荊軻)가 진시황제를 살해하기 위해 출발하기 직전 '風蕭蕭兮易水寒(풍소소혜역수한). 壯士一去兮不復還(장사일거혜불환):바람은 쓸쓸하고 역수 강물은 차갑구나. 장사가 한 번 떠남이여, 다시는 오지 않노라.'라고 읊은 시에서 배웠다 (중국『사기』의 '자객열전 제26' 발췌).

8. 1930년 10월, 윤봉길은 청도에 도착했으나, 상하이로 갈 여비가 없었다. 낮에는 일본인 세탁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동포(부두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강습소(노동야학)를 열었다.¹⁾ 윤봉길은 1931년 5월 8일, 청도 생활을 청산하고 상하이로 향했다.

9. 상하이에서 윤봉길은 안공근(安恭根, 안중근의 친동생)에게 소개받은 '미리공사(公司, 말의 털로 모자나 일용품 만드는 공장)' 일이 익숙해지자 동포들의 계몽 활동을 시작했다. '미리공사' 노동자를 모아 유대 관계를 맺고 나중에는 근처 공장 노동자들에게도 권유해 '한인공우친목회(韓人工友親睦會)'라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윤봉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실정을 듣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판단하여

1) 윤봉길 관련 여러 저서를 확인하였으나 해당 내용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음. 아마도 상하이에서 미리공사 직공들과 친목회를 조직하여 직공들을 교육했던 사실과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계의 혁명사를 공부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갈 계획을 세우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1931년 7월, 만보산 사건(중국인과 조선인의 토지를 둘러싼 충돌)이 일어나자, 일제 관동군은 이 사건에 대한 허위정보를 흘려 중국인과 조선인을 대립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했다. 상하이에서도 지금까지 조선인에게는 우호적이었던 중국인들의 감정이 급변하면서 악화했다.

1931년 9월, 일제는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 동북부(만주)를 점령했다. 항일무장투쟁세력 일부는 '만주사변'으로 본거지가 위협을 받아 중국 본토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거나 연락을 하면서 활동하게 되었다. 임시정부는 침체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다. 김구는 한국 독립운동의 활로로 임시정부 산하에 비밀결사인 '한인애국단'을 결성하였다.

중국 동북부(만주)를 점령한 일본은 국제적 비난을 맞게 되자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 상하이에서 중국인 불량배를 돈으로 매수하여 일본인 승려를 습격하게 했고, 이를 구실로 1932년 1월, 일제해군 제3함대의 육전대(陸戰隊)가 중국군에 대한 공격을 개시,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다.



10. 1932년 4월 29일 천장절(天長節)에 상하이 흥커우(虹口) 공원에서 전승(전승) 축하연이 예정되어 김구는 윤봉길에게 축하연 폭쇄(爆碎)를 지시했고, 윤봉길은 실행에 옮겨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02 1932. 4. 29 흥커우 공원



상하이전국전도 북쪽 지도

윤봉길은 4월 15일, 김구와 4.29 천장절(天長節) 상하이 전승 축하회 공격에 대한 회합을 하고, 4월 24일 흥커우 공원에서 진행된 '칙유(勅諭) 50주년 기념식'에 나가 4.29를 위한 사전 조사를 했다. 27일에 다시 행사장 사전 답사에 나섰고 전날인 28일에는 관병식(觀兵式) 예행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사전 조사를 하며 '내일은 단상 뒤쪽 일반 군중 사이에 섞여 결행하자'고 결의를 다짐했다.

4월 29일 당일, 윤봉길은 오전 6시경 일어나 김구와 아침 식사를 하고 폭탄 2개를 받았다 (판결문, 내무성 보안과 문서에서는 29일, 내무성 경보국 『외사(外事)경찰보』에는 27일). 택시를 타고 행사장까지 이동해 7시 5분경에 행사장 입구에 도착했다. 신(新)공원(흥커우 공원) 정문에는 중국인 문지기가 있었는데 윤봉길은 일본어로 인사를 하여 어렵지 않게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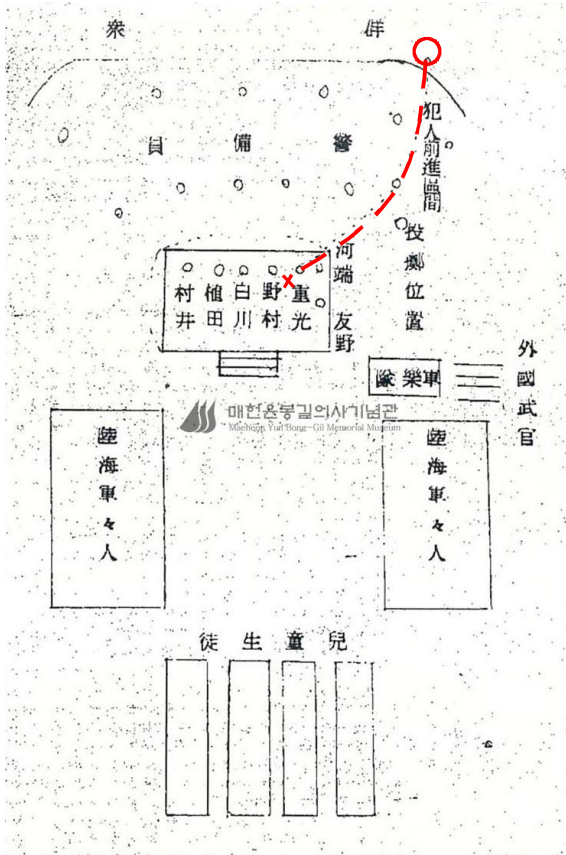
오전 10시부터 '신공원 문 앞 도로 위에서 육군 특과대의 열병'이 진행되었고, 10시 30분부터는 '공원 안에서 도보 부대의 관병식'이 진행되었다. 11시 30분부터는 '민관 합동 축하회'가 시작되었다. 윤봉길은 8시경 행사장에 들어가 3시간 30분이나 되는 장시간의 긴장을 이겨내며

11시 40분경 폭탄을 투척했다. (『가와바타사다지(가와바타 사다지)전』 상하이거류민단편, 1933년)

홍커우 공원(신공원)은 상하이시 일본인 거주지역 자베이(關北)에 있으며 잔디가 깔려 골프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공원이었다. 행사장은 공원 중앙으로, 단상은 북쪽 끝에 설치되었고 단상 앞에는 군대, 학생들, 거류민단 등이 정렬되어 있었고 일반 관람자들은 단상 뒤쪽에 모여있었다. 일반 관람자와 단상 사이에 15미터 정도의 간격을 두고 기병, 헌병, 영사관 경찰, 위병 등이 경비를 담당했으나, 군중이 늘어나면서 이 간격이 점차 좁혀졌다. 밧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헌병들이 그 간격을 유지하려 했지만, 군중들 힘에는 저항할 방도가 없었고 게다가 비까지 내려 점점 그 간격이 좁아져 처음의 절반(약 7미터) 정도까지 가까워졌다 (『헌병비록』 헌병대 모리타니(森谷)조장 증언).

내무성 보안과 보고서에 '단상 경계 배치도'가 있는데, 윤봉길은 단상에서 19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폭탄을 투척한 걸로 되어있으나, 본문 중에는 윤봉길의 진술로 2간(間) 반(4~5미터) 떨어진 곳에서 투척을 준비하고 1간(1.8미터) 근처까지 달려가 단상 위에 투척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단상에는 마주본 방향 왼쪽부터 무라이(무라이) 총영사, 우에다(우에다) 제9사단장, 시라카와(시라카와) 군사령관, 노무라(노무라) 제3함대 사령장관, 시게미쓰(시게미쓰) 공사, 도모노(토모노) 민단서기장, 가와바타(川端) 행정위원장이 나란히 서 있었다 (사진). 윤봉길은 기미가요



제창이 끝나기 직전, 군중 속에서 뛰어나와 군 경계선을 돌파해 수통형 폭탄을 단상을 향해 투척했고 폭탄은 노무라 중장과 시게미쓰 공사 사이에서 폭발했다. 윤봉길은 현장에서 총영사관 경찰 다카야나기 키치에(高柳吉衛) 순사와 해군 아토모토 다케히코(後本武彦) 병조(兵曹)에게 체포되어 (<상하이사변지(誌)>) 일본인에게 의식을 잃을 정도의 잔인한 폭력을 당하고 헌병대에 인도되었다. (<내무성 경보국 보고서>, <내무성 보안과 보고서>), 『대장, 시라카와』, 『도쿄 일일신문(東京日日新聞)』 4.29호외, 『판결서』, 『상하이전과 국제법』, 『헌병 비록』, 『츠지 마사노부전(傳)』, 『가와바타 사다지전(傳)』, 『기적의 의사』, 『쇼와 7년 상하이사변지(誌)』 등 참조)

03 상하이파견군 군법회의

‘육해군 군법회의법’은 1921년 ‘육(해)군 치죄법’을 개정해 제정되었다. 이 개정으로 ‘공개 원칙’, ‘변호인 의뢰권 필요적 변호제도’, ‘상소권’이 보장되었으나, 전시 사변 시에는 ‘특설 군법회의’가 마련되어 이러한 인권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었다. 상하이 폭탄 사건 당시 윤봉길의 재판(군법회의)은 비공개, 변호인 없음, 일심제로 사형 판결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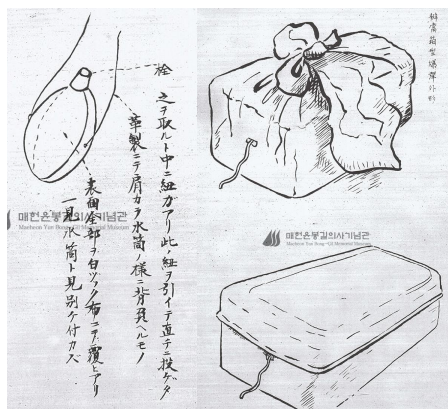
군법 회의의 목적은 ‘군대 지휘권을 완고히 유지하며 지휘명령 계통을 지킨 것’으로 사실 규명을 위함이 아니었다. 군법 회의의 대상은 현역 군인 군속 및 이에 준하는 자(소집 중인 군인 포로)였으나, ‘전시 상황에는 민간인이라도 특정 범죄에 관해서는 관할할 수 있다’며 통상 재판의 상위 개념으로 두고 민간인인 윤봉길을 군법 회의로 송치했다.

‘제7연대 적화 사건’으로 반전 선류(川柳) 작가인 쓰루 아키라(鶴彬)는 치안 유지법 위반 혐의로 1930년 가을에 체포되어 제9사단군법회의(가나자와)에서 심리를 받았다. 1931년 5월 15일, 제1차 공판에서 구형을 받고 6월 13일에 유죄 판결을 받아 오사카 위수(衛戍)감옥으로 송치되었다. 재판은 윤봉길의 경우와 달리 공개되어 방청석이 채워졌으며 2명의 변호인이 있었다.

또한, 상하이 폭탄 사건 한 달 후 대련에서 한인애국단 (최흥식, 유상근)에 의한 혼조 시계 루(本庄繁) 관동군 사령관 습격 미수 사건이 발생했지만 대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제27권). 윤봉길과 같은 군인 습격인데도 대응은 왜 이토록 달랐을까. 첫째는 상하이 폭탄 사건의 상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조속히 사형 판결을 내기 위해 비공개 ‘특설 군법회의’에서 처리한 것. 둘째는 상하이파견군 (군법회의)에 의한 보복적 처형, 암장을 위한 것일까.

윤봉길을 체포한 후, 바로 헌병분대(흥커우 공원 맞은편)가 조사했으나 ‘총영사관측과 군헌측이 협의한 결과 군법회의에 올려 처리’하게 되어 양수포(楊樹浦) 군사령부 형무소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았다. 5월 2일에 예심을 청구했고 11일에는 제4차 예심관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처음으로 윤봉길은 ‘사건을 꾸며 사주한 자는 김구’라 진술했다. 그 후 제5차, 제6차에 걸친 조사로 겨우 내용이 판명되었다고 <상하이에서의 윤봉길 폭탄 사건 전말> (1932. 7. 내무성 보안과)에서 보고되었다.

피고인 심문 조서에 나타난 사실(‘외무성 경찰사(史) 발췌)



도시락폭탄 및 수통폭탄 외형과 도시락폭탄 내부 구조

1932년 4월 29일 육군헌병대위 大石正幸은 상하이 제 1헌병 분대에서 피고인을 신문한바 다음과 같다.

[문] 본적, 현주소, 직업, 성명, 연령은 어떻게 되나.

[답] 본적은 朝鮮 忠淸南道 禮山郡 德山面 柿梁里 139

현주소는 상하이 佛租界 貝勒路 東方公寓 30호

성명은 尹奉吉

연령은 25세

직업은 현재 무직

[문] 내가 오늘 新公園에서 수류탄을 던진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말하라.

[답] 나는 오늘 오전 7시 50분경 수류탄 2개 중 수통형 1개를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으로 걸고 도시락형의 것을 오른손에 들고 新公園 정문에서 중국인 문지기에게 일본인이라 칭하고 공원 안으로 들어가 식대 부근에 이르러 투척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11시 40분경 도시락형의 것은 발밑에 놓고 수통형의 것을 어깨에서 벗겨 오른손에 쥐고 왼손으로 끈을 잡아당기면서 앞 사람을 헤치고 2미터가량 전진하여 호위병의 뒤쪽에서 식대의 중앙 시라카와대장을 겨냥하고 투척하였다. 그때 나는 그 결과를 볼 여유도 없이 부근의 여러 사람에게 잡혔다.

[문] 그 수류탄은 어디서 입수했느냐.

[답] 조선인 李春山으로부터 27일 오후 7시경 전기 주소에서 수통형 1개, 도시락형 1개 모두 2개를 받았다.

[문] 그 李春山과 너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답] 李春山도 나도 韓國獨立黨員이다. 나는 1930년 조선에서 靑島로 가서 일본인 中原세탁점에서 1년 취직하고 있다가 다음해 4월 3일 그곳을 출발하여 상하이에 왔다. 중국 鬚品公司(馬毛로 夏帽을 만드는 공장)에 취직하였다. 동년 7월 李春山과는 四海路和 馬浪路의 교차점에 있는 찻집에서 처음으로 만나 아는 사이가 되었다. 이때 李春山이 어떤 목적으로 상하이에 왔느냐고 묻기에 조선독립운동의 본부가 상하이에 있다고 들었으므로 왔다고 대답한 즉, 李는 자기도 독립당원이라고 말하고 나에게 입당을 권유하므로 나는 자진하여 李의 소개로 독립당에 입당하였다. 그 후는 전기 찻집에서 매월 2회 내지 3회 李와 조선독립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문] 李의 현주소, 성명, 연령, 직업, 인상, 복장 등은 어떻게 되나.

[답] 李는 현주소, 직업 등을 나에게 전혀 밝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서로 주소, 직업을 알면 곧 영사관 등에 잡힐까 우려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고로 기타의 일도 자세히 말하지 않고 다만 성명만 李春山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연령은 35, 6세가량이라고 생각한다.

신장은 5척 7, 8촌 가량의 중간 키에 두발은 3, 4촌 가량 기르고 앞을 7, 3으로 갈라 빗고 있고 눈, 코, 입은 보통, 직업은 무직인 것 같았다.

따로 특징 등은 모른다. 복장은 양복일 때도 있고 중국복일 때도 있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모른다.

[문] 본 사건을 계획한 시기와 동기는 어떠한가.

[답] 지금부터 20일 가량 전에 전기 찻집에서 협의하였다. 그 동기는 조선이 일본에 병탄되어 있는 것은 우리들이 참기 어려운 고통이라 독립을 도모하려고 결행하였다.

[문] 이번 계획에 대해서는 언제 실행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느냐.

[답] 天長節날 결행하려고 생각하고 칙유 50주년기념식 때 그 위치 등을 연구해 두었다.

- [문] 천장절날 시라카와대장이 온다는 것은 어떻게 하여 알았느냐.
- [답] 일본어신문(신문명 불상)에 의해 천장절날 新公園에서 관병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 [문] 시라카와대장과 우에다장군의 얼굴은 어떻게 알았느냐.
- [답] 신문 기타에서 대충 알고 있었으나 吳淞路 부근의 사진점에서 시라카와대장과 우에다중장 등의 사진을 사서 확인하였다.
- [문]李로부터 수류탄을 받기 이전에 아무 것도 받지 않았느냐.
- [답] 지금으로부터 10일 가량 전에 李로부터 전기 찻집에서 중국은 200弗(大洋)을 5원 지폐 40매로 받았다.
- [문] 그것은 어떤 의미의 돈인가.
- [답] 그것은 본 사건의 준비비와 나의 유흥비로 받았다. 그 이전에는 아무 것도 받지 않았다.
- [문] 그 돈은 지금 가지고 있느냐.
- [답] 그 후 「오바」구두를 사고 기타 음식 값으로 사용하고 지금 5弗 가량 가지고 있다.
- [문] 그 후 李와 만나지 않았느냐.
- [답] 전날 정오경 조계 八仙橋 大世界 이웃 中國基督教青年會에서 술을 마시면서 오늘 거사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때 李는 오늘 안으로 회장에 가서 여러 가지 연구해 두라고 말한 외는 아무 말이 없었다.
- [문] 그 후 너는 무엇을 했느냐.
- [답] 전날 오후 2시경 공원에 가서 오후 5시경까지 현지를 여러 가지로 조사하였다.
- [문] 그때 어떠한 일을 조사했느냐.
- [답] 식당의 위치와 그 주위에 모일 사람들의 종류를 팻말에 의해 알았다. 그리고 다음날은 식대 뒤의 일반 관중에 끼어 결행하려고 결심하였다.
- [문] 그 후 너는 무엇을 했느냐.
- [답] 전날 밤 8시경 전기 여관에서 李와 만났다.
- [문] 그때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느냐.
- [답] 수류탄의 사용법을 배웠다. 그때 실지조사를 한 상황을 말해 두었다.
- [문] 수류탄의 사용법은 어떻게 배웠느냐.
- [답] 李는 끈을 당기고 나면 약 4초 후에 폭발하니 끈을 세게 당기고 곧 세게 던지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끈을 당기는 방법을 실지로 조금 당기며 가르쳐 주었다.
- [문] 李는 수류탄을 어디서 구했는지 묻지 않았는가.
- [답] 그거야 물었지만 李는 일체 말하지 않았다.
- [문] 오늘 李는 만나지 않았는가.

[답] 일체 만나지 않았다.

[문] 기타 말할 것은 없느냐.

[답] 아무 것도 없다.

위 문답을 녹취하고 읽어 들였던 바, 사실과 틀림없음을 말했으나 도장이 없으므로 무인케 하였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파견군헌병대
육군사법경찰관 육군헌병대위 大石正幸

판결 직전인 5월 17일, 다시로 간이치로(田代皖一郎) 상하이 파견군 참모장이 윤봉길의 예심 조서를 보고 '예심 진술이 오락가락하니 과연 출발 시까지 재판이 끝날지가 의문' (5.17 다시로 일지), '군 사령관이 돌아갈 때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5.18 다시로 일지)라고 반복해 적었듯이 5월 18일 시점에서도 윤봉길의 '진술 조서'는 불충분하여 1주일 후인 25일에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탄한다.

그러나 '5월 중순에는 육군 전원을 철수하기로 각의 결정 (5.10)'²⁾되어 상하이 파견군이 철수할 경우, 상하이 파견군 군법 회의에 송치된 윤봉길을 현지 사령관에게 인도해 일반 재판 (나가사키 지방 법원)으로 넘겨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군 지도부는 상하이 파견군 철수 시까지 판결을 내라 ('판결만 출발 시까지...내리고')고 요구한다(5.31 상하이 파견군 철수 완료).

17, 18일 시점에 시라카와 군사령관은 상하이 파견군과 함께 귀국하여 본인의 희망대로 오사카 혹은 히로시마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그 후 시라카와 군사령관의 용태가 급변해 1주일 후인 26일 사망했다. 다시로 참모장의 '일지'는 20일경부터 시라카와 사령관에 대한 병상 보고로 채워져 군 업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시라카와 대장의 사망 전날, 5.25 판결 당일, 다시로 참모장은 오전 7시반 병원으로 향했다. 그 후로 계속 시라카와 군 사령관 곁에 있느라 군법 회의 (판결)에 참석할 여유가 전혀 없었으므로 시라카와 군 사령관은 물론, 다시로 참모장도 없이 군법회의를 열어 윤봉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군대 지휘권자와 군법회의장관은 반드시 겸임하기 때문에 상하이 파견군 군법 회의의 장관은 시라카와 군사령관임)

당연히 25일자 <다시로 일지>에도 판결에 대해서는 단 한 문장도 적혀있지 않았다. 판결 당일 1주일 전까지도 진술 조서조차 완성되지 않아 다시로 참모장이 '(재판은) 충분히 신중하게 처리'되지 않았다고 개탄하였으므로 25일에 군법회의가 열려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은 석연치 않다.

2) <<근대 세계 외교 문제 해설>> (아시다 히토시(芦田均), 1932. 5).

『상하이 출정(出征) 일지2』 다시로 간이치로

5월 17일 흐림, 가랑비

- 오전에 윤봉길의 예심 조서를 봄. 육군성 법무국장은 출발 시까지 군법 회의에서 판결만 내리고 신병은 헌병대에 남기라고 했으나, 예심 진술이 오락가락하니 과연 출발 시까지 재판이 끝날지가 의문이며 본 건은 그 중대성이 심히 커 충분히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음.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영사관으로 넘길 필요 없음.

5월 18일 흐린 뒤 맑음, 무더위

- 법무 부장에게 군 사령관 귀국 시까지 윤봉길의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해군에게 송치하라는 회답이 옴.

04 판결

상하이 파견군 군법회의 재판관으로 육군 공병 중좌인 핫토리 교타로(服部暁太郎), 육군 법무관 오오츠카 미사오(大塚操), 육군 병참병 대위 마치다 이사무(町田勇) 3인이 임명되었다. 핫토리 교타로는 제1사단장으로 중국 쑨우(孫吳)에서 주둔하던 중 병사했다(1944년). 오오츠카 미사오는 창이(싱가포르)에서 전범으로 교수형에 처해졌다(1945년). 마치다 이사무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반도로 파견되었다.

군법회의의 목적은 결코 진실 규명이 아닌, '군대 지휘권을 완고히 유지하여 지휘명령 계통을 지키는 것'이었다. 군대 지휘관이 군법회의 의장이 되었고 특히 특설군법회의는 최전선에서 쉽게 처벌을 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상하이 파견군 군법회의도 같은 취지로 만들어져 엄청난 속도로 체포한 지 한 달 후인 5월 25일에 사형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구형에 대한 문서가 없다. 다시로의 일기에는 구형도, 판결에 대한 기록도 없다. 5월 25일부터 한 달 치 <도쿄일일신문(東京日日新聞)>을 조사했으나, 시라카와의 사망 장례식, 우에다 겐키치의 승전(勝戰) 보도는 있지만 구형 판결에 관한 보도는 없다.

6월 외사경찰법 제119호에는 신문 조서는 첨부되었으나 판결서는 첨부되지 않았다. 6월 20일자 (상하이 총영사가 외무대신 앞으로 보낸) 전보에 처음으로 판결서가 나와 있다.

즉, 상기 내용을 통해 판결일은 5월 25일이 아닌, 6월 이후가 아닐까 짐작된다.

판결의 사실 인정은 하기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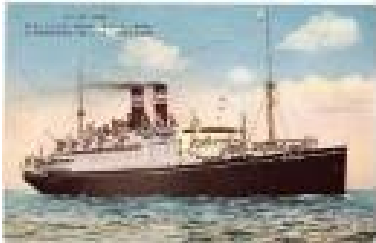
1. 증인 토모노 모리(토모노 모리)에 대한 예심신문조서에 동인의 공술에 의하면, 자신은 1932년 4월 29일 천장절 축하회 위원으로서 신공원식장에 출장하여 식단 정면을 향해 좌로부터 무라이(무라이)총영사, 우에다(우에다)중장, 시라카와(시라카와)대장, 시게미쓰(시게미쓰)공사, 가와바타(가와바타) 거류민단 행정위원회위원장 및 자신의 순으로 단상에 열립하여 기미가요 합창을 끝낼 무렵 수통과 같은 물건이 단상으로 던져져 노무라 중장의 전면에 떨어지자 곧 자기는 정강이(股)를 맞은 것 같이 느끼며 부상하고 정신이 나서 단상을 휘둘러보았더니 단상의 사람들은 이미 흩어지고 있었다는 뜻의 기재가 있고
1. 증인 나시오카 토시오(梨岡壽男)에 대한 예심신문조서에 자신은 파견군사령관 시라카와 대장을 수행하여 신공원에서의 천장절 축하식장에 출석하여 좌측 장교석에 있었는데 오전 11시 40분경 국가의 합창이 끝날 무렵 자신의 우측방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단상의 가와바타 위원장과 우에다 서기장과의 사이를 날라 노무라 중장과 시게미쓰 공사와의 중간 전방 단상에 낙하한 물건이 있어 곧 작렬하였다. 때문에 시라카와 대장, 우에다 중장, 시게미쓰 공사 등이 부상하여 어느 누구지 치료 조치를 하였는데 단상의 다른 사람들도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뜻의 기재가 있고

1. 예심관의 조회에 대한 제3함대부관 水野恭助의 회답서에 제3함대사령관 노무라 중장은 4월 29일 상하이 신공원에서 천장절 축하식에 참석하여 오전 11시 40분경 돌연 투척된 폭탄 작렬로 전신에 폭상을 받고 또 단상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전부 부상하였음을 목격하였다는 뜻이 기재가 있고
1. 돈구 유타카(頓宮寬)가 작성한 가와바타 사다지의 감정서에 감정이라 하여 동인의 우측 흉부 창상은 폭창이며 깊이 흉막강(胸膜腔)에 달하여 동 강내 출혈을 일으켜 이것이 사인이 되어 동인은 4월 30일 오전 3시 10분 사망하게 되었다는 뜻의 기재가 있고
1. 시라카와 요시노리(시라카와 요시노리), 노무라 기치사부로(노무라三郎), 우에다 겐키치(우에다 겐키치), 시게미쓰 마모루(시게미쓰 마모루), 무라이 쿠라마쓰(무라이 쿠라마츠), 도모노 모리(토모노 모리)의 각 진단서에 각각 판시관계부분에 적합한 상해가 있다는 뜻의 각 기재가 있고
1. 압수한 도시락 상자형 수류탄(증 제2호), 수류탄파편(증 제3호)을 종합 고려하여 이를 인정한다.

05 상하이에서 오사카(大阪),가나자와(金沢)까지

1. 상하이에서 오사카로



다이요마루

11월 18일, 일본의 우편선 다이요마루(大陽丸)는 운봉길을 신고 상하이를 출항했다. 20일, 고베항에 도착했으나 제3의 독 M자 안벽(岸壁)이 취재 기자로 인산인해를 이루자 운봉길을 태운 배는 미쓰비시 조선소 부두에 접안(接岸)되었다. 그 후 차로 오사카까지 이동해 오사카성 다마츠클리(玉造門)에서 오사카 위수형무소(衛戍刑務所)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 1분이었다(11.22 『키타쿠니신문(北國新聞)』).

운봉길은 12월 18일까지 약 한 달을 오사카 위수형무소에 서 보내게 되었다. 오사카의 반제국주의 동맹은(이하 반제동맹) ‘조선인이 낳은 반제국주의자 운봉길의 총살 반대운동을 하자’ (『사회운동의 상황 1932년』)는 전단을 배포해 운봉길의 탈환, 연대를 호소했다.

2. 왜 오사카가 아닌 가나자와에서

운봉길이 오사카 위수형무소에 수감된 후, 11월 25일에는 제9사단 네모토(根本)법무부장이 오사카로 출장을 와 (12.4 『키타쿠니 신문』) 운봉길의 처형을 가나자와에서 진행하기 위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12월 9일에는 도쿄지방검사국 가메야마(亀山) 검사가 오사카로 와서 ‘운봉길 조사’ (12.10, 『오사카 아사히 신문』)를 실시했는데, 처형 장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보인다.

『키타쿠니 신문』(11.22)은 ‘형 집행은 현재 제9사단 군법 회의의 이름으로 육군 대신에게 신청 중으로, 허가가 나면 5일 이내에 오사카 위수형무소에서 집행될 것’이라 보도했다. 그 근거는 윤봉길의 신병이 제9사단 군법 회의로 인도되었고, 가나자와에는 위수형무소가 없으므로 제9사단 군법 회의에서 형이 확정된 자는 오사카 위수형무소에서 형을 집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제7연대 적화 사건’의 주범으로 체포된 쓰루 아키라도 제9사단 위수구금소(영장은 아님)에 구류되어, 1931년 6월 13일, 군법 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징역을 살기 위해 오사카 위수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따라서 제9사단 군법 회의로 인계된 윤봉길에 대한 형도 오사카 위수형무소에서 집행될 예정이었다고 생각함은 당연하다.

11월 25일에는 제9사단 네모토 법무부장이 오사카로 출장을 왔고, 12월 9일부터는 도쿄 지방 검사국의 가메야마 검사가 오사카로 출장을 와 1주일 정도 윤봉길을 취조했다. 여기서 윤봉길의 처형 일정, 장소가 최종 결정되었다고 보인다.

12월 15일 육군 대신 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로부터 제9사단(네모토 군법회의 검찰관)에게 ‘윤봉길 형을 집행하라’(육군만밀 제896-33)는 명령이 내려왔다.

‘달안(達案)(네모토 제9사단 검찰관 앞으로 온 사형 집행 명령)’을 보면 기원청(과)의 이름은 제9사단이며 주무국(主務局) 수령 일자 8월 9일이다. 처형 장소 선정이나 여러 가지 준비를 생각하면 사무국 입장에선 아무리 늦어도 네모토가 오사카 출장을 간 11월 25일까지는 가나자와(제9사단)로 처형 방침을 확정지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오사카에서 가나자와로 변경됐을까? 오사카의 제일 조선인(일본 반제 동맹 등)의 윤봉길 사형 반대, 윤봉길 탈환 운동 때문일 것이다. 윤봉길의 시신을 암장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윤봉길의 시신(유골)을 유족에게 인도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 조건이었을 것이다. 오사카성 안의 쇼난(城南) 사격장에서 처형하고 사나다야마(真田山) 육군 묘지에 매장하기에는 불안했기 때문은 아닐까.

‘오사카에서 처형을 한다면 어디서 처형하고 어디에 암장하려 했는가의 문제. 처형은 아마 위수 형무소 바로 남쪽에 올해 완공한 쇼난 사격장에서 진행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사격장은 반지하 구조로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 말기에 중부군 포로가 된 B29 탑승원 처형에도 쇼난 사격장이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암장 장소는 일본 육군 최대 육군 묘지였던 사나다야마 육군 묘지를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츠카사키 마사유키(塚崎昌之))

한편, 이시카와현(가나자와시)에서의 제일조선인운동은 1920년대 후반부터 1932년 12월 윤봉길 처형에 이르기까지의 수년간을 보면 전국적 차원에서는 활발한 편에 속하였으나, 간사이권(関西圏)만큼은 아니었으므로 윤봉길의 처형은 그리 주목받지 못했을 것이다. 가나자와시 외곽에는 처형에 적합한 미쓰코지야마(三小牛山) 육군 작업장이 있었고, 매장 및 감시에 적당한 노다야마(野田山) 묘지가 있었다.

3.오사카에서 가나자와로

윤봉길은 1932년 11월 20일에 오사카 위수 감옥(오사카성안)에 수감 되었고, 한 달 후인 12월 18일에 오사카에서 가나자와로 이송되었다. 이송 경로는 철도에 따라 다르지만 승차열차(시간), 하차역 기준으로 두 가지 설이 있다.

| 오사카 | | | | 마이바라 | | 가나자와 | | 가나자와 | | 모리모토 |
|------|----|-------|-------|------|-----|-------|-------|-------|-------|-------|
| 列車番号 | 行先 | 発 | 着 | 列車番号 | 行先 | 発 | 着 | 発 | 着 | 発 |
| 522 | 富山 | 22:14 | 0:53 | → | → | 1:02 | 6:15 | 6:22 | 6:31 | 6:41 |
| 503 | 豊後 | 22:50 | 1:48 | → | → | 2:00 | 7:58 | 8:05 | 8:12 | 8:28 |
| | | | | 813 | 富江津 | 5:05 | 11:17 | 11:24 | 11:30 | 11:42 |
| | | | | 804 | 上野 | 7:09 | 13:10 | 13:17 | 13:23 | 13:33 |
| 708 | 沼津 | 6:25 | 9:44 | 606 | 上野 | 10:12 | 16:13 | 16:20 | 16:26 | 16:36 |
| 814 | 富山 | 8:40 | 11:20 | → | → | 11:48 | 17:29 | 17:36 | 17:42 | 17:52 |
| 712 | 沼津 | 9:50 | 12:56 | 812 | 豊後川 | 13:28 | 19:36 | 19:43 | 19:51 | 20:01 |
| 816 | 富山 | 12:12 | 15:18 | → | → | 15:28 | 21:39 | 21:46 | 21:52 | 22:03 |
| 818 | 豊後 | 14:08 | 17:14 | → | → | 17:19 | 23:47 | 23:54 | 豊後土 | |
| 821 | 豊後 | 15:50 | 17:59 | 豊行 | → | 18:04 | → | 22:43 | 22:49 | → |
| 823 | 豊後 | 19:40 | 22:48 | → | → | 23:06 | 5:03 | 5:10 | 5:16 | 5:26 |

1932년 5월 일본 열차 시간표

[모리모토역 하차설] <경계에 관한 보고> (헌고비(憲高秘) 제1820호)에 따르면, ‘오전 6시 25분 오사카역 출발 … 오후 4시 35분 이시카와현 가와키타군 모리모토역에서 하차’해 가나자와 위수구금소로 향했다고 되어있다. 당시(1932년 5월)의 열차 시간표를 살펴보면, 누마즈(沼津)행 708호 열차는 6시 25분에 오사카역을 출발해 마이바라(米原)에서 우에노(上野)행 606호 열차로 갈아타고 16시 35분에 모리모토역(출발 시간은 16:36)에 도착하므로 이 열차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니시가나자와(西金沢)역 하차설] 『처형 전후』에 전재(轉載)되어 있는 <9사보(九師普) 제524호>에는 ‘18일 오후 5시 29분, 오사카발 하행 급행 열차, 호쿠리쿠본선(北陸本線) 니시가나자와역 하차, 제9사단 법무부 니시마치(西町) 구금소로 호송 수감됨’ 이라 쓰여 있다. 또한 처형 다음 날 『키타쿠니신문』에는 ‘18일 오후 5시 29분 니시가나자와역에 폭탄 범인을 하차시켜’라고 적혀 있다. 당시의 열차 시각표에 따르면 도야마(富山)행 514호 열차(보통)는 오사카 8시 41분 출발로, 니시가나자와역에는 17시 29분에 도착하므로 니시가나자와 하차설을 부정할 수 없다.

윤봉길은 708호 열차를 타고 마이바라에서 환승해 모리모토역에서 하차한 것일까, 514호 열차를 타고 니시가나자와역에서 하차한 것일까?

니시가나자와 하차설을 인용한 것은 <12. 179 사보 제524호>와 <12. 20 키타쿠니 신문>이고 모리모토 하차설은 <12.22 김헌고비(金憲高秘) 제522호>와 <12.26 헌고비 제1820호>이다. <김헌고비 제522호>도 <헌고비 제1820호>도 모두 처형이 끝난 뒤에 가나자와 헌병대에서 작성한 사후보고이므로 조작할 필요는 없다.

<9사보 제524호>는 제9사단에서 나온 처형 전 정보이므로 도착역과 시간을 사전에 파악 당하지 않기 위한 ‘교란 정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오사카역 출발 시간을 ‘8시 41분’으로 하고 가나자와의 도착역과 도착 시간을 ‘니시가나자와역 17시 29분 도착’이라고 하는 ‘허위정보’를 흘려 속이고, 실은 1시간 전인 16시 35분 모리모토역에 도착했던 것은 아닐까.

4. 가나자와에서의 수감장소

오사카에서 모리모토역 혹은 니시가나자와역을 거쳐 제9사단 구금소에 수감 되었는데, 가나자와의 수감처에 대해 당시의 공문서나 신문기사에는 하기와 같이 기재(①②③)되어 있다.

① <경계에 관한 건 보고> (헌고비 제1820호)에는 ‘가나자와 위수구금소에 수용함’

② <9사보제524호>에는 ‘제9사단 법무부 니시마치(西町)구금소’

③ 『키타쿠니 신문』에는 ‘사단 구금소에 수용하려 했으나 때마침 구금소는 수리 중이어서 법무부에 구금’이라고 적혀있다.

① 1941년 경의 지도에는 제9사단 사령부 청사 남쪽으로, 극락교를 건넌 곳에 ‘가나자와 위수구금소’가 기재되어 있고 ②1924년 지도에는 보병 제6여단 사령부 청사 와오야마(尾山)신사 사이 부근에 위수구무소(拘務所)가 기재되어 있다. ‘위수구무소’는 니시마치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위수구무소’는 ‘니시마치 구금소’를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③ ‘법무부’라 명기된 지도를 발견하지 못했다.

④ <하라로부터의 통신 제3호>에는 가나자와 성내(內) 건물 사진을 넣고 ‘윤봉길이 구금되었던 영창’이라고 설명한다. 1897년 가나자와 성내(內) 지도, 1933년 발행된 『일지(日支) 사변록』, 1941년의 가나자와 성내(內)지도에는 백조로(白鳥路) 부근에 ‘이시카와현 감옥소’, ‘영창’이라는 기재가 있다.

가나자와성에 관한 과거 지도에는 ‘위수구금소’, ‘위수구무소’, ‘이시카와현 감옥소’, ‘영창’은 확인할 수 있지만 ‘니시마치 구금소’, ‘법무부’는 확인할 수 없어, 현재로써는 윤봉길이 마지막 밤을 어디에 수감되어 보냈는지 특정할 수 없다.

06 사형집행

12월 19일 당일은 오전 4시에 헌병대를 비상소집해 철야 경계를 했다(『키타쿠니신문』). 보병 소대가 경비를 위해 6시 30분에 형장에 도착했고 곧바로 보초를 섰다. 윤봉길은 6시 30분에 가나자와 위수구금소를 출발하여 7시 15분 형장에 도착했다 (제9사단밀 제20호). 윤봉길은 동쪽(동남)을 등지고 서쪽(북서쪽)을 향해 깔자리에 앉혀져 양팔과 머리가 형틀에 묶였고 눈은 가려졌다. 윤봉길의 눈가리개로 덮인 시선의 끝에는 까마득히 한반도가 있었고 식민지 지배로 신음하는 동포가 있었으며, 부모님,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는 덕산면이 있었다.

오전 7시 27분에 사격 명령이 내려졌고 의사는 7시 40분에 절명을 확인했다. 사격 명령이 내려진 ‘7시 27분’은 시라카와 대장이 상하이에서 사망한 시간인 ‘6시 26분(일본 시각 7시 26분)’과 거의 같은 시각으로, 의식적으로 이 시간에 맞춰 처형한 것은 아닐까? 시라카와 대장의 사망 시간은 6시 25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다시로 일지에는 6시 26분이라 기록했다.

07 처형 당시의 날씨

윤봉길 처형당시의 날씨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때마침 푸른 하늘에 올려 퍼진 일제(一齊) 사격(『호쿠리쿠 마이니치신문』, 1932. 12. 20) / ‘때마침 북국의 밝은 아침 해가 잡목림을 뚫고 올라’(『키타쿠니 신문』, 1932. 12. 20) / ‘때마침 옥일(旭日), 동북 절벽 위로 떠올라’(『처형의 전후』, 1932. 12. 19). 이들은 마치 직사광선이 처형지를 비친 것처럼 묘사하나, 과연 이것은 진실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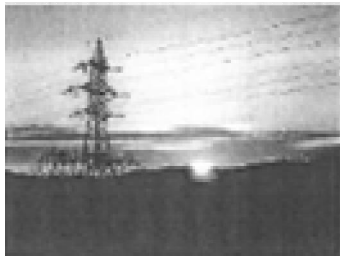
1. 일출 검토

국립천문대에 따르면 12월 19일 일출시간은 7시 00분이고, 태양은 북쪽에서 동쪽 부근으로 118도 각도로 떠올랐다. 미쓰코지야마에서 보면 북(왼쪽)부터 84도 방향으로 도무로야마(戸室山, 해발 547m·7km), 90도 시라하게야마(白兀山, 896m·11km), 92도 키고야마(546m·7km), 96도 오쿠이오젠(奥医王山, 939m·11km), 125도 산포야마(三方山, 1142m·20km), 132도 사루가야마(猿ヶ山, 1448m·21km), 139도 오지시야마(大獅子山, 1127m·22km), 140도 다카오야마(高尾山, 841m·12km) 등이 나란히 있다. 태양은 북쪽에서 118도 방향, 오쿠이오야마와 산포야마 사이에서 떠오른다.



2011년 12월 14일의 현지조사(사진)에 의하면 이오젠(医王山) 산기슭에서 태양이 얼굴을 비춘 것은 오전 7시 13분이었다(역(曆)으로는 6시 57분 일출). 처형된 19일의 역(曆) 상(上) 일출은 7시 00분이므로 이오젠의 일출은 7시 16분이 된다. 윤봉길은 7시 15분에 처형지에 도착했고 7시 27분에 처형당했기 때문에 태양은 이미 이오젠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군 공문서에 따르면 처형장 동쪽에 7미터 절벽이 있고, 그 양각(仰角)이 25도 (절벽 꼭대기에서 수평으로 14m)라면 일출 시간에서 100분 후에, 20도 (동일 기준 20m)라면 80분 후에, 15도(동일기준 30m)라면 60분 후에나 처형지에 직사광선이 비치게 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7시 40분 윤봉길의 사망이 확인될 때까지는 처형지에 직사광선이 비추어지지 않았다.

2. 기상도(圖)검토

2011년 12월 14일 이오젠
현지 조사 당시 사진

1932.12.19 오전 6시의 기상도(사진)를 보면, 혼슈(本州)는 고기압으로 덮여 있지만 와지마(輪島)는 흐림 표시이다.『氣象月報 1932년 7~12월, 가나자와지방기상대』에 의하면 12.19 오전 6시의 구름량은 3(10분의 3)이며, 12.17~19의 강우량은 각각0ml/24시간이다.『호쿠리쿠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가나자와는 12.14~23까지 계속 흐림, 비, 눈이 예보되었다. 따라서 12.19 이른 아침에는 날씨가 맑거나 흐렸다고 추측할 수 있다.

3. 사진 검토

군 공문서에 첨부된 세 장의 사진을 보면 직사광선이 비치는 듯한 대비가 강한 사진이 아니다. 간접조명과 같은 은은한 빛으로, 흐리거나 직사광선이 가려진 그늘 사진이다. 헌병의 어깨 부분이 하얗게 반사되고 있지만, 등 부분이 검다는 점에서 판단하면, 주요 광원은 일출 같은 옆에서가 아닌 상공에서 오는 은은한 빛이다. 형틀에 묶인 팔 위쪽은 하얗지만 아래쪽은 그림자로 되어 있다는 점과 윤봉길의 턱 밑에 그림자가 있다는 점 등도 은은한 빛이 옆이 아닌, 상공에서 내려온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헌병의 손떨림’은 광량(光量) 부족으로 셔터를 길게



만일대일기: 윤봉길 의사 순국 장면

눌러 촬영했기 때문이다.

이상 국립천문대 자료, 가나자와 지방기상대 자료, 세 장의 사진, 2011년 12월 14일의 사진 등을 통해 판단하면, 처형 시에 직사광선이 비친 것 같은 상황 묘사(『호쿠리쿠신문』, 『호쿠리쿠 마이니치신문』, 『처형의 전후』)는 사실과 다르다.



08 윤봉길은 어디서 처형되었는가?

1. 조사 경과



1932년 12월 20일 키타쿠니 신문

1946년 3월 발굴 직후 시신 수색대 기념사진

<윤봉길과 천장절 사건 시말기>, <하라로부터의 통신> 등에서는 윤봉길의 처형지를 미쓰코지(三小牛) 작업장 내 이오젠을 멀리 바라보는 ‘동남고대(東南高台)’로 기록했는데, 그 근거는 처형 다음날 <키타쿠니신문>(1932.12.20)에 실린 ‘처형장 사진’과 1946년 3월 발굴 직후에 유해 수색대가 찍은 기념사진이다.

윤봉길 처형에 관한 ‘군보고문서(사진, 약도 등)’를 통해 판단하자면, 늦어도 1932년 11월 윤봉길이 오사카로 이송될 무렵에 제9사단(가나자와)에서 처형준비가 시작되었고, 미쓰코지 육군 공병작업장 서북(西北) 골짜기로 가나자와와 오하라 사이의 산속 도로 동쪽으로, 교통이 희박하고 공중(公衆)에게 위험이 없으며, 동쪽으로 사타(射塚=활을 쏠 때 과녁 뒤에 흙을 산 모양으로 쌓은 곳)용 7m정도의 절벽이 있으므로 그곳이 형장에 적합한 곳이라 보고하였다.

2008년 봄, SBS가 윤봉길 처형지 조사를 벌였다. 우리는 이 방송 프로그램을 보지 못한 채 2010년 4월부터 처형 장소에 관한 <문서> <요도要圖> <사진>을 검토하고 지도를 수집하여 지역 주민의 협조를 얻어 <서북쪽 계곡>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2. 서북쪽 계곡의 검사



<윤봉길 사형집행 전말 보고> 中
 형장은 별지 부도 제2와 같이 이시카와현 이시카와군 우치가와촌 미쓰코지 내 가나자와 육군작업장 서북 계곡 사이로서 공중에 위험이 없고 또 교통이 희박하며 동쪽의 斷崖는 높이가 약 7미터로서 총받이에 적합하여 형장에 가장 적당한 자리임.

① '군보고문서'에 기재된 키워드

<사형집행 시말서(검찰비록)> <윤봉길 사형집행 전말보고(구사단 기밀九師密 20)>, <상하이 폭탄범 사형수 윤봉길 사형집행 및 헌병의 경계에 관한 보고(헌병중요기밀憲高秘 1820)>, <상하이 폭탄범 사형수 윤봉길 사형집행에 관한 보고통첩(金憲高秘 522)> 등에 따르면 처형장소를 미쓰고지 육군 공병작업장인 서북쪽 계곡 동쪽으로 7m 높이의 절벽이 가나자와-오하라 사이의 산중도로의 동쪽이라고 하고 要圖 2장과 사진 세 장이 첨부되어 있다.

| | | |
|------------|------------|------------|
| | | |
| | <p>要圖2</p> | <p>사진2</p> |
| | | |
| | <p>사진1</p> | <p>사진3</p> |
| <p>要圖1</p> | | |

② 1956년 지도 검토



미쓰고지 주변 지도는 1889년 등고선 지도부터 현재 것까지 수십 종류이지만 1932년 당시 지형에 가장 가깝고 알기 쉬운 지도는 1956년 등고선 지도(3000분의 1), 1962년 항공사진(10000분의 1)이다.

1956년의 등고선 지도를 보면, 서쪽(노다야마 묘지쪽)에 작곡천(雀谷川), 동쪽에는 나카오(中尾) 산천(山川)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 나가사카(長坂) 용수로 합류하고 있다. 작곡천과 나카오 산천 사이에 도로 두 개가 나란히 지

나고 있다. 남북으로 달리는 도로 중 하나(서쪽)는 절벽 아래 비탈에 있고, 다른 하나(동쪽)는 절벽 위 거의 산등성이에 있다.

군보고서의 '서북 골짜기'는 작곡천(雀谷川)와 나카오 산천 사이의 도로 두 곳을 포함한 골짜기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고 사료된다.

1954년에는 정상 부근에 동서로 이어지는 활주로가 건설되어 나카오 산천의 원류(源流)가 매립되었으나, 활주로 북쪽(가나자와 시가지방향)은 1932년 당시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③ 현재의 지형 2002년 등고선 지도(2천500분의 1)



현재의 '서북쪽 골짜기'는 1975년 농지정비를 통해 산을 깎고 계곡을 메우고, 북쪽은 해발 100m, 남쪽은 140m 정도로 평준화되어 완만한 발농지로 북에서 남쪽을 향해 작곡천(雀谷川)을 따라 오르막길이 일직선으로 뻗어 있다. 나카오 산천의 원류는 활주로와 더불어 기본사격장(1974년) 건설로 매립되어 조금 더 북쪽으로 나카오 산천과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경비도로가 만들어졌다. 나카오 산천은 경비도로 부분은 암거(暗渠: 물을 대거나 빼기 위하여 땅속이나 구조물 밑으로 낸 도랑)가 만들어졌으나, 그 하류 부분은 1932년 당시 그대로다.

④ '요도(要圖) 1'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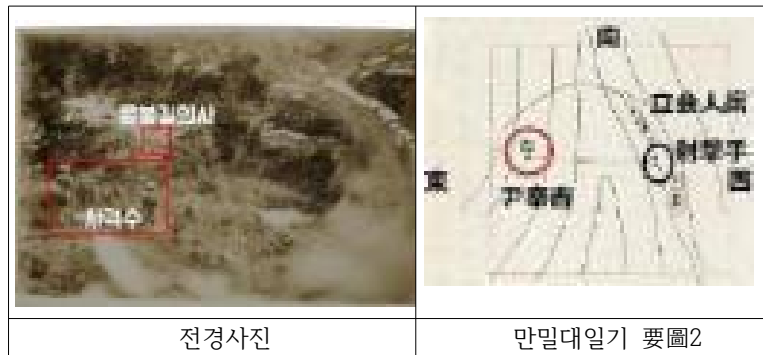


만밀대일기 要圖1

군 보고문서에 첨부된 '요도1'에도 서쪽부터 작곡천(雀谷川, 육군정수지), 두 개의 도로, 나카오 산천이 그려져 있고, 1909년, 1932년, 1956년의 지도와 완전히 일치한다.

'요도 1'에 그려진 처형 장소(사각형 점선 안)는 산등성이 위 도로의 동쪽으로, 나카오 산천을 걸친 곳에 있으며, 1956년 지도에서는 세로로 '오쿠와마치(大桑町)'라고 쓰인 글자 주변에 해당한다.

⑤ '요도(要圖) 2'에 대해



'요도2'에는 남북으로 난 좁은 도로(점선) 위에 사격수가 배치되어, 윤봉길 의사의 남쪽을 동서방향의 좁은 길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다. '요도2'의 좁은 길(점선)과 '전경 사진'의 우측(남쪽)에 있는 '오르막 도로'는 일치한다.

1956년의 지도에도 이 나카오 산천 상류 부분에 '오르막 도로'의 일부로 보이는 동서 방향의 좁은 길(점선)이 그려져 있다.

⑥ '전경사진'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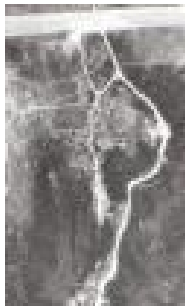
군 보고문서에 첨부된 세 장의 사진을 보면, 처형지 주변의 식생(植生)은 잡초지(조릿대 나 무숲)이다. 군데군데 팔뚝만 한 굵기의 관목이 나 있지만, 드문드문 난 것이라 숲이라 할 만한 식생은 아니다.

'전경 사진'을 보면 윤봉길과 경비 헌병을 내려다보는 듯 찍었다. 카메라보다 낮은 위치에 헌병과 사격수의 있고, 그 뒤에 구덩이(나카오 산천)를 넘어 윤봉길이 앉혀져 있다. 윤봉길의 후방

(동쪽)에는 수 미터 낭떠러지가 있다. 주변은 조릿대 나무숲 같은 잡초지이다. 윤봉길의 남쪽으로는 동쪽으로 난 좁은 오르막길이 찍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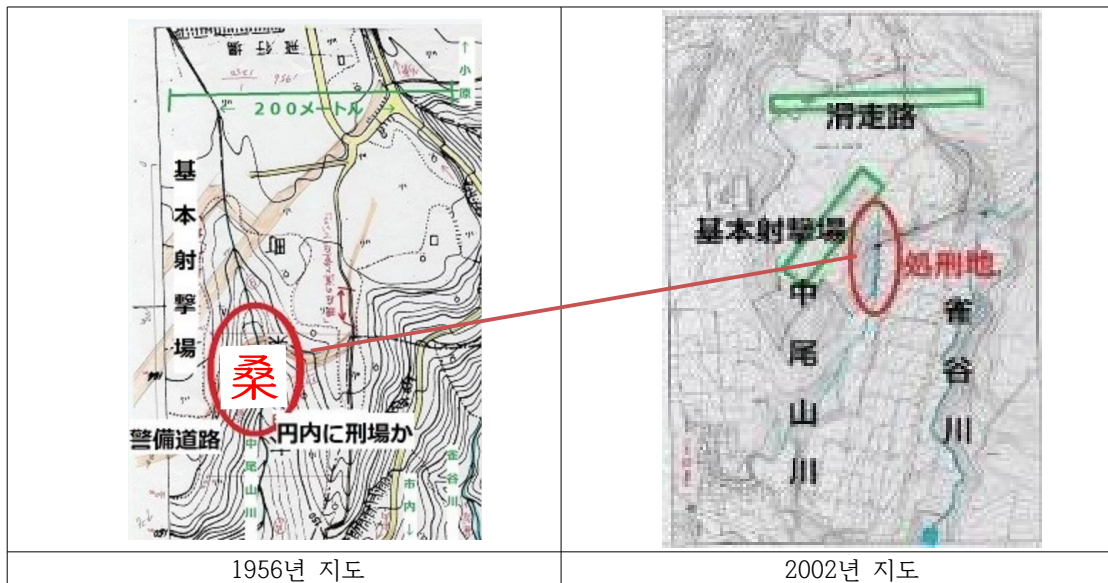
1904년 가나자와시 도노마치(殿町)의 고이케 휴지(小池兵治)는 제9사단 전속 사진반으로 임명되어 다카쿠와(高桑) 기사를 러일전쟁에 종군시켰다(<이시카와현 사진사(史)>). 또한, 가나자와시 바쿠로마치(博勞町)의 이마이(今井) 사진관은 '육군어용(御用)'(1937년 가나자와시 직업별 전화번호부)으로, 처형 시의 사진 세 장은 고이케 사진관이나 이마이 사진관의 사진 기사가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⑦ 1962년의 항공 사진



1962년의 항공사진을 보면, 나카오 산천의 하류 부분(북쪽)은 우거진 숲으로 덮여 있으나, 상류(남쪽)는 군데군데 회백색으로 찍혀있고 키가 작은 잡초지(조릿대)가 펼쳐져 있다. 1956년 지도에는 나카오 산천 주변은 활엽수, 침엽수, 잡초지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다.

⑧ 1956년 지도상의 처형지



따라서 군 보고문서, 사진, 요도, 지도 등을 검토해 보면, 1956년 지도상의 나카오 산천을 따라 '오쿠와마치(大桑町)'의 '쿠와(桑)' 자(字) 부근이 처형지이고, 1962년 항공 사진에서는 회백색으로 찍힌 곳이라 추정할 수 있다.

⑨ 2002년 지도상의 처형지

2002년 지도를 보면, 나카오 산천과 경비도로의 교차점과 1956년 지도상의 '쿠와(桑)' 자(字) 주변이 같은 위치이므로 교차점 근처가 처형지라고 추정할 수 있다.

⑩ 현지 조사

지도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미쓰코지 연습장(서북 골짜기)을 둘러보니 '경비도로'는 나카오 산천에 토관(土管)을 매설하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 만들어졌다. 나카오 산천과 교차하는 지점(암거 위)에서 남쪽(상류)을 보면 '기본사격장' 건설로 나카오 산천의 원류가 매립되긴 했지만, 기본사격장과 경비도로 사이는 습지처럼 되어있고 동서 양쪽으로 각각 수 미터 절벽이 남아있다.

나카오 산천과 '경비도로' 교차로에서 북쪽(하류)을 보면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로 내려가 보면 나카오 산천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방토(防土)가 설치되어 있다. 방토의 동쪽에는 수 미터 절벽이 있고, 서쪽에는 완만한 오르막 경사가 있다.

3. 결론

이상의 조사 및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윤봉길은 산등성이 위 도로의 동쪽을 흐르는 나카오 산천 상류에서 2002년 등고선 지도에 그려진 '경비도로'와 나카오 계곡의 교차점 부근에서 동쪽 절벽을 과녁으로 해서 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SBS 조사팀은 처형지를 [북위 36도 31분 31초 동경 136도 40분 17초]라고 발표했고 우리도 거의 같은 위치의 결론을 얻었으나 본격적인 재조사를 통해 더욱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윤봉길 의사 처형지 조사팀 보고서 (2010.12)> 요약

09 시신의 운반, 암장

1. 시신 운반

윤봉길은 7시 27분에 미쓰코지산에서 총살되었고, 7시 40분에 의관에 의해 사망이 확인되었다(김헌고비 제522호, ‘사체검안서’). 관은 처형장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 윤봉길의 시신은 피투성이 상태에서 명석에 싸인 채 노다야마 육군묘지로 이송되었다. 미쓰코지야마에서 노다야마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었는데, 차로 운반된 것일까, 산길을 들것 등으로 운반된 것일까?

처형 장소는 가나자와 오하라선 바로 옆에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윤봉길을 태운 군용 차량을 바로 옆에 세워두었으면 육군 묘지까지는 단시간에 운반할 수 있다. 경로를 검토해 보면 당시에는 아직 미쓰코지무라(村)에서 실천 윤리 회관으로 가는 차도가 없었으므로 남쪽으로 우회하는 루트는 생각할 수 없다 (이 도로가 생긴 것은 2차 세계대전 후).

차에 태워 처형장에서 노다무라(野田村)로 내려가 나가사카무라(長坂村)에서 다이조지(大乘寺) 옆을 지나 히라구리무라(平栗村) 방향으로 가다가 육군 묘지로 들어서면 가장 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

『처형의 전후』에는 처형장에서 육군 묘지까지 ‘들것으로 운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직선거리로는 고작 1킬로미터지만 산길은 구불구불해서 실제로는 그 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경사가 심한, 눈으로 질퍽거리는 산길을 들것으로 옮기려면 시간과 수고가 상당히 많이 든다(며칠 전 눈이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2. 암장



윤의사 암장터

미쓰코지야마에는 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신은 피투성이인 채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노다야마 육군 묘지로 옮겨져 시신을 깨끗이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피투성이인 옷을 입힌 채 관에 넣고 (발굴 당시 증언), 육군 묘지와 공동묘지의 경계 통로에 ‘깊이 6척(180센치)의 구멍’을 파 매장되었다(실제로는 1미터 정도일까). 관에 흙을 덮고 그 위에 신발과 형가(刑架: 처형 때 묶었던 십자가 모양의 사형틀)를 놓고 다시 흙을 덮고 밟아 땅을 다졌다. 그곳은 사람들이 오가는 통로로, 육군 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내려다볼 수 있었다.

오전 11시 기자회견에서 제9사단 군법회의는 ‘시체를 화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암장을 마친 후였다. 그 이유는 윤봉길의 시신(유골)이 조선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함이었다. 화장을 하면 시신이 작아져 빼앗기기 쉽지만, 1미터의 깊이에 매장을 하면 시신을 파내고 운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관리사무소에서 보이는 곳이라면 설령 매장 장소가 알려졌다고 해도 파내는 동안 연락을 하면 붙잡을 수 있다.

제9사단 군법회의는 ‘토장(土葬)은 발표 전에 완료되었고 묘지 장소는 극비’, ‘조선인 좌경분자(左傾分子) 또는 불령분자(不逞分子)의 행동에 관하여 헌병경찰이 밀접한 연대를 유지하며 엄중 시찰’ (헌고비 제1820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매장 장소는 상시 감시(엄중한 감시)가 가능한 곳이어야 했고, 육군 묘지 관리사무소에는 관리인이 상주하고 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그 창문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통로가 매장 장소로는 가장 적합했다.

22일에는 극비였던 ‘매장’ 정보가 새어 나와 ‘가나자와시 교외의 ○○○ 묘지 일부에 매장

했으나, 가나자와 헌병대는 현 특고과원(特高課員)과 협조하여 공산당 일당의 유골 탈취를 대비하여 대대적 경계'라고 『아사히신문』에 의해 폭로되었다. 그러나 당시 재일조선인들이 윤봉길의 시신이 노다야마에 묻힌 것을 알았더라도 틀림없이 곡괭이나 삽을 들고 노다야마에 접근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바로 근처에서 총살당하면서 윤봉길의 시신을 꺼안지도 못하는 울분은 얼마나 될까.

윤봉길이 1930년에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이라는 글을 남기고 고향을 떠나 무참히 총살당한 시신은 노다야마에 암장되었고, 시신은 사람들에게 짓밟혔으며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아직 13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10 유해 발굴



1946년 3월 2일, 조선연맹 이시카와현 본부 사무소에서 유해 발굴을 위한 회의가 열려 현청, 시청, 제9사단 사령부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 시작되었다. 매장 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관리사무소의 감시가 닿는 범위의 시영(市營) 묘지 내'라고 판단, 3월 4일부터 관리사무소 주변을 파헤쳤지만 이날도, 이튿날에도 윤봉길의 유해를 발견하지 못했다. 3월 6일 가쿠손인(覺尊院)(사진)의 야마모토(山本) 스님이 지시한 곳을 80센치 정도 파내자 '십자가'가, 그 다음으로 신발이 나오고 더 파내려 가자 관이 나타났다. (사진은 『윤봉길과 천장절 사건 시말기』 발췌)

관과 함께 드러난 '십자가'는 처형에 사용된 '형틀'인 것인가? '9사보 제520호'에 의하면, 군 당국은 미쓰코지야마에서 사용된 '형틀 세치각(三寸角), 길이 4척 5촌?'과는 별개로 풋대(세치각, 높이 3척), 나무 표식(2치 5분각, 높이 3척 5촌)을 만들어 처형 전날, 노다산 육군 묘지로 운반했다.

'형틀', 풋대', '나무 표식'의 길이는 각각 약 1.5m, 약 1m, 약 1.1m로, 발굴 직후 '십자가'를 둘러싸고 촬영한 기념사진을 보면, 이는 사람의 신장만 하여 미쓰코지야마에서 사용된 '형틀'의 길이(4척 5촌)에 가깝다.

11 4.29 상하이 폭탄 사건에 이르는 정세

1929년 세계 공황으로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1930년에는 전년 대비 수출은 32%, 수입은 30% 감소했고, 1931년에는 각각 23%, 22% 감소해 실업자가 300만 명에 달했다. (1932. 3. 20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コムニスト・インターナショナル)>)

일제는 이러한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중국 동북부(만주)의 자원과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전쟁(청일, 러일, 제1차)으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킨다는 비장의 칼을 뽑아들고 1931년 9월에 만주사변, 1932년 1월에는 제1차 상하이사변을 일으켰고 3월에는 '만주국'을 세웠다.

한편, 미국은 1929년 세계공황으로 국내 시장이 침체 축소되어 대외무역, 대외투자(특히 아시아를 상대로)를 통해 살아남으려 했다. 『이즈베스티야』의 칼 라데키는 '미국은 오늘날 국내 시장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나(支那)의 생산력 발달은 미국 경제적 발전의 결정적 요소이다', '미국은 현재, 지나에 2억 5천만 불(弗)을 투자하고 있다... 지나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지나의 분할에 반대하는 것... 지나의 문호 개방에 관한 미국의 요구는 미국의 자본으로 지나 시장을 보호...' (1932. 6)라고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중국 시장 진출에 맞서 일제가 선제적인 만주 사변, 상하이 사변을 통해 중국 동북부(만주)를 독립시켜 독자적 경제권(圈)으로 포섭했던 것이다. ('일본의 만주점령은... 지나에서의 미국의 경제 세력 발전을 기선 제압해' 칼 라데키)

즉, 일본의 중국 동북부(만주) 침략 (만주사변~제1차 상하이사변)은 중국 시장을 둘러싼 미·일(美日)간 쟁탈전으로 전개되었고, 아놀드 토인비는 '만주 혹은 그 밖의 지역에서 미·일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미국은 괌과 필리핀의 방비(防備)를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제 우리는 다음 세계 전쟁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그것은 서태평양에서의 해상전과 지나에서의 육상전으로,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는 미국의 편이 될 것이고, 영국은 중립을 유지할 것이다.' (1932. 5)라고 만주 사변·상하이 사변을 세계 전쟁의 서막이라 평가했다.

일본의 만주사변, 상하이사변, 만주국 독립, 특히 상하이 상륙에는 열강이 격렬하게 반응하며 일촉즉발의 정세를 맞이하고 있었다. 미국은 마닐라에 군함을 보냈고, 영국·프랑스(英佛)는 상하이에 해군을 파견해 일본에 정전(停戰)의 압박을 가했다. 일본은 상하이 전쟁 중단이나 미·영·불(美英佛)을 상대로 한 세계 전쟁이나의 정세를 맞이하자, 시게미쓰 마모루는 하루 종일 시라카와 군 사령관에게 정전을 설득해 군부 내 전쟁파(派)를 잠재웠다(『외교 회상록』). 상하이 폭탄 사건 직후인 5월 5일에는 정전 문서에 서명이 이루어졌으나, 만주 사변·상하이 사변 5년 후인 1937년의 중국침략전쟁, 10년 후인 1941년의 미·일 개전(開戰)으로 이어지는 15년 전쟁의 입구를 열고 말았다.



만보산 사건 배경 관개수로 (이통강)

1. 만보산 사건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1929년 세계공황으로 궁핍해진 조선인 농민은 중국 동북부(만주)로 이주, 입식(入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작지 등을 개척했다 (1936년에는 87만 명). 일본은 조선인 농민과 중국인 농민을 대립시켜 조선인을 중국(만주) 침략의 첨병(尖兵)으로 이용하려 했다.

1931년 7월 1~2일, 일본 경찰의 보호 아래 진행된 조선인 농민 수로 개설 문제로 중국인 농민 수백 명과 조선인 농민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났다(만보산 사건). 일본 측은

무장경찰을 출동시켜 중국인 농민을 배제하고 조선인 농민들에게 공사를 계속하도록 했다. 일제가 『조선일보』(호외)를 이용해 ‘만보산에서 충돌, 조선인 다수가 살해되었다’는 허위 보도를 내자, 3일에는 인천에서 중국인 습격사건이 일어나는 등 그 여파는 조선 각지로 퍼져 127명의 중국인 사망자가 나왔다. 이로 인해 상하이에서도 조선인에 대한 중국인들의 감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2. 만주사변

1931년 9월 18일, 관동군이 심양(瀋陽) 류타오거우(柳條湖) 부근에서 남(南)만주철도 노선을 폭파해 이를 중국 동북군 소행으로 꾸며 인근 중국군 병영(兵營)을 습격했다. 이로부터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일본군은 중국 동북부(만주)의 주요 도시와 철도 연선(沿線)을 점령했다(만주사변).

만보산 사건과 만주사변으로 상하이에서의 대일(對日) 감정은 급격히 악화해, 다양한 반일, 항일 운동과 일본 상품 보이콧이 확산되어 상하이의 일본 상품 수입액은 전년도의 10분의 1 정도까지 떨어졌다(요시미 요시아키(伊香俊哉) 저(著), 『만주사변에서 중일 전쟁으로』). ‘만주가 일본의 생명선인 것처럼 장강(長江) 무역은 일본의 영양선이다. …3만의 상하이 거류민을 못 본 체할 수 없다’ (무라마츠 쇼후(村松梢風))며 일본 군부에게 ‘거류민의 생명 재산, 권익 옹호’를 위한 상하이 출병의 구실을 주었다.

2010년 한반도 정세가 긴박한 가운데,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한국 측에 ‘납치 피해자를 포함해 자국민 구출을 위한 (북한으로의) 자위대 파견’을 타진했다. 현대의 동아시아 정세는 그야말로 1931~2년의 정세와 똑 닮지 않았는가.

3. 제1차 상하이 사변

1932년 1월 18일, 관동군과 주(駐)상하이영사관의 무관은 중국인을 매수해 상하이 마옥산로(馬玉山路) 길에서 포교활동 중인 일본인 승려 5명을 습격하게 해 3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습격 사건 후, 일본인 거류민의 보복 행동으로 중국 측에도 사상자가 나왔다.

1932년 1월 28일부터 시작된 제1차 상하이사변은 ‘거류 자국민의 생명 재산 및 우리의 권익 옹호’(일본정부 성명)를 위해 6,080명의 중국 민간인 사망자를 내고 120만 명의 피난민을 배출하는 침략전쟁 그 자체였다 (이코우 토시아(伊香 俊哉)).

제십구로군(十九路軍)이 응전(應戰)하자 일본군은 고전을 면치 못하였고, 2월 초에는 가나자와 제9사단 등 육군 부대가 파견되었고, 하순에는 2개 사단을 추가 투입해 영국의 중재를 받아 3월 3일에 전투가 중지되면서 드디어 정전 협상이 시작되었다. 오타 나오키(太田尚樹)가 ‘일본이 상하이에서 사건을 일으키면 조계(租界)에 막대한 권익을 지닌 영국, 미국, 프랑스 모두 영향을 면할 수 없게 되어…’ (『조르게 상하이로 잠입』)라 적혀있듯이 열강에게는 조속히 상하이 사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었고, 상하이 폭탄사건 발생 하루 전인 4월 28일에 막 정전안이 마무리되어 30일에는 국제연맹총회(제네바)에서 상하이사변 정전협정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었다.

12 4.29 상하이 폭탄 사건의 충격

이러한 중·일 관계 속에 윤봉길의 4.29 상하이 폭탄 사건이 발생했다. ‘한일강제병합’으로부터 20년, 3.1 독립만세운동으로부터 10년이 흘렀고³⁾, 잇따른 탄압으로 조선 국내에서의 민족 독립운동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독립운동은 국외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윤봉길도 국내 독립운동의 어려움에 직면하자 1930년 3월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이라는 글을 남기고 고향을 떠나 상하이로 향했다.

당시 중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총칭, 상하이, 시안, 우한 등), 조선 독립동맹·조선의용군(동곡(桐谷), 연안 등), 동북항일 연합군 내 조선인 유격부대(장백, 갑산, 보천보, 무산, 보로실로프⁴⁾, 하바롭스크 등) 등이 활동하고 있었다.

윤봉길은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안동으로 들어가 싸울 곳을 찾아 중국 동북부(만주)를 돌았다. 흥징(興京)에서는 조선혁명군 사령부를 방문해 양세봉 사령관을 만나 산스(山市)와 지린(吉林) 등을 돌아보며 몇몇 조선독립군 활동을 둘러본 후 상하이(칭다오)행을 결심했다. (<평전 윤봉길>)

1. 조선 인민에게 준 용기

1920년대 이후의 조선인 활동가에 의한 요인(要人) 등 습격사건을 들면, 사이토 조선 총독 암살 미수(1919년, 강우규),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1921년, 김익상), 종로 경찰서 폭탄 투척(1923년, 김상옥), 일본 황궁 폭탄 투척(1924년 2월, 김지섭), 동양척식회사·식산은행 폭탄 투척 사건(1927 나석주), 대만 의거(1928년, 조명하), 사쿠라다몬 일왕 폭탄 사건(1932년 1월, 이봉창), 상하이 천장절 폭탄 사건(1932년 4월, 윤봉길), 우가키(宇垣) 조선 총독 암살 미수(1932년 4월, 이덕주, 유진식), 만주철도회사 총재 암살 미수(1932년), 관동군 사령관 암살 미수(1932년 5월, 최흥식, 유상근), 아리요시(有吉) 중화공사 암살 미수(1933년 3월, 백정기, 이강훈 등), 상하이 신사 폭탄 투하 불발 사건(1934년 3월, 박창세), 상하이 폭탄 제조 중 폭발 사건(1936년 8월, 김순곤) 등이 있다. 윤봉길의 투쟁은 계획 면에서도 성과 면에서도 단연 거대하다. (<최근의 재지(在支) 불령 선인(일제가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 사람을 일컫던 말)들의 책동 상황>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 1941. 12)

4.29 상하이 폭탄 사건은 맞서 싸우는 조선 인민의 독립 의지를 거세게 북돋아 투쟁은 한층 더 강화되어 갔다. 1932년경부터 ‘일제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마지막 발버둥을 치던 시기에 중국과 중국 동북부(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①임시 정부 ②조선 독립동맹 ③조국 광복회 세 곳을 중심으로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그 휘하에 상당한 전투부대를 조직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영우 저, 『한국 사회의 역사』)하는 본격적인 항일무장투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1932년 윤봉길 항쟁의 영향으로, 그해 9월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신한독립당, 의열단, 대한인 독립단의 5개 단체가 ‘대일전선 통일동맹’을 조직했고, 1935년 7월에는 민족혁명당을 결성했다. 『외무성 경찰사』(1932년)는 ‘(한국 대일전선 통일동맹)의 성립으로 재중(在中) 조선인의 독립에 대한 열망, 항일에 대한 열망은 더욱 뜨거워졌고, 각 세력의 연합을 통해 그 역량은 증강(增強)한다.’고 보고했다.

3) 1910년 ‘한일강제병합’으로부터 1932년 상하이 의거까지는 22년, 1919년 3.1운동으로부터 상하이 의거까지는 실제로 12년 후다.

4) 현재 러시아 우수리스크 지역. 이 지역은 1935~57년까지 ‘보로실로프’라 불림.

내무성 경보국은 4.29 상하이 폭탄 사건 이후 중국 민관에서부터 항쟁하는 조선인 단체에게까지 조직적 투쟁이 집중되어 탄압하면 할수록 한·중이 일체화되어 간다고 한탄했고, 김구도 '중국인의 우리 한국인에 대한 감정은 윤봉길 의사의 희생 덕분에 많이 호전되었다'고 말했듯이 4.29 상하이 폭탄 사건으로 조선, 중국 인민 간의 투쟁 연대가 강화되었다. (<사회 운동 상황 6 1934년>, <백범 일지(김구 자서전)>, 『조선의 역사를 알 수 있는 100장(章)』, 『약진하는 한국의 역사 민간판(版)』)

이후 ①화남(華南)지방에서는 1940년, 임시 정부의 김구가 광복군을 창설해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4백명)와 합류했다. ②화북(華北) 지방에서는 1942년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하여 휘하에 5만 명의 조선의용군을 두고 중공군과 연합하여 항일전쟁에 참가했다. ③동북부(만주)에서는 1936년 조국광복회가 결성되어 동북항일연합군과 함께 '일제의 조선통치를 위협하는 가장 핵심 역량'을 지닌 부대로써 항일투쟁을 지속해 1945년 8월의 광복을 맞이했던 것이다.

2. 일본인(군)에게 가한 충격



상하이에는 당시 약 3만 명의 일본인이 살고 있었다. '4.29 전승 축하식'에는 많은 일본인이 참석해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서 본 윤봉길의 결기(決起)는 경천동지(驚天動地): 세상을 매우 놀라게 함의 사태였다. '(상하이 재류 일본인은) 전기에라도 감전된 것 같았다' (시게미쓰 마모루 『척각기』), '범인은 틀림없이 증오해야 하며, 마땅히 죽여 그 살점을 씹어 먹어도 시원치 않을 자' (시노부 준페이(信夫淳平)), '윤봉길의 폭탄 투척 사건은 상하이 사변 승리에 취해 있던 일본인에게 큰 충격' (지명관, 『한국 근현대사』) 등, 일본인 사회에 미친 충격의 크기를 말해주고 있다.

본래 육군 중심부에는 '이 기회에 중국군을 급박해서 큰 타격을 줄 것을 기대'(『일본 해군사』)하는 '정전 반대파'가 뿌리 깊게 존재해, 이 사건을 계기로 전쟁 지속론이 불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상하이 폭탄 사건은 정전 서명 직전이던 일제에 타격을 입혔고, 다시로(田代) 상하이 파견군 참모장은 '정전회의 따위 이제 날아갔다'

(4.30, 『도쿄니치니치신문』)며 전쟁 유지 의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군 수뇌부는 중국, 영국, 미국, 프랑스까지 이 4개국 공사에게 '정전회의의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다.

'군 수뇌부는 조용히 예의 주시' (5.1, 『도쿄니치니치신문』)라고 보도된 바와 같이, 참모본부 내의 전쟁 의지에 아라키 육군 대신도, 요시자와 외무 대신도 격렬히 동요했지만, 중상을 입은 시게미쓰 마모루로부터 '(만주 문제를 위해) 상하이 사건은 이 즈음 명예로운 종국(終局)을 고하는 것이 국가 미래 대응에 반드시 필요', '정전 협상을 성공시킬 결의'가 타전(打電)(4.30)되어 육·해·외무대신 회의는 '정전 협상을 진척시킬 방침'을 확인하고 5월 5일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일제는 4.29 사건, 1.8 사건(이봉창)을 매우 중시하여 재발을 경계하고 있다. 1932년의 반체제 운동을 분석한 <사회 운동 상황 4> (내무성 경보국)에서는 '이봉창을 국내로 비밀 파견, 도쿄로 잠입시켜 올해 1월 8일, 드디어 사쿠라다몬 불경(不敬)사건을 감행'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조선, 대만, 대련, 안동 현 등에 암살단원 유진식, 이덕주, 최흥식, 유상근에게 각각 권총, 폭탄 등을 휴대해 잠입시켜 주요 대신의 암살을 꾀함', '4월 29일 상하이에서... 윤봉길이 폭탄을 투척해'라고 보고했다.

내무성 경보국은 4.29 상하이 폭탄 사건을 상세히 보고했고 이듬해에도, 그 이듬해에도 반복해서 보고하며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 내에는 수십만의 재일조선인이 있으며 노동운동의 선두에서 싸우고 있어 재일조선인들이 이봉창이나 윤봉길과 같은 투쟁과 결부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3. 공산당

한편, 1931~2년의 제국주의 본국인 일본에서의 중국 침략 반대 투쟁은 매우 불충분한 상태였다. 4.29 상하이 폭탄 사건 직후인 1932년 노동절에는 '침략전쟁을 내란으로', '조선, 대만, 만주의 독립', '중국 영토에서 군대 철수', '중국 혁명 파괴하는 제국주의 전쟁 반대' 등의 슬로건을 내걸었으나, 노동자는 전년보다 적게 동원되어, 도쿄에서 1만 3천 명이였다 (5.2『도쿄 니치니치신문』).

제1차 상하이사변에 파병되었던 병사들도 침략전쟁에 '명령 거부'를 내렸다. 당시 『적기(赤旗)』는 상하이 신문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1932. 3. 22 『적기(赤旗)』]

일본 군대 내 동요, 상하이, 2월 21일

'지나(支那)지(紙) 『다완바오』는 상하이에 도착하는 일본 병사 중에 중국군과의 전투를 위해 최전선으로 나가기를 거부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보도했다. 1월 29일 2백 명 이상의 병사가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들은 무장해제되어 일본으로 송환되었다. 2월 12일 홍콩 지구에서 약 2, 3백 명의 병사들이 집회를 열려고 시도했다. 집회자들 사이에는 중국 병사를 상대로 한 전쟁을 거부하라, 중국 침략을 방해하라, 병사들 사이에서 이런 선동을 하라고 호소한 혁명적 병사 위원회가 서명한 선언이 배포되었다. 동지(同紙)는 그 후 추가로 6백 명 이상의 일본 병사가 다시 명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그 중 100여 명이 총살에 처해졌고, 나머지는 일본 국내로 송환되었다.'

당시 일본 공산당은 4.29 상하이 폭탄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적기(赤旗)』는 그저 '동지 김구를 지도자로 하는 상하이의 중국 혁명가들이 4월 29일 상하이 폭탄 사건을 준비' (축쇄판 7.5)라는 객관주의적 기재만 할 뿐이다. 윤봉길의 투쟁은 상하이 파견군에 실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어 '정전이나 지속 전쟁이나'가 중대 문제가 되었고 당일 즉시 호외가 발행되면서 다음날 상업신문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루었다. 그러자 아키다 우자쿠(秋田雨雀)는 일기에 '신문들이 어제의 일로 가득하다'(4.30)고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赤旗)』는 거의 사고를 멈춘 채 침묵하고 있다.

한편, 이봉창의 투쟁에 대해서는 '파시스트의 음모'(『적기(赤旗)』제62호)라고 비판하며 피를 토하는 조선 인민의 투쟁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그러나 공산당 내부에서 비판이 일어나자 반년 후에는 '사형 반대에 서서 즉각 석방을 요구하라'(9.20)며 총괄도 하지 못한 채 입장을 전환했다.

4.29 상하이 폭탄 사건은 오늘날로 따지면 '2001.9.11 911 테러 사건'과 맞먹는 충격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외국의 사건이 아닌, 자국의 군대(상하이 파견군)를 상대로 한 대대적인 사건(게다가 대성공했다!)으로, 일본의 노동자 인민이 배외주의의 큰 파도(범인은... 마땅히 죽여 그 살점을 씹어 먹어도 시원치 않을 자)에 휩쓸려 갔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1932년 일본 공산당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에 대한 러시아(자국)의 패배를 환영하던

레닌과 달리 이봉창이나 윤봉길의 투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국의 침략전쟁 패배를 바라는 것이야말로 공산주의자의 국제연대에 관한 기본 입장이며, 제국주의적 민족 배외주의와 결별하고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길이다.

상하이 폭탄 사건 때 일본 공산당은 윤봉길을 지지하는 것에서 절대 도망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으며, 오늘날의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와 독도(다케시마) 문제 역시 우리에게 엄중히 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

4. 일본 반제(反帝) 동맹

일본 반제 동맹은 조선, 대만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침략전쟁과 싸우는 중국 인민을 지지하고 활동했으나, <반제신문> 제14호(1932.1)는 천황에게 폭탄을 던진 진범은 파시스트다'라며 1.8 사쿠라다몬 일왕 폭탄 사건을 비판했다. 한편, 11월에는 오사카의 반제동맹이 윤봉길 사형에 반대하며 '조선이 낳은 반제국주의자 윤봉길 총살에 대한 반대 운동을 일으키자'는 전단을 배포했다.

반제동맹은 1933년 4월에 제2회 대회를 개최해 9월 '상하이 국제 반전(反戰) 대회 지지'를 표명했지만, 4.29 상하이 폭탄 사건도, 1.8 사쿠라다몬 일왕 폭탄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1년을 총괄했다. (일본 공산당도 상하이 반전 대회 지지를 표명했으나, 도중부터 '쁘띠 부르주아 평화주의'라 비판하며 대중적 반전운동에 분열을 초래했다)

5. 지성인

이 무렵의 여론은 '제1차 상하이사변의 일본인의 충의와 정의'를 노래한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의 '일본 국민 아침의 노래'(1932년)로 대표된다.

아아, 천황 치세(治世)의 능률함이며, 사람의 마음이 깨어있고 책임감에 불타는 세상,
'참' 하나에 힘쓰는 세상
공허한 논쟁의 소리를 끊고 타협, 나약한 꿈을 깨네
정도(正道)로 가는 길을 알고 백가지 고난에 돌격하네
나는 한 명의 병사
그러나 파괴 의지를 품을 때는 철조망에 뛰어들어 실로 그 몸을 가루가 되게 하네
나는 한 명의 소좌(少佐)
그러나 적의 한심함에 안주하지 않고
꽃보다 맑게 그 몸을 휘날려 무사의 명예를 살리고
그 뿐 아니라 동심(同心)의 열사들 우리 황군의 갈 곳, 남북으로 분기(奮起)하리
이것은 그저 하나의 예 우리 후방의 국민도
각자 힘쓸 업(業)을 위해 자신의 용기를 몇 곱절 키우네
무인(武人)이 아닌 국민도 굳센 마음에 피흘려 목숨 이어가며
조금씩 국가에 임하는 건 매한가지
가령 우리의 이 노래도 파괴 의지를 품고 철조망으로 달려가 던지는 마음을 통해
무력한 여자들도 이처럼 뛰어난 조부의 미풍을 계승하는 국민
아아 천황 치세의 능률함이며 사람의 마음이 깨어있고 책임감에 불타는 세상,
'참' 하나에 힘쓰는 세상이며.

만주사변(1931년)~제1차 상하이사변(1932년) 무렵에는 아직 1937년 노구교 사건 때와 비교해 많은 노동조합, 지식인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1933년 상하이 국제 반전(反戰) 대회를 위해 '극동 평화의 빛 모임'이 결성되었고, 그 창립 멤버으로는 미즈노 히로노리(水野広徳), 데라다 시로(寺田四郎), 하세가와 노제칸(長谷川如是閑), 도쿠다 슈세이(徳田秋声), 후지모리

세이키치(藤森成吉), 후세 타츠지(布施辰治), 도사카 준(戸坂潤), 아키타 우자쿠(秋田雨雀), 이시하라 준(石原純), 가미츠카사 쇼켄(上司小剣), 아소 히사시(麻生久), 가토 칸쥬(加藤勘十), 노가미 야에코(野上弥生子), 이치카와 후사에(市川房枝), 가네코 시게루(金子シゲリ)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일본 반제 동맹사)’

참여 단체는 도쿄시 종업원조합, 전노동일회의, 해방문화동맹, 일본노농(勞農) 구원회, 관소 연맹, 조선 동흥노동조합, 총평, 도쿄 교통노동조합, 간토 영화종업원조합, 소비에트 벗 모임, 후카가와 소개소(紹介所) 향상(向上)회, 무산자(無産者) 의료동맹, 강동(江東) 일반사용인조합, 순노동자 조합연맹, 신흥 불교 청년동맹, 배주동맹, 자유 법조단, 사대당 청년부 유지(有志), 학예 자유 동맹 등이 있다. (‘사회운동의 상황 1933년’)

이처럼 지식인, 노동조합이 만주사변에서 시작된 중국 침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당시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었고, 잇따라 발매 금지 처분을 받아 (1932년이 정점으로 연간 250권 정도) 이들 진보적 지식인이나 노동조합 중 4.29 상하이 폭탄 사건에 대해 언급한 지식인은 거의 없었다. 아키타 우자쿠가 ‘신문들이 어제의 일로 가득하다’ (『우자쿠 일기』), ‘이 사건(4.29 상하이 폭탄 사건)은 양심적인 일본 민중에게 깊은 반성과 생각할 기회를 주었다’ (『우자쿠 자서전』)고 겨우 언급했을 뿐이다.

진보적 지식인들이 4.29 상하이 폭탄 사건을 언급하려 하지 않는 것은 국가권력의 강압도 물론이거니와, 일본 공산당이나 일본 반제동맹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다. 즉, 1.8 사쿠라다몬 일왕 폭탄 사건에 대해 공산당과 일본 반제동맹은 ‘파시스트의 음모’ (『적기』1932. 1. 22)로 단죄했다가 그 후 내부 비판을 받고 ‘조선민족에 대한 민족적 편견과 학대, 야만적인 식민지 억압이야말로 이봉창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하게 했다’고 궤도를 수정했으나, 분명 ‘애나키스트’, ‘민족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어 조선 인민의 목숨 건 독립운동을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다.

6. 법조계

일본적색구원회는 ‘계급투쟁의 모든 희생자와 그 가족을 정당정파의 구별 없이 구원할 목적’으로 결성되었는데, <구원 신문> (1932. 1. 23)에는 이봉창의 투쟁에 대해 ‘사쿠라다몬 사건의 이봉창 살해’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었으나, 윤봉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듯하다 (내무성 경보국편 <사회운동의 상황 1932년>).

노농(勞農)변호단 (후세 타츠지 등)은 ‘해방운동 희생자 구원 변호단은… 모든 계급적 정치범의 즉시 석방 요구를 위한 결사적 투쟁을 다짐(1932.9.4)’이라는 입장으로 변호 활동을 했다. 특히 후세 타츠지는 조선인 치안유지법 사건 등에 적극 힘썼으나, 이봉창 (우자와 후사아(鵜沢聡明), 야마구치 사타마사(山口貞昌)가 변호)이나 윤봉길의 변호활동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

법률학자 시노부 준페이(信夫淳平)가 당시부터 ‘영사재판 시행지역에서 제국신민에 의해 행해진 심상치 않은 모살죄이므로 재(在) 상하이 제국 총영사에서 예심을 한 후 나가사키 지방 법원 관할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윤봉길을 군법회의에서 재판하는 것은 불법이며 나가사키 지방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농 변호단도 마땅히 관심을 가졌어야 한다.

7. 전세계의 충격

4.29 윤봉길의 결기는 열강 제국 주의자들에게도 강렬한 타격을 주었다. 시게미쓰 마모루는 『적각기』에 ‘(총영사 관저에 모여 있던 외국인 관계자) 일동의 놀라움은 엄청났다. …이것은 제2의 사라예보 사건이라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 ‘제네바 군축회의에 모여 있던 각국 정치가들도 다음 날 있을 정전 결의를 앞두고 일어난 4.29 상하이 폭탄 사건에 경악해 곧바로 세계

전쟁을 연상한 이들도 있었다’, ‘영·미·불·이 4개국 공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선후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썼다.

영·미·불은 상하이(중국)에 막대한 권익을 가지고 있었다. 열강은 일본의 폭주를 잠재워 어떻게든 상하이사변(중일전쟁)의 정전까지 이끌어냈는데, 윤봉길의 투쟁으로 이것이 수포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일본 군부가 정전 조정을 거부하고 군사 침공을 재개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일본군은 3월 1일에는 만주국을 만들어 당장의 목적을 달성했고, 정전 서명을 앞두고 주요 병력은 이미 이동해 중국 동북부(만주)로 이전했다. 시게미쓰 마모루는 다음 날인 30일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정전 협정은 이대로 성공시켜야 함. 국가의 미래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라고 타전(打電)해, ‘한때 세계를 뒤덮었던 혼란의 구름도 이내 걷히고, 협상은 급속도로 타결을 향해 나아갔다’고 기록했다.

세계 언론들도 다양한 논평을 하고 있지만 대체로 만주사변에서 상하이사변에 이르는 일본의 중국 침략을 비판하면서 자국의 권익 확보를 위해 조속한 정전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파견군 간부를 쓰러뜨린 4.29 상하이 폭탄 사건은 그야말로 아시아 정세를 격변시킨 중대 사건으로, 정전 협상이 취소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라도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하며 전 세계가 진땀을 흘렸던 일이다.



★ 『이브닝 포스트』: ‘일본이 만주에서 행한 방식으로는 극동의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지 않은가, (조선인, 중국인이) 군국주의자와 같은 무기(암살)를 써도 놀랍지 않다, ‘일본의 병탄에 격렬하게 반발하는 조선인의 의지가 아직 강하게 남아 있다는 사실, 잊고 있던 사실을 수면 위로 올렸다. 조선은 완전히 동화된 게 아니었던 것이다.’

★ 『런던 타임스』: ‘(4.29 상하이 폭탄 사건은) 현재의 중일 관계를 결렬시키려고 계획된 도발 사건이다, ‘상하이의 상황은 램슨 경(卿)의 타개책으로 호전될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 순간,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폭탄 투척자의 의도가 정전협정의 서명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실패했다.’

★ 『딜리 헤럴드』: ‘일본이 점령군을 철수하고 중국에서의 분쟁을 국제연맹의 중재에 맡기지 않는 한 극동에 평화는 오지 않을 것’

★ 『상하이 이브닝 포스트』: ‘(4.29 상하이 폭탄 사건에 대해) 일본의 군무관헌 등은 흥변(凶變)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그 요란했던 어제의 관병식은 지나인의 현재 사상에 비추어 보면, 확실히 도발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관병식 거행은 외국인에게 지대한 걱정을 끼쳤다. ...결국에는 최근 교전의 영향에서 겨우 회복되어 가는 지역에 더욱 불안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텐진 타임스』: ‘일본이 기존의 태도를 급변시켜 상하이 평화를 위해 행했던 일본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지 않을까 불안’

13 현대에서 바라본 윤봉길

1. 김경석(金景錫) 씨

2000년 7월 14일, 제1차 후지코시(不二越)소송 원고단은 윤봉길 암장지를 방문해 윤봉길에게 ‘승리 화해’를 보고했다. 김경석 원고 단장 등은 순백의 한복 차림으로 헌사(獻詞) ‘이 땅을 논하지 않고는 애국을 논하지 말지어다’를 낭독했다. 헌사에는 김경철 씨 본인이 일본 강관(鋼



후지코시 소송 원고단

管)에 강제 연행되어 민족이 받았던 고난에 대한 일제를 향한 분노가 가득했다.

강제 연행 · 강제노동 · 군 위안부 정책 등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제와의 싸움이 미완(未完)이라는 것은 조선 인민의 공통된 인식이다. 김경석 씨는 1932년에 총살된 윤봉길의 시공을 초월한 동지이자, 그 유지(遺志)를 현대에 계승해 전후 보상 요구 투쟁을 ‘제2의 독립운동’으로 삼고 끝까지 싸웠다.

‘이 땅을 논하지 않고는 애국을 논하지 말지이다.’

지은이 김경석

해 뜨는 조선국의 정의를 만방에 보여주셨습니다/
대한 남자의 의기를 소생시켜
이 적지(敵地)에서 총렬히 전사 순국하신 열사의 영위좌정을 기원하며
조국의 딸들이 영전에 왔습니다/
의사께서는 부디 나라의 앞길을 봐 주십시오/
민족의 번영은 자손인 우리에게 맡기시고 잠드소서/
고국산천을 품에 안고 영원한 길을 걸으시며
의사는 분명 국가와 민족의 행복을 바라셨겠지요/
우리는 영원히 의사의 뜻을 품에 안고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영전 앞에서 저희가 의사의 위업에 보답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여성들은 임무를 다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부디 편안히 영면하소서/

서기 2000년 7월 14일 대한민국 태평양유족회 회장 김경석 대독 후지코시 백년 소송단 일동

2. 이토 마사토시(翫正敏) 씨

매헌윤봉길의사현양회 회장인 이토 마사토시 씨는 ‘암장지를 보존하는 의의’에 대해,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침략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한다. 윤봉길 상하이 폭탄 사건이 단순한 형법 범죄가 아닌,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어 이토 씨는 ‘왜 일본인이 윤봉길을 알리는가’에 대해 언급하며 한일 관계의 재구축을 위해서는 일본의 조선 식민지 정책의 잘못을 인정, 사죄하고 원상복구하고 보상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후 66년이 지난 지금도 조선인 강제 연행 · 강제 노동, 군 위안부 정책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암장지를 보존하는 의의’

과거 일본은 한국 · 조선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이하 아태) 지역을 침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희생을 강요받았던 아태지역 사람들은 식민지 지배와 침

략의 역사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침략자였던 일본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거의 언급하지 않은 채,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의 반성 없이 역사를 전해왔습니다. 그 결과, 전쟁의 정확한 역사를 모르는 전후 세대가 그대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오늘날의 상황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한국 독립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윤봉길이 가나자와의 땅에서 처형되고 매장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은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저 자신도 윤봉길의 이름도 몰랐고, 하물며 가나자와에서 처형당했고 이 노다야마 묘지에 아무런 표식도 없이 사람들이 짓밟는 길 아래에 13년이나 묻혀 있었다는 사실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공부하지 않았던 전후 세대인 일본인으로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사실을 배우고 자손에게 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생략)

또한 일본인이 한국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려면 20세기의 역사에 대한 공통된 역사 관점에 서야 합니다. 식민지 시절, 일본은 한국인에게 일본의 말과 종교와 이름을 강요했는데, 이는 서양의 식민지 정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민족 말살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각종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전 세계에 공표함으로써 전후 일본이 다시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일본인이 한국인과 화해하고 우호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독립전쟁 전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3. 나고시 후타라노스케(名越二荒之助) 씨

이시카와 호국 신사 (혼다노모리(本田の森) 공원)에 세워진 '대동아(大東亞) 성전(聖戰) 대비(大碑)'에 이름을 올린 나고시 후타라노스케 씨는 『한일 공명(共鳴) 이천년사』에서 만주사변, 상하이사변의 침략성을 따지지도 않고, 상하이사변은 중국의 기습으로 시작되었다고 역사를 위조한 뒤, 윤봉길의 투쟁의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 윤봉길은 국사범(國事犯, 정치범)이기 때문에 암장하여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정치범을 고즈카타라(小塚原) 형장에 묻어 유족에게 넘기지 않는 것은 메이지 초기 무렵까지이고, 2.26 사건으로 처형된 17구의 시신은 고향으로 인도되었으므로 '윤봉길은 정치범이기 때문에 시신을 암장해 유족에게 넘기지 않는 건 당연'하다는 나고시 씨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위배된다.

또한 나고시 씨는 판결부터 처형까지의 상황 묘사를 소설 『처형의 전후』(大戸宏 저)에서 인용해, 판사가 '명예로운 총살형이 마땅하다'고 했다, 윤봉길이 '정면에서 날아온 정식 총살에 감사했다'라는 등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처형의 전후』의 기재 내용은 검증이 필요)

게다가 '무사의 자비'로 '명예로운 총살형'에 처해주었다는 등 거만한 태도로 처형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육군 형법 제21조에 '사형은 총살'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무사의 자비로 총살'이라는 정서론은 역사서가 아닌, 소설에 실어야 할 것이다.

나고시 씨는 80년 전의 만주사변, 상하이사변이 침략전쟁이며, 4.29 상하이 폭탄 사건이 식민지 조선 인민의 일제 타도를 위한 정당한 투쟁임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야마노 유키(山野之義) 씨

가나자와 시장 야마노 유키 씨는 '역사의 방관자가 되지 않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윤봉길을 '편협한 민족주의', '반일 사상으로 푹푹 멍쳐있다'라며 '비판'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조선인민에게 '식민지 지배하에 민족 독립을 바라지 않고 일본과 싸워서 안 된다'고 설교하며 식민지 지배를 강압하는 것과 같은 태도이다.

야마노 씨는 상하이 폭탄 사건을 일반적인 형법 범죄처럼 다루고 있지만, 그 전제가 된 조선 식민지 지배, 만주사변, 상하이사변(침략) 과의 관계로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 야마노 씨는 80

년 전 상하이 거류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 감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야마노 씨는 '(상하이 폭탄 사건은) 중일 관계, 국제정세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는 너무나도 얕은 역사관이 아닐까. 당시 식민지 지배하에서 조선인들은 중국 각지로 망명해 수만 명 규모의 한국 독립군을 결성해 일제 군대와 대치하며 전투를 벌이며 일제의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협하고 있었다.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무장 조직인 한인애국단이 있었는데, 윤봉길은 그 일원으로서 흥커우 공원에서 투쟁을 일으킨 것이다.

1931년부터 시작된 아시아 태평양 침략전쟁은 중국 인민, 조선 인민의 투쟁이 일제를 몰아붙여 1945년 8월 15일을 맞이한 것으로, 당시의 중국 인민, 조선 인민과 일제의 관계를 무시하고 윤봉길을 일반적인 형법범으로 취급하려는 야마노 씨가 과연 한일 우호, 중일 우호의 가나자와 시정(市政)을 이끌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14 상하이 폭탄사건과 윤봉길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



가나자와 암장지적비

100년 전인 1910년 8월 29일, 한국을 병합하고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불과 몇 년 후인 1870년대부터 대만, 조선을 군사 침략하기 시작했고, 그 후 일본의 근현대사는 식민지 지배와 아태 지역에 대한 침략전쟁의 역사를 걸어왔다. 우리는 바로 우리 일본이 강행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직시하고 이를 성실히 총괄해야 한다.

최근 일본의 전쟁 도발과 배외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나포(拿捕)하고 선장을 체포하며 "국익"이라는 이름하에 중국에 대한 배외주의가 일본 전역을 뒤덮었다. 재특회(在特會,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는 조선 학교를 습격하고 조선 고등학교의 수업료 무상화 정책에 이의를 제창하며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배외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가나자와에서는 대동아성전대비호특회(大東亞聖戰大碑護特會) 회장으로 다모가미(田母神) 전 항공막료장(공군 참모총장격)이 취임하고 부비(副碑)를 세우며 과거 침략전쟁을 찬미·미화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위성' 발사를 계기로 자위대는 오키나와 전역으로 출동해 PAC3를 배치하고 요격 태세를 취했다.



가나자와 윤봉길의사 순국기념비

1932년 제1차 상하이 사변은 '장강(長江) 무역은 일본의 영양원이다...3만 상하이 거류민을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배외주의 선동에서 비롯되었다. 윤봉길은 4.29 전승 축하장에서 중국 침략전쟁에 썩기를 박았는데 이에 대해 '범인은 ...중요해야 하며, 마땅히 죽여 그 살점을 씹어

먹어도 시원치 않을 자'라며 배외주의를 부추겼다. 이렇게 쓴 노부오 준페이(信夫純平)는 '군법회의에 의한 사적 제재(사형)는 불법으로, 범인은 영사관으로 넘겨 나가사키 지방법원에서 심리

해야 한다.’고 호소할 정도의 냉정한 법학자였지만, 그 역시 배외주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한편, 반전운동을 조직했던 일본 공산당은 이봉창의 1.8 사쿠라다몬 폭탄 사건을 ‘파시스트의 음모’라 주장했고, 4.29 상하이 폭탄 사건에는 침묵으로 응했다.

오늘날 일본 경제의 위기 현상 (동일본 대지진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을 침략과 전쟁으로 극복하려는 듯하다. 다오위다오 · 독도 등의 영토 문제, 조선 고등학교의 수업료 무상화 문제, 한·미·일의 북한 군사 포위 문제 등 배외주의 선동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상하이 폭탄 사건과 윤봉길의 투쟁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2012년 4월 12일 기(記)

부록 Ⅱ 자료집

부록 Ⅰ 원자료

(3) 신문발표 戶外(1932/5/6)

11
 上條議員事務所にて... 會意は協議の上... 失せり
 一本... 地...
 ...
 ...
 ...

...
 ...
 ...
 ...

(4) <다시로 간이치로(田代統一郎) 일지 2> 부분 (1932/5/17,18)

Handwritten diary entries in Japanese, dated 1932/5/17 and 18. The text is written in vertical columns from right to left. The entries describe daily activities and observ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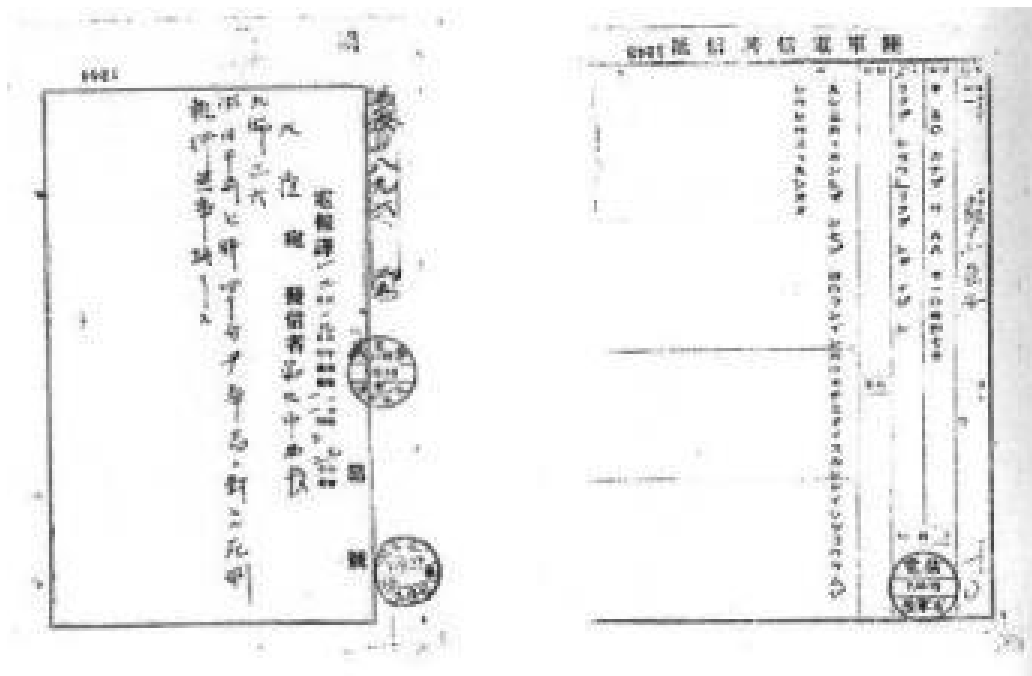
(5) <판결서> (1932/5/25)

A printed court judgment document in Japanese, dated 1932/5/25. The document contains formal text and a central seal. The text is arranged in vertical columns, typical of traditional Japanese legal docu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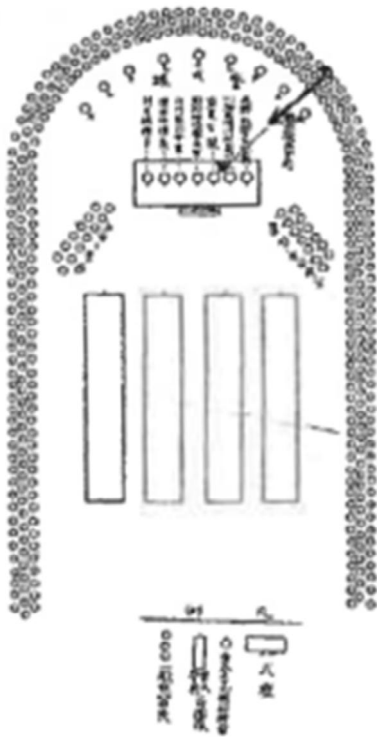
(6) 형집행명령서 (1932/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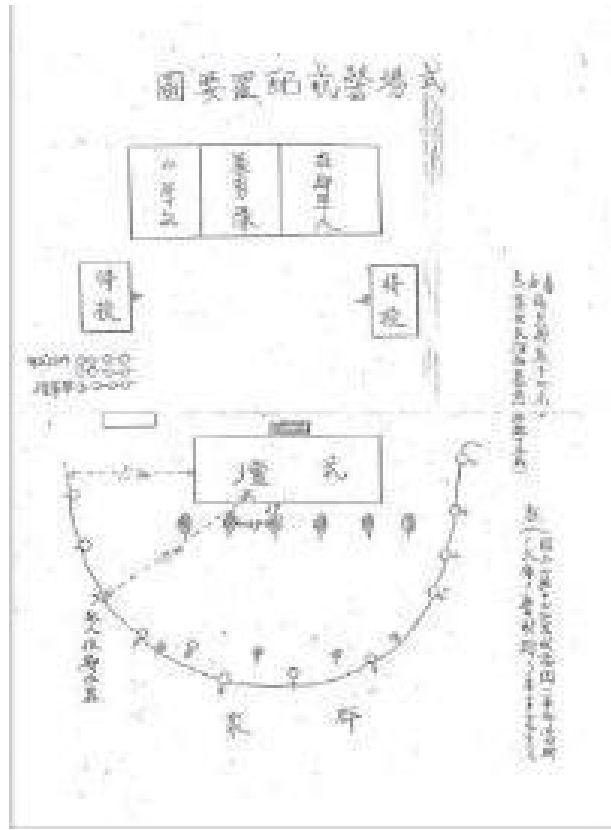
(7) 전보 (1932/12/19 사형 무사 종료)



(8) 당일 경계 배치도 2종류



가나자와와현 문서 식장배치도



일본육해군성 문서
「상하이홍커우공원에서의 폭탄투척하건 관련
상하이총영사보고」
(1932.5.3.)

(9) 윤봉길 사형집행 전말보고 (1932/12/21) (만밀대일기)



ノ中其一小隊ハ解散シテ十九名ノ差生ヲ少安第七隊隊長ニ命ズルト共ニ檢察官ヲシテ警戒等ニ関シ合澤憲兵隊長ト連繫セシム等飛軒ニ関シ細部ノ諒解ヲ為サレム

刑場確定地ヲ合澤陸軍作業場ト決定シ隊ノ幕僚及檢察官等トシテ之ヲ警査セシム犯人ノ射手立會者入場許可者等ハ位置等ニ對シ概要圖第一ノ如ク選定セラルリ

刑場ハ別紙附圖第一ノ如ク石川縣石川郡内田村軍營中地内合澤陸軍作業場西北方面ナリ公衆ノ危險及ク又交通妨害並東方ノ斷崖ハ高ク物々米突アリテ

射撃ニ適シ刑場ニ最モ適當ナレ地トス

六月十八日午後五時憲兵覆道ニ下ニ同囚人當拘禁所ニ到着收禁ス後ヲ所附送官陸軍一等隊警備川吉雄ハ犯人ノ健康診斷ヲ行ヒシニ身心共ニ良好ナリ

四月十九日午前六時三十分少安第七隊隊員ヨリ差生ニシテ少安小隊ハ刑場ニ到着少安哨ヲ配置シ所署ノ警戒等ニ任ズ少安憲兵ハ別紙附圖第一ノ如シ

五檢察官兼憲兵推本一區大尉及拘禁所附陸軍一等隊警備川吉雄陸軍總務主任大佐等ハ同日午前七時十五分此處刑場ノ設備ナリ

六同日午前七時十五分犯人ハ角守長及看守等ニ名義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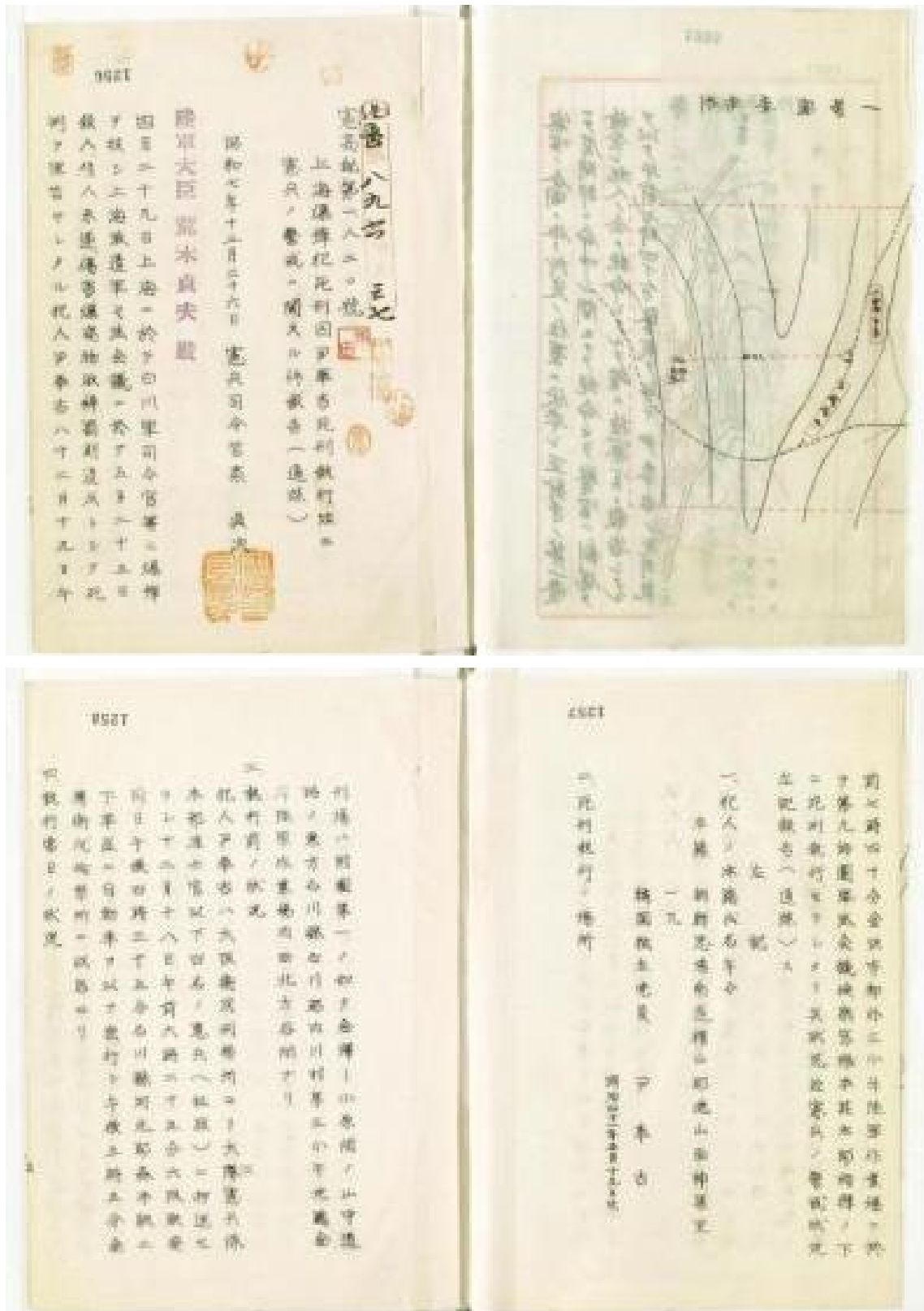
ニ名義出シ下ニ刑場ニ到着シテ是ヲ以テ檢察官トシテ警備等ニ便察診斷ヲ行ハシメ犯人ノ身心共ニ良好ナリ犯人尹奉吉ニ對シ本年五月二十五日上海警備憲兵連隊本部ニ於テ殺人日本軍傷害罪狀物取押前別圖及別紙第一番ヨリ方獲ナリ死刑ノ執行ヲ為シ目々物々街道古ノ所然ヲ犯スルニ死刑ノ豫メ處置ナリ此處ニ歸リ何等言フヘキコトヲ自ラ申スナリ同日限ヲ為シ刑場前ニ送ル犯人ヲ正度メシメ看守アリ身體面等ヲ別紙附圖第一番ニ對シ同日七時三十分射手ニ對シ命ズ

七射手並制ニ名義出シ下ニ射手ヲ選定シ犯人ノ自決ニ便察

審官ハ合圖ニ對シ所定ノ位置ニ收容シ正射手ノ第一番ヲ肩掛ル命ズレ間ニテ絶命セリ警備官ハ別圖ニ檢査シ犯人ノ身心絶命シテ之ヲ檢察官ニ報告シテ以テ午前七時三十分警戒ヲ解キ尹奉吉ノ死刑執行ハ茲ニ終了セリ

八遺體ハ死刑執行後引續キ之ヲ淨ノ納棺トシ合澤方面野田山陸軍墓地ニ埋葬シ合澤方面同墓地ノ際ニ埋葬シ同日七時三十分全部終了セリ

(10) 헌병의 경계에 관한 건 보고 (1932/12/26)





(11) 형장 요도(要圖) (제1, 제2)



(12) 처형지 침부 사진 (전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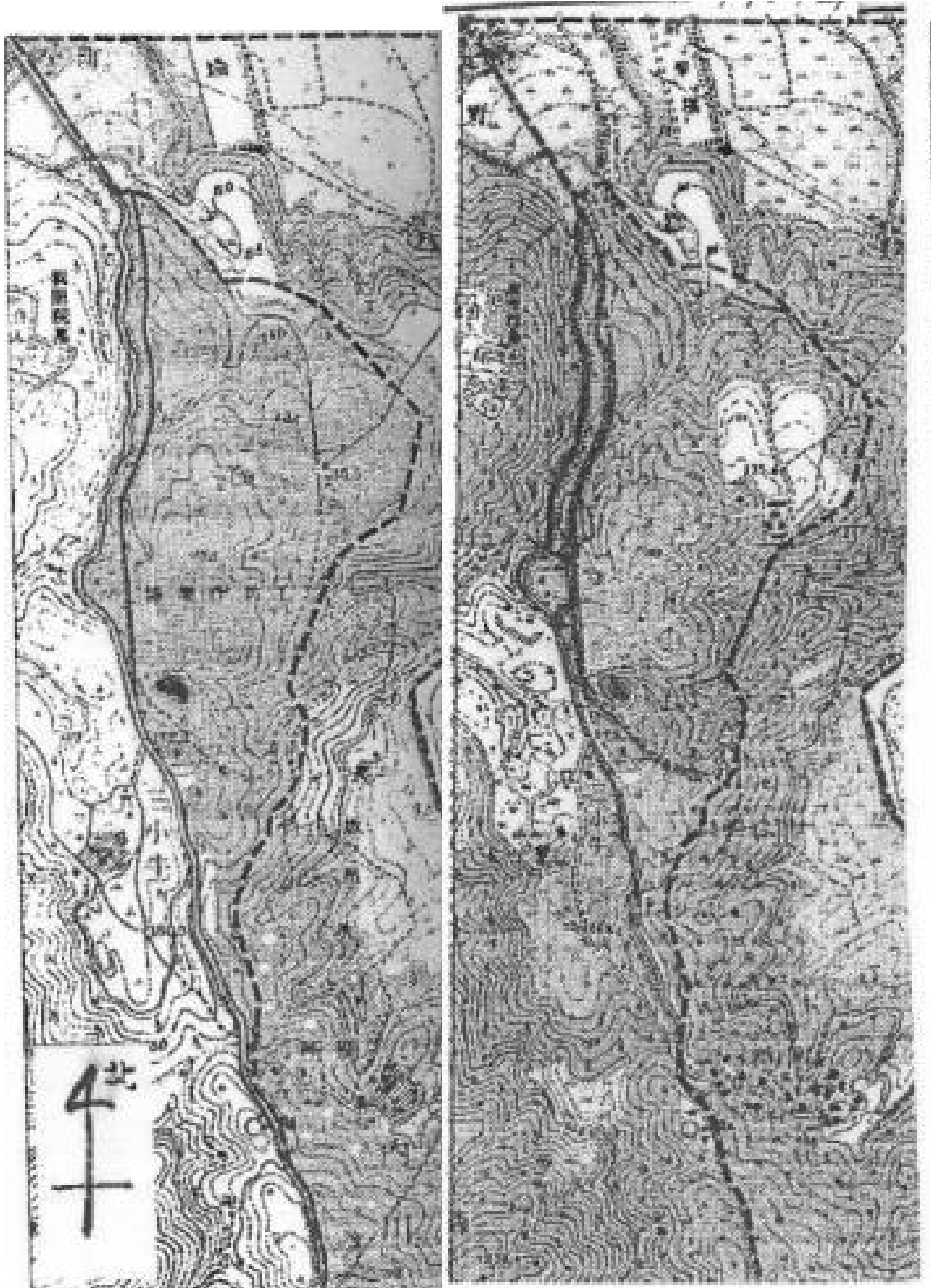
(12) 처형지 침부 사진 (처형 전)



(12) 처형지 침부 사진 (처형 후)



(13) 1909, 1930년 등고선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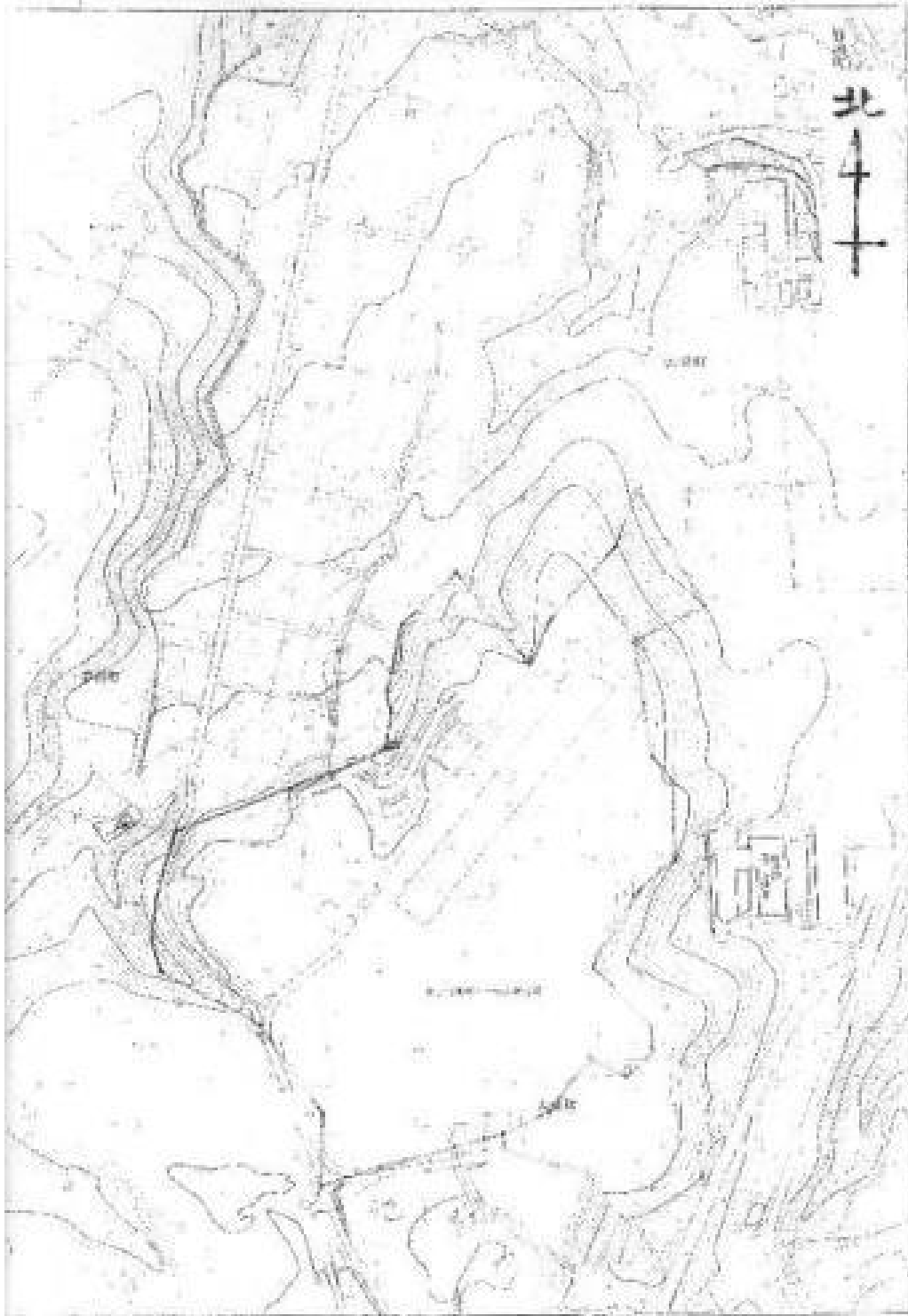
(14) 1956년 등고선 지도 (3000분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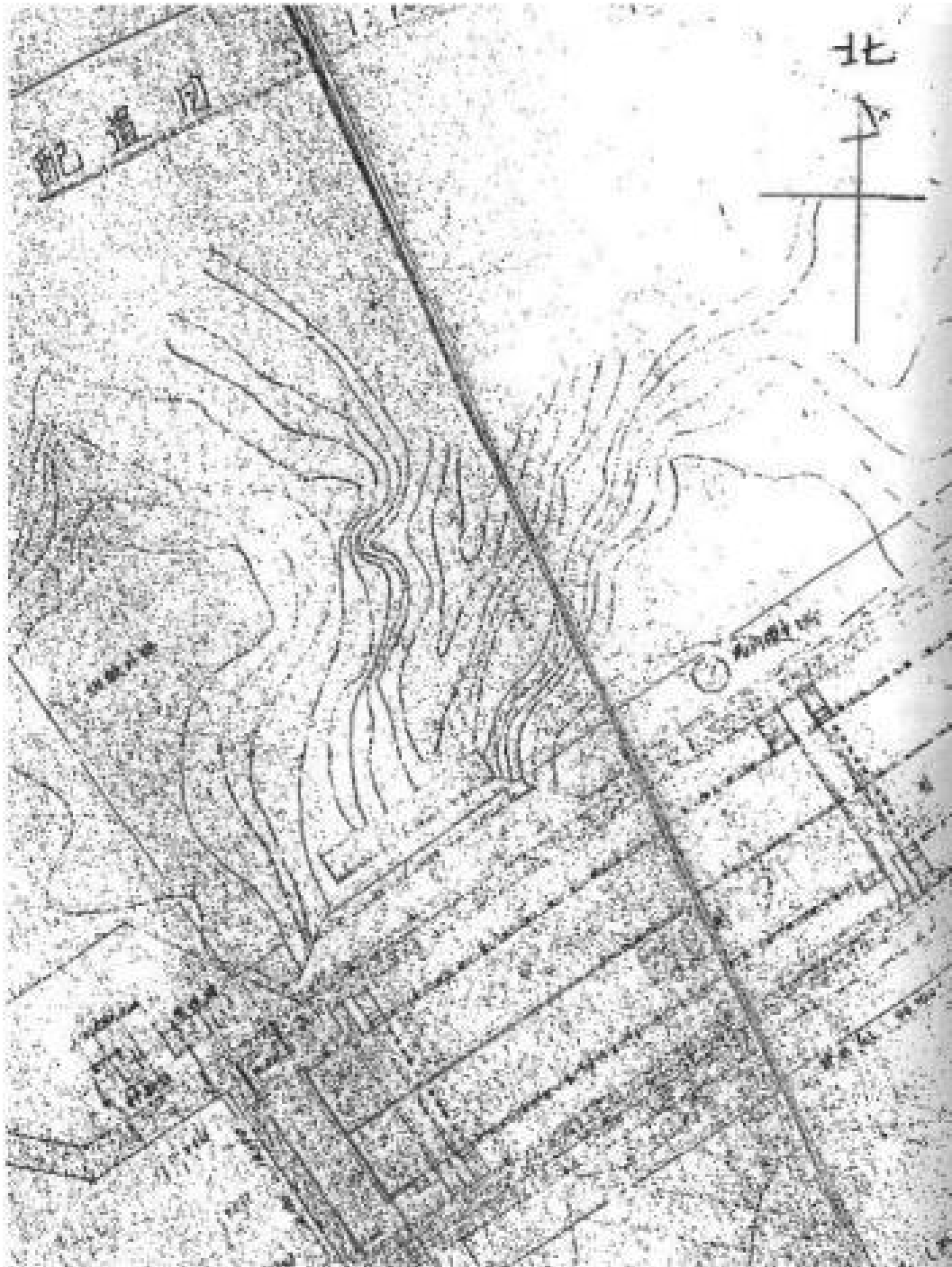
(15) 1962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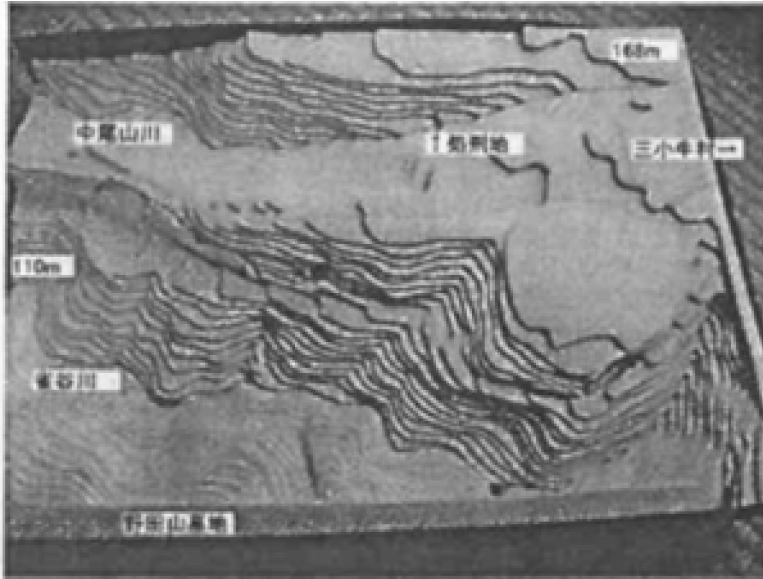
(16) 2002년 등고선 지도 (2500분의 1)



(17) 1974년 공사용 도면(1000분의 1)



(18) 미쓰코지야마 서북 골짜기 입체 모형 1956년 등고선 지도 기준, 등고선은 2m



(18) 미쓰코지야마 서북 골짜기 입체 모형 2002년 등고선지도 기준, 등고선은 2m



<偏執註>

「아시력」은 「아시아와 역사센터」의 준말이다.

밑줄친 부분은 편집자에 의한 것이다.

●로 표시된 부분은 판독 불가능한 문자이다. …는 생략부분이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호칭인 「鮮人」 중국인에 대한 모멸적 호칭 「支那」가 다수 표현되었으나, 역사적 문서이기에 그대로 기재했다.

윤봉길 관련 문서 자료 리스트

2012. 3. 31 작성

| | 1932년 | 문서의 내용 |
|----|-----------|--|
| 1 | 4/29, 30 | 전보 (상하이파견군-참모본부) (<태평양전쟁에의 길>) |
| 2 | 4/29, 30 | <<진중일지>> 제1차 상하이 사변의 제9사단 군의부 |
| 3 | 4/29 | <신문발표 제563호>(육군성착전(着電)) |
| 4 | 4/29 | <피고인신문조서>(외무성경찰사) |
| 5 | 4/30 | <제2회피고인신문조서>(외무성경찰사) |
| 6 | 4/30 | <신문기사금지에 관한 건> |
| 7 | 4/30 | <<이브닝포스트>><<상하이전쟁과 국제법>>수록 |
| 8 | 4~5월 | <<동경일일신문>>(4/29사건보도) |
| 9 | 5/3 | <상하이홍커우공원 사건의 진상>(외무성경찰사) |
| 10 | 5/4 | 전보 <<텐진타임스>> 사설 |
| 11 | 5/6 | <신문발표호외> |
| 12 | 5/7, 14 | <<차이나 위클리 리뷰>> 영어판 (<암장지 가나자와>) |
| 13 | 5/9, 10 | <홍커우공원폭탄사건의 진상> (김구) |
| 14 | 4~5월 | <<상하이출정일지2>> (다시로 칸이치로 참모총장) |
| 15 | 5/18 | <상하이 파견군의 내지귀환에 관한 건> |
| 16 | 5/25 | <윤봉길판결서> |
| 17 | 5/26 | <근대세계외교문제해설>(아시다 히토시 집필) |
| 18 | 5/27 | <<동경일일신문>> (시라카와 대장 사망) |
| 19 | 5/19~ | 전보(시라카와 군사령관 중태~사망) |
| 20 | 5/31 | 전보(상하이 파견군 철퇴 완료) |
| 21 | 6월 | <전상사(戰傷死)로 판단하는 이유> |
| 22 | 6월 | <폭탄투척사건의 개요> (외사경찰보119 내무성경보국) |
| 23 | 6/7, 13 | <호놀룰루 영사관 기록> |
| 24 | 6/8 | <김구 일당의 동정과 체포 계획에 관한 건> |
| 25 | 7/5 | <<적기(赤旗)>> 1932년 1/21, 3/2, 7/5, 9/20 (縮刷版(축쇄판)) |
| 26 | 7월 | <<상하이의 윤봉길 폭탄사건 전말>> 내무정보안과 |
| 27 | 9/8 | <외사(外事)정보> (陸軍密滿(육군만밀) 제896-34) |
| 28 | 9월 | <<상하이전쟁과 국제법>> (노부오 준페이 信夫淳平 저 1932.9.18.) 462p~ |
| 29 | 10/11 | <윤봉길청취서><<외무성경찰사>> |
| 30 | 10/19 | 윤봉길의 약력 및 유서 <<외무성경찰사>> |
| 31 | 4~12월 | <<외무성경찰사>> (1932년 4월~12월) |
| 32 | 11/18 | 전보 (윤봉길 호송) <<외무성경찰사>> |
| 33 | 11/19, 20 | <<오사카아사히>><<오사카마이니치>><<키타쿠니신문>> (상하이부터 오사카로) |

| | | |
|----|-----------|--|
| 34 | 11/21 | <<오사카아사히>><<오사카마이니치신문>>(상하이부터 오사카로) |
| 35 | 11/22 | <<키타쿠니신문>>(오사카위수형무소에 수용) |
| 36 | 12/2 | <<오사카아사히신문>>(상하이에서 범인체포) |
| 37 | 12/2,4 | <<키타쿠니신문>> (가나자와에 호송할 것인가 회의) |
| 38 | 12/9,10 | <<오사카마이니치신문>><<오사카아사히신문>>(윤봉길 취조) |
| 39 | 12/14 | <윤봉길 처형집행의 건(처형명령)> (육군만밀 제896-33) |
| 40 | 12/15 | <소송기록 반환의 건> (육군만밀 제896-33) |
| 41 | 12/17 | <구사단 출동명령> (구사단 제 521 <검찰비록 2/26 사건 2>) |
| 42 | 12/17 | <전달통보(구사단 520~524)><처형의 전후後先> |
| 43 | 12/19 | 전보 <사형집행무사완료> (육군만밀 제896-35) |
| 44 | 12/19 | <사형집행시말서> (<검찰비록 2/26 사건 2>) |
| 45 | 12/19 | <사체검안서> (<검찰비록2/26사건 2>) |
| 46 | 12/19 | 기자발표문(처형의 전후) |
| 47 | 12/19 | 윤봉길 사형집행의 건 통첩(金憲高祕제517호) |
| 48 | 12/20 | <<키타쿠니신문>> 석간 (처형집도) |
| 49 | 12/20,21 | <<북육매일신문>> 석간 (처형보도) |
| 50 | 12/21 | <사형집행전말보고>(육군만밀제896-36 구사단 기밀 20호) |
| 51 | 12/22 | <윤봉길사형집행건보고의 통첩> |
| 52 | 12/22 | <<아사히신문>> (처형 후 보도) |
| 53 | 12/26 | <경계에 관한 보고> (육군만밀 제896-37 憲高祕1820) |
| | 연도 | 문서의 내용 |
| 54 | 1897년 | <제9사단 미쓰고지 작업장 매수의 건> |
| 55 | 1932년 | <<중앙공론>> 11월호 (시게미쓰 마모루 <폭탄조난 보다 사변을 말하다>) |
| 56 | 1932년 | <거류조선인의 운동>(<<사회운동의 상황 4>>) |
| 57 | 1933년 | <<대장 시라카와>> (사쿠라이 타다요시 저) 638p~ |
| 58 | 1933년 | <<쇼와7년 상하이사변지>> 상하이거류민단 73p~ |
| 59 | 1933년 | <<가와바타 테이지 전>> 상하이거류민단 73p~ |
| 60 | 1934년 | <상하이 거주 조선인의 불온책동상황> (<<사회운동의 상황 6>>) |
| 61 | 1937년 | <<척각기(隻脚記)>> (시게미쓰 아쓰무 저) (시게미쓰 마모루 <<외교회상록>>) 139p~ |
| 62 | 1939년 | <<일본헌병 쇼와史 (타시로 칸이치로 강연록)>> (헌병사령부) |
| 63 | 1940년 | <경찰총서 제4집> (나라현 경찰부 271p~) |
| 64 | 1941년 | <최근에 있어서 중국 거주 불령선인의 책동상황> (내무성보안과) |
| 65 | 1947년 | <<백범일지(김구자서전)>> 263p~ |
| 66 | 1950년 | <<외교관의 일생>> (이시이 타오루 저) 308p~ |
| 67 | 1953년 | <<어느 혁명가의 회상>> (카와이 테이키사 저) 141p |
| 68 | 1953년 | <<아키타 우자쿠 일기>> (280p) <<우자쿠 자전自傳>> (180p) (아키타 우자쿠 저) |

| | | |
|-----|--------|--|
| 69 | 1953년 | <<태평양전쟁 전사前史 제1권>> (아오키 토쿠조 저) 308p~ |
| 70 | 1956년 | <<헌병비록秘錄>> (쓰노다 츠시치로, 마쓰쇼보 출판사) 178p~ |
| 71 | 1963년 | <<쓰지 마사노부>> (스기모리 히사히데) 57p~ |
| 72 | 1965년 | <<제9사단전사戰史>> 115p |
| 73 | 1967년 | <<소설 조선총독부>> (유주현 저) 473p~ |
| 74 | 1971년 | <<우치카와의 향토사>> 277p |
| 75 | 1974년 | <<항일독립운동사>> (이강훈 저) 170p~ |
| 76 | 1976년 | <<일본헌병정사>> (전국헌우회연합회) 223p |
| 77 | 1976년 | <<조선독립운동암살사>> (모리카와 테츠로) 251p~ |
| 78 | 1988년 | <<일본대전쟁 만주건국과 상하이사변>> (하라 야스시 저) 160p~ |
| 79 | 1990년 | <<고고한 외무수상 시게미쓰 마모루>> (토요다 쇼 저) 108p~ |
| 80 | 1990년 | <<처형의 전후>>(오오토 코우 저) |
| 81 | 1992년 | <<윤봉길과 천장절 사건 시말始末>>(넬뛰기통신편집회의) |
| 82 | 1992년 | <<도록 윤봉길의사>> (한글판) |
| 83 | 1992년 | <<윤봉길 암장지 가나자와에서>>(야마구치 타카시 저) |
| 84 | 1992년 | <<비운의 대사 노무라 기치사부로>> (토요타 쇼) 246p~ |
| 85 | 1995년 | <<일본해운사 제2권 통사 제4편>> (해군역사보존회 편) |
| 86 | 1996년~ | <<하라카라 통신>> (1~8호) |
| 87 | 1998년 | <<4월 29일의 윤봉길>> (야마구치 타카시 저) |
| 88 | 2000년 | <이 땅을 논하지 않고 애국을 논하지 말지어다> (김경양) |
| 89 | 2002년 | <<일한공명이천년사>> (나고시 후타라노스케) 377p~ |
| 90 | 2003년 | <암장지를 보존하는 의의> (이토우 마사토시) |
| 91 | 2003년 | <의사 유적정비의 경위> (박인조) |
| 92 | 2003년 | <순국의 의사, 윤봉길의 최후> (오오토 코우) <<アクタス>> |
| 93 | 2003년 | 묘표가 없는 묘 (와타리노 쿠미) |
| 94 | 2004년 | <천장절 폭탄사건의 그것> (키쿠치 레이조) |
| 95 | 2004년 | <역사의 방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야마노 유키요시) |
| 96 | 2007년 | <<붉은 첩보원>> (오오타 나오키 저) 143p |
| 97 | 2008년 | <<일본반제동맹사연구>> (이노우에 마나부 저) |
| 98 | 2008년 | <SBS 스페셜 윤봉길 의사는 이렇게 살해됐다> (6월 방영) |
| 99 | 2009년 | <<평전윤봉길>> (김학준 저) |
| 100 | 2010년 | <<기적의 의사 (頓宮寛)>> (미나미호리 에이지 저) 186p~ |
| 101 | 2010년 | <<윤봉길의사 처형지의 조사보고>> (처형지조사팀) |
| 102 | 2010년 | <<히라이시 요이치 현대사극선집 2권 (뜨거움)>> (스즈사와 서점) |
| 103 | 2011년 | <가나가와현 공문서관 전시해설> |
| 104 | 불명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27권 한인애국단) |
| 105 | 불명 | <이시카와현과 제1차 상하이사변> (논문) |
| 106 | 불명 | 윤봉길처형 時의 기상보도(국립천문대, 기상청) |

1) 1932년 4월 29~30일 전보 : 만주사변작전지도관계철 (방위연구소도서관)

<태평양전쟁으로의 길> 수록 (가나자와시립다마가와도서관)

<전보: 상하이 파견군 참모장 발신, 참모총장 수신>

1932년 4월 29일 오후 1시 40분 발신

상하이군참 제539호

군 사령관은 전신에 소(小) 파편 부상, 우에다 사단장은 좌측 다리에 부상이나, 둘 다 중상 아닌 건강함.

<전보: 상하이 파견군 참모장 발신, 참모총장 수신>

1932년 4월 29일 오후 1시 45분 발신

상하이군참 제538호

금일 29일 오전 11시 30분 신공원에서 관병식 종료 후 축하행사에서 단상 위에 있던 군 사령관, 장관, 공사 등에게 그쪽에 있던 관중 집단 속에서 폭탄을 점화 후 투척해 헌병 장교가 범인을 붙잡았으나, 폭약은 순식간에 터져 시라카와, 우에다, 노무라, 시게미쓰, 무라이, 가와바타(민국 행정원장) 총 6명이 부상.

<전보: 상하이 파견군 참모장 발신, 참모차장 수신>

1932년 4월 29일 오후 1시 49분 발신

상하이군참 제536호

축하 회장에서 기미가요 제창 중 시라카와 군 사령관, 우에다 사령관, 시게미쓰 공사, 노무라 총영사 등이 폭민(暴民)의 폭탄으로 인해 부상. 상제는 추후 전보. 관동, 북경, 텐진, 조선, 대만, 지나, 한구(漢口), 하얼빈.

<전보: 상하이 파견군 참모장 발신, 참모차장 수신>

4월 29일 오후 1시 50분 발신

상하이군참 제 542호

노무라 해군 중장은 안면 및 양손에 부상을 입고 다소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으로 예상. 시게미쓰 공사는 파편으로 다리 부상을 입었으나 다소 경상임.

<전보: 상하이 파견군 참모장 발신, 참모차장 수신>

1932년 4월 29일 오후 3시 15분 발신

상하이군참 제545호

시라카와 군 사령관 관자놀이부 출혈 멈춤. 소(小)파편 전신에 박혀 수술로 모두 제거함. 의식이 명료하고 건강하여 대화에 지장 없음. 3~6주 내에 치료될 전망.

<전보: 상하이 파견군 참모장 발신, 참모차장 수신>

4월 29일 오후 6시 7분 발신

상하이군참 제550호

우에다 중장은 왼발 발바닥 중앙 앞부분 절단. 치료에 1개월 소요될 것. 향후 의족이 필요할

뜻하지만 보행에는 지장 없을 것으로 보임. 왼손 부상은 오보였음. 전(前) 전보 외 위병 2명 부상, 군 및 사단 막료(幕僚) 중에는 부상자 없음.

<전보: 참모차장 발신, 상하이 파견군 참모장 수신>

4월 30일 오후 3시 50분 발신

이번 폭탄 사건 발생에 구애받지 않고 정전 교섭은 기정(既定, 이미 정함)과 같이 즉결 방침에 따라 처리하는데 힘쓸 것.

폭탄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또는 군이 필요로 하는 행동을 취하고, 정전 교섭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미리 관계 우방국에게 양해를 구해둘 필요 있음.

<전보 신문 발표 제563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상하이 4월 29일 발신, 육군성 수신

시라카와 대장 용태

1. 군 사령관 시라카와 대장은 즉시 병참병원에 입원했는데 안면과 사지에 골막에 이르는 깊은 상처가 있으나 중하지 않음.
출혈이 적고 건강해짐. 완치까지 약 4주가 소요될 전망. 오후 6시 체온 36.5도, 맥박 86, 경과 양호함.

우에다 중장의 용태

2. 사단장 우에다 중장도 병참 병원에 입원했으나 왼발 끝부분 열상(裂傷), 오른쪽 발등, 상박(上膊), 왼쪽 흉부에 부상 입음. 오후 2시 20분에 왼발 발바닥 중앙 앞부분 절단 수술을 함. 향후 의족 사용이 필요하더라도 보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완치까지 6주 소요될 전망. 오후 6시 체온 37.7도, 맥박 78, 건강함.

군사령부 위병 부상

3. 군 사령부 위병 2명 동시 부상. 한 명은 좌측 안검, 다른 한 명은 우측 안면에 부상 입었으나 모두 경상임.

<전보: 시게미쓰 공사 발신, 요시자와 외무대신 수신> ('외무성경찰사(史)')

4월 29일 상하이 흥커우 공원의 관병식 후 관민합동 축하 회의 국가 합창이 끝날 무렵, 공사, 무라이 총영사, 군 사령관, 사단장, 함대 사령장관이 기립해 있는 식장에 폭탄을 투척한 자 있어 전원 부상. 공사 및 사단장 부상이 가장 심각하나, 생명에는 지장 없는 모양.

- (1) 본 사령관의 부상은 폭탄으로 인해 양 다리에 다수의 열상을 입었고, 뼈에는 이상 없어 우려할 필요 없으며 복민 병원에 입원 중.
- (2) 시게미쓰 수술 결과, 우측 다리 복사뼈 위 골절을 발견, 상당한 부상 입어 1.2개월 뒤 완쾌될 예정. 수술 결과, 폭탄 파편 수 개를 제거함.
- (3) ...중략...

2) 1932년 4월 29, 30일 『진중일지』 제1차 상하이사변 제9사단 군의부 15년 전승 극비자료집 보권 5 가나자와시립다마가와도서관

4월 29일 상하이

- 천장절 오전 9시부터 신공원에서 관병식 거행해 오전 11시경 종료
- 오전 11시 30분경부터 민관 합동 축하 식전을 동일 장소에서 개최, 육해군 장교들 상당수가 일렬로 기립. 식은 가와바타 위원장(거류민단 행정 위원장)의 식순에 따라 시작된 후 무라이 회장(총영사)의 축사에 이어 일동의 기미가요 합창이 끝날 무렵, 돌연 큰 폭음과 함께 단상에 있던 시라카와 군 사령관, 노무라 제3함대 사령관, 우에다 사단장, 시게미쓰 공사, 무라이 총영사, 가와바타 행정 위원장 및 서기장 모두 부상을 입고 대혼란에 빠져 식이 중단되는 상황에 이룸. 범인인 선인(鮮人)을 현장에서 즉시 체포했고 흥행(凶行)의 동기는 불 명확하나, 아마 사상적 배경을 가진 자일 것임.
부상자는 즉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군 사령관 우에다 사단장은 위생(衛生) 부원(部員)의 호송을 받아 차로 병점 병원으로 이송. 부상 상황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 시라카와 군 사령관: 두부 안면 구간부터 사지에 이르는 콩 또는 좁쌀 만한 얇은 폭탄 파편에 왼쪽 볼 상처가 가장 심해 상당한 출혈을 동반함.
- 우에다 사단장: 왼발 끝부분 열상(裂傷), 오른쪽 발등 좌상(挫傷), 그 외 좌측 흉부, 견갑부, 상박(上膊), 양쪽 대퇴 전면 등에 수십 개의 콩 혹은 좁쌀 만한 폭탄 파편 부상 있음. 왼발 끝부분 부상이 가장 심각해 절단 필요.
- 노무라 사령장관: 좌안 폭창 외 전신에 위와 같은 폭탄 파편 부상.
- 시게미쓰 공사: 우측 하퇴(下腿)부 복합 골절 외 위와 같은 폭탄 파편 부상.
- 무라이 총영사: 위와 비슷한 폭탄 파편 부상.
- 가와바타 위원장: 폭탄 파편으로 인한 흉복부 부상 가장 심각해 중증.
- 서기장: 경상.
- 그 외 재외 거류민, 육 해 장병 중 부상자 소수 있으나 경상임.

시라카와 군 사령관, 우에다 사단장은 입원 직후 수술실로 이동해 처치 받음. 사단장은 왼발 절단했으나 수술 경과 매우 양호.

- 군 명령으로 위생대 사나다(真田) 이등 군의(軍醫), 제4야전 병원의 미즈노(水野) 삼등 군의가 금일부로 병점 병원 근무를 명받음.
 - 제1야전 병원 일등 군의를 육전대 의무실로 파견, 노무라 사령장관의 병증을 진찰. 군의부장은 군(軍) 군의부장과 동행하여 노무라 사령장관, 시게미쓰 공사 문병.
- ...생략...

4월 30일 상하이

- ...생략...
 - 오후 7시 이사카(猪坂) 군의가 병참 병원에 도착해 사단장의 증상을 살핌. 오후 7시 용태는 체온 37.4도, 맥박 80 정도, 가벼운 환부의 동통(疼痛) 호소, 식사는 양호.
- ...생략...

3) 1932년 4월 29, 30일 <신문발표>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신문 발표 제562호 4월 29일

4월 29일 오후 1시 40분 상하이군 사령부 발신

육군성 수신

시라카와 군 사령관은 작은 파편 때문에 전신에 부상을 입었고, 우에다 사단장은 왼쪽 다리 부상 입었으나, 모두 중상 아닌 건강.

신문발표 제563호 4월 30일

상하이 4월 29일 발신, 육군성 수신

시라카와 대장 용태

1. 군 사령관 시라카와 대장은 즉시 병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안면 사지 골막에 이르는 깊은 상처 있으나 심하지 않음. 출혈 적고 건강함. 완치까지 약 4주 소요될 전망. 오후 6시 체온 36.5도, 맥박 86, 경과 양호함.

우에다 중장 용태

2. 사단장 우에다 중장도 병참 병원에 입원하였고 왼발 끝부분 열상, 오른발, 등, 좌측 상박, 좌측 흉부에 부상 입음. 오후 2시 20분 왼발 발바닥 중앙 앞부분 절단 수술을 함. 향후 의족 사용이 필요하나 보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임. 완치까지 6주 소요될 전망. 오후 6시 체온 37.6도, 맥박 78로 건강함.

군 사령부 위병 부상

3. 군 사령부 위병 두 명 동시에 부상 입음. 한 명은 좌측 안검, 다른 한 명은 우측 안면에 부상입었으나 모두 경상임.

4) 1932년 4월 29일 <피고인 신문조서> (외무성 경찰사(史)) 시가현립도서관

피고인 신문조서

1932년 4월 29일 육군헌병대위 大石正幸은 상하이 제1헌병분대에서 피고인을 신문한 바 다음과 같다.

[문] 본적, 현주소, 직업, 성명, 연령은 어떻게 되나.

[답] 본적은 朝鮮 忠淸南道 禮山郡 德山面 柿梁里 139

현주소는 상하이 佛租界 貝勒路 東方公寓 30호

성명은 尹奉吉

연령은 25세

직업은 현재 무직

[문] 네가 오늘 新公園에서 수류탄을 던진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말하라.

[답] 나는 오늘 오전 7시 50분경 수류탄 2개 중 수통형 1개를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으로 걸고 도시락형의 것을 오른손에 들고 新公園 정문에서 중국인 문지기에게 일본인이라 칭하고 공원 안으로 들어가 식대 부근에 이르러 투척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11시 40분경 도시락형의 것은 발밑에 놓고 수통형의 것을 어깨에서 벗겨 오른손에 쥐고 왼손으로 끈을 잡아당기면서 앞 사람을 헤치고 2미터가량 전진하여 호위병의 뒤쪽에서 식대의 중앙 시라카와대장을 겨냥하고 투척하였다. 그때 나는 그 결과를 볼 여유도 없이 부근의 여러 사람에게 잡혔다.

[문] 그 수류탄은 어디서 입수했느냐.

[답] 조선인 李春山으로부터 27일 오후 7시경 전기 주소에서 수통형 1개, 도시락형 1개 모두 2개를 받았다.

[문] 그 李春山과 너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답] 李春山도 나도 韓國獨立黨員이다. 나는 1930년 조선에서 靑島로 가서 일본인 中原세탁점에서 1년 취직하고 있다가 다음해 4월 3일 그곳을 출발하여 상하이에 왔다. 중국 鬃品公司(馬毛로 夏帽을 만드는 공장)에 취직하였다. 동년 7월 李春山과는 四海路和 馬浪路의 교차점에 있는 찻집에서 처음으로 만나 아는 사이가 되었다. 이때 李春山이 어떤 목적으로 상하이에 왔느냐고 묻기에 조선독립운동의 본부가 상하이에 있다고 들었으므로 왔다고 대답한 즉, 李는 자기도 독립당원이라고 말하고 나에게 입당을 권유하므로 나는 자진하여 李의 소개로 독립당에 입당하였다. 그 후는 전기 찻집에서 매월 2회 내지 3회 李와 조선독립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문] 李의 현주소, 성명, 연령, 직업, 인상, 복장 등은 어떻게 되나.

[답] 李는 현주소, 직업 등을 나에게 전혀 밝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서로 주소, 직업을 알면 곧 영사관 등에 잡힐까 우려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고로 기타의 일도 자세히 말하지 않고 다만 성명만 李春山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연령은 35, 6세가량이라고 생각한다.

신장은 5척 7, 8촌 가량의 중간 키에 두발은 3, 4촌 가량 기르고 앞을 7, 3으로 갈라 빗고 있고 눈, 코, 입은 보통, 직업은 무직인 것 같았다.

따로 특징 등은 모른다. 복장은 양복일 때도 있고 중국복일 때도 있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모른다.

[문] 본 사건을 계획한 시기와 동기는 어떠한가.

[답] 지금부터 20일 가량 전에 전기 찻집에서 협의하였다. 그 동기는 조선이 일본에 병탄되어 있는 것은 우리들이 참기 어려운 고통이라 독립을 도모하려고 결행하였다.

[문] 이번 계획에 대해서는 언제 실행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느냐.

[답] 天長節날 결행하려고 생각하고 칙유 50주년기념식 때 그 위치 등을 연구해 두었다.

[문] 천장절날 시라카와대장이 온다는 것은 어떻게 하여 알았느냐.

[답] 일본어신문(신문명 불상)에 의해 천장절날 新公園에서 관병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문] 시라카와대장과 우에다장군의 얼굴은 어떻게 알았느냐.

[답] 신문 기타에서 대충 알고 있었으나 吳淞路 부근의 사진점에서 시라카와대장과 우에다중장 등의 사진을 사서 확인하였다.

[문]李로부터 수류탄을 받기 이전에 아무 것도 받지 않았느냐.

[답] 지금으로부터 10일 가량 전에 李로부터 전기 찻집에서 중국은 200弗(大洋)을 5원 지폐 40매로 받았다.

[문] 그것은 어떤 의미의 돈인가.

[답] 그것은 본 사건의 준비비와 나의 유흥비로 받았다. 그 이전에는 아무 것도 받지 않았다.

[문] 그 돈은 지금 가지고 있느냐.

[답] 그 후 「오바」구두를 사고 기타 음식 값으로 사용하고 지금 5弗 가량 가지고 있다.

[문] 그 후 李와 만나지 않았느냐.

[답] 전날 정오경 조계 八仙橋 大世界 이웃 中國基督教青年會에서 술을 마시면서 오늘 거사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때 李는 오늘 안으로 회장에 가서 여러 가지 연구해 두라고 말한 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문] 그 후 너는 무엇을 했느냐.

[답] 전날 오후 2시경 공원에 가서 오후 5시경까지 현지를 여러 가지로 조사하였다.

[문] 그때 어떠한 일을 조사했느냐.

[답] 식장의 위치와 그 주위에 모일 사람들의 종류를 팻말에 의해 알았다. 그리고 다음날은 식대 뒤의 일반 관중에 끼어 결행하려고 결심하였다.

[문] 그 후 너는 무엇을 했느냐.

[답] 전날 밤 8시경 전기 여관에서 李와 만났다.

[문] 그때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느냐.

[답] 수류탄의 사용법을 배웠다. 그때 실지조사를 한 상황을 말해 두었다.

[문] 수류탄의 사용법은 어떻게 배웠느냐.

[답] 李는 끈을 당기고 나면 약 4초 후에 폭발하니 끈을 세게 당기고 곧 세게 던지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끈을 당기는 방법을 실지로 조금 당기며 가르쳐 주었다.

[문] 李는 수류탄을 어디서 구했는지 묻지 않았는가.

[답] 그거야 물었지만 李는 일체 말하지 않았다.

[문] 오늘 李는 만나지 않았는가.

[답] 일체 만나지 않았다.

[문] 기타 말할 것은 없느냐.

[답] 아무 것도 없다.

위 문답을 녹취하고 읽어 들렸던 바, 사실과 틀림없음을 말했으나 도장이 없으므로 무인케 하였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파견군헌병대

육군사법경찰관 육군헌병대위 大石正幸

5) 1932년 4월 30일 <제2회 피고인 신문조서> (외무성 경찰사(史)) 시가헌립도서관

1932년 4월 30일 육군헌병대위 大石正幸은 상하이파견군헌병대본부에서 제2회 피고인을 신문한바 다음과 같다.

[문] 전에 네가 말한 수통형과 도시락형의 수류탄은 어떠한 구조의 것인지 상세히 말하라.

[답] 수통형 수류탄이란 별지 요도와 같은 것이다. 도시락형은 사건현장에 유기하였으므로 잘 알 줄 생각한
다(목하 조사 연구를 위해 병기장에 회송 중).

[문] 시리카와대장과 우에다장군을 살해하면 조선독립이 된다고 생각했는가.

[답]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황색인이면서 지금 일본이 세력이 있다고 해서 조선을
병탄하고 또 지금 내가 있는 상하이까지도 병탄하고 있으므로 얼마만큼은 의사가 통할 것이라 생각하
고 했다.

[문] 그러면 너는 일본군이 상하이로 출정한 이유를 알고 있었느냐.

[답] 그것은 모른다.

[문] 아무튼 어느 것이 정당한지의 판별도 없이 단지 일본이 상하이까지 병탄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이러한
행위를 한 너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답] 그 선악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말하지 않더라도 판단이 될 줄 생각한다. 그러나 요컨대 이것이 나의
목적이다.

[문] 너는 이렇게 하는 일이 목적이라고 말하나 그렇다면 금후에도 또 이 같은 행위를 속행할 생각인가
어떤가.

[답] 今後는 이러한 일을 할 생각은 없다.

[문] 그러면 이번 행위는 나쁘다는 것을 알고 후회하고 있는가.

[답] 그렇다.

[문] 너는 어제 조선의 독립운동에 대해 상하이에 온 이래 매월 2회 내지 3회 가량 李春山(이춘산)과 회담하
였다고 말했는데 그때의 회담의 개요는 어떠한가.

[답] 그것은 지금 잘 기억하고 있지 않다. 요컨대 이번 한 것과 같은 일에 대한 이야기였다.

[문] 그러면 어제 저지른 사건 이전에 또 달리 계획하고 있었던 일이 있느냐.

[답] 그러한 계획은 달리 없었다.

[문] 너는 본 사건을 4월 29일 천장절 때 결행하려고 생각하고 그 사전 준비로 4월 24일의 칩유 50주년기념식 때도 현장에 가서 연구하였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때 이미 결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답] 그렇지 않다.

[문] 그러면 4월 24일 칩유 50주년기념식 때는 이미 천장절날 관병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답] 알고 있었다.

[문] 그것은 무엇으로 알았느냐.

[답] 이춘산으로부터 들었다.

[문] 네가 어제 말한 것과 오늘 말한 것에 틀리는 점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 점은 어떠한가.

[답] 어제와 오늘에 상위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늘 것이 사실이다. 어제는 사건 당초라 다소 흥분해 있었으므로 머리도 명료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문] 너는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어 있는 것을 분개한다고 말했는데 어떠한 점을 분개하고 있는가. 특히 일본인이 조선인에 대해 차별 취급이라도 하는 일이 있는가.

[답] 차별 취급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일본인과 그다지 접촉한 일이 없으므로 모른다. 오히려 당신 쪽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요컨대 자기의 것이 타인 권한 내로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라도 분개하리라고 생각한다.

[문] 기타 달리 말할 것이 없느냐.

[답] 아무 것도 없다.

위 문답을 녹취하고 읽어 들렸던 바, 사실에 틀림이 없다고 말하나 도장이 없으므로 무인케 하다.

1932년 4월 30일

상하이파견군헌병대

육군사법경찰관 육군헌병대위 大石正幸

6) 1932년 4월 30일 신문기사 금지에 관한 건 (육만밀수(陸滿密受)제895호)

수령번호: 육만밀수 제895호

기원청명(名): 신문반(班)

건명: 상하이 폭탄사건에 관한 건

제출: 1932년 4월30일

부관으로부터 각 군, 사단, 상하이 파견군(유수제9, 제14 포함, 제9, 제14 제외) 참모장 및 제 2, 제8, 제10사단 유수 참모 수신 전보

상하이 폭탄 사건 범인의 신분, 범죄 동기 및 그 배후 공범의 관계를 신문기사 게재 금지 사항에 넣을 것

육만 제780 1932년 4월 30일

7) 1932년 4월 30일 이브닝 포스트 (『상하이전과 국제법』) 가나자와 시립 다마가와 도서관

사건 다음 날인 4월 30일 『상하이 이브닝 포스트』지면에 실린 우헤드 씨가 전날의 해당 사건을 통탄하는 논평을 실었는데, 여기에 나온 아래 한 구절은 위의 의견을 어느 정도 대표한다고 생각된다.

이 논평은 앞선 사건의 발생을 통절히 개탄하고 흥행을 가장 큰 죄악이라 비난하며, 일본 국내에 퍼지는 분개는 당연한 결과라 하면서, 게다가 일지(日·支) 양국민이 이 시기에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논하면서

“첫째, 만약 지나 정부의 책임자가 이번 흥행을 사전에 알고, 승인하거나 움직이게 했다는 확증이 나오면 다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한 일본의 군무 관헌들은 스스로 흥변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관병식 동안 흥커우 공원을 지배했고, 몇 명을 입장 허가 또는 거부할지 모두 그들만의 전권에 속했다. 당일 규정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지 아니하고 특별한 통행권을 지니지 않은 자는 모두 입장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통행을 흥한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책임은 주로 일본의 군무 관헌들에게 있다. 따라서 자객에게 넘겨준 폭탄 투척의 기회로 행한 불행한 이 과실은 그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음은 그 유난스러운 어제의 관병식은 지나인의 현재 사상에 비추어 보면, 확실히 도발적이었던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관병식 거행은 지대한 걱정을 외국인 측에 끼쳤다. 반드시 이러한 종류의 어떤 흥행이 일어나야 한다고 예상했기 때문은 아니지만, 결국 최근 교전의 영향에서 점차 바르게 회복되어 오는 지역에 더욱 불안정한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본 황제 폐하의 탄신을 봉축해야 하는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오늘날의 사태 속에서 이러한 대대적인 의식을 행할 필요가 과연 있었는가. 당일 내외국인을 큰 군중으로 모았던 것, 이것이 이미 어떤 불행한 사건의 위험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논하고 일전하여 지나에 대한 충언으로서 지나 신문이 이 시기에 흥한에게 어떠한 동정을 표하거나 흥행을 찬미하지 않는 극도의 자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바이다.

8) 1932년 4~5월 『도쿄 일일신문』 이시카와현립도서관 (마이크로필름)

1932년 4월 29일 호외

상하이 천장절 축하 행사장에 폭탄 투척(投擲) 시라카와, 우에다, 시게미쓰氏 부상

【상하이 본사 특전】(29일 발(發)) 오늘 오전 11시 35분 신공원 천장절 축하 식장에 한 명의 폭한(暴漢)이 폭탄을 투척해, 시라카와 군 사령관, 우에다 ○단장, 시게미쓰 공사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범인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1932년 4월 29일 호외

상하이 천장절 축하회 돌발 사건 속보

기미가요 연주 끝나자 섬광과 함께 퍼진 폭음

범인은 단상 옆에 잠복

【상하이 본사 특전】(29일 발) 29일 오전 11시부터 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신공원에서 관민 재류 일본인, 유력자, 재향군인, 학생, 육 해군 장교를 앞에 두고 천장절 축하 식전이 거행되었다. 흥백의 장막으로 장식한 단상에 시라카와 군 사령관, 노무라 제○함대 사령장관, 시게미쓰 공사, 무라이 총영사, 가와바타 거류민단 회장 등이 나란히 서 있었고, 기미가요 연주가 마침 끝나려고 하는 순간, 작렬하는 음향과 함께 수류탄은 시게미쓰 공사 등의 사이에서 폭발했다. 단상 위의 사람이 쓰러지고 선혈(鮮血)이 긴장한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와 동시에 식장을 가득 채운 일본인은 우왕좌왕하며 범인을 잡자고 격분했다. 거류민은 밀물이 밀려드는 것처럼 몰려들었다. 그때 현장에서는 이미 범인이 체포되어 있었다. 단상 우측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던진 것으로, 단상의 나무판자에 사방 1척의 큰 구멍을 만들었다. 부상자는 즉시 잔디 위에서 처치를 받았지만 “뭐 이 정도 가지고”라며 시라카와 사령관을 비롯한 일동은 매우 건강하다. 부상은 노무라 사령장관, 시게미쓰 공사가 심하여 모두 얼굴이나 발, 복부에 부상을 입었다.

현행범은 조선인, 관련 일당 6명 체포

【상하이 본사 특전】(29일 발) 범인은 현장에서 헌병에게 체포되었는데 오전 0시 반까지 그 외 러시아인 등 6명이 관계자로 체포되었다. 그중 한 명은 지나인으로 공원 입구 수위실로 도망친 것을 쫓아가 체포 연행했다. 수류탄은 도시락으로 위장하여 보자기에 싸서 반입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하나는 현장에 버려져 있었다. 유력한 증거물로 보인다.

【상하이 본사 특전】(29일 발) 29일 오후 2시 10분 군 사령부 발표, 29일 사건의 현행범은 조선인으로 윤봉길(25)이라는 자이다. 신원, 연루자에 관해서는 현재 조사 중.

흰색 직경 5촌 폭탄, 부상자는 그 외에도 수십 명

【상하이 29일 발 연합 지급보】 폭탄은 5촌 직경의 백색으로 단상 옆에서 던졌기 때문에 단상 위의 주빈석(主賓席)에 명중, 기존 보도한 내용 외에 헌병 관중 등에서도 부상자 수십 명이 발생했다.

노무라(노무라) 장관 증상, 오른쪽 눈(右眼)은 실명인가

좌측 새끼손가락은 갈기갈기 찢어져

【상하이 29일 발 전보 통신】 노무라 사령장관은 육전대 병원에서 처치를 받았는데 얼굴에

파편이 깊게 박혀서 그 용태가 걱정된다. 오른쪽 눈도 폭탄 파편을 맞아, 수술이 성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명할 위험 있어. 예후 경과가 우려되고 있다. 왼쪽 새끼손가락은 날아가 버렸지만 신체는 이상 없음.

시라카와 · 우에다 두 장군 증상

【상하이 29일 발 전보 통신】우에다 ○단장도 증상을 입었기 때문에 시라카와 대장과 함께 야전 병원에 입원했는데, 시라카와 대장은 안면 우측 뺨에 폭탄 파편을 맞아 중상이다. 우에다 ○사단장은 오른쪽 가슴과 왼쪽 대퇴부에 파편을 맞아 이 또한 중상이다. 우에다 ○단장은 발에 증상을 입었지만 건강함.

복사천로(北四川路) 부근에 임시계엄령

【상하이 29일 발 전보 통신】돌발 사건의 발발과 함께 복사천로에서 신공원 일대에 걸쳐 임시 계엄령이 선포되었는데, 군 경비가 엄중 경계를 시작하여 삼엄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

군으로부터 성명서

【상하이 본사 특전】(29일 발) 돌발 사건 후 다시로(田代) 참모장 이하 각 장성은 해군 육전대 병원에 시라카와 대장, 우에다 중장을 위문하였다. 이어서 복민 병원의 시게미쓰 공사를 위문한 다음 급히 군 사령부로 돌아와 긴급 기밀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아마도 저녁에 성명서를 발표한 뒤 범인 취조 결과를 기다릴 것이다.

공보 도착

상하이 총영사관 발 외무성 수신 제1공보 = 29일 상하이 신공원 관병식 후 관민합동 축하회에서 기미가요 합창이 끝날 무렵, 시게미쓰 공사, 무라이 총영사, 시라카와 군 사령관, 우에다 제○○단장, 노무라 제○함대 사령장관이 나란히 기립해 있던 식장에 폭탄을 던진 자가 있어서 전부 부상을 입었다. 공사 및 ○단장의 부상이 가장 심하나, 생명에는 별지장이 없는 모양이다.

시라카와 대장 여동생의 경악

【마쓰야마(松山) 발】부상을 입은 군 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은 마쓰야마 시 출신으로 여동생 후네다 아야(舟田菜) 여사를 같은 시(市) 사이비(濟美) 여학교로 방문하여 이 소식을 전하자 경악하여 말하였다.

“오빠가 떠날 때 국가를 위해 화려하게 죽는 것도 좋지만, 부디 편의대(便衣隊)⁵⁾를 조심해서 헛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조심하라고 동생인 제가 신신당부해 두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통지가 없어서 귀사의 보도로 지금 막 알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생명만은 무사해서 다시 국가를 위해 힘썼으면 좋겠다고 ● 빌고 있습니다.”

시게미쓰 공사는 전치 4~5개월

가와바타 민단 회장 가장 심각한 증상

복민 병원장이 말하다

【상하이 29일 발 전보 통신】응급처치를 한 복민 병원장 돈구(頓宮)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

5) 중국에서 무장하지 않고 적지에 잠입해서 후방교란을 주임무로 하던 비정규군 부대

했다. “시게미쓰 공사는 허리 골절이 심해서 완치까지 4~5개월, 무라이 총영사는 3주일, 가와바타 민단 행정 위원장은 전신에 파편을 맞아 ●에 파편이 박혀있어서 가장 중태이므로 경계가 필요하다.”

단상 위의 주빈, 픽픽 장기처럼 쓰러져

부상을 입은 본사 사진반원(班員)

가와구치(川口) 군, 그 순간을 말하다

【상하이 본사 특전】(29일 발) 시게미쓰 공사 등의 조난 현장에 있다가 부상을 당한 본사 사진반의 가와구치 사다오(川口定夫) 씨는 말했다.

“기미가요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평 하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는 순간, 단상의 시게미쓰 공사가 픽 하고 쓰러지고 노무라 사령장관과 그 외 단상에 서있던 사람들이 픽픽 쓰러졌습니다. 시게미쓰 공사는 “발이다, 발, 괜찮아”라고 외치면서도 통증을 참기 어려워 일어서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분출하는 군중의 분노, ‘으앙’ 하고 울어대는 아이들 소리, 우왕좌왕하는 군중 속에서 저도 부상당한 것을 잊고 무아지경으로 달렸습니다. 동료인 사토(佐藤) 본사 사진반원이 재빨리 이곳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와구치 사다오 씨는 상하이사변 발발 이래 항상 최전선을 돌며 실로 비처럼 쏟아지는 탄환을 뚫고 본사의 우수한 필름을 제작해 왔는데 29일 천장절 관병 식당에서도 단상 측면의 사다리 위에서 축하식 상황을 촬영하던 중 폭탄 때문에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용감하게도 얼굴이나 목이 피로 물든 채 고통을 참으며 폭발 현장을 결사적으로 촬영하여 사명을 다했다.

진상 판명 즉시 대책 강구

아라키(荒木) 육군대신의 말

상하이 폭탄 사건의 소식을 아라키 육군대신에게 전하자 육군대신은 놀라서 말하길

“처음 들었다. 상하이에서 아직 공보가 없다. 전쟁지의 일이니까 축하 식장도 엄중한 경계가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을 것이다. 정전회의도 협상이 진전되어 해결의 서광이 보이기 시작한 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 일지(日, 支) 양국 간의 감정 문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남기게 되는 것은 유감이다. 공보가 들어오지 않아 범인을 조종한 세력도 판명되지 않았으나, 사건이 판명되는 대로 군부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다.”

한층 경악, 병상에 있는 시라카와 대장 부인

폭한의 폭탄 투척으로 부상을 입은 시라카와 대장의 자택, 시외의 요요기(代々木) 오야마(大山) 1079번지에는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 병상에 누운 다마코 부인(57)의 경악은 한층 컸다. 부인은 고마고메 군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4월 6일 퇴원하였다. 상하이 파견군으로 나가 있는 대장으로부터 15일에 퇴원 축하에 맞춰 “느림하고 건강하게 활약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편지가 있었을 뿐, 아무런 소식도 없었고 마침 차남 요시나오(義直) 씨(23)도 감기로 병상에 누워 있었다. 장남인 요시마사(義正) 씨(24)와 딸 하마코 씨(29)는 멀리 있는 부군의 안부를 걱정하며 말했다.

“지금 귀사의 전언으로 처음 안 것이고 육군성에서는 아무런 보고도 없으므로 부상 정도 등도 모른 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게미쓰 부인은 출산 후

천상 여성

【오사카 발】한큐(阪急) 연선 오카모토(岡本, 효고 현)의 아버지-하야시 이치조(林市藏) 씨 맥에서 얼마 전 출산을 한 시게미쓰 공사 부인 기에코(喜恵子) 씨(31)는 본사의 조난 제1보에 대해 굳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녀 역시 천상 여자로 “그리고요, 그리고서?”라고 재촉하며 남편의 안부를 걱정하고 있다. “아직 어디서도 아무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아버님(하야시 씨)은 지금 규슈 방면을 여행 중이시고요…”라며 황망한 모습으로 썼다.

1932년 4월 30일

상하이 천장절 축하 식장 폭탄 투척, 시게미쓰 공사 심각한 증상, 범인은 즉시 체포

【상하이 본사 특전】(29일 발) 오늘 오전 11시 35분 신공원의 천장절 축하 식장에 한 명의 폭탄이 폭탄을 투척해 시라카와 군 사령관, 우에다 ○단장, 시게미쓰 공사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범인은 즉시 현장에서 군중에게 못매를 맞고 헌병대의 손에 체포되었다.

【상하이 29일 발 전통(電通) 시급보】29일 오전 11시 35분 신공원의 천장절 축하식에서 기미가요 합창 중 돌연 단상 위 시게미쓰 공사, 시라카와 군 사령관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자가 있음. 시라카와 대장은 안면에, 시게미쓰 공사는 부상 부위 불명이나 졸도했고 혼란에 빠졌다. 그 단상에는 노무라 사령관, 무라이 총영사, 가와바타 민단 회장 등이 있었으며 모두 부상을 당했다. 무라이 총영사는 다리에, 노무라 사령관은 머리에 각각 부상을 입었다. 폭탄은 시게미쓰 공사와 시라카와 대장 사이에 떨어졌는데 시게미쓰 공사가 가장 중상인 듯하다.

무라이 총영사 노무라 중장 동시에 부상, 범인은 지나인, 시라카와, 우에다 장군 경상

【상하이 본사 특전】(29일 발) 범인은 지나인이다. 시게미쓰 공사는 오른쪽 다리 중상. 무라이 총영사는 왼발 경상. 시게미쓰, 무라이 두 사람은 즉시 복민 병원으로 실려 갔다. 생명에는 지장 없는 시라카와, 우에다 장군은 육전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경상이다.

육군에는 공전(公電) 미도착

시라카와 상하이군 사령관, 시게미쓰 공사, 우에다 ○단장의 조난 사건에 관하여 29일 오후 2시까지 육군성에 도착한 공전이 없다.

공범자 엄탐(嚴探) 개시

【상하이 29일 발 전통 시급보】사건 발발과 동시에 신공원 각 문을 폐쇄하고 헌병대는 기관총을 소지할 수 있는 경비대와 함께 즉시 공원을 포위해 엄중히 경계하고 범인 공범자의 엄탐을 시작했다.

시게미쓰, 우에다 대표 부상, 정전 회의 무기한 연기, 지나 4개국 공사에 통보

【상하이 본사 특전】(29일발) 우에다 ○단장, 시게미쓰 공사의 조난으로 지금 진행하던 정전 회의는 부득이하게 무기 연기하게 되었다. 시게미쓰 공사의 경우 치료에 수개월이 필요하고, 우에다 단장도 상당한 중상이므로 두 대표의 완치까지 회의를 연기할지 아니면 대표를 변경 임명해 회의를 속행할지 현재로서는 범인 신문 결과에 따라 바뀔 것. 그렇지 않으면 사건 자체가 회의에 반영될지 아닌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군 수뇌부는 공사관 대표

와 협의하여 일단 2, 3일 내로 재개될 예정이던 회의의 무기한 연기에 대해 지나 측 및 4개 국 공사 측에 통보하였다.

다시로 참모장 말한다.

【상하이 29일 발 연합】시라카와 군 사령관을 문병하고 야전 병원을 나선 다시로 참모장은 말했다. “시라카와 대장도 우에다 중장도 상당한 중상이나 건강하다. 범인의 계통은 천천히 조사하지 않으면 모른다. 정전 회의 따위는 이걸로 완전히 날아가 버렸군.”

회의는 속개하길 희망. 단, 범죄의 목적에 따라서는 협상 방침을 수정할 것

29일 오전 상하이 신공원에서 발생한 우리 파견 관헌 수뇌부에 대한 폭탄 사건에 관하여 정부는 매우 중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 요시자와(吉澤) 외무대신의 개인적 의향은 사정이 되는 한 상하이 정전 협상을 계속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정 서명의 절차로 이행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면서도 범인의 특성, 범행 동기, 배후 관계 등 모든 진상을 밝혀, 만일 이번 사건이 정전 협정을 불성립으로 끝낼 만한 조직적으로 행해진 국제적 범죄 혐의가 발생한다면, 정부로서도 상하이 협상에 대해 근본적으로 그 대책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생길지도 모른다면 현재 파견 관헌에게 진상 조사에 대한 엄명을 내려 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신속한 진상 판명을 바라는 요시자와 외무대신의 성명(담화)

상하이에서의 우리 파견 관헌 수뇌부에게 행해진 폭탄 사건에 관하여 요시자와 외무대신은 29일 오후 6시 반 외무성에서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3월 3일 정전 명령 발령 이후 우리 쪽에서는 사실상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엄중히 전쟁을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군 측은 소규모이긴 하나 두세 차례 우리 군에게 습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모두 큰일로 커지지 않아 대체로 상하이 방면의 사태는 평정을 회복하고 있다고 인정했으나, 다만 우리 거류민에 대한 박해가 최근 여러 차례 일어나 이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과 같은 흉변 소식을 접한 것은 유감의 극치이다. 다행히 모든 분이 생명에는 별지장이 없다는 점만큼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중상은 시게미쓰 공사와 노무라 사령관으로, 시게미쓰 공사의 상처는 오른쪽 발목에 골절이 있음을 발견해 완치까지는 한두 달을 요하고, 또 노무라 사령 장관도 상당한 중상인 듯하여 어느 쪽이든 모두 가엾기 짝이 없다.

우에다 ○단장, 시게미쓰 공사 그 외 부상자는 모두 이러한 시국에 주야로 심신을 갈고 닦아온 분들로, 이러한 지대한 노력으로 정전 협상도 해결을 향해가던 이때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유감스럽다. 범인 한 명은 이미 체포되었다고 하니 각각 심리를 통해 범행의 원인 등도 판명될 거라 생각하나, 범행의 진상이 상세히 판명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사태가 허락한다면 정전 협상을 지속해 빨리 종결시키길 희망하는 바이다. 다만, 지금으로써는 정부 부내(部內)에서도 상의할 필요가 있어, 이 점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육군 당국의 의향, 추궁하지 않을 것

상하이 폭탄 사건에 관해 상하이군 사령부에서 육군성으로 보낸 공전(公電)에 의하면 시라카와 군 사령관, 우에다 ○단장 모두 비교적 경상이므로 육군 중앙부는 군 사령관, ○단장의 경질 임명 등의 ●은 현재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을 의향이다. 한편, 이번 사건이 확실히 서명

이 이루어지지 못할 만한 협상에 끼칠 영향 대책에 대해서는 범인의 배후 관계가 정확히 조사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단순한 돌발 사건이라 간주해 정치적으로는 딱히 추궁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전 협상의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더라도 연합 위원회에는 비공식적으로라도 그 배후 관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寿府(제네바)에 울려 퍼지다, 19개국 위원회 개최

【제네바 본사 특전】(29일 발) 상하이 폭탄 사건은 화기애애한 평화적 분위기로 향하던 제네바를 청천벽력과 같이 큰 충격을 주었다. 이만스 내정자는 연합 총회 의장 자격으로 우리 대표부를 방문해 정중한 위로의 말을 전했고, 이어 사이먼 영국 외상도 달려왔다. 이만스와 사이먼의 얼굴은 경악과 비통함으로 어둡다. 정전 회의의 무기한 연기 보도는 제네바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제네바 29일 발 전통(電通)】19개국 위원회는 시게미쓰 공사 등의 조난에 관해 향후 방침을 논하기 위해 29일 오후 5시(일본 시간 30일 오전 1시)부터 열리게 되었다.

참으로 유감, 영국 공사 담화

【상하이 본사 특전】(29일 발) 천장절 축전에 참석하던 각국 공사 및 무관은 갑작스런 사건에 경악하며 모두 흥분한 표정으로 퇴장하였으나, 때를 놓치지 않고 육전차로 복민 병원 및 육전대 병원으로 달려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 떠났다. 영국 램슨 공사는 우려하는 얼굴로 말한다.

“정전 교섭이 가까스로 성립하려던 때, 게다가 일본 천황 폐하의 생신 축하 식장에서 이런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제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시게미쓰 공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책임은 자신에게’, 깊이 결심한 오기네(荻根) 헌병 중령

【상하이 29일 발 연합】29일 신공원의 천장절 축하 식장의 경계를 담당한 것은 헌병대장 오기네(荻根) 중령 이하 제1분대장 마세(間瀬) 소령 및 나카무라(中村) 치중병 소령인데, 오기네 중령은 책임은 “오로지 나에게 있다. 깊이 결심한 바가 있다”라고 하고는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대리(代理) 공사 임명하나

【상하이 29일 발 전통(電通)】시게미쓰 공사의 부상은 다행히 치명상이 아니었지만, 완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므로, 아마 공사 대리로는 모리야 와로(守屋和郎) 일등서기관이 가장 적합하여 정전 협상이 속개되면 모리야 서기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부상 의외로 심각, 우안 실명 피할 수 없어, 노무라 장관 전신에 부상

주치의 와코 군의 중령 말하다

【상하이 본사 특전】(29일 발) 노무라 사령장관과 도모노 민단 서기장이 이송된 육전대 병원은 영국 램슨 공사, 케리 제독, 그 밖의 외국 외교관, 무관, 일본인 등 각 방면에서 위문으로 번잡한데, 주치의인 특무감 무로토(室戸) 병원장, 와코(若生) 군의 중령은 수술복 차림인 채로 말한다.

“노무라 사령장관은 오른 눈, 왼쪽 눈썹, 코의 오른쪽, 아래턱, 왼쪽 폐 부분, 복부, 다리 등

거의 전신에 부상을 입었다. 가장 심한 곳은 오른쪽 눈으로, X레이로 보니 안구 안에 수류탄의 파편이 들어있는 것을 알았다. 유감스럽지만 실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은 코 오른쪽의 열상인데 꽤 깊다. 그리고 왼쪽 새끼손가락은 잘라져서 날아갔고 그 밖에도 상처 자체는 작지만 모두 파편이 박힌 것 같아 하나하나 수술로 적출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완치까지는 적어도 1개월 이상 필요할 예정이다. 그러나 장관은 놀랄 정도로 건강하다. 도모노 서기장의 상처는 앞이마와 오른쪽 정강이, 좌우 다리에 무수한 상처를 입었는데, 이쪽은 비교적 가벼워서 3주일로 완치될 것이다”

시게미쓰 공사 골절

【상하이 29일 발 전통(電通)】29일 오후 6시 돈구(頓宮) 박사 발표= 무라이 총영사는 좌우 다리에 경상으로, 탄편 한 개를 적출했는데 크기는 중지 끝 정도이고 4~5주 정도면 퇴원할 예정이다. 시게미쓰 공사의 부상은 좌우 허리에서 허벅지에 걸쳐 있고,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어 3~4개월을 요하지만 생명에는 걱정 없다.

가와바타 민단 회장 위독

【상하이 본사 특전】(29일 발) 가와바타 민단 회장은 흉부 복부에 내출혈이 발생해 수혈을 했으나, 29일 오후 10시 반 위독 상태에 빠졌다.

조사단 놀라. 고유균(顧維均), 우울

【봉천 본사 특전】(29일 발) 상하이 폭탄 사건의 보도는 본사 만주 호외로 봉천 전 시에 뿌려져 야마토 호텔에 체류 중이던 연맹 조사단 일행은 경악했다. 그중에서도 고유균은 얼굴이 창백해져 즉시 같이 숙박한 요시다(吉田) 대사를 방문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 다음 비서를 통하여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직 국민 정부로부터 아무 통지도 받지 못했으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로 부상을 입은 분이 되도록 경상이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또한 즉시 국민 정부 및 상하이로 상세한 문의 전보를 보냈습니다.”

고유균 문제가 점점 원만히 해결되려고 하는 때에 발생한 이 사건은 지나 대표부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물통, 도시락 통으로 위장한 폭탄

범인 체포의 수훈자 고모토(後本) 병조

【상하이 본사 특전】(29일 발) 29일 천장절 상하이 축하 식당에 던진 폭탄은 가와바타 민단 회장과 시게미쓰 공사 사이에 낙하했다. 범인은 물통 안에 폭탄을 밀어 넣고 교묘하게 장내로 침입하여 물통 통째로 단상으로 던졌다. 현장에는 무명 보자기에 쓴 도시락처럼 보이는 것을 버려두었다. 헌병대에서 조사하니 사제폭탄으로 판명되었다. 범인은 이 예비 폭탄을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체포된 것이다. 폭탄이 작렬하기 전에 재빨리 범인을 체포한 수훈자 고모토 다케히코(後本武彦) 병조는 당시 모습을 말한다.

“나는 사복 차림으로 단상을 마주 본 위치의 우측 후방에서 경비를 위해 서 있었습니다. 기미가요 연주 중에도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흘깃거리며 주위를 감시하고 있는데 기미가요가 끝날 무렵, 내 앞에 라우드 스피커가 고장 나서 4~5명이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어수선한 틈에 내 옆을 스치고 무언가 날아가서 놀라서 돌아보니 수상한 남자가 도망가는 것이 아

납니까? 순간, “폭탄이다, 위험하다”고 외치고 무아지경으로 덤벼들었습니다. 회색 줄무늬의 거친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는데, 나에게 체포되자 바로 고개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허라도 깨무는 것 아닌가 하고 옷깃을 잡고 일으켜 세워 헌병에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 대담무쌍하고 수상한 자를 그 자리에서 당장 베어버리고 싶었지만 중대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군에서는 고모토 병조에게 조만간 선행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1932년 5월 1일

폭탄 사건은 별개로, 상하이 정전 회의 속행

오늘 외상, 육 해 양 대표 논의, 그 결과 방침 결정

30일 오전 0시 반 육군 수뇌부 회의 종료 후 아라키(荒木) 육군 대신은 관저로 찾아온 요시자와 외상, 오스미(大角) 해군 대신과 관저 깊숙이 앉아, 상하이 폭탄 사건의 경과 대책 및 이 사건과 정전 협상 간 관계에 대해 여러 중요 혐의를 나누었지만, 결국 이번 사건과 정전 교섭과는 일단 별개로 취급하고 폭탄 사건은 별도로 조사하면서 정전 협상은 진척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일시 해산, 또한 같은 날 3시에 모여 궁중에 참내하여 천황폐하를 찾아뵙고 폭탄 사건의 경과 및 정전 협상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하문(下問)에 봉답(奉答) 하였다.

당분간 관망할 것, 육군 수뇌부 협의

육군에서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육군대신 관저에 아라키(荒木) 육군 대신, 마사키(真崎) 참모차장, 오이소(小磯) 차관, 야마오카(山岡) 군무 국장 등 군 수뇌부가 모여 상하이 폭탄 사건에 관한 상보(詳報)를 가지고 선후 대책 관련 여러 가지 사안을 협의했다. 현재의 정세에서는 잠시 관망하고, 배후 관계에 정전 교섭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는 경우, 서명 당사자인 우에다 O단장의 복귀에 긴 시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로 참모장에게 직무 대행을 명하는 절차를 정하고 수일간 형세를 관망하기로 했으나, 배후 관계에서 정전 교섭을 저해하는 증거를 확보한다면 단호히 처리하는 것보다 현재의 국제 정세를 대국적 관점에서 보고 추구하는 방침을 취하기로 했다. 한편, 우에다 O단장의 용태도 비교적 경상이라는 이유로 정전협정 서명이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억측도 나오고 있다.

1932년 5월 2일

시게미쓰, 우에다 두 대표, 병상에서 서명

드디어 2,3일 내로 정전회의 속행 결정

【상하이 본사 특전】(1일 발) 1일 오전 1시 오카자키(岡崎) 서기관은 영국 총영사관 램슨 공사를 방문하여, “4월 29일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전 협상을 종래 방침대로 진행할 것을 일본 정부는 적극 희망하고 있다. 일본 현지 군부, 외교당국도 지속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1일 아침 도착한 본 성(省) 훈령에 입각하여 일본 측의 협상에 대한 성의를 피력함과 동시에 협정 서명은 시게미쓰 공사, 우에다 O단장이 병상에서 하고 싶다는 내용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램슨 공사는 일본 측의 성의를 헤아려 즉시 미·불·이 3개국 공사에게도 전달하였는데, 모두 일본의 태도를 양해하고 회의의 전도에 대해 안도의 뜻을 표했다. 이에 따라 회의는 두 대표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재개하여 북평에서 오는 야노(矢野) 참사관과 함께 오카자키 서기관, 다시로 참모장 등도 출석하여 2,3일 내에 서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명은 지나 측이 영국 총영사관에서 4개국 공사의 면전에서 거행한 뒤, 4개국 공사는 이를 갖고 우에다 O

단장이 입원한 병참 병원과 시게미쓰 공사가 입원한 복민 병원을 방문하여 일본의 서명을 거행하게 된다.

9) 1932년 5월 3일 상하이 폭탄 투척 사건의 현황 (외무성 경찰사) 시가현립도서관

1932년 5월 3일자

발신: 상하이 무라이 총영사, 수신: 요시자와 외무대신 보고의 요지

상하이 흥커우 공원 폭탄 투척 사건

1. 재류 관민 합동 천장절 축하 회장에서의 폭탄 투척과 범인의 체포

상하이 재류 관민의 천장절 봉축은 예년마다 공동조계 흥커우 공원에서 관민 합동의 축하식을 거행하며 임시 상점 등을 열어 성대히 거행하였다. 올해는 사건 후의 일이라 하여 임시 상점 등을 설치하지 않고, 단지 관민합동의 축하식을 거행하는데 그쳤고, 당일 우리 상하이 파견군은 오전 9시 지나서부터 흥커우 공원에서 관병식을 행하였으므로 재류 관민은 물론 외국인 등도 다수 참석하여 무려 수만을 이루었다. 관병식은 오전 11시 20분경 끝났으므로 계속하여 예정대로 축하식으로 전환하여 식당 중앙 앞에 설치한 봉축대 위에는 시게미쓰 공사를 비롯하여 무라이 총영사, 시라카와 군 사령관, 노무라 제3함대 사령장관, 우에다 제9사단장, 가와바타 행정 위원장 및 도모노 민단 서기장이 참석하였고, 그 전면에는 재(在) 상하이 일본인 아동·생도·학생 등이, 중앙에는 재류 일본 관민이 정렬하여 축하식을 거의 끝내고, 기미가 요 합창이 한창이던 오전 11시 40분경에 돌연 무대 후방 군중 가운데서 1명의 사나이가 걸어 나와 가지고 있던 물통형의 물건을 무대 위로 던졌는데 그것은 동시에 일대음향과 더불어 작렬하였으므로 전기(前記) 단상에 있던 자들은 모두 그 파편에 의해 부상을 입게 되었다. 그 중 가와바타 행정 위원장이 가장 중상으로 다음날 오전 3시 10분 결국 사망하였다.

범인은 폭탄 투척에 당면하여 또 소지하던 도시락형의 물건을 지상에 놓았는데, 먼저 1개를 투척한 후 다시 이 도시락형의 물건을 집어 올리려고 할 때 부근에 있던 우리 해군 1등 병조와 경비 중인 헌병 당관 경찰서원 (다카야나기(高柳吉衛) 순사) 등이 곧 체포하였는데 일본 군중의 격앙이 심하여 그를 포위하고 구타하여 결국 졸도시키게 했으나, 군헌의 힘에 의해 공동 공원의 우리 헌병 제1분대에 송치하였다.

2. 식당의 경비 상황과 폭탄 투척 상황

식장의 약도는 다음과 같은 바 당일 식당 안팎의 경비는 주로 군헌에서 당관 경찰서장 이하 경찰서원은 풍기(風紀: 당시 유격대에서 일직 사령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던 초급 관리)로써 경비에 임하였다. 범인의 자백과 현장 목격자 등의 진술을 종합하건대 범인은 무대 후방 군중 속에 섞여 있다가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오전 11시 40분 휴대하고 있던 도시락형의 폭탄을 지상에 놓고 어깨에 걸고 있던 물통형의 폭탄을 벗어 가죽 끈이 붙은 그대로 오른손에 쥐고 몇 걸음 전진하여 기마병의 바로 뒤편에서 무대 위를 겨냥하여 던지고, 다시 지상에 놓은 도시락형의 폭탄을 집어던지려고 뒤돌아서는 것을 군중이 압도시켜 체포하였던 것이다.

또한 당시의 경비 상황은 무대 위 각 대관의 신변 호위를 위해 6명의 기마병이 무대 후방에 단상을 인접해 서 있었고, 그 후방 약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수명의 보조 헌병이 배치되었으며, 군중은 그 후방에 있었다. 보조 헌병이 어느 쪽을 보고 서 있었는지는 명료하지 않으나, 호위 기마병은 군중을 뒤로 하고 식당을 향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3. 범인이 사용한 폭탄의 구조와 그 휴대 상황

범인은 폭탄 2개를 휴대하였는데,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를 엄폐하는데 극히 교묘한 방법을 취했다. 즉 1개는 물통형으로 만들어 ‘알루미늄’제 물통 속에 넣고 외부에 백색 ‘즈크(ズック)’⁶⁾의 덮개를 씌우고 가죽 끈을 붙여 어깨에 걸었다. 이 폭탄은 물통의 입 부분에 신관(信管)을 위치케 하고 발화용 삼(麻) 끈을 부착시켰다. 다른 1개는 도시락형으로 만들어 ‘알루미늄’ 재질의 도시락 상자에 넣고 보자기로 싸서 신관 부분에 작은 구멍을 뚫어 여기로 발화용 끈이 나오게 했다. 도시락형 폭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용적

길이: 5촌 4분

폭 : 3촌 4분

두께: 1촌 5분

(2) 중량 : 3.5kg (약 1관)

(3) 그 외형 및 내부 기구는 별첨도와 같고, 폭탄은 주철로 만들었으며 중앙 양단으로 통하는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은 구멍을 뚫어 구멍이 큰 부분에 점화 장치를 만들었다. 폭탄은 염박, 유황, 다갈약(3초기 트롤)의 합성물로 약 270그램이었다. 점화 장치는 별첨도와 같이 먼저 마찰약 내에 있는 거형의 철판의 1단에 삼끈을 달고 이것을 잡아당길 때는 철판의 이가 마찰약을 마찰하여 발화케 하여 도화약에 점화하여 다시 완연(緩燃) 도화약을 거쳐 기폭제로 옮긴다. 이 장치는 중국 육군이 사용하는 것으로 독일, 러시아식 기구이다. 이것은 제조상 경비가 적어 염가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본 폭탄의 감정을 맡은 상하이 파견군 군 사령부 이쿠타(生田) 참모 중령의 말에 의하면 이 폭탄은 단순한 시중의 모조품이 아니며, 무쇠를 이용하여 거푸집에 넣고 주조하는 점으로 볼 때 단지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여러 개를 동시에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4. 범인의 신원과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본적: 한국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39

주소: 상하이 불조계 패륜로 동방공우 30호

무직, 윤봉길 (1908년 5월 19일생)⁷⁾

위 범인은 본적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바 한 일인 간에 차별 대우가 있다고 믿고 이를 분개하여 한국 독립의 염원을 품게 되었다. 1930년 3월 신의주를 거쳐 동월 31일 안동현에서 기선 광리환(廣利丸)을 타고 4월 초 청도에 도착하여 한인 경영의 음식점 송죽당(松竹堂) 주인의 소개로 봉천로의 나카하라 세탁점에 직공으로 고용되었다.

이듬해 1931년 5월 8일 청도에서 상하이로 건너와 불조계 하비로 화합방의 모 음식점에 약 30일간 체류 중 한인 박진(朴震)이 지배인인 제조공장에 직공으로 고용되었는데, 올해 2월 중 해고되고 이직 후는 공동조계 통주로(通州路) 한인 이모 씨가 경영하는 신공양행(信恭洋行)에서 쌀가루 류의 도매를 받아다 흥커우 ‘마켓’에서 파는 소매를 하던 자이다.

윤봉길의 가출 동기는 전기와 같이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데 있었으므로 그가 상하이로 온 후는 한국 독립운동자를 찾고 있었는데, 7월에 이르러 이춘산(李春山)을 알게 되고 그의 소개

6) ズック: 마사를 굵게 꼬아서 짠 직물 (네덜란드어: doek)

7) <<만민대일기>> 등 여러 가지 일본측 자료에서 윤봉길 의사의 생일을 ‘明治 41년(1908년) 5월 19일’ 혹은 ‘1907년 5월 19일’로 오기되어 있다.

로 한국독립당에 가입하였다. 그 후 이춘산과는 때때로 면회를 계속하고 있던 중 올해 4월 15일 불조계 백래니몽마랑로(白來尼蒙馬浪路) 모처 찻집에서 회합하였을 즈음, 처음으로 행동에 관한 상의를 하고 20일 같은 장소에서 이춘산으로부터 은 200불을 받았다. 이에 윤봉길은 범행 실행의 결의를 굳히고 동월 24일(일요일) 흥커우 공원의 칙유 하사 50년 기념식의 기회를 얻고자 하였으나, 폭탄의 입수가 늦어졌기 때문에 실행할 수가 없어 당일은 현장에 가서 거행식의 모습을 자세히 시찰하고 시라카와 사령관, 우에다 사단장 등을 똑똑히 보아둔 듯하다.

27일 오후 8시경 이춘산은 윤봉길의 하숙에서 두 개의 폭탄을 윤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8일 정오, 이춘산은 대세계 옆 중국 청년회관에 윤을 초대하여 오찬을 같이한 후 윤은 곧 흥커우공원으로 가서 관병식의 예행연습을 보고 미리 실지 조사를 수행하고 귀가하였다. 오후 8시경 이춘산은 재차 윤을 찾아와 폭탄의 사용방법을 가르쳤다. 범행 실행 당일 즉 29일에는 오전 6시경 기상 후 하비로 러반로각(呂班路角)의 법인 기차 공사에서 자동차를 빌려 흥커우공원으로 가서 오전 7시 50분 문전에서 하차하여 문지기인 중국인에게 일본 말로 인사하고 공원 안으로 들어갔다.

휴대한 폭탄은 물통형의 것은 우측 어깨에서 좌측 겨드랑이로 메고, 도식락형의 것은 보자기에 싸서 오른손에 들었다. 그리고 일찍이 오송로(吳淞路) 일본인 사진점에서 입수한 시라카와 사령관, 우에다 사단장의 사진을 소지하였다. 잠시 후 관병식이 끝나고 관민합동의 축하식으로 전환하여 식도 거의 끝날 무렵, 국가합창 중 비가 왔으므로 군중은 차츰 분산하기 시작하였을 때, 전진하여 앞서 언급한 2항과 같이 단상 위를 겨냥하여 폭탄(물통형)을 투척한 것이다.

5. 본 범행의 연루자와 그 수사

윤봉길의 진술에 의한 전기 이춘산이란 자는 본 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바, ‘춘산’은 이유필(李裕弼)의 자(字)이므로 이유필이 본건의 주모자가 아닌가 추측된다.

따라서 그의 인상 특징 등에 대해 윤봉길에게 질문하였더니, 그 말하는 바가 극히 애매하여 단순히 본인 진술로는 이유필이라는 것의 확증을 얻기에 이르지 않았으나, 어찌 됐든 그 이름이 일치하는 점에서 일단 이유필을 주범이라는 혐의 하에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9일 오후 2시 프랑스 공부국(工部局) 경찰에 전화하여 정치부 주임 경부 ‘에메리아노프’의 방문을 요구하여 곧 하비로 보강리(寶康里) 54호 이유필의 주소로 가서 검거함과 동시에 윤봉길의 주소에 가서 가택수사를 실시케 할 것을 요구하였던바, ‘에메리아노프’는 이를 승낙하고 돌아갔다. 이유필은 교민단 정무위원장으로, 한교 간에 중심이 되는 동시에 한국독립당의 집행위원이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6시에 이르러 불조계 공부국 형사 2명을 붙여 1명의 한인을 당관으로 넘겼는데, 그가 말하길 프랑스 경찰 형사가 이유필 집에 이르렀을 때는 그는 이미 도주 후였고, 그 가족의 말에 의하면 그는 오전 8시경 외출하였다는 것이었으나 계속 그 가옥 내에 잠복하던 중 위 한인이 들어와 체포하였던바, “나는 지나인이다”라고 주장함에 그 여권이 들어있던 손가방을 압수하여 동행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해당 한인을 신문하였던바, 이는 흥사단장 안창호(安昌浩, 당시 48세)임이 판명되었으므로 즉시 유치하고 현재 심문 중이다.

이번 폭탄 사건은 유래없는 사건으로, 내외 각 방면에 자극을 주었는데 이의 선후 처치에 대해 곧 대책을 숙의하기 위해 29일 오후 5시 30분부터 당관 내에서 다음의 각 군부와 협의하였다.

육군 측: 하라다 참모 중령, 이나가키(稲垣) 헌병 대위

해군 측: 기타오카(北岡) 대령(공사관 배속무관), 이토(伊藤) 중령(육전대 참모)
공사관 측: 모리야(守屋) 1등 서기관
총영사관 측: 이구치(井口) 영사, 아카기(赤木) 사무관, 하나사토(花里) 서장

신중 협의한 결과,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한국 독립운동에 일대 타격을 줄 방침 하에 일괄 검거를 프랑스 측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생각건대 같은 날 이미 중대 사범이 결행되었으므로 선인(鮮人)은 모두 극도로 그의 신변을 경계하고 있을 것이며 아마 대부분은 도피하여 소재를 감췄을 것으로 사료되어 설령 일제 검거를 행해도 경찰로 그 효과를 얻는 바는 거의 없을 것이나, 이에 의해 우리의 위력을 보이고 불조계는 꼭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게 하여 그 운동의 근거를 동요케 하는 이익이 있기를 바랐을 따름이다.

상기 협의한 취지에 의해 오후 7시 반 이구치 영사는 프랑스 총영사와, 다시 오후 10시 이구치 영사는 아카기 사무관과 같이 프랑스 공부국 경찰과 일괄 검거에 대한 상세 협의를 하고, 30일 오전 4시 우리 측 검거반(아카기 사무관이 총지휘하고 당관경부 이하 44명, 헌병대원 22명의 지원과 별도로 헌병 장교 3명, 총 70명)을 출동시켜 5시 프랑스 공부국 경찰대와 현지에서 회동하여 아래 14명의 주소를 각각 수사케 하였다.

한국임시정부 재무부장 한국독립당 집행위원 한국 교민단 정무위원 겸 의경대장 김구(김구, 57세)
한국독립당 집행위원 한국교민단 정무위원 겸 서무부장 이유필(李裕弼, 48세)
한국독립당 집행위원 한국임시정부 국무위원장 겸 법무부장, 외교위원회 위원 이동녕(李東寧, 64세)
한국독립당 집행위원 한국임시정부 외무부장 겸 외교위원회 위원 조소앙(趙素昂, 46세)
한국독립당 집행위원 한국임시정부 군무부장 겸 군무위원회 위원 김철(金澈, 47세)
한국독립당 집행위원 한국임시정부 군무위원회 위원 박창세(朴昌世, 44세)
한국독립당 집행위원 한국교민단 경무대 간사 엄항섭(嚴恒燮, 35세)
한국독립당 집행위원 한국교민단 경무대 간사 최석순(崔錫淳, 45세)
한국독립당 집행위원 한국교민단 의원 차이석(車利錫, 49세)
한국독립당 집행위원 백기준(白基俊, 44세)
상하이 한인청년당 이사장 김석(金哲, 22세)
한국의용군 간부 김동우(金東宇, 38세)

위 일괄 검거의 결과, 상기 14명 중 1명도 체포하지 못했으나, 위를 검거하기 위해 갔던 장소에 있었던 다음 용의자 선인 1명을 체포하여 일단 불조계 경찰과 동행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전부 당국으로 송치하였다.

마랑로(馬浪路) 송일리(崇一里) 16 (최석순 닻) : 장상국(26세), 호성원(24세), 이기함(19세)
송비덕로(竦斐德路) 388(박창세 닻) : 박제도(23세), 박제건(17세)
마랑로(馬浪路) 446(조소앙 닻) : 김덕근(18세)
마랑로(馬浪路) 보경리(普慶里) 8호(이동녕·엄항섭 닻) : 장현근(24세)
하비로 보강리(寶康里) 65(김봉준 닻) : 김덕목(19세), 박화산(17세), 차균찬(27세), 이달문(35세)

위 11명은 모두 현재 유치 심문 중이다. 또 전기 각 장소에 가서 무기 탄약 등을 특히 수색하였던바, 교민단 2층 침실 내 버들가지 고리 속에서 권총탄(연) 40발, 소총탄 5발, 권총 '색' 1개를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이 일괄 검거의 목적 인물은 1명도 체포하지 못했으나 불조계에서의 한인의 독립운동에 일대 충격을 주었음은 사실이며, 이 점에 있어 상당한 소기의 목적을 달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 김구 외 본 사범 연루자에 대하여는 육·해군 측과 밀접한 연락을 취하여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범인 윤봉길에 대한 헌병대 신문 조서 (1,2회분)를 참고로 별첨한다.

10) 1932년 5월 4일 전보 『텐진 타임스』 사설 (아시아역사자료센터)

- 발신: 지나 주둔군 고급 참모
- 텐진 제920

5월 4일 북경 텐진 타임스 지면에는 상하이 폭탄 사건에 관해 아래의 요지의 사설을 게재했다. 상하이 정전 회의는 예정대로 서명될 거라 보도되었으나, 천장절 당일 사건에 대한 일본 측의 태도는 칭찬받을 만하다. 본 건은 세계를 진겁하게 하여 일반에게 일본이 기존의 태도를 바꿔 상하이 평화를 위한 일본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까 불안하게 했다. 본 사건은 조선의 독립계획을 넘어 지나 혁명의 음모를 헤아릴 수 있으며, 일본 통신에 의하면 범인은 조선협회의 요인으로, 손가의 막료라고 한다. 손가가 본건에 관련되었다고 천명하는 것은 이누카이 수상이 청조황실 요인 암살을 위해 왕세영과 관련이 있다는 것 및 동맹회의 소요사건과 관련있다고 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정부가 정전회의와 본 건을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은 현명한 시책이다.

11) 1932년 5월 6일 신문 발표 호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공람 내각관방 총무과장 내각 서기

상하이 폭탄 사건범에 관해 상하이의 출장 관헌은 협의 후 6일 오후 3시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1. 본적: 조선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랑리 139
현주소: 상하이 불조계 바이런로 동방공우 30
윤봉길 1908년 5월 19일생⁸⁾
2. 당사자는 4월 29일 오전 7시 45분 흥커우공원으로 들어가 민관 합동 축하회가 거의 끝나가고 기미가요를 합창할 때, 오전 11시 40분경 단상 후방 군중 속에서 나타나 소지한 폭탄을 단상에 투척해 시라카와 군 사령관, 노무라 사령장관, 우에다 사단장, 시게미쓰 공사, 무라이 총영사, 가와바타 행정 위원장, 도모노 민단 서기장에게 중경상을 입히고, 그중 가와바타 행정 위원장을 결국 사망케하였다.
3. 범인은 경비 군헌에게 즉석에서 체포. 이것을 헌병대에 유치하고 일단 심문한 후 이미 군법회의에 예심을 청구했다.
4. 사용 폭탄은 둘인데, 하나는 물통형이고 나머지는 도시락형이다. 투척한 것은 물통형 모양의 것으로 하고 도시락형의 것은 지상에 두고 투척에 이르지 못했다.
5. 당사자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불조계 거주 다수의 선인 단체가 배후에 있다고 인정되어, 즉시 불조계 경찰 당국에 요구하여 수배하에 29일부터 30일에 걸쳐 일대 수색을 실행하고 용의자 안창호⁹⁾ 이하 12명을 체포하여 인도받았다. 따라서 현재 엄중히 조사 중이다.
비고 : 당국 발표 외에는 여전히 기사 금지 처분을 내려 주의시키고 있음.

8) 본문과 다르게 윤의사의 실제 생일은 1908년 6월 21일이다.

9) 일본어 자료집 본문에는 安昌光이라 오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安昌浩(안창호)가 맞다.

12) 1932년 5월 7, 14일 『차이나 위클리 리뷰』 영어판 (<암장지 가나자와로부터> 발췌)

조선인, 상하이에서 일본 고관들 향해 폭탄 던지다... 한 명 사망

4월 29일 금요일 정오가 되기 전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는 일본 천황의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모였다. 거의 대부분 일본인으로, 전원 국가를 부르고 있었다. 그때, 한 조선인 윤봉길이 주변들이 서 있는 단상 위로 수류탄을 투척하였다.

부상자 명단과 상태는 아래와 같다.

- * 시게미쓰 일본 대사 - 양쪽 허벅지와 다리에 중상
- * 무라이 일본 총영사 - 왼쪽 허벅지에 부상
- * 시라카와 대장 (일본군 사령관) - 왼쪽 턱, 치아와 전신에 심한 부상
- * 우에다 육군 중장 (제9사단장) - 발가락 세 개 절단, 왼쪽 어깨에 부상
- * 노무라 해군 중장 (해군 사령관) - 오른 눈 실명, 추후 적출 수술
- * 가와바타 의사 (일본 거류민 단장) - 내출혈, 흉부 부상으로 중태, 익일 오전 4시에 사망
- * 토모노 사무총장 (거류민단) - 경상
- * 일본인 선원 - 경상
- * 오사카 마이니치신문의 사진사 - 경상

가와바타 의사의 사망원인은 파편이 폐를 관통한 부상이었으나, 다른 일본인 부상자들의 회복은 순조롭다고 전해진다. 후쿠오카 제국 대학의 저명한 6명의 외과 의사들이 연락을 받고 모여, 파편 제거 수술을 집도했다. 노무라 중장의 수술은 후나가와(船川) 의사가 진행하였는데, 파편으로 실명한 오른쪽 눈을 적출하는데 한 시간 반이 걸렸다. 시게미쓰 공사의 수술은 복민 병원의 돈구 의사가 집도했는데, 처음에는 다리를 잃을까 걱정하였으나 그 위험은 피할 수 있었다.

시게미쓰 공사는 크기가 좁쌀만 한 것부터 손가락 끝만 한 파편으로 20군데가 넘는 상처를 입었으나, 이러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쿄로 보낼 폭탄 투척 사건을 설명하는 전보를 명령하여 일본 거류민들에게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지시가 시라카와 장군과 노무라 사령관을 통해서 일본군에게 내려왔다.

청도에서 온 조선인

범인 조선인은 최근 청도에서 이 지역으로 넘어왔다. 청도는 지금까지 중국인들과 일본인들 간 분쟁의 무대였다. 이는 조선인의 혁명적 행동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 한다.

이 한국인의 작전은 지극히 간단하였다. 일본 유력인사들은 1.8m 높이의 임시 단상에 서 있었다. 군중이 일본 국가를 합창하는데 열중하고 있는 동안 두 군인의 감시를 피해 단상 가까이 다가가 수류탄을 던졌다기보다는 모여 있는 유력 인사들의 발밑에 놓았다. 폭탄은 일본군의 물통을 모조한 것으로, 핀을 뽑으면 5초 후에 폭발하는 스프링 타입의 매우 강력한 것으로, 단상을 관통했고 사람들을 바닥에 쓰러트렸으며 출혈 참사를 초래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으며 계속되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목격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의견들이 일치하지 않는다. 폭탄의 일부는 단상 밑 땅에 박혔다. 폭발 직후 경비를 담당하던 헌병 두 명이 말을 박차고 그 한국인 쪽으로 갔다. 그는 몸을 살짝 돌려서 그들을 피하였으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달려들어 의식을 잃을 정도로 사정없이 때렸고 그의 옷을 갈기갈기 찢었다. 일본 장교는 지휘도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많은 일본 군인들이 그를 둘러싸고는 차에 실어서 병원으로 옮겼다. 즉시 현장에는 비상선이 쳐졌고, 군중 전원은 귀가 허가

가 날 때까지 삼엄한 조사를 받았다.

구속되었던 미국인

체포되었다가 나중에 풀려난 사람들 중에 히바드(Hibbard)라는 공부국 공무원 미국인 직원이 있다. 그가 의심을 받게 된 것은 공원 근처에 있던 그의 중국인 하인 3명이 일본인이 말을 걸자 뛰어서 히바드 씨 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 집은 공원 근처에 있으며 특별관람석을 내려다볼 수 있다. 일본인이 주목한 것은 또 히바드 씨가 몇 명의 중국인 신문기자들에게 그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게 허락한 것이다. 히바드 씨는 나중에 커닝햄 미국 총영사가 만족할 만큼 그 상황을 설명하였다.

히바드 씨는 부인이 중국인이기도 하고 최근 중일 교전이 벌어질 때에는 골치 아픈 일을 겪은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 대포중대가 히바드 씨의 집을 중대본부로 차지하고 공원 안에 대포중대를 배치하고 작전함으로써 일본과 심각한 분규가 있었다. 그때 히바드 씨가 일본인들을 퇴거시키려고 애썼다. 그는 미국 총영사관에 일본인들이 온 식기류, 테이블보, 가구 등 상당량의 개인 물품을 가져갔다고 항의하였다.

4명의 외국 무관들인 미국인 드라이스데일 소령, 영국인 베드햄 쏘힐 소령, 이탈리아인 프라티나 소령, 프랑스인 보나비타 소령은 시라카와 대장의 내빈으로 행사에 참석해있었는데 단상에서 60m 거리에 서있었으므로 겨우 화를 면하였다.

목격자에 의하면 한국인의 행동은 너무도 예상 밖이어서 육해군과 수백 명의 일본 영사관 경찰들이 단상을 에워싸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막지 못하였다. 헌병과 형사들은 군중 속에 흠어져 섞여 있었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사건 후 훼손된 단상은 피로 덮여 있었고, 폭발력 때문에 일장기와 축제 회장에 두른 장막들이 갈기갈기 찢기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단상 근처를 둘러쬐던 일본 헌병들은 나중에 조잡하게 만들어진 다른 불발탄을 발견하였는데 아마 켈리그나이트를 담은 이 폭탄이 폭발했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더 큰 파괴력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많은 조선인이 구속되다

이 사건은 상하이 전역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흥커우 공원 구역은 삼엄한 경비체제에 들어갔고, 장갑차들이 거리를 오가며 보행자들은 불심 검문을 당하였다. 일본 영사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용의자 다수를 체포했는데 범인으로 보이는 조선인은 군중들에게 구타를 당해 의식 불명인 상태라 신원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헌병대장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치안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상하이 일본 대사관의 모리타 일등서기관은 폭탄 사건 후 이 사건은 한국인들이 계획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으나, 일본 신문들은 중국 국민당과 연관이 있는 중국 테러리스트의 선동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중국인의 사건 가담을 부정하며 사건 직후 외무대신이 일본 대사관을 방문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였다. 같은 무렵, 중국 정부군은 범인 또는 공모자들이 중국인 지역구로 피신한다면 찾아내겠다고 하였다.

이날, 공동조계와 프랑스조계에 있는 모든 조선인은 가택 수색을 당했으며 그 결과 많은 조선인들은 미국이나 영국인 지인 집으로 피신하였다. 미국 선교사들은 많은 조선인을 지키기 위해 피신 장소를 제공했다. 한 미국 여선교사는 그의 아들을 어디에 숨겼는지 말하지 않은 조선인 여성이 일본 형사들에게 심하게 얻어맞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조선인의 소행임이 확실

일본은 프랑스 조계에 본부를 둔 이른바 한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만주와 조선 전역에 분파(分派)를 지닌 조선 혁명정부라는 존재의 발견은 안창호라는 한 조선인을 체포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그는 63세로, 40년 넘게 독립운동을 했으며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기 전에는 이른바 조선공화국의 수상이었다고 한다.

압수한 문서에 따르면, 조선, 만주, 상하이에서 많은 조선인이 연계해 활동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 결과 다수의 조선인이 일본군 사령부에 구속 체포되어 이곳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은 한국으로 보내져 재판을 받을 것이다. 안창호는 오랜 기간 미국 본토와 호놀룰루에서 거주하였고 지금도 처와 세 자녀가 미국에 있다.

일본 신문 연합(聯合) 사(社)는 장학량(張學良) 장군이 한국독립당과 협력하고 있고, 만주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려는 목적으로 조선인 테러리스트가 북경에서 만주로 파견되었다는 보도를 후에 배포하였다.

상하이 시의회는 일본 정부에 폭탄 사건에 대한 유감을 뜻을 표명하고, 벨 의장은 일본 영사 이구치에게 애도를 전하였다.

확실한 소식통에 의하면, 커닝햄 미국 총영사는 일본 측에 조계 도로를 사용해 과장된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 항의했다. 이를 무시한 일본은 날씨가 좋지 않아 폭격기 50대의 비행은 중단했으나, 군인 1만 명과 중화기, 장갑차, 탱크를 이용한 퍼레이드를 거행하였다.

도쿄에서 온 보고에 따르면 시라카와 대장은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의 신분이 변경되지 않았고, 우에다 사단장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부상에서 회복하자마자 즉시 군에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시라카와의 천황 송덕문(頌德文)

식전에 앞서 시라카와 대장은 일왕을 찬양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저희 천황폐하의 국민은 폐하의 현명하고 자비로우신 통치를 받아 제국의 위신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만주사변 발발 이후 연달아 상하이 사변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 군은 전통적 유산인 용기와 울곧은 규율을 발휘하여 극동의 정의와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용감하게 행동하였다” “우리의 국가 구조는 황실 제국 이래 유례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일본국은 자연의 이치와 평화 안에서 위엄을 갖추고 건국되어, 황실을 가장으로 삼아 통치 받으며 하나로 결속되어 있다. 이러한 모습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모습이다”

1월 28일 운명의 밤에 차페이(Chapei) 침략을 명령하였던 시오사와(塩沢) 대장은 흥커우 공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양자강 유역 시찰을 나가 화를 면했는데, 도쿄에서 날아온 명령으로 상하이로 소환되었다.

뉴욕 이브닝 포스트지의 논평

뉴욕 이브닝 포스트는 상하이 폭탄 사건은 일본의 정치 시책 중 주요 인사의 암살이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라고 평가한다. 이 논설에서는 일본이 만주에서 실시하는 방식으로는 극동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를 새로운 인식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일본 군국주의자의 자유주의자 암살을 비판하며 “일본 군국주의자의 적이 되는 자(조선인, 중국인)가 군국주의자와 같은 무기(암살)를 사용한다 해도 놀랍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폭탄으로 적을 제거하는 군국주의의 행위를 조선인들이 했기 때문에, 일제 병합에 거세게

반발하는 조선인들의 의지가 아직 강하게 남아 있다는 사실, 잊혀졌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조선은 완전히 동화된 것이 아니다.

상하이 사건과 더불어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조선을 다룬 것처럼 만주를 다루면서 어찌 동양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상하이 사건에 대한 런던 언론의 평

런던 타임스는 이 사건을 현재의 중 일 관계를 결렬시키기 위해 계획된 도발 사건이라며, 상하이의 상황이 램슨 경의 타개책으로 호전될 것이라 생각되는 순간에 마침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점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당사 도쿄 특파원의 마지막 뉴스에 나온 것처럼 폭탄 투척자의 의도가 정전 협정의 서명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실패했다. 영국에서도, 외국에서도 사건의 희생자에게 동정 여론이 몰리고 있다. 일본이 현명한 위엄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이러한 목소리는 커질 것이다.”

데일리 헤럴드는 이 사건을 개탄스러운 사건이라 불렀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일본 여론을 격양시키겠지만, 상하이에서 더 이상의 유혈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은폐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일본이 점령군을 철수하고 중국에서의 분쟁을 국제연맹의 중재에 맡기지 않는 한 극동에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이 사건의 논평에서 이처럼 중대하고 과격한 도발행위는 국가가 고귀한 상태를 지킬 수 있을지가 걸린 시련을 준 것이라며, 일본은 충분히 강대한 나라이므로 이러한 모욕을 당한다고 해서 중국에서의 어려운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리 없다고 말했다.

중국인과 공부국(工部局)이 함께 혼란을 막을 준비를 했다

최근 각 지역에서 중국인 군중에 의한 일본인 거류민 공격 사건이 발생하자, 공부국은 신문을 통해 조계에서 이 같은 사건을 즉각 중단하고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요청에 응한 중국인 시민 연합은 무책임한 시민의 ‘어리석은 행동’을 중지시킬 것을 약속했다.

한편 시민 연합은 상하이 시의회에 ‘홍커우 지구에서의 일본인 무법자와 일본인 편의대의 유례없는 잔학 행위를 외면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며, 일본에 정식 경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인은 1월 28일 이후 일본군이 소주(蘇州) 운하 북쪽의 공동조계를 기지로 삼아 갑북(閘北) 지구를 공격했을 때 조계의 중국인 시민을 다수 체포, 구속, 살해한 것을 지적했다. 미국 부영사와 무역 위원들이 말한 것처럼 몇몇 외국인들도 심한 대우를 받았다.

중국인 측은 공부국이 일본 사회 전체에게 일본이 행한 행위의 책임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고, 공부국은 홍커우 지구에서의 일본인 잔학행위를 외면하려 할 뿐 아니라, 오히려 몇몇 중국인의 어리석은 행위에만 눈을 돌려 결과적으로 중국인 측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역: 마츠나가 미도리(松中みどり), 야마구치 다카시(山口隆))

13) 1932년 5월 9, 10일 <홍커우 공원 폭탄 사건의 진상> (김구) 가나가와현립공문서관

5월 9일 <The Truth of the Hongkew Park>이라는 영문 제목에 윤봉길이 흥행을 결행하기 전 촬영한 기념사진을 첨부하여 상하이 각 외국 신문에 투서한 것으로, 5월 9일 및 10일 각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번역문이다.

홍커우 공원 폭탄 사건의 진상

홍커우 공원 폭탄 사건의 진상은 일본인이 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를 어떤 기관과 관련지으려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상하이의 조선인은 우선, 습격을 받고 체포장 없이 난폭하게 체포되었다. 도쿄 및 조선에 있는 조선인 조차도 그 영향을 입었다.

그 때문에 이 일의 조직자인 나는 인도와 정의의 이름으로, 또한 우리 동지를 일본의 침략 정책 분쇄 임무에 불러들이려는 희망으로 본 사건의 진상을 세계에 공표한다.

『계획과 수행』

일본은 강력한 힘으로 한국을 병합하고 이어 만주를 정복하고, 나아가 이유 없이 상하이에 침입함으로써 동양 및 세계의 위협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세계 평화의 적, 인도와 정의의 파괴자에게 복수할 결심을 한 것이다.

맨 처음 나는 이봉창을 도쿄에 파견하였고, 그는 1월 8일에 일본 황제를 습격했다. 이어서 나는 일본 군대 장관 등을 살해하기 위해 Yung Bong Kil 군(현재 중국 발음으로 In Fong Ke, 윤봉길로 알려짐)을 4월 29일 홍커우 공원에 보냈다. 나는 도쿄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다른 기회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홍커우 사건의 전말만을 말하기로 한다.

4월 29일 이른 아침, 나는 우리 청년 동지 윤봉길 군을 불러 내가 제작한 폭탄 2개를 그에게 주었다. 1개는 우리의 적인 일본 군벌을 살해할 것. 일본인 외 어떤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또 1개는 행동이 끝난 뒤 그 자신을 죽이기 위해. 그는 내 명령을 수행할 것을 엄숙히 약속했다.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악수를 나누며 이별을 고하고 다음 세상에서 만나기로 맹세했다. 나는 자동차를 빌려 그를 홍커우 공원으로 보냈다. 그는 몸에 그저 2개의 폭탄과 돈 4불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성공을 기원했다.

『윤은 어떤 사람인가?』

윤봉길은 1908년 한국 예산의 궁핍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양친은 현재 아직 생존해 있을 뿐 아니라, 그에게는 처와 2명의 자녀가 있다. 그는 몹시 영리했으므로 괴동(怪童)이라 불렸다. 17세 때 그는 야학을 열어 빈농의 아이들을 5년간 가르쳤다. 그는 일본인의 경제적 및 정치적 압박이 한인을 밀어내어 파산과 죽음에 빠져들게 함을 보았을 때 복수를 결심하고 집을 나왔다. 그는 상하이로 가는 도중 돈을 다 써서 청도에서 머물며 그곳에서 일본인 나가하라가 경영하는 세탁소에서 일했다. 그는 여비로 쓸 만큼 돈을 저축하자 작년 8월 상하이로 왔다. 그는 이곳의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공장의 부당한 대우를 혐오하여 공장을 그만두었다.

『한인 애국단이란 무엇인가?』

한인 애국단이란 내가 애국자만으로 조직하고, 또한 폭력을 써서 한국의 구제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지휘하는 단체인데 지고한 희생을 감수하는 자만이 단원이 될 수가 있다. 단원은 오로지 나만이 지명하고 또 용인하며, 단원은 서로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한다. 또한 어떠한 모임도 하지 않는다. 우리의 일은 절대 비밀리에 거행된다. 우리는 적의 중요 인물을 암살하는 동시에 적의 집정 기관을 파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독립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상하이 출정군 사령관 시라카와와 싸울 수 있는 돈도 군대도 가지지 못했으나, 그러나 일본인의 불가침 경비선을 돌파하여 맨손으로 그를 죽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훈련된 ‘인간’을 가지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를 잡기 위해 일본인은 힘닿는 한 모든 수단을 써왔고, 또 지금도 전력을 다해 찾고 있는 김구이다. 나의 평생은 우리나라의 종국 구출과 우리 인민의 영원한 자유를 위해 바쳐왔다.

나는 모험적 생애를 1896년부터 개시했는데, 당시 나는 21세였다. 그 해에 한국은 독립국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경성을 유린하고 우리 황후를 그의 궁전에서 살해했다. 이 때문에 전국이 몹시 놀랐다 나는 몰래 복수를 계획하고 시역(弑逆) 범인 쓰치다(土田) 대위를 한국 황해도 안악까지 뒤쫓아 가서 맨손으로 살육했다. 그리고 근처 벽에 나의 성명, 주소, 살육 이유를 크게 써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본인이 끊임없이 뒤쫓았으므로 나는 20일 후에 체포되어 인천 감옥에 보내졌다. 한국의 법정은 한국 주재 일본 공사 임권조(林權助)에게 강요를 받아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국왕이 이를 저지하여 처형은 하루하루 지연되어 3년 연기되었다. 나는 마침내 감옥을 나와 멀리 떨어진 절에서 1년 동안 승려로서 살았다. 한국 내를 두루 편력한 뒤 나는 그 무렵 개시된 계명 운동에 참가하여 현대식 학교를 다수 설립했다.

안중근이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伊藤) 공작을 사살했을 때 일본인은 내가 안(安)의 개인적 친구였기 때문에 나를 투옥시켰다. 그 후 나는 석방되었고 황해도 안악의 양산 중학교 교장이 되었다. 그리고 1911년에 데라우치(寺内) 총독 암살 계획이라 부르는 사건에 연좌되어 다시 체포되었는데 15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내 신원은 나를 아는 한인 경찰관 덕분에 30년에 걸쳐서 발견되지 않았고 내 목숨에는 이상이 없었다. 내 형기는 몇 차례 사면으로 단축되었으므로 5년 수감 후 나는 석방되었다.

1919년 3월 전국이 하나가 되어 결기하여 전국적 독립운동을 시작했을 때, 나는 신변이 절박하게 위험한 상황임을 알고 중국에 왔다. 그로부터 이후 나는 세계 여러 강대국이 적대함을 기피하는 일본을 향해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내 무기는 겨우 피스톨 몇 자루와 역사적은 수의 폭탄이 있을 뿐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싸워 멈추지 않을 것이다.

동봉한 사진은 한국 국기 아래 있는 윤봉길 군을 보여주는 것으로, 거행 3일 전에 찍은 것이다. 그의 가슴 위에는 한인 애국단의 서맹서(誓盟書)가 핀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서문>

나는 적성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서하나이다.

대한민국 14년 4월 26일 선서인 윤봉길
한인애국단 앞

14) 1932년 4~5월 『상하이 출정일지 2』 다시로 간이치로 참모장, 국립국회도서관¹⁰⁾

4월 29일 흐린 뒤 비 천장절

- 오전 9시 출발. 천장절 관병식을 위해 신공원으로. 관병식은 무사히 종료되고 잠시 휴식 후, 민관, 오늘의 축하회가 공원 내에서 거행될 예정. 11시 반 개시. 약 2미터 높이의 단상 위에 군 사령관, 함대 사령장관, 제9사단장, 공사, 총영사, 가와바타 행정 위원장, 도모노 민단 서기장 올라, 순차적으로 식순 진행되어 기미가요 합창이 끝나고, 군 사령관의 만세 삼창을 하려는 찰나, 단상 왼쪽 후방에서 한 흥한이 폭탄을 던져 단상의 사람들 모두 중경상을 입었다. 범인은 불조계 거주의 윤봉길이라고 하는 조선인이다. 이런 성의 ●● 한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있어 실로 태만하다고 생각된다.
- ●● 방면 정보가 험악해져, 제1차 본대의 출발은 전기(前記) 사항 때문에 일시 중단을 지휘했으나, 범인의 신원도 밝혀져, 각 방면 정황에 변화 없이, ●●방면의 긴급 대응하기 위해 ●●●●서둘러 파견하는 것이 아니다. 니시무라 참모 14D(제14사단을 말함)에 가서 명령을 전함.
- 저녁식사 때…
- 복민 병원에서 시게미쓰 공사 및 무라이 총영사, 가와바타 행정 위원장을, 육전대 병원에서 노무라 장관, 도모노 군을 문병함. 가와바타 위원장의 상태는 위험. 노무라 장관, 도모노 군은 수면 중.
- 숙소 복귀 후 ●●●●범인의 배후 관계에 대해 각종 자료를 제공함. 시마다(島多) 소위가 찾아와 경계의 허술함을 사죄함.

4월 30일 ●●●● 맑음

- 오전 7시 반 출발. 병참 병원에 시라카와 사령관, 우에다 중장을 문안. 둘 다 숙면 중.
- 정례회의. ●● 건 없음.
- 오전 9시 반부터 공사관에 정전 회의 관계자 집합. 연맹 상황을 듣고 향후 방침을 검토함. 그 결과 …은 비공식적인 의견 교환은 진행한다. 이 때문에 중립국 ●●과도 회견함. ●●●의 전망이 보인 후 본회의를 연다. 단, 사건이 지나군과 관련없다는 것이 명확해지는 경우에 본 회의를 연다.
- 상기에 이어 영사관 관계자 ●●●●원을 추가, 사건 이후 처리에 관해 ●●. ●새벽녘 불조계 관리(영사관 순경 35명, 헌병 21명을 파견)에 대하여 보고를 ●한 후 ●●에 들어가 자신부터 이 ●●를 돌려줄 수 없고 불조계 선인의 소굴을 일소하기 위해 불조계 당국에 엄중 ●판을 하겠다는 뜻 전함.
- 대●●●●●를 묻다. 작전회의 건. 철수 지역 토지 매수 건. ●●장 건. 어제의 사건. 작전회의는 사건의 성격이 밝혀질 때까지 미뤄야 할 것. 평화 지대의 건. 백만 냥 준비하는 건. ●●을 해서 가건물 건설 등의 이야기가 있다. 나는 구 지금의 ●●은 평화지대의 결정에 있어서 기운을 ●●는 것이라 ●.
- ●● 심사위원회에 입회함.

5월 1일 쾌청 여름 느낌

10) 편집자 註: 원문에 ● 표시가 상당히 많음. 알아볼 수 없는 글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14D ●● 파병의 ●●명령 도착.
- 오전 9시, 동화양행에서 ●●●과 회견하여 의안 2를 제시하고 축진을 촉구함. 오늘 다시 회담 진행.
- 군 철수에 관한 명령을 내림.
- 군 사령관 문병. 오늘은 상당히 상태 양호해져 아래의 ●건을 ●●께 보고함.
 1. 총장으로부터 14D(14사단을 말함)를 가능한 한 빨리 만국에 파견하라는 군 명령 내려옴.
 2. 27B장이 지휘하는 ●●●을 근간으로 한 ●대(隊)는 2일 오송 출발하기로 함.
 3. 장관으로부터 정전 회의는 미료(未了)의 문제도 적절히 올려 시급 ●명으로 이동.
 4. 9D장은 경질되지 않도록 군 사령관 이름으로 ●●● 함.
 5. 군사령부는 사령관님의 ●회복와 개선에 참모장의 이름으로 ●●할 것.
 6. 대관 총장으로부터 미나미 각하 문안에 이부카(井深) 군무정을 파견시킬 것.
 7. 군 사령부 일부 감원.
 8. ●●구역… 사실이 아님.
- 엇그제 사건에 대해 ●●●을 내다.
- 시노하라 중령, 하기네 헌병장을 처분하기로. 시노하라 ●● 3, 하기네 ●● 5, ●●처분을 내릴 것까진 없다며 돌려보냄. 이상 군 사령관에게 승인 얻지 않고 독단 실시할 것.
- 오후 4시 반, 동화양행에서 ●●●과 회견, 지나측의 비공식 답변을 얻고, 결국 푸둥(浦東) 방면에 대해서는 Ե에 나온 ●●은 ●●로 하고, 그 밖에는 ●에 ●●으로 그칠 것. 之는 ●●불가능하여 돌려보냄.
- 가와바타 단장 댁에 조문 다녀옴.
- 오후 5시 반, 영국 공사관에서 4개국 ●관과 회견. 지나군 ●● 문제에 대해 최종 비공식 회견을 나눔.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도 만국의 형세가 절박하여 14D로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외국 측은 일본 영사관 …은 이 문제에 있어서 혼자 무리라고 할 것, ●다 시로 혼자 애쓰고 있다고 ●● 하고 있다는 등 ● 기회를 잃으면 해결될 가망 없어, …가 됴으로써 이에 타협하기로 정하고 중앙에도 ● 보고함.
- 오후 아홉시 반 출발. 오송으로 돌아가서 ●●●단의 출발을 보냄.

5월 2일 안개 흐림

- 정례 회의. 사령부 …를 돌려보내기로 함.
- 오전 10시 공사관에서 정전 회의, 관계자 집합. 여러 가지 협의함. 오늘 중으로 되도록 소위원회 마치고 내일은 본회의 개최로 넘어갈 것을 합의함.
- 점심 식사 후 병원에서 미나미 각하를 문안하고, ●을 함. 미나미 각하 모두 ●● 여전히 양호.
- 오후 6시부터 소위원회 열어, 약 20일 만의 개회임. ●●●도 예정대로 오후 8시가 지나 종료. 이로써 소위원회의 임무는 종료함.
- ●● 오후 5시 지나 갑북(關北)에서 해군 ●●●●의 지나 폭한에게 습격당해 1명…….
- 소위원회의 임무를 마치고 오후 9시경 사령부로 돌아와 식사 중 차장 전보 도착, 푸둥 지나군 ●●에 관한 지나 측으로부터 중립국… 최후의 계쟁… 지역 관련 수정 전보. 그런데도 … 부득이하게 정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당히 강한 전보 도착. ●●이에 대해 일일이 설명을 한 후, 오늘의 태도로 회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거듭 밝히며 ●의 ●●●을 보냄. 숙소로 돌아온 것은 딱 12시였음.

- 11시가 지나 …내일 본회를 처리하기로 함.

5월 3일 맑은 뒤 흐림

- 오전 8시 반부터 군함 이즈모(出雲)의 시마다 참모장을 방문. 어젯밤의 식● 경위를 설명하고, 본회의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함. 해군으로부터 전보를 추가 한통 더 받음. 우리 쪽도 추가로 한 통 더 보냈음. 공사관 측은 어젯밤에 보냄.
- 공사관 측에서 온 전보를 보면 육군은 …이고, 해군은 ●경구(區)에 들어갈 것을 주장하고 있음. 식장 안에는 육해군 대신 외무 장관은 회의를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기를 희망한다는 문구도 있음.
- …인가 처벌을 함.
- 오후에 잠시 군 사령관, 우에다 사단장 문안.
- 오후에 참모본부의 답신 받음. 상당히 바보같이 한심한 내용의 전보임. 따라서 공사관으로 집합. 해군 ●●방면의 전●도 가져와 대책을 고심함. 결국 푸둥 ●●에 관한 지나측 편지의 ●●사항에 관하여 일본의 …것을 요구함에 관해 오카자키 서기관하고 램슨을 방문하여 ●●했으나 ●공사는 공동 위원에게 새로운 임무를 ●… 할 능력이 없어 여러 가지 협의했으나, 결국 묘안 없이 돌아감.
- 오후 11시 지나 숙소에 기타(喜多), 호리이시(堀石), 모리야(守屋), 아베(阿部) 해군 ●● 집합하여 협의한 결과, ●마지막 전보를 보내고 이제 결렬될지, 아무 말 없이 심의를 마칠지의 양자택일을 해야 함. 조속한 회훈(回訓)의 뜻을 전보함. 참모본부의 무지한 ●● 난처함. 각 부대에게도 미안함.
- 12시 지나 취침.

5월 4일

- 정례 회의. ●●●인과 밀담(의)을 꾸민 듯함.
- 오전 10시경 사령관, 사단장 문병.
- 오후 1시부터 중부 초등학교에서 가와바타의 민단 장례식에 참석. 육군대신 및 군 사령관의 조의문 대독(代讀). 장례식은… 엄중한 경계 속에 순조롭게 진행됨. 가와바타 단장의 인격에 대한 경의와 ●장●에 대한 애도의 마음이 수많은 조의문에 가득했음.
- 저녁에 육 해 외무 3곳에서 답신 도착. 푸둥에 지나군이 없는 것에 관해 ●●소위원회 지나 대표의 ●● 4개국 대표…… 중립국 대표에게 제출해야 ●을 ● 해 받음.
- 공사관의… 해군●부 참모사령부에 …10시 반까지 협의를 열어 여하튼 결론에 도달해, 미리 램슨의 승인을 …기로 결정함. 오카자키 오후 11시 ●●함.
- 오후 11시 반, 오카자키 ●●●으로부터 ●●면(사이)을 ‘소’ ●● 취지의 전화가 있었음. 이로써 ●●이 됨.

5월 5일 비

- 오늘은 남자의 절구, 단오(端午). 협정 서명. 운수가 좋음.
-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를 열어 서명.
- 나는 지도에 서명하기 위해 오전 9시 영국 공사관에 도착. ●●중장은 위험을 고려해 거처를 바꿨기 때문에 제시간에 오지 않아, 9시 반경부터 겨우 시작함. 지도 준비가 여의치 않는 등 시간이 걸림. 도중에 본 회의에 가서 소위원회의 보고가 있어, 다음 협정을 축조 맞

5월 9일 흐림

- 오전 9시부터 병원으로 향함. 웃었나? 주사 반응으로 피식, 어젯밤에 수면 부족으로 병●이 남. 나시오카 부관이 ● 왔으니, 가지 않고 부관에게 ●●의 건을 ●●해 주었음.
- 오전에는 편지. 꽤 많은 편지 빔을 갠음.
- 오후 2시부터 대련●●에 가서 중의원 위문단 영접. ●●의 ●●도 총영사 병문안을 감.
- …영, 미, 이, 불 총영사(이(伊)는 참사관) (연합위원으로서의)를 방문해 인사를 전함.

5월 10일 맑음

- 정례 회의.
- 오전 9시 40분부터 병참 병원에 사령관을 문안. 10시 반. 중의원 의원 위문단 우치노(内野) 중장 이하 19명 문안. 입회. 사령관은 주사 반응● 불쾌감을 느껴 우치야 단장만 회견.
- 프랑스국 ●관례차 내방. 지난번 대사관경에게 인사한 ●●.
- 의원 위문단 내방. 군…의 개요를….
- ●●● 귀환.
- 59 노무라 함대장 이하 잔류 부대 군함 승선. 배웅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단 내방 때문에 가지 못함. 도미타(富田) 2위가 함.
- 정전협정에는 ●제1부장으로부터 질문장이 옴.
- 밤, 의원단 초청 육해군●●, ●●.

5월 11일 흐림

- 어젯밤 비가 옴.
- 어젯밤 군 사령부를 조만간 내지로 환송하기 위한 차장 전보가 옴. 급격한 변화다. 무슨 이유인지 극도로 괴로워함.
- 속히 부과장 회의를 열어, 공전에 대한 협의를 실시함. 나가타 소장도 참석함. 문제는 건축 중단. ●●● 처분. 공사의 ●●. 그 재료의 처분. ●●. (중양은 육군 사령부를 철수해도 정전협정은 유효하다는 해석을 취할 심산인 듯하나 거기에는 큰 모순(●●)이 있음) 등에 관한 것들임. 협의 종료 후, 나가타 소장과 폭탄 사건, ●후 (불조계 ●●에 관한) 내사를 심도 있게 논의함.
- 정오 조금 전, ●●내지 환송 건 ●●…라는 취지의 대관 ●●의 건 전보가 도착함. 매우 급한 편임.
- 점심 식사 후 병원에 미나미 각하를 방문해 사령관에게 군 철수 건에 대해 말함. 군 사령관은 입맛이 좀 살아난 것 같으나 아직 기분이 좋지 않음.
- 오후 3시경부터 나가타 소장과의 협의를 함. (오카무라 군과 셋) 폭탄 사건, 정전협정에 유감의 뜻을 ● 받을 것. 모략 계획에 대해, ●●●●에 대해, ●●에 대해서.
- 밤에 나가타 군 초대. 오카무라와 ● 3.
- 나가사키●●●● 장교 아키야마 다이● 이하 13명 상하이 도착. ●●● 회장 ●●대령 이 부키 ●●로부터…….

5월 12일 흐림

- 오늘 군 철수에 관한 칙명 도착.

- 오전 9시, 프랑스 ●●● 대사관의 추도회가 있어 참례. 불조계 사원에서 진행.
- 나가타 소장… 상하이 떠남… 전기(前記) 답신…… 배웅하지 않음.
- 19로군의 ●●군으로써 ……중립을 지도하겠다고며 정전협정●●, 군은 철수●●, 이것도 협정 유효하다는 등의 주의를 취하지 않기로 함. ……쪽에서 하는 것은 매우 불리함.
- 협정에 관한 육군대신의 ●●가 나옴. 협정해도 협정은 유효하다 하고, 협정의 운용을 연합 위원에게 맡기려는 것은 무리라 생각함.

5월 13일 흐림

- 간밤에 전보 도착. 자신을 공사관 ●●●●이라고.
- 오전 정례 회의. ●●해 특이 사항 없음.
- 오전 10시부터 오송행. 백전교(시라카와橋) 개통식. 사령관 대리 자격으로 참석함.
- 돌아가는 길에 병원으로. 사령관은 오늘은 다소 양호. 일찍 돌아와 히로시마나 오사카에서 ●●●할 분을 희망을 줌.
- 오후 3시, 시국회 대표 회견. (5명의 이름, 주소, 직업) 건의 전보를 받음.
- ●●섬 ●●●●, 63. 오후 10시경 숙소 복귀.

5월 14일 흐림, 가랑비

- ……●●기분임.
- 전보에서 ……원자전 ●●해 간●●에 불행의 운명이 가없게 ● 함.
- 오전, 특이 사항 없음.
- 가와시마 내방. 군●●에는 모락 등으로 ●●생겨 자금이 궁할까…… 임.
- 오후에 병원행. 군 사령관은 주사 반응 약간 줄었고 식욕도 생김. …… 앓음. 복민 병원으로 공사, 총영사를 문안. 공사는 상당히 ● 싶음. 오늘은 신문을 읽음. ●●도 없음.
- 밤에 아리요시 공사, 마쓰오카●, 사토 군의감, 야노●관 등을 6해군 ●●에 초대.

5월 15일 흐림, 쌀쌀함

- 오전, 특이 사항 없음.
- 오후에 병문안. 사령관도 어제보다 상태 양호. 사령관 복귀 관련 프로그램을 결정할 필요 있어 다가와 ●● 부장과 상의함.
- 밤, 라디오에서 도쿄에서 ●●●●●● 1명, 해군 장교 5명, 이누카이(犬養) 수상, 우치 대신, ●●●, 정우회 본부를 습격해 수상은 권총에 맞아 위독한 상태.

5월 16일 비, 쌀쌀함

- 정례 회의. ●●해군 대령 귀환.
- 오후 5시경 공사관에서 정전협정 ●●●●에 서명함. 마지막으로 우에다 위원장이 오후 6시 5분경 병상에서 서명. 이로써 거듭 논의를 거친 협정으로 최후 완성됨.
- 서명 후 병원에서 사령관을 문안하고, 우에다 위원장의 서명에 입회함.
- 밤에 육군 측 우에다 사단장, 해군 측 노무라 장관의 이름으로 제9사단 관계 장교 ●. 해군 측 ●●, ●●●. 신문 기자 초청. ●●, ●●●.

5월 17일 흐림, 가랑비

- 오전에 윤봉길의 예심조서를 봄. 육군성 법무국장은 판결만 출발 때까지 군법회의에서 내리고 신병은 헌병대에 남기도록 말했으나, 예심의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하니 과연 재판이 출발까지 종료될지 의문스러움. 본건은 그 중대성에 비추어 충분히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음. 부득이한 경우 영사관에 넘길 필요 없음.
- 사령관, ●단장의 병세, 궁내성 ●●병 예방령에 따라 2주간 참내 금지(두창 환자 수용에 한함) 해야 하며, 6월 중순에 참내 입장을 허가하고, 요양하게 해 사단장 ●●●에게 요양할 수 있게 하는 ●에 전보를 치기로 함. (…)
- 도쿄 에히메현인회 사와다(澤田) 사령관과 동향인 관계로 병문안을 오고 싶다는 인사가 옴. ●하라 가키치 씨 동반.
- 좌측 명함의 ●지인, ●●현인회 일로 내방.
- 우에다 위원장을 대신해 정전 회의 관계자에게 ●를 상의함.

5월 18일 흐린 뒤 맑음, 찌는 듯한 무더위

- 오전, ●●●을 군 사령부를 위해 ●●●을 ●의 건 어젯밤부터 운반함. 다만 중앙과 군, 군 사령부의 일부라는 것에 대해 생각이 다른 것 같음.
- ● 군의부장에게 공사를 위해 ●●●을 남기는 건으로 상의함.
- ●●●●● 배일(排日)적 단체가 새로 생기는 정보도 있으므로 이것은 조속히 경고를 보낼 필요가 있어, ●●●●에 공사관, 영사관과 연락하도록 명함.
- 군 사령관이 돌아올 때까지 윤봉길의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는 해군에 남겨두라는 답변이 법무부장에게 도착함.
- 오후 육전대 500명 귀환. 이것이 귀환해야 하는 마지막임. ●●●●이 환송함.
- 병원 문안. 사령관은 오전에 오른손 시술을 하심. 기분은 어제부터 좋음.
- 저녁에 공사관 관계자들을 초대함.

5월 19일 흐림, 찌는 듯한 무더위

- 정례 회의. ●●● 없음.
- 아사히 신문 지국에서 본인이 찍혀 있는 전시(戰時) 사진 2장을 ● 해 주었음.
- ●다● 군 내방. 어제 귀국 앞두고 인사.
- 오전 11시 반경, 나시오카 부관 군 사령부(관) ●● 5시 반경부터 침대를 떠나 한 시간 반 앉아있었음. 빈혈 병세가 있어 즉시 잠자리에 들 수 있으나, 9시 40분경과 10시 40분경 두 차례 혈변(설사)을 하고, 위 또는 장에 내출혈이 있는 듯하여 ●● 중태라는 것. 즉시 병원에 ●군의회 장관과 대●, ●●●내과 ●●●의 급파 ● 전보. 또한 ●●●●● 해군 군의 장관이 입회하기로 함. ●●은 어제 이후 모처럼 상태가 호전돼 안심했으나, 잠깐 사이에 또 걱정에 잠김.
- 오후 식사 후 다시 병문안을 감. 고토 군의감 회진. 십이지장 궤양이 의심된다고 함. 빈혈이 심함. 최근 일주일은 가장 경계를 요하며, 앞으로 약 3주간 ●에 ●●●● 출발할 수 없다 함.
- 사령부로 돌아가 위 증상에 따른 ●●●, 중앙으로 보낸 전보 ●에 대해 처리함.
- 밤, ●●부에서 현인회. 사령관의 용태도 경계를 요하나, 갑자기 거절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의심 거리가 되기 때문에 잠깐 참석함.
- 수혈 때문인지 꽤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고 취침함.

5월 20일 맑음, 시원

- 어젯밤 이후 쾌청해짐. 오랜만의 날씨에 기분이 좋음. 그러나 ●여름의 더위●.
- 오전 9시, 병원에 가서 고토 군의감의 진찰에도 입회함. 언뜻 보기에는 매우 좋은 것 같지만, 호흡 나쁘고 빈혈도 ●고 일반 상태는 양호해지지 않음. 또다시 걱정이 되었음.
- 사령부 일부 잔류에 대해 고심함. 전보를 ●●함.
- 이전부터 가계에 대한 ●●적인 편지가 옴. 만철에 가고 싶다는 것. 이력서를 ●●하고 옴.
- 오후 1시경 병원에서 문병. 두 차례 수혈. 자주 ●● 앓아. ……함.
- 일단 사령부로 돌아왔으나, 오후 5시경 나시오카 부관으로부터 병원에 와달라는 연락이 있어 바로 ●. 위독 상태에 빠져 세 번째 수혈을 함. 오후 10시 지나서까지 병상에 있었음.
- 오후 11시경부터 꽤 회복함. 세 번째 수혈 효과가 있는 듯함. 오늘 밤은 대체로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12시경 숙소로 복귀함.
- 오늘은 ●● 각오하고 여러 가지의 경우를 생각함.

5월 21일 ●● 비 온 뒤 맑음

- 오전 7시경, 시노하라 다카히로 부관이 와서,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의 용태… 인… 다시 상태가 호전되어 안심함.
- 오전 9시부터 병원행 여전히 양호, 붕대 교체, ●는 ●와 ●●. 조금 안심하고 돌아감.
- 오후 지날 무렵, 혈색소 수는 여전히 변동 없고, 39.9라는 수치가 나옴. 한 번 더 수혈인가?
- 오노 사단장 출발. ●●●●로 배웅 (오후 4시 출발) 갈 예정이었으나, 4시 이후부터 사령관의 네 번째 수혈 때문에 가지 못함. 수혈 결과는 ● 현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 양호라고는 하나, 아직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함. 오후 6시 지나 사령부로 복귀함.

5월 22일 흐림 온도 ●

- 또다시 불쾌한 날씨가 됨.
- 아침 식사 중 부관이 와서 병원으로 왔으면 좋겠다 하여 바로 출발. 고토 군의감, 다가와 부장, 이부카 군의장, 기타 ●부 ●●. 오늘 처치 ●에 대해 의논함. 사령관 ●●●이 음식물을 요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군의 부장이 병상 및 처치를 사령관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함. 이 이야기의 요점은 ●●● 협의한 후에 만들었다는 것. 사령관도 납득하심.
- 용태는 아마추어의 눈에는 괜찮은 편임. 단 혈색소는 여전히 39로, 수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음. …지금 한 번 더 진행하기로 결정함.
- 군부부터 …하기로 함.
- 환송선 봄베이마루에 적재된 휘발유에 불이 붙어 화재를 ●켜 (오전 6시 반경) 예인선에서 ● 하행조계 ●의 좌●에 올려놓았음. 열두 시 넘어서까지 ●● 타버림. 휘발유는 운수부의 것. 운수부 사람은 편의대가 폭탄을 ● 듯하다고 말하는 것 같으나, 어제 ●●경비대의 인원을 늘리고 ●●●●을 하고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 않음. 선원의 화기 단속 ●하게 엄격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임.
- 밤, 해군 니시와키●●●● 검사를 위해 내방. ●● 수박을 ●다.
- …1호 ●인을 사령부 식당으로 초대해 서양요리를 제공함.
- 오후 10시경 나시오카 부관으로부터 군경부장과 긴급히 왔으면 좋겠다는 전화 있었음. ●●반에 ●원 급히 향함. 객혈 있음. 용태 급변. 오후 11시 40분 수혈 종료.

- 사령관이 다시 한번 다음의 말을 전함. (유언과 같이 들음) “이번 사건에 대해 막료 및 기타 사령부원이 잘 해 주었다. …와의 협력도 잘 진행되었다. 해군과의 협●동작전은 실로 잘 해내었다. 이 일은 폐하께도 아될 것이다”

5월 23일

- 오전 0시 반, 마지막 의미로 포도주 소량을 올림. 오전 한시 반경, 참내에서의 진수성찬 대접 이야기를 하심.
- 오전 6시, 본인에게 사령관 덕에 대해 이야기할 게 없는지 여쭙어보심. 대답함. 현 상태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극히 검소하게 하고 있으니. 현재 상태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는 자네도 알고 있어 주게.
- 오전 11시 지나 ●● 도착. ●●뜻은. ●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으로서 이역에서 정려 …고 국위를 선양하고 ●●의 ●●을 ●●하여 ●. … 기리다.
- 오후 1시경, …폐하의 ●●● 포도주를 올림.
- 사령부원 ●●의미로 모임.
- 오후 4시 10분, 칩어, ●●, 포도주 하사의 뜻 전달. 먼저 사령관께 위와 같은 뜻을 ●●●● 그 ●에 듣고 뜻을 여쭙고 마루 위에… 그 후 ● 하사하신 포도주를… 올림. 사령관은 일일이 감격해 ●며 들은 후 포도주는 모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심. 상대를 생각하는 것….
- 끝내는 ●고요해지시더니 오늘은 …고 싶으나, 잠시 조용히 잘테니 전등을 끄고 균경도 물러나라 하여 간호 한 명 외에는…
- 밤에 ●해 ●자연스럽게 나감. ●●● 좋지 않아 또 수혈함.

5월 24일 비

- ●●, 맥박, 호흡, 체온의 관계는 괜찮으나, 사령관 일반●상황은 어제보다 더욱 나빠짐.
- 오전 9시 반,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수혈을 함. 수혈 진행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음. 한다면 앞으로는 막료의 피를 드려야 한다고 …을 모음.
- 고토 군의감 오셔서 ●●이지만 실낱같은 희망을 ● 마지막 시술을 하자고 상담하심. 내과 미키● 군의 부장에게 ●●함. 먼저 …함. 어쩌면 이대로 가다가는 오늘 중으로 가실 지도. 시술은 어쩌면 도중에 ●●할 수도 있으나 일말의 희망을 가져야. 어차피 ●●●라면, ●라도 ●●있는 시술을 하자고 정함.
- 오전 11시 반부터 개복 시술. 고토 군의감 집도, 이부카 군의장, 고토● 조수 군의관 ●●. 2시간 만에 끝남. 사령관 침대 위에서 완전히 ●●● 응급시술이었음. 그 결과 위궤양 소만 부 10cm 사방위(유문부 포함)를 절제함. 궤양부의 크기는 2전 동전 크기, 그 중앙에 큰 동맥혈관 노출이 있었음. 때문에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걸로 보임.
- 밤●중에는 만약 마지막 수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의 피 3백●을 드림.
- 시술 결과, 안색이 홍조를 띠고 발가락도 색이 좋은 결과 나옴. 단 23일은 ●●위험계와 같음.
- ●●●● 앞으로는 괜찮을 것이란 생각에 오후 5시 우선 귀가함.
- △ 개복 시술의 순간은 일종의 극적인 광경이었음. 고토 군의감이 손을 소독하는 중, 미키 군 의정은 이미 맥이 안 짚이는데 그럼에도 시술을 할지 물었음. 고토 군의관 약간 주저함. 다가와 부장이 결행을 ●●함. 마침내 침상 위에 올라 칼을 잡음. 한편으론 수혈을 진행. 본인은 다음 ●●에서 시술 도중 사망을 예기하고 …를 스스로 ●함. 10~20의 혈액소에 65세 노인을 맥도 안잡히는 상태에서 시술. 그것도 무사히 끝남. ●로 기적임.

5월 25일 맑은 여름

- 오전 7시 30분 병원, 어젯밤부터는 용태가 좀 안 좋았으나, 본 ●● 좋음. 시술부에 통증을 말하며 갈증을 호소하게 됨. 오전 9시경부터 열두 번째 수혈을 함. 그 반응이 매우 둔하여 비관적임. 오전 11시경부터 위세척을 실시함. 큰 고통을 호소했는데, 그 후 용태는 좋지 않음. 비교적 비관적임. 오후 10시경까지는 우리 대기실이 완전히 절망적인 공기로 가득 차 만일을 사태를 준비함.
- 오후 5시 반, 미련을 남기고 사령부로 돌아가, 내일 사령부의 일부 귀환에 대해 사령부 ●●●●●을 모아 일●의 인사를 함.
- 오후 7시경에는 무릎●, 손가락●, 안면 등에 ●● 치아노제가 나타나 맥박, 체온, 호흡이 완전히 ●●에 빠짐.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초점이 없음. 하사받은 포도주를 두 숟가락 올림. 삼키고 세 번 ●를 숙여 예를 포함.
- 오후 10시경에 ●, 고토 군의감 ●, 또 상태가 호전되어 ●●함. 어쩌면 용태가 회복되어 맥박, 호흡, 체온의 관계... ●는 백●이 됨. 스스로 부채를 들고 부채질하여 사람을 ● 자유롭게 쉬고 싶다 말하여 ●● 가면 ● 앉아 다시 고침. 정말 기적적인 일임. 고토 군의감, 다가와 부장 등 3층에서 휴식. 오후 11시 20분쯤 가스 배출 ●하여 일동 기뻐하며, 4층에 휴식 중인 고토 군의관, 다가와 부장 등 ●와서 문안함.

5월 26일 비바람

- 고토 군의감 등 가스 배출의 ●에 ●●● 보니, 그 뒤 심장이 갑자기 약해져 호흡 악화됨(0시 15분경). 다시 비관의 분위기로 가득참.
- 오전 0시 반경, 합장하심.
- 수혈 준비를 함.
- 오전 0시 반 지나 열세 번째 수혈 실시. 이쯤 호흡 ●●● 됨.
- 오전 6시 26분 ●● 사망하심. (발상은 정오) 모든 인사를 다하고 회차● 희망에 찬 우리들의 노력은 끝내 수포로 돌아감. 우리들의 군 사령관은 마침내 타계의 사람이 되심.
- 오후 1시 반경 ●2좌, 육일 동화대 ●장의 ●하사 서위 전보가 도착, 발상은 도쿄 오후 1시 즉 상하이는 정오가 됨. 즉시 상을 공표함.
- 오후 4시경 신식(神式)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령부원 참석. 다음으로 본인의 ●하사받은 서위, 서훈의 ●●을 함. 이때 우에다 사단 장군 ● 참석하게 됨.
- 오후 7시까지 ●●. 이후 숙소 복귀하여 출발 준비함. ●●●●● 28일 출발.

5월 27일 비바람

- 오전 일곱시 반 ●●. 오전 9시부터 입관식.
- 오후 0시 10분경부터 영결식 ●에 ●●.
- 오후 1시 이후부터 ●●●, 이것이 마지막.
- 오후 2시부터 제사에 이어 영결식. 시민, 다수의 사람들이 참석함. 화환도 ●●●●●는 없음.
- 오후 5시경부터 약 1시간의 시간을 이용해 공사, 노무라 장관, ●● 육전대 지휘관, 고토 군의장, 총무부, 공사관, 영사관, 이즈모를 순방하며 인사를 나눔.
-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철야.
- 오후 8시부터 숙소 복귀, ●●, ●●에게 인사.

5월 28일 흐린 후 다소 맑음

- 영구 발인날
- 오전 7시 50분 출발. 병원으로 돌아와서 출발 준비. 오전 8시 50분, 영구는 병원, 행렬을 ...●해 오송으로. 10시 오송 도착. 군함 다쓰다에 ●. 1일 승선(함). 10시 반 오송 출발. 상하이 ●산 ●강으로.
- 정오후 ●산 ●강 도착. 동시에 1시까지 거류 관민의 주●● 고별하고, 다수 ●송함. 오후 1시 출항. 부●의 광경은 엄숙하였음. 오호(嗚呼) 사령관 ●●의 개선 없이는 오늘의 출발 ●●에 꽃들이나 ● 밖에. 화환은 전부 다쓰다에 싣고, 생화의 일체는 도중 ●로.
- 수뢰함(정) 두 척 벨빌까지 전후를 ● 음. 오후 5시 벨빌 도착. ●래함 두 척은 여기에 신호를 ●●하고 돌아감.

5월 29일 맑음

함해 중

- 오후 8시 내지 9시 사이에 관문 해협을 통과함. 문사●●, 하관●● (●●) ●●하고, 문사 ●은 조포를 발사하였고, 기타 시모노세키 시민... 등의 혹은 배에서 또는 육상에서 제등을 걸어 경의를 표하며, 혹은 ●● 신호를 발하여 경조의 뜻을 표함. ●●은 신호, ●●, 또는 경례 등으로 영구 곁에서 ●●.

5월 30일 맑음

함해 중, 평온.

5월 31일 맑음 ●로 들어오며 가랑비

- 오전 11시경 영구를 함 끝으로 옮김.
- 정오경 함정은 요코스카 근항에 도착. 정박중 각 ●● 함례를 거행함. 다쓰다 정박. 장례위원장 ●●대장, ●●●장... 사령장관 기타 다수 다쓰다로 와 영구에 참배. 오후 1시 20분 영구 소정에 상륙. 포차에... 오후 0시 0분 발차. 호송 각 ●● 공사관...등 도열하여 조의를 표함. 모두 ...함. 오후 3시 40분경 도쿄역 도착. 즉시 운구를 내리고 ...오른쪽에 고마코 시라카와 왼쪽에 섬. 마중 나간 ●●신사 플랫폼을 ●. 곧 시종●관 가와기시 소장, ...함에 영구참● 있음. 이어 영구는 엘리베이터로 중앙 통로에서 ...나와, 영구는 영구차에, 그 외 차례대로 자동차 줄을... 시라카와 저택에 이르러 영구를 ●●로 ●하고, 친척 사령관과 대면을 함. 본인은... 신관으로 ... 후, 오후 9시부터 밤샘을 위해 시라카와 저택으로... 오후 11시 반 귀가. 성대하지만 ●● ● 않을 수 없는 광경이다.

6월 1일 가랑비

- 오전 8시, ●사무소 육군●●에 도착.
- 오전 9시부터 참모총장의 훈시가 있었음.
- 오전 10시 반, ●●부터 참모본부, 육군성, ●● 사령부, ●●본부, ...부의 인사.
- 오후 1시 반부터 육군 대신, 해군성, 군령부(○부장관 전하, 차장) ...급 인사.
- 오후 3시부터 관전제.
- 오후 4시 반경 숙소 복귀함. 유타(豊) 군과 저녁 식사 함께함.
- 오후 7시 20분부터 시라카와 저택으로. 일반 밤샘의 사람들과 같이 가족 및 친족분들께 따

로 사령관의●●●, 병상을 말함. 오후 11시 숙소 복귀. 약간의 두통이 있음. 아달린을 사서 복용함.

- 모두 ●●대장 서거.

6월 2일 맑음

- 시라카와 군 사령관의 장례식. 육군장. 위원장 ●●대장. 부위원장 ●●차장, ... 오전 10시 시라카와 저택에 집합. 11시부터 발인. 정오 발인. 아오야마 장례식장으로. 오후 1시 제사. 이어 ●●식. 오후 4시 반, 오치아이(落合) 화장장으로. 오후 7시 반경 화장 종료. 일단 시라카와 저택에 들러 ●● 후 ● 마을에 외모를 방문하고, 10시 반경 숙소 복귀. 이로써 일단 큰 임무는 종료됨.

6월 3일 흐림, 찌는듯한 무더위

- 오전 8시 반 출근
- 후쿠다 대장 각하의 조문을 가다.
- 오후 한 시부터...

15) 1932년 5월 18일 상하이 파견군의 현지 귀환에 관한 건 (태평양 전쟁으로의 길 개전외교사 자료편) 가나자와 시립 다마가와 도서관

상하이 파견군의 내지(內地) 귀환에 관한 건 1932년 5월 18일

5월 5일 : 정전협정 성립에 따라 상하이 파견 군부대 전원의 내지 귀환에 관한 논의 시작되어 군 사령부와 내부 협의함.

5월 7일 : 해군 측으로부터 이의 없다는 취지의 답변 받음.

5월 9일 : 군 사령관 및 제9사단장의 용태 및 상하이 출발 가능 예상 기일을 문의하니 별지 제1과 같은 답전이 왔음.

5월 10일 :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에게 육군 부대(헌병대 제외) 전원을 일본 국내로 귀환시킬 예정이라는 내용의 전보와 함께 군 사령관 및 제9사단장은 부상 쾌유 후 귀환 부대 일부와 함께 상하이를 출발할 것이라는 차장의 전보가 있었음.

또 군정 당국에 대해서는 “향후 철수는 국내에 대기시키자는 주의(主義)이며, 지나 측이 정전 협정을 무시하여 상하이 부근 제국 신민이 다시 위기에 처해서 육군의 군사력 이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군부에서 판단하는 상황이 된다면, 재출동할 것이다.”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본 건은 10일 각료 회의에서 육군 대신이 제안함.

이 때, 일본군 사령부 참모 곤도 중령이 참모 본부로 와서 해군 측의 의견으로 육군의 상하이 출발에 대해 약 1개월 연기를 요청함. 하지만 참모본부 부원인 엔도 소령은 연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함. 곤도 중령의 혼성(混成) 1연대의 병력을 잔류시키고자 하는 희망에 대해 엔도 소령은 주된 방침(主義)에는 동의하고, 오늘 귀환 명령을 받았지만 사실상 상하이 파견군 전원 철수에는 이번 달 말일까지의 시일을 필요로 하고, 또한 군 사령관 및 사단장의 부상 관계상 6월 초~중순까지는 상하이에 잔류하게 되어 보병 각 약 1 대대를 군 사령관 및 사단장과 함께 출발하게 하는 것은 해군 측의 희망과 일치한다는 답변을 했고, 곤도 참모도 이에 동의함.

5월 11일

상하이 파견군의 귀환 명령을 아릴 때, 총장 대리로부터 “본 명령에 의거한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 및 제9사단장의 국내 귀환에 관해서는 부상 쾌유 후 귀환 부대 일부와 함께 상하이를 출발하도록 조치한다.”는 취지를 전해 듣고, 같은 날 발령 귀환 명령에 의거한 총장의 지시 수송 계획에서 파견군 전원의 상하이 출발을 5월 중하순으로 하고, 군 사령관 사단장(각 필요한 막료공) 및 보병 1연대(약 2대대)는 위 날짜와 상관없이 귀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5월 13일

그리고 군 참모장으로부터 별지 제2의 전보가 도착함.
파견군 전원의 귀환은 위와 같이 해군 측 양해 하에 대국(對局)상 유리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하고, 일부 잔류 건은 곤도 중령, 엔도 소령의 문답에서 명하듯 군 사령관 및 사단장의 병의 상태에 맞게 자연스러운 결과로 상하이 방면의 정황에 따라 정하기로 함. 그렇기 때문에 군 사령관 및 사단장의 자발적으로 귀환하지 않도록 하는 의지를 구속할 필요가 있음.

16) 윤봉길 판결문(1932년 5월 25일) 가나자와 헌립 공문서관

판결문

朝鮮 忠淸南道 禮山郡 德山面 柿梁里 139번지
상하이 佛租界 貝勒路 東方公寓 30호
무직 尹奉吉
明治 41(1908)년 5월 19일생

위 살인, 살인미수, 폭발물단속벌칙위반피고사건에 대한 당 군법회의는 검찰관 육군법무관 三好次太郎이 간여 심리를 수행하고 판결한바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인 尹奉吉을 사형에 처한다.
압수물건 중 도시락상자형 수류탄(증 제2호)은 압수한다.

이 유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조선이 역사 풍속 등을 달리하는 일본 통치하에 있음을 불합리라 하여 조선민족을 위해 그 독립을 회복할 것을 열망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조선독립운동에 진력할 목적으로 고향집을 나와 1931년 8월 상하이로 도향한 이래 불조계 내에 거주하며 제모공 등으로 취직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그간 대한교민단장 김구 기타 독립운동자의 무리와 자주 접촉하고 있었던 바, 1932년 4월 중순경 동 조계 마랑로 사해다관에서 또 동월 20일경 동 조계 서문로 모 조선인 집에서 위 김구의 초치에 의해 회합하였다. 동인으로부터 만약 피고인이 참으로 독립운동에 진력할 의사가 있다면 누구도 암살을 목적으로 한 애국단원에 참가시킬 것이니 4월 29일 천장절에 폭탄으로 암살을 결행해 달라는 뜻으로 교묘히 종용되었다. 피고는 이를 흔쾌히 수락하고 다시 같은 달 24일 전 현 사해다관 부근의 모 찻집에서 김구와 회합하였을

즈음 천장절에 육군대장 시라카와 요시노리와 육군중장 우에다 겐키치를 살해하라는 뜻을 김구로부터 듣고, 이의 준비로 중국지폐 90弗을 받았다. 지금 장군을 살해한다고 하여 조선독립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나 조선인의 각성을 촉진하고 또한 세계 사람들에게 조선의 존재를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드디어 이 두 장군을 살해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김구의 지시대로 애국단 단원으로서 기념 촬영을 하고 그로부터 폭탄사용방법을 배웠다. 또 같은 달 28일 시라카와 대장, 우에다 중장의 사진을 입수하여 그들을 확실히 알아두었다. 혹은 상하이 신공원에 이르러 다음 날의 관병식과 관민합동축하식의 준비가 되어 있는 식당의 모습을 정찰한 후 그날 밤 8시경 동 조계 화룡로 원창리 13호 모 조선인 집에서 김구와 만났다. 그로부터 다음 날 사용할 수통형과 도시락형의 2개의 수류탄을 건네받고 이것의 사용법을 알아내어 이에 일체의 살해준비가 이루어졌다. 다음 29일 이른 아침 위의 모 조선인 집에서 김구로부터 전기 2개의 수류탄을 수령하고 수통형의 것은 이를 우측 어깨에서 좌측 옆구리로 걸고 다른 것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모슬린」 보자기로 포장하여 동일 오전 8시경 교묘히 관현의 눈을 피해 전기 신공원 축하식장의 식단 좌측에서 비스듬히 뒤쪽 일반관람석에 위치를 점하고 폭탄투척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즈음, 관병식이 종료하고 이어 관민합동축하회가 개최되어 시라카와 대장, 우에다 중장 외 5명이 위 식단 위에 열립하여 관민일동이 일본국가 기미가요의 합창을 끝내려고 일동이 숙연하여 피고인에게 주의하는 자가 없음을 보자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간주하고 지금 피고인이 폭탄을 투척하면 양 장군을 살해할 뿐 아니라 동 단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필연 살해할 것을 예견하면서 감연히 손에 들었던 도시락형 수류탄을 땅에 놓고 어깨에 멘 수통형 수류탄을 베껴 들고 그 발화 끈을 당기는 동시에 위 식단 가까이로 돌진하여 그 좌측 후방에서 식단 위를 겨냥하고 위 수류탄을 던져 이를 작렬케 하였다. 그로 인해 동 단상에 있었던 시라카와 대장에게 치료일수 약 4주일을 요할 전신폭탄파편창을, 우에다 중장에게는 치료일수 약 6주일을 요할 왼쪽 다리 폭창(左足爆創) 겸 오른쪽 발바닥과 왼쪽 어깨(右蹠左肩頭) 및 왼쪽 슬개부 폭탄 파편창(左膝蓋部爆彈破片創)을 입히게 하고 동 단상에 있었던 해군중장 노무라 기치사부로에 전신폭창을 입혀 이 때문에 우안을 적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또 주중전권공사 시게미쓰 마모루의 사지와 둔부에 치료일수 약 4월을 요할 백수십의 폭창과 우하퇴 골절을, 동 상하이 총영사 무라이 쿠라마츠의 사지에 치료일수 약 3주일을 요할 폭창을, 동 상하이거류민단 행정위원회위원장 가와바타 사다지의 우측 흉부에 깊이 흉막강(胸膜腔)에 달하는 창상을, 동 민단서기장 토모노 모리의 사지와 안면에 치료일수 약 6주일을 요할 수류탄 탄편창을 각각 입히고 그중 가와바타위원장은 위 창상 때문에 흉막강(胸膜腔) 내 출혈을 일으켜 30일 오전 3시 10분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라카와 대장, 우에다 중장에 대하여는 살해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즉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상의 사실은

1. 피고인이 당 공판정에서 판시한 식단 위에 있었던 시라카와 대장 이하 7명이 각 판시의 상해를 받고 이 때문에 가와바타 위원장이 판시와 같이 사망하기에 이른 점을 제하고 판시와 같은 취지의 공술을 한 것과
1. 증인 토모노 모리에 대한 예심신문조서에 동인의 공술에 의하면, 자신은 1932년 4월 29일 천장절축하회 위원으로서 신공원식장에 출장하여 식단 정면을 향해 좌로부터 무라이 총영사, 우에다 중장, 시라카와 대장, 시게미쓰 공사, 가와바타 거류민단 행정위원회위원장 및 자신의 손으로 단상에 열립하여 기미가요 합창을 끝낼 무렵 수통과 같은 물건이 단상으로 던져져 노무라 중장의 전면 쪽에 떨어지자 곧 자기는 정강이(股)를 맞은 것 같

이 느끼며 부상하고 정신이 나서 단상을 휘둘러보았더니 단상의 사람들은 이미 흩어지고 있었다는 뜻의 기재가 있고

1. 증인 梨岡壽男에 대한 예심신문조서에 자신은 파견군사령관 시라카와 대장을 수행하여 신공원에서 천장절 축하식장에 출석하여 좌측 장교석에 있었는데 오전 11시 40분경 국가의 합창이 끝날 무렵 자신의 우측방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단상의 가와바타 위원장과 토모노 서기장과의 사이를 날라 노무라 중장과 시게미쓰 공사와의 중간 전방 단상에 낙하한 물건이 있어 곧 작렬하였다. 때문에 시라카와 대장, 우에다 중장, 시게미쓰 공사 등이 부상하여 어느 누군지 치료 조치를 하였는데 단상의 다른 사람들도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뜻의 기재가 있고
1. 예심관의 조회에 대한 제3함대부관 水野恭助의 회답서에 제3함대사령관 노무라 중장은 4월 29일 상하이 신공원에서 천장절 축하식에 참렬하여 오전 11시 40분경 돌연 투척된 폭탄 작렬로 전신에 폭상을 받고 또 단상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전부 부상하였음을 목격하였다는 뜻이 기재가 있고
1. 頓宮寛이 작성한 가와바타 사다지의 감정서에 감정이라 하여 동인의 우측 흉부창상은 폭창이며 깊이 胸膜腔에 달하여 동 강내 출혈을 일으켜 이것이 사인이 되어 동인은 4월 30일 오전 3시 10분 사망하게 되었다는 뜻의 기재가 있고
1. 시라카와 요시노리, 노무라 기치사부로, 우에다 겐키치, 시게미쓰 마모루, 무라이 쿠라마츠, 토모노 모리의 각 진단서에 각각 판시관계부분에 적합한 상하이가 있다는 뜻의 각 기재가 있고
1. 압수한 도시락 상자형 수류탄(증 제2호), 수류탄파편(증 제3호)을 종합 고려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이 사람의 신체를 해할 목적으로 폭발물을 사용한 행위는 폭발물단속법칙 제1조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것은 형법 제199조에, 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은 각 동 법 제203조·제199조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음은 각 동 법 제204조에 각각 해당하는바 살인 동 미수 및 상해는 1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죄명에 저촉하므로 동 법 제54조 제1항 전단 제10조에 따라 살인죄의 형이 가장 무거우며 12조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여 그 무거운 폭발물단속법칙위반죄의 형에 따라 사형을 선택하여 피고인 尹奉吉을 사형에 처할 것이며, 주문에 기록하여 제시한 물건은 본건 범죄행위에 공용하려고 한 것이므로 형법 제19조에 따라 이를 몰수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32년 5월 25일

상하이파견군 군법회의

재판장판사 육군공병중좌 핫토리 교타로(服部曉太郎)

재판관 육군법무관 오츠카 미사오(大塚 操)

재판관판사 육군치중병대위 마치다(町田) 勇

위는 등본이다.

1932년 5월 25일

상하이파견군 군법회의

육군녹사 후쿠다 데츠조(福田哲三)

17) 1932년 5월 26일 <근대세계 외교 문제 해설> (아시다 히토시 집필)

『국제 팜플렛 통신』 (타임스 통신사 발행) 구레타케(吳竹) 문고(美川)

제6편 중화민국

9. 상하이 사건의 경위

(전략)

연맹이 또다시 움직여 16일 위원회를 열어 장문의 권고를 작성하고, 일본의 철수 시기를 연합위원회의 결정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일본이 이에 반대하여 이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태에 빠졌으나, 영국 공사의 진력으로 타협안이 성립되고 일본도 연맹의 결의안을 존중하게 되어 월말에는 급속히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고, 29일 천장절에 서명을 완료하기만 하면 됐다.

그때 뜻하지 않은 폭탄 사건이 일어나 서명일이 5월 5일로 연기됐는데, 상하이의 형세는 이로 인해 현저히 완화되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급속도로 상하이군 철수를 결의하고, 5월 중순에는 모든 육군을 철수하기로 각의 결정했다. 이 결단으로 1월 이후 분쟁을 벌였던 상하이 사건은 일단 종결되었고 일본 정부의 진의는 충분히 외국의 양해를 얻을 수 있었다.

(후략)

18) 1932년 5월 27일 『도쿄일일신문』, 이시카와 현립 도서관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대장 떠나다

우리 전쟁 사상 최초, 위훈에 답하는 육군장

【상하이 26일 발 연합】 25일 밤부터 위독한 상태로 계속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이 26일 오전 6시 현대 의술의 전력을 다한 보람도 없이, 끝내 잠자듯 매우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서거했다. 대장의 상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향년 65세.

육군에서는 무엇보다 군 사령관 및 대장으로서 국난에 순직한 분은 시라카와 대장이 최초이므로, 이를 전장 병자로 대우해 영예로운 육군 장례로 고인의 위훈을 기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참모 본부로 공보

【육군성 수신】 26일 아침 상하이 파견군 사령부에서 참모 본부로 시라카와 대장이 26일 오전 6시 25분 서거했다는 내용의 공보가 있었다.

애처로운 죽음의 개선, 인근 순양함 '다쓰다'로

'슬픈 개선'을 하는 시라카와 군 사령관에 대해 참모 본부는 26일 이른 아침부터 상하이 파견군 사령부와 해군 측과 협의한 결과, 특히 대장의 생전 훈공에 보답하기 위해 유해는 순양함 '다쓰다'에 안치해 가까운 요코스카 군항을 향해 '죽음의 개선'을 하기로 결정했다. 입경 당일엔 육군에서 의장대가 파견될 예정이다.

급사에서 대장으로, 지나와는 깊은 인연

서거한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은 메이지 원년(1868년) 12월 12일 이요마츠야마(伊予松山)

시 2번가에서 태어나 어릴 적 이름을 세이이치로(誠一郎) 라고 했다. 워낙 가난한 집안의 셋째 아들로 학문은 생각지도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학구열에 불타고 있었다. 지기 싫어하는 성품의 시라카와는 에히메 현청의 급사(심부름꾼)로 일하면서 고된 학문을 계속하였다. 형 두 사람은 눈이 나빠서 활동하지 못하는 체질이였기 때문인지, 지금 마쓰야마에서 “후나다(船田) 아줌마”로 통하고 있는 여걸인 여동생 아야(綾) 씨와 어릴 때부터 기가 통하여 덤병대고 칭얼거리는 여동생을 항상 다정하게 감싸고 돌봐주었다.

“그 후 잠시 임시 교원을 하기도 했는데, 군인 지망으로 고향을 떠나 교도단(教導團)에 들어가 사관학교 개설과 함께 과 함께 입학, 메이지 23년(1890) 졸업, 동 31년(1898) 육군대학 졸업, 다이쇼 14년(1925)에는 승진하여 육군대장이 되었다. 우가키 조선 총독이 현역에서 떠난 후 육군 최고참 제1기생 중 유일하게 현역 대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장, 제11사단장, 제1사단장, 육군 차관, 관동군 사령관 등을 역임하고 쇼와 2년(1927)에는 다나카(田中) 내각에서 육군대신으로 입각. 그 후 군사 참의관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이 사이에 부내 유수의 중국통으로 활약하였다. 대령 시절에는 오랫동안 한커우(漢口) 수비 사령관으로 끊임없는 중국의 동란에 임하였고, 관동군 사령관으로서는 그 귀송령(郭松齡) 사건에서 마음껏 솜씨를 발휘하여 국내외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육군대신으로서는 세계의 시선이 쏠린 장쑤린(張作霖)의 모 중대 사건이나 제남(濟南) 사변의 2대 사건을 처리하여 훌륭한 중국통의 면모를 드러냈다.”

군부에서는 굴지의 애주가로 반주도 2승을 평정한다고 한다. 게다가 술맛을 맞추는 데는 거의 전문가로, 술의 산지를 맞추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였다. 도검 감정도 뛰어나 젊은 사관 등은 자주 명도(銘刀)를 가져오곤 했다.

“능숙하고 서툰 걸 떠나 무엇보다 좋아한 것은 낚시로, 류순(旅順) 시대에는 ●●●에 강태공(太公望)인척하고 보리멸 낚시에 푹 빠지곤 했다.”

이미 공이 있고 명성도 있는 대장은 올해 말이 정년이 되기 때문에 도쿄 시외 하타가야에서 소박한 저택을 짓고 조용히 노후를 보내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중일(中日) 사변이 일어나 작년 10월에는 육군 대표로서 만주를 돌아보고 우리 군을 위해 크게 활동한 바가 있었다. 이어서 상하이 사변에 임하여 군 사령관에 임명되어 “나는 육군에서 손꼽히는 중국통이다.”라고 웃으면서 마지막 봉직으로 용감하게 상하이로 건너가 최전선에서 황군을 지휘하고 무위를 국내외로 떨쳤다. 그러나 우연히 지난 4월 29일 천장절 축하 식당에서 흉탄으로 인해 부상을 입고 급기야 비보를 듣게 되었다.

19) 1932년 5월 19, 30일 전보(시라카와 사령관 위독~사망) 방위연구소도서관

수령번호: 육만밀수 제1052호

기원청명: 상하이 파견군

건명: 미키 군의정(軍醫正) 출장의 건

제출 1932년 5월 19일

육만(陸滿)

발신: 부관

수신: 상하이 파견군 참모장

군 사령관 병문안을 위해 미키 일등 군의정을 출장보냄

육만 89호
1932년 5월 20일

비(秘) 친전(親展)¹¹⁾ 시급

전보 역: 5월 19일 오후 1시 27분 발, 오후 3시 43분 착

발신: 상하이군 참모장

수신: 육군 차관

상군부 153

군 사령관은 새벽 5시에 깨어 의자에 기대어 있다가, 7시 40분경 뇌빈혈 증세로 발작 있었음. 9시 40분경 및 10시 40분경 두 차례 혈변(설사) 배출 있음. 위 내출혈로 보임. 시급히 내과 권위자를 파견 바람.

육밀(陸密) 1052호-1

전보 역: 5월 23일 오후 4시 25분 발, 오후 6시 59분 착

발신: 상하이 파견군 참모장

수신: 차관

상하이참 587

미키 군의정 금일 오후 3시 반 병참 병원 도착. 현재 진찰 중.

육밀 1052호-2

전보 역: 5월 23일 오후 7시 20분 발, 오후 8시 52분 착

발신: 미키 군의정

수신: 대신

상군 589

금일 오후 3시 반 도착. 즉시 사령관을 진찰함. 진단 및 병세는 군 군의부장의 보고와 같이 현재 우려할 상태에 있음.

육밀수 1089호 비(秘)

전보 역: 5월 26일 오전 7시 40분 발, 오전 10시 36분 착

발신: 상하이 파견군 참모장

수신: 육군 차관

상군참 733

고(故) 시라카와 군 사령관의 관은 군함으로 수송하도록 처리했으므로, 제3함대와는 협의 완료.

상기 군함은 28일 아침 당지를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음.

육밀 제1089호-1

5월 27일

두 폐하로부터의 상하이 조전(弔電)의 건.

시라카와 군 사령관 사망의 보전청에 이르러 본 26일 오후 3시 천황과 황후 두 폐하께서 생

11) 받는 사람이 직접 펴 보아 주기를 바란다는 뜻

각하시어 조전(弔電)을 보내심.

육밀 제1089호-2

전보 역: 5월 28일 오후 5시 35분 발, 오후 8시 25분 착

발신: 오카무라 소장

수신: 차관

고(故) 군 사령관 및 군 참모장 이하 장교 29명, 하사관 이하 75명, 총 104명 오후 1시 다쓰다에 승선 당지 출발함.

1932년 5월 30일

요코스카 진수부 사령장관 야마모토 에이스케(山本英輔)

고(故) 육군대장 남작 시라카와의 영구, 군함 다쓰다에 실려 5월 31일(화) 상하이에서 요코스카 군항 도착 예정. 당일 현지에서의 의례, 기타 아래와 같음.

1. 군함 다쓰다의 입항 시각 및 영구 발착 시각은 아래와 같음.
정오 다쓰다 입항 (11번 부표)
오후 1시 35분 영구 다쓰다 출발
동 1시 45분 헤미(逸見) 부두 도착
동 2시 18분 동 요코스카역 출발 (특별열차)
2. 재박 함선은 주석 지휘관의 승선(나가토, 長門)에 따라 군함 다쓰다 군항 제3구 도착 시각부터 영구가 다우라역을 출발할 때까지 조기의 예를 거행함.
3. 재박 함선은 군함 다쓰다가 입항 부근을 통과할 때 영구 기동정으로 이동. 부근 통화할 때, 해군 예식령 제76조에 준하여 등현 예식을 거행함.
4. 군함 다쓰다는 영구를 태운 기동정을 떠날 때 해군장령 제19조에 준하여 조포 (1분 간격)를 발사.
5. 본직은 막료를 따라 군함 다쓰다 입항 때 조문하고, 영구 요코스카역 출발 시 동역에서 배웅.
6. 재항 척임관, 관할 소장은 헤미 상륙장 및 요코스카역에서 환송함.
7. 전(前)호 이후 사관 이상 각 소관별로 각실 총대 1명 위 전항에 준해 환송함.
8. (1행 불명)
일람표 (생략)
9. 복장
군장 (대훈)
단, 등현 예식 시에는 당일 복장으로 함.
10. 그 외의 건
헤미 상륙 이후의 영구 호송은 모두 육군이 거행.

전보 역: 6월 3일

발신: 우지나(宇品)의 우에다 중장

수신: 육군대신

지난번 조난에 있어 특히 이부카 군의정을 파견해 주고 귀환 시 동관을 우지나까지 동선해주어 감사를 금할 길 없다.

20) 1932년 5월 31일 전보 '상하이 파견군 철수 완료'(육비 1001-3) 방위연구소도서관

육비 1001-3 전보 역

발신: 상하이군 참모장

수신: 대신

상군 759

군 사령관 대리 우에다 중장 이하 군 잔류부(군사령부 일부 및 잔류자를 제외)는 금일 31일부로 출발 귀환하여, 이로써 군 전원의 귀환 수송을 완료함.

21) 1932년 6월 00일 '전상사(戰傷死)로 판정하는 이유'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참고 <가사하라 인(印)>

시라카와 대장의 부●●

1932년 6월 일 육군성 인사국 은급과 무라야마 다이● <무라야마 인(印)>

외무성 가사하라 이사관 앞

시라카와 대장의 사망을 일반 공무가 아닌 전상사로 취급하는 취지 하에 ●●의 서류를 부조료 청구서에 첨부하고 필요 설명을 구술 추가할 것이므로 향후 당성 관련하여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사료되어 첨부 송부 ●●

은급국 제출 서류에는 ●●중 '설명' 이하는 반하여 구실을 줄만하다는 점을 배려해 이를 삭제하고 전문의 이유만 기술한 것을 제출함.

당 ●계는 후일 ●하여 연락할 듯함.

전상사로 판정하는 이유

1. 장애의 목적 (별지 윤봉길 사건 공판조서에 의함)
조선 독립운동에 기여함과 동시에 시라카와 대장, 우에다 중장을 살해함으로써 일본군을 교란시키려는 목적으로 수행함.
2. 폭상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될 것 (병력서에 의함)
 - 1) 안면 및 앞쪽 다리의 화농●은 장시간에 걸쳐 치료를 하지 못하여 그 화농균이 매우 강력한 독성을 지닌 균독증을 발현시킴. 또한 탄환 수십 개가 체내에 남아 연독(鉛毒)을 입음.
 - 2) 폭상으로 인해 당연히 시행해야 할 각종 치료의 혈청 주사 때문에 혈청병(血清病)을 발병시킴 (위궤양의 주요 원인이 됨).
이상의 원인으로 위궤양을 발병시켜 마침내 동맥관 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름.
3. 발병하였음에도 군대 업무 때문에 증상을 악화시킴 (병력서에 의함)
부상 및 발병 후 병상에서도 끊임없이 군대 통수(統帥)에 관한 중요 사무를 진행함.
특히 군 전체의 귀환 명령 하사에 심신을 아끼지 않아(군 철수에 관한 사료를 위해 하심) 피로가 배가 됨.

설명

1. 군 사령관의 부상 및 발병 후의 상황은 상기와 같으며, 대장은 천장절 축하 회장에서 부

상을 입었으나 본 상하이 사건은 상하이 전장에서 아군의 수뇌자 살해를 목적으로 한 적 국 암살단 활약 중에 발생한 사건이다. 그 하수인은 조선 불령자라 하나, 그들은 지나군의 편의대(便衣隊)와 동일시해야 한다고 생각됨. 때문에 본건은 만주사변 발생 이후 만주방면의 지나 편의대 습격으로 살해된 장병의 취급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2. 게다가 당일은 日·支 양군의 정전 협상 중이었고 여전히 그 성공이 보였음. 그 협상은 양국 군사 간에 결렬을 만들 위국에 봉착하여, 협상 성공 여부가 군 사령관 두 어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 미묘한 틈을 타 상하이군의 머리를 쓰러뜨려 일본군을 교란시키는 작전 통수 방해의 목적 하에 감행한 본 사건은 그 하수인의 소속국(所屬國)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 군에 대한 적대행위로 실행한 것으로 생각되어 단순한 암살 행위의 결과로 취급하는 것을 불허함.
3. 군 사령관의 사망은 상기의 성질을 지닌 폭발로 인한 부상이 그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임.
이와 더불어 대장은 군 사령관으로서 중책 하에 병상에 있으면서도 중요 군무를 놓지 않았음. 따라서 심신을 애쓴 것은 병증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인정됨.
4. 이상의 사안들을 종합 관찰할 때 군 사령관의 사망은 공무 사망에 의한 전상자로서 그 사실을 판정함을 인정함.

22) 1932년 6월 상하이의 폭탄 투척 사건의 개황 (외사경찰보 제119호 내무성 경보국)12)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상하이의 폭탄 투척 사건의 상황

1. 민관 합동 축하 회장에서 폭탄 투척과 범인 체포

4월 29일 천장절 축일 즈음하여 현지 재류 일본인은 매년 공동조계 북교 흥커우 공원에서 민관 합동 축하회를 개최하나, 올해는 상하이 파견군 관병식도 동시에 거행하게 되어 당일은 내외인 집합 수가 수만으로, 공전(空前)의 성황을 이루었다.

이리하여 관병식은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어 11시 30분쯤 끝난 다음, 이어서 예정대로 관민 합동 축하식으로 옮겨 식당 중앙 앞 단상에 시라카와 군 사령관, 노무라 함대 사령관, 우에다 사단장, 시게미쓰 공사, 무라이 총영사, 가와바타 행정 위원장 등이 착석하여 그 식을 거행했고, 대략 식순이 끝나고 기미가요 국가 합창을 하던 중, 돌연 단상 후방의 군중 속에서 한 흥한이 나타나 몇 걸음 전진하자, 이를 보는 사이, 들고 있던 폭탄을 단상으로 던졌다. 폭탄은 엄청난 음향과 함께 작렬하여 사방으로 퍼졌기 때문에 단상 위의 인물들은 애석하게도 그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때마침 오전 11시 50분경이 되고, 우측 중앙에 있던 가와바타 행정 위원장의 부상이 가장 심각하여 이튿날 오전 3시에 사망하였다.

범인은 투척에 앞서 그 휴대하던 다른 폭탄을 일단 땅에 두었는데, 이를 다시 주워 올릴 때 근처에 해군 병조 및 주변 경비가 있어 헌병, 경찰관 등이 체포했으나, 군중의 격앙이 심하여 이를 포위하고 구타하여 졸도하기에 이르러, 군헌의 힘에 의해 간신히 이를 구출한 바이다.

12) 동일한 내용의 사료가 <상하이 흥커우공원 폭탄투척사건 관련 상하이총영사 보고>인데, 이 사료의 작성일자는 1932년 5월 3일이나, 본문에서는 1932년 6월로 기재되어 있다. (<<매헌윤봉길전집>> 2권, p. 711)

2. 식장의 경비 상황과 폭탄 투척 상황

범인의 자백과 현상 목격자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범인은 처음에 단상을 마주 보고 우측 후방의 군중 속에 섞여 있다가, 폭탄 투척의 결의를 세우자 먼저 손에 들고 있는 도시락형의 폭탄을 지상에 두고, 어깨에 메고 있던 물통형의 폭탄을 벗어 가죽 끈이 붙어 있는 그대로 오른손에 들고 몇 걸음 달려가 기마병의 바로 뒤쪽에서 이것을 단상에 던졌고, 그 효과를 볼 새도 없이 추가로 도시락형의 폭탄을 던지려고 돌아드는 순간, 군중에게 맞고 쓰러져 체포된 것이다.

그리고 당시 경비 모습을 보면, 각 대관의 신변 호위를 위해 6명의 기마병이 식장을 향해 서 있고, 그 후방 약 5, 6미터의 장소에 수 명의 보조 헌병이 배치되어 있어 그 뒤로 군중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경비의 보조 헌병이 어느 쪽을 향해 섰는지는 명료하지 않으나, 호위 임무에 있는 기마병이 군중을 등지고 식장을 향해 서 있던 것은 사실이다.

3. 범인 사용 폭탄의 휴대 방법과 그 구조

범인이 휴대한 폭탄은 두 개로, 휴대하기 편하고 의혹을 피하기 위해 이것을 은폐하는 데 매우 교묘한 방법을 썼다. 즉, 하나는 물통형으로 만들어, 알루미늄제의 물통 안에 넣어 외부에 백색 '즈크(ズック)'¹³⁾의 덮개를 씌우고 가죽 끈을 붙여 어깨에 걸었다. 물통의 입 부분에 신관을 위치시키고 발화용 마(麻) 끈을 부착시켰다. 다른 한 개는 도시락통 형태로 만들어 알루미늄 소재의 도시락 상자에 넣어 보자기에 싸고, 신관 부분에 작은 구멍을 뚫어 여기로 발화용 끈이 나오게 하였다.

도시락형 폭탄의 상세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용적

길이: 5촌 4분

폭 : 3촌 4분

두께: 1촌 5분

(2) 중량

3.5kg(약 1관)

위 폭탄은 무쇠(주철)로 만들었으며, 중앙의 양 끝을 관통하는 구멍은 한쪽은 크게, 다른 쪽은 작게 가로로 구멍을 뚫었고, 구멍이 큰 부분에 점화장치를 달았다. 폭약은 균박(均剝), 유허, 다갈약(茶喝藥, 삼초기(三硝基)) 트롤의 합성물로 약 270그램이다. 점화장치는 먼저 마찰약 안에 있는 톱 모양의 쇠조각 한쪽 끝에 끈을 달고, 이것을 잡아당길 때 쇠조각의 톱니는 마찰약에 작용하여 이것을 발화시키며, 도화약(導火藥)에 점화하고 다시 완연도화약(緩燃導火藥)을 거쳐 기폭제로 옮겨진다. 이 장치는 중국 육군이 사용하는 것으로, 독일 및 러시아식 기구이다. 구조비가 적게 들고 싼값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한다.

본 폭탄의 감정을 맡은 상하이 파견군 군 사령부 이쿠타 참모 중령의 말에 의하면 이 폭탄은 단순한 시중의 모조품이 아니며, 무쇠를 이용하여 거푸집에 넣고 주조하는 점으로 볼 때 단지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여러 개를 동시에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13) 즈크: 마사를 굵게 꼬아서 짠 식물 (네덜란드어: doek)

4. 범인의 신원과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본적: 조선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39

주소: 상하이 불조계 패륙로 동방공우 30호

윤봉길 (1907년 5월 19일생)

위 범인은 본적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바 한일인 간에 차별 대우가 있다고 믿고 이를 분개하여 한국 독립의 염원을 품게 되었다. 1930년 3월 신의주를 거쳐 같은 도시 노송(老松) 마을 정주(定州)여관에 12일간 체류한 후, 3월 31일 안동현에서 증기선 광리환(廣利丸)을 타고 4월 상순 칭다오에 도착, 한인 경영의 음식점 송죽당(松竹堂)에 약 10일간 체류하고 이곳 주인의 소개로 동지 봉천로 나카하라(中原) 세탁점에 직원으로 고용된다.

1931년 5월 청도에서 5월 8일 상하이로 건너와 불조계 하비로 화합방의 모 음식점에 약 30일간 체류 중, 6월 상순 스스로 한인 박진이 경영하는 모자 제조공장에 직공으로 취업을 한다. 그 후 본년 2월 말 이후 시국 때문에 공장이 경영난에 빠져 해고되고, 이직 후는 공동 조계 통주로 한인 이모 씨가 경영하는 신공양행에서 쌀가루 류의 도매를 받아다 흥커우 마켓에서 소매하며 입에 풀칠을 했다.

윤봉길의 가출 동기는 전기와 같이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데 있었으므로 그가 상하이로 온 후는 한국 독립운동에 관한 단체를 찾고 있었는데, 7월에 이르러 이춘산을 알게 되고 그의 소개로 한국독립당에 가입하였다. 그 후 이춘산과는 때때로 면회를 이어나가던 중 4월 15일 불조계 빠이라이니명 마랑루(白來尼蒙馬浪路) 모처 찻집에서 회합하여, 이후의 불령 행동에 관한 상의를 하고 동(同) 20일 같은 장소(所)에서 이춘산으로부터 은 200불을 받았다. 이에 있어 윤봉길은 범행 실행의 결의를 굳히고 같은 달 24일(일요일) 흥커우 공원에서의 칙유 하사 50년 기념식의 기회를 얻고자 하였으나 사용할 폭탄의 입수가 늦어졌기 때문에 일정이 맞지 않아, 당일엔 현장에 가서 자세히 거행식의 모양을 시찰하고 시라카와 사령관, 우에다 사단장 등의 모습을 똑똑히 보아둔 것 같다.

27일 오후 8시경 이춘산은 윤봉길의 하숙에서 두 개의 폭탄을 주었다. 하나는 물통형, 다른 하나는 도식락형이었다. 그다음 날인 28일 정오 이춘산은 대세계(大世界) 옆 중국 청년회관에 윤을 초대하여 오찬을 같이하며 조출한 결별의 연회를 열었다. 이후 이춘산의 주의 당부를 듣고 곧 흥커우 공원으로 가서 다음날 관병식의 예행연습을 보고 직접 실지 조사를 했다. 오후 7시경 귀가하였는데 8시경 이춘산은 재차 윤봉길을 찾아와 폭탄의 사용법을 가르쳤다. 29일에는 오전 6시경 기상 후 하비로 여반로각(呂班路角)의 법인기차공사(法人汽車公司)에서 자동차를 빌려 흥커우 공원으로 향했고 문전에서 하차하여 문지기인 중국인에게 일본말로 인사하며 입문하였고, 때는 오전 7시 50분이었다.

폭탄은 물통형의 것은 우측 어깨에서 좌측 겨드랑이로 메고, 도식락형의 것은 보자기에 싸서 오른손에 들었다. 그리고 사전에 오송로 일본인 사진점에서 입수한 시라카와 사령관, 우에다 사단장의 사진을 소지하였다. 이내 관병식이 끝나고 관민합동 축하식으로 이어졌는데, 단상 후방 군중 속에 숨어 있다가 비가 내려 군중이 차츰 분산하기 시작하였을 때 단상으로 나갈 기회를 얻었다. 차츰 전진하면서 기미가요 합창이 끝날 무렵, 결심을 하고 단상 위로 투척하고 다시 또 다른 폭탄을 주워 올리려는 때에 주변 군중에게 제지를 당해 결국 군헌에게 체포된 것이다.

5. 본 범행의 연루자와 그 수사

윤봉길의 진술에 의한 전기 이춘산이란 자는 본 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바, ‘춘산’은 이유편(李裕弼)의 자(字)이므로 이유편이 본건의 주모자가 아닌가 추측된다. 따라서 일단 이유편을 주범이라는 혐의 하에 수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우리 관헌의 요구로 불(佛) 경찰이 이유편의 자택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이유편은 도주한 후라 자택에 없어, 이내 포승에 묶은 채 사력을 다해 수사 중에 있다.

추후 일제 검거를 통해 체포해야 할 인물로 게시된 인명은 다음과 같다.

| | |
|-----------------------------------|-----|
| 한국임시정부 재무부장 한국독립당 집행위원 | 김 구 |
| 한국독립당 집행위원 한국교민정무위원장 겸 서무부장 | 이유편 |
| 한국독립당 집행위원 한국임시정부 법무부장 겸 외교위원회 위원 | 이동녕 |
| 한국독립당 집행위원 한국임시정부 외무부장 겸 외교위원회 위원 | 조소양 |
| 한국독립당 집행위원 한국임시정부 내무부장 겸 외교위원회 위원 | 조완구 |
| 한국독립당 집행위원 한국임시정부 군무부장 겸 군사위원회 | 김 철 |
| 한국독립당 집행위원 한국임시정부 군사위원장 | 윤기분 |
| 한국독립당 집행위원 한국임시정부 군사위원회위원 | 김봉● |
| 병인의용대장 | 박창세 |
| 한국독립당 감찰위원 한국교민단 의경간부 | 엄항섭 |
| 한국독립당 감찰위원 한국교민단 의경간부 | 최석순 |
| 한국독립당 집행위원 한국교민단 의원 | 차이석 |
| 한국독립당 집행위원 | 백기준 |
| 상하이 한인청년당 이사장 | 백 철 |
| 한국의용군 간부 | 김동우 |

이상을 일제히 검거한 결과 전개(前揭) 14명 중 1명도 체포하지 못했으나 이들을 검거기 위해 갔던 장소에 있었던 하단의 용의자 선인 11명을 체포하여 일단 불조계 경찰과 동행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전부 당국으로 송치하였다.¹⁴⁾

위 11명은 모두 현재 유치 심문 중이다.

김구 외 본 사건 범행의 연루자에 대하여는 육해군 측과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계속 수사 진행 중이다. 또한 윤봉길에 대한 육군 헌병대의 신문조서(1·2회분)를 아래에 첨부한다.

23) 1932년 6월 7, 13일 호놀룰루 총영사관 기록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아2 기밀합 제592호

1932년 6월 7일

외무대신 자작 사이토 마코로(齋藤 夾)

재(在) 호놀룰루 총영사 이와테 요시오(岩手 嘉雄)

상하이 조선인 독립운동자 단속에 관한 건

상하이의 조선인 독립운동자에 대해서는 종래 우리 영사관에서 주의 단속에 힘써 왔으나, 이

14) 위에 기재된 사람의 수는 15명이나 책의 본문과 사료에는 14명이라 적혀있다. (상해 흥커우공원 폭탄 투척사건 관련 상하이총영사 보고, 1932년 5월 3일: <<매한윤봉길의사전집>> 2권 694쪽.)

들 일파가 오로지 프랑스 조계에 잠복하는 관계상 우리 측에서 직접 손을 댈 수 없고 또 조계 당국은 자칫하면 조선인 독립운동자를 정치범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일본 망명 중인 안남(安南, 베트남) 독립운동자 수령 '프린스 콩드'(Prince Cuong. De)에 대한 일본 관청의 단속이 소홀함을 이유로, (조선인 독립운동자를 단속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더욱이 동(同) 조계 경찰이 고용하는 조선인 밀정은 불령분자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관계상 효과를 낼 수 없었고, 금년 1월 8일 사쿠라다몬 불경 사건 범인을 심문한 결과 동 사건의 주모자는 불조계 거주 교민단 간부인 김구임이 판명됨에 따라 즉시 대심원의 기소를 하고 우리 영사관에서는 대심원 및 경시청의 파견계관과 협력하여 극력 수사를 속행했으나, 4월 29일 상하이 흥커우 공원의 폭탄 사건의 발생을 보기에 이르렀다.

우리 군법회의의 예심관이 흥커우공원 사건 범인을 조사한 결과, 그 진술을 통해 주도자는 이 유편(李裕弼)이란 자로 인정되었으므로 사건 후 곧 우리 총영사관에서 불조계 경찰에게李의 체포를 엄중 요구한 결과, 동 경찰은 다음날인 29일李의 집을 엄습하였으나 이미 도망한 뒤였고 겨우 용의 선상에 있는 인물 1명(심문 결과 독립운동의 주요 간부 흥사단장 안창호임이 판명)을 인도받아 동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 측에서는 불국 조계 내의 불령분자 소탕을 단행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김구 및 이유편을 포함한 주요인물 14명을 검거할 계획을 세우고 먼저 총영사관으로부터 동 조계 당국과의 협상에 가능한 한 협력을 약속받았다. 이에 30일 아침 일찍 총영사관 경찰관 44명, 사복 헌병 22명 총 66명으로 하여금 동 조계경찰 외국인 형사 12명, 지나인 형사 48명의 협력을 얻어 검거를 행하였으나, 목적이었던 불령분자가 전부 도망간 후(아마 남쪽 시(市)로 숨어들어간 듯하다)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용의자 11명을 체포하여 다음 날 동 경찰에게서 그 신병을 인도받았다.

한편, 5월 1일 불국 조계 경찰에게서 인도받은 용의 선인 11명을 엄중 심문한 결과, 흥커우 공원 사건 직전 불국 조계 내에 있던 김구의 거처가 판명되었으므로 곧 이 사람의 검거를 실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기밀의 누설이 우려되며 또 긴급한 때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미리 불조계 관현에 통고하지 않고 5월 6일 새벽 일찍 경찰관 20명, 사복 헌병 10명 총 30명이 위 거처를 포위한 뒤 불조계 경찰 측에 통고하고 오기를 기다리며 가택 수색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김구는 5월 3일 이미 어디론가 잠적하여 그를 체포할 수 없었으나(김구 등 간부 9명은 현재 남경(南京)성 내에 잠복 중이라는 정보가 있음) 수사상 유력한 참고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흥커우 공원 사건 범인의 진술이 매우 애매하여 청취를 속행하던 중 5월 10일에 이르러 동 사건의 주모자도 사쿠라다몬 사건과 동일하게 김구임을 자백하기에 이르렀다.

위 4월 30일 수사에서 조계당국이 우리 측 요청에 응하여 협력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가능한 한 협력할 것이니 불령분자의 거처를 확인하는 대로 요청하기 바란다고 말하는 등 종래에는 보지 못한 호의적 태도를 보였음은 두 사건의 범인을 조계 내에서 낸 것에 대해 내심 우리 측에게 상당히 미안함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추찰(推察)되는 바, 5월 6일의 검거에 이르러서는 동 당국의 의표를 벗어나 불쾌함을 느낀 듯하다. 동일 오후 조계 경찰 측으로부터 우리 총영사관 경찰 당국에 대해 향후 예고 없이 조계 내에서 검거하는 일은 중지하고, 적어도 착수 30분 전에 통고해 주기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고, 불국 총영사도 우리 총영사관에 통고 없이 검거한 것에 대해 불 본국 단체로부터 항의 전보가 있었고, 불국 조계 행정권 침해의 혐의도 있으니 향후 경찰상의 검거는 일본 측 요구를 바탕으로 불국 측에서 행하고 다만 입회인으로서 일본 측에서 경찰관 1명의 동행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요청이 왔다. 그래서 우리 측의 검거는 결코 불국조계 행정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일이 급하여 실제로 통고할 틈이 없었던 것이며, 또 이를 사전에 통고할 때는 조선인 밀정 등을 통하여 누

설되어 거의 늘 실패로 끝난 종래의 사례에 비추어 사전에 미리 통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을 설명한 뒤, 검거할 때는 지나인 순포 소집 등의 관계로 자연스레 선인 밀정에 누설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는 불인 경관을 사용하기로 해 달라는 요망만을 유보하고 불국 측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상으로 흥커우 공원 사건 후 당분간은 물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조계 당국의 성의 있는 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 총영사관은 위 사건 후 불국 조계 당국이 보인 성의 있는 태도는 가능한 한 이용하는 것을 게으르게 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신뢰를 두는 일이 없이 스스로 살피는 일(內偵)에 전력을 다하여 공연한 경찰력에 의하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불령분자를 체포할 방도를 강구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편 이전에 일어난(4월 30일) 양국의 검거와 불국조계 당국의 협력은 조계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에게 큰 위협을 주어 독립운동 간부는 완전히 그 종적을 감추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조계 당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조계 당국의 성의도 오래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면 사건 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경우, 조계 당국의 적극적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불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훈령을 제정하는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하며, 우리 측은 앞서(무라이) 총영사관의 특별고등경찰의 기능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불국 정부에 대한 요청을 진행하는 방침을 세워 현재 고심하고 있다.

본 건 독립운동자에 대한 우리 측 조치 및 불조계의 태도에 대해서는 불령 선인단의 악의적 선전을 내버려 두어야 한다. 특히 전기 안창호의 체포에 대해 지나 측은 안창호가 귀화인이라는 이유로 항의 신청을 했다. 또한 안창호의 처자식은 미국 시민이라는 관계를 이용해 재(在)지나 불·미(佛米) 공사 등에 석방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정보도 있어, 본 건은 불조계 방면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자에게 악용된 여지가 있다고 알고 불조계 공관이 포함될 때까지 정진할 것이다.

수신인명: 사이토 외무 대신

수신인명: 이와테 총영사

건명: 상하이 폭탄 사건의 재포 선인에게 미치는 반향에 관한 건

상하이 폭탄 사건 발생 이후 당시 국민보 수 다음의 보도를 종합하면 범인 윤봉길의 행동은 조국 광복을 위해 일어난 자기희생적 정신의 발로로서, 사쿠라다몬 불경사건의 범인 이봉창의 행동과 함께 매우 칭찬하고 있으나, 5월 11일의 ●●上에는 <상하이 사건에 관한 교민 총단의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현지 교민 총단이 아래에 게시된 전보를 발령한 취지를 보도하고 있다.

1) 상하이 한인 임시정부 앞

축하한다. 안부 및 사실을 보도한다.

2) 포●교민총단 법률고문 알 제이 오브라이언 발● 상하이 미국 총영사 앞

불국 조계에서 포박된 한인 등의 성명을 전보● 희망. 회신료 당연히 지불하여야 한다.

3) 재(在) 북평(北平, 현재의 베이징) 불국 공사 앞

재포●한인 등은 자유의 선도자인 ●국 정부가 이번 상하이 불국 조계에서 검거된 한인 보호와 관련하여 최선의 수단을 강구하기를 희망한다. 그들의 생사는 12● 공사의 손에 달려 있다.

4) 상하이 불국 총영사 앞

(전보문(電文) 이전 전보(前電)과 동일)

또한 6월 1일의 국민보에는 2월 8일 자 기밀 제35호 답신으로 온 사쿠라다몬 불경사건 범인 이봉창의 사진과 완전히 동일기계의 사진(‘홍커우 폭탄 사건 발생 3일 전, 즉 4월 26일 상하이 모처 한인 애국단의 선서식에서 촬영, 뒤에는 태극기, 가슴에 선서문을 붙이고 양손에 폭탄 및 권총을 든 윤봉길 의사’라고 설명 덧붙임)을 게재하고, 윤봉길의 상세 경력, 한국혁명단 수령 안창호 외 혐의자 체포의 경과, 상하이 임시 정부로부터의 연락 및 선언문 등을 게재하고자 한다. 위의 선언문은 아래와 같다.

나 윤봉길은 赤誠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한인 애국단의 일원으로서 중국을 침략하는 적 장교를 도륙할 것으로, 이곳에 맹세한다.

본 사건 발생에 관하여 현지 체류 한인의 청응(聽應)을 담당하는 당관 첩보자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까지 이 곳 저 곳 등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없는 것이나, 이것이 새로운 독립운동 재발의 조짐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저 6월 12일 현지 교민단의 임시 집회에서 상하이 사건의 선후책(先後策)을 강구한 결과, 그 자리에서(席上) 현지 교민단 및 동지회, 재(在) 상항(桑港)¹⁵⁾ 흥사단 및 국민회가 합동으로 기금을 모아 유명 법률가를 보필하여 (1) 안창호의 석방 운동 (2) 상하이 불국 조계 거주 선인 보호 방안이라는 방책을 결의한 것도 이 불황의 때에 모금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는 것은 물론, 재류 조선인 ●에는 의연금 용도에 의심을 갖게 하는 자가 있음에 이 계획의 성패는 의심할 만하다.

즉 이처럼 각종 독립운동 단체는 상하이 사건을 계기로 의연금 모집과 함께 언제 어떤 운동을 ● 지 알 수 없음에 당분간 충분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진(前陣) 6월 1일 국민...(불명 8자) 고하다.

25) 『적기(赤旗)』 1932년 1/21, 3/2, 7/5, 9/20 (축쇄판) 이시카와 현립 도서관

1932년 1월 21일(62호) ‘반동정치의 강화와 싸우자’ 아나키(무정부주의)가 고조

지난 9일의 이른바 『불경(不敬) 사건』은 범인 이모 씨의 개인적 『음모』로 단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파시스트 단체의 사주에 의해 이뤄진 극히 계획적인 음모이다. …군사적, 경찰적인 반동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날조한 것이다. 정부는 ‘사건’의 보도기사를 일체 금지하고….

…이번 음모의 의도는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며, 파시스트적 야만성이 풍부한 지배 계급의 우리 당 및 혁명적 노동자 농민에 대한 폭력 지배 공격의 발현이자 강화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지금 또 한 조선인을 속여 『불경 범인』으로 만들었다. 이는 결코 민족적 증오의 표출이 아니며, 천황 자신에 대한 테러가 아니다

…사건 직후인 9일에 전(前) 경시총감 마루야마 츠루키치(丸山鶴吉)는 조선인 반동 단체 상애회(相愛會)를 궁성(宮城, 일왕의 거처) 앞에 참렬(參列)시켜 천황의 안녕을 기원하고, 또한 조선에 있어서 조선인에 대한 반동 단체 등은 총독부 및 군 사령관과 어떠한 회합 협의를 했

15) San Francisco.

다.

…이 사건은 파시스트 독재로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나는 일왕 한 사람에게 테러를 가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아나키스트적인 방법은 절대로 취하지 않겠다고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러한 테러리즘과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일왕을 암살하는 것이 아니라 일왕제 자체의 폐지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32년 3월 2일 '동지(同志) 이나가키의 소론에 대하여!' AQ 生

이나가키 동지의 <반동 정치의 강화와 싸우자>에 대해, 나는 일부 찬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나가키 동지가 과거의 '불경 사건'을 파시스트의 음모라고 단정한다는 점에 대해서이다.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에 병합된 이후 실로 말과 글로 다할 수 없는 잔학함으로 일본에게 착취당하고 약탈당해 왔다. 조선인 개개인의 머리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깊은 증오와 반항의 뜻이 새겨져 있다. 그것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개인적 테러리즘을 혁명운동의 방침으로 삼는 아나키스트 또는 민족주의자에 우리는 반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 씨가 취한 용감한 행동에 대해서는 혁명가로서의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의 영웅적 행동을 멸시하거나 목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나가키 동지의 견해는 조선 노동자 농민 대중의 뇌리에 깊이 새겨진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반항심을 경시하는 점이 잘못되어 있다. 그것은 혁명적 민족 해방 투쟁이 일본 제국주의에 반항하는 항쟁에서 맡은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다. 뭐든지 파시스트의 음모로 정리하는 것은 존재의 구체성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1932년 7월 5일 중국 혁명가, 조사단 폭격을 계획. 불행하게도 체포

5월 26일 대련에서 조선인 혁명가 수 명이 일본 경찰의 손에 체포되었다. 사건의 내용은 중화 소비에트 임시 중앙정부가 4월 20일에 발표한 대일 민족혁명전쟁 선언에 응하여 연맹 조사단과 함께 만주에 있는 일본 관료, 군인 수뇌부를 폭격 암살하려 한 것이다. 김구 동지를 지도자로 한 상하이의 중국 혁명가들은 4월 29일 상하이 폭탄 사건을 준비하는 한편, 최 동지를 대련으로 파견해 우치다, 혼조 등의 암살을 계획했으나 조사단의 도착을 기다리며 함께 폭격전을 준비하던 중 체포된 것이다. 전선, 국내의 혁명적 대중 행동으로 침략전쟁을 내란으로 바꾸자.

1932년 9월 20일(제97호) 일왕에 폭탄 던진 조선의 민족혁명가

공개금지로 사형 구형

올해 1월 일왕의 관병 식당에서 돌아오던 중 폭탄을 투척한 조선 토목 노동자 이봉창 군은 지난 17일 조선민족과 일본 노동자, 농민의 눈에서 완전히 차단된 암흑의 법정에서 사형을 구형 받았다. 일본 천황제의 조선민족에 대한 민족적 편견과 학대, 야만적 식민지 억압이야말로 이 군으로 하여금 이 행동을 하게 한 것이다. 죄악은 일본 천황제에 있다. 이 군의 완전한 자기희생적, 헌신적 열정은 조선민족 혁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 조선노동자 농민은 공동으로 이 민족 혁명가의 사형반대에 서서 즉각 무죄 석방을 요구하자!

26) 1932년 7월 『상하이에서의 윤봉길 폭탄 사건 전말』(내무성 보안과)

(특고경찰관전자료집성 12-5-11소장) 가나가와현공문서관 이시카와현립도서관

1932년 7월

상하이에서의 윤봉길 폭탄사건 전말

내무성 보안과

1. 개요

지난 번 이봉창 불경사건의 발발을 보고, 그 원흉이 상하이 불령선인단(不逞鮮人團) 수뇌자 김구 등의 사주를 받은 것이 명료하므로, 힘을 다해 이들의 체포에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그들 일당의 획책 준동이 점점 극렬하게 창궐하고 있으므로 각지에서 전력을 다 하여 이들의 잠입 경계에 전념하던 중, 갑자기 4월 29일 상하이에서 폭탄사건이 발생하여 시라카와 대장 외 여러 명이 불행하게도 폭발로 인한 부상을 당하기에 이르렀고, 흥한은 즉시 현장에서 체포되어 헌병대에서 신문한 결과 충청남도 출신의 윤봉길인데 상하이 소재 한국독립당 암살단원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고, 더욱이 그 배후가 되는 자는 불경사건과 마찬가지로 김구인데, 금년 4월 중 여러 차례 윤봉길과 비밀회합을 하였고, 주도면밀하고 대담한 계획 아래에 이 사건을 사주하여 본 흥행을 지시한 사실이 판명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김구 등 원흉의 체포에 관해서는 상하이 출장 관헌이 각 방면과 연락 협조하면서 극도로 노력 중이지만 아직도 그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며, 범인 윤봉길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심리중인 바, 5월 25일 상하이파견군 군법회의에서 사형에 처하고 현재 그곳 헌병구금소에 구금 중이다.

2. 범행상황

(1) 관민합동축하회장의 상황

1. 상하이에서는 매년 4월 29일 천장절 축일에 즈음하여 재류 일본인은 공동조계 흥커우공원(新公園)에서 관민합동축하회를 개최하는데, 금년에는 상하이파견군 관병식도 동시에 거행하기로 되어 있어서 당일은 참가하는 내·외인 수만 명으로 공전의 성황을 이루었다. 이리하여 오전 9시 30분에 관병식을 시작하고 오전 11시 30분경에 종료했으며, 계속해서 관민합동축하식으로 옮겨서 식당 중앙의 식단에 시라카와 군사령관, 노무라 함대사령관, 우에다 사단장, 시게미쓰 공사, 무라이 총영사, 가와바타 행정위원장 등이 착석하고 식이 거행되었다. 식이 거의 끝나고 국가 「기미가요」를 합창하는 도중, 갑자기 단상 뒤 쪽의 군중 속에서 흥한 한 명이 나타나더니 몇 걸음 전진하여 폭탄을 단상에 투척하였고, 커다란 소리와 함께 작렬하여 사방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단상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때는 오전 11시 50분으로, 이 사람들 중 가와바타 행정위원장의 부상이 가장 심하여 다음날 오전 3시에 결국 사망했다.

2. 범인은 투척에 앞서 휴대하고 있던 다른 폭탄을 일단 땅 위에 내려놓고, 폭탄 하나를 투척함과 동시에 다시 폭탄을 주우려는 순간 부근에 있던 해군 兵曹와 경비 헌병, 경찰관 등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데, 군중이 몹시 흥분해서 그를 둘러싸고 구타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절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리하여 헌병은 즉시 범인을 제1분대로 연행하여 취조를 시작했고, 한편으로 식당 주변에 병사를 배치한 후 출입자를 엄중하게 검사하며 현장검증을 행했다.

(2) 폭발에 의한 부상자의 피해 정도

본 범행으로 인하여 폭상을 입은 자 및 부상 정도는 다음과 같다.

1. 시라카와 군사령관

두부·안면·복부에 걸쳐서 큰 것은 콩알만 한 크기, 작은 것은 쌀알만 한 크기의 허대한 폭창(暴創)

오른쪽 팔꿈치에서 손목에 이르는 부분 폭창(한 군데는 뼈에 이름)

앞이마 왼쪽 끝 골막(骨膜)에 이르는 좌창(挫創). 기타 4군데(길이 4cm 내지 3cm, 폭 1cm)

오른쪽 콧날과 콧등 부분 좌상

왼쪽 입술 상하 모두 피부가 찢어지고 앞니 중앙이 부러짐

전치까지 4주를 요함

2. 우에다 사단장

왼발 폭상

오른 발바닥에 길이 6cm, 깊이 2cm, 폭 1.5cm의 삼각형 열창(완두콩 크기의 파편 적출)

오른 발 앞 끝 폭상(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은 형태를 보존함)으로 인하여 발가락 끝 약 1촌 5푼 절단

하지(下肢) 전면 좌우 여러 곳에 폭창

왼쪽 어깨뼈 관절부에 폭창(4곳)

전치까지 6주를 요함

3. 노무라 제3함대사령장관

오른쪽 콧방울과 오른쪽 눈꺼풀 열창, 안면·가슴·배·왼쪽 팔·양쪽 다리의 폭창

전치까지 1개월을 요함(왼쪽 눈 적출)

4. 시게미쓰 공사

오른쪽 앞 장딴지 폭창(5, 6군데)

오른쪽 다리 폭창(15, 6군데)

오른쪽 정강이뼈 골절(2개 모두)

왼쪽 엉덩이 폭창

골절 때문에 전치까지 4개월을 요함

5. 무라이 총영사

왼쪽 손등 폭창, 왼쪽 종아리 폭창(관통)

전치까지 약 3주를 요함

6. 가와바타 행정위원장

왼쪽 손등 폭상(여러 군데)

오른쪽 흉부 폭상(2군데)

오른쪽 복벽 폭상(1군데)

오른쪽 다리 폭창 (여러 곳)

위와 같은 폭상 때문에 胸膜腔 내에 출혈을 일으켜서 4월 30일 사망.

7. 토모노(민단서기장)

안면, 왼쪽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양다리 폭창

전치까지 약 6주를 요함

8. 헌병하사관 1명, 일반병 2명

안면 그 외 찰과상

(3) 식당의 경비 상황과 폭탄투척 정황

당일 경계는 군에서 담당했고, 상당한 인원을 배치하여 엄중 경계에 힘썼다.

1. 식당 경계배치 및 범행현장 약도는 다음과 같다.

2. 범인의 자백과 현장 목격자 등의 진술을 종합하건대, 범인은 처음 단상을 향하여 우측 후방의 군중 속에 잠입해 있었으며, 폭탄을 투척하려는 결심이 서자 먼저 손에 가지고 있던 도시락 상자 모양의 폭탄을 땅에 내려놓고, 다시 어깨에서 물통 모양의 폭탄을 가죽 끈이 달린 채로 오른손에 쥐고 몇 걸음을 뛰어나가 기마병의 바로 뒤쪽 부근에서 단상을 향하여 폭탄을 투척하였고, 폭발의 효력 여하를 확인할 겨를도 없이 땅에 내려놓았던 폭탄을 다시 투척하려고 되돌아 온 순간 군중에게 떠밀려 넘어지면서 체포된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경비 상황으로는 각 고관의 신변 호위에 6명의 기마병이 식당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그 뒤쪽으로 약 5, 6미터쯤 되는 장소에 헌병 및 보조헌병이 배치되었고, 그 뒤쪽으로 군중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3. 범인의 성명 및 이력 행동

(1) 본적, 출생지, 성명, 연령

본 적 조선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39

출생지 위와 같음

주 소 상하이 프랑스조계 패륜로 동방공우 30호

熙儀事(희의사)¹⁶⁾ 무직 윤봉길

明治 41년(1908) 음력 5월 22일생

(2) 성행 및 그 동정 개요

1) 조선에 체류할 당시는 성질이 온순하고 생업에 힘썼으며, 부락민의 평판이 좋고 품행이 선량한 자로서 사상적 색채를 인정할만한 자가 아니었다. 9세부터 17세까지 한문을 배웠고, 17세 때 덕산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으나 같은 해 2학기에 중도 퇴학한 이래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자로서 특별히 기록할 만한 이력은 없다.¹⁷⁾

범인의 자백에 따르면, 농사를 짓는 틈틈이 향리의 자제를 모아서 월진회를 조직하고 수양친목을 도모했으며, 야학으로 언문을 가르쳤다고 한다.

2) 그런데 가업인 농사가 싫어서 몰래 아버지의 소지금 40엔을 가지고 쇼와 5년(1930) 3월 신의주로 갔고, 같은 달 말 안동현(安東縣)에서 배를 타고 4월 상순 칭다오에 도착한 후 그곳의 일본인 나카하라(中原) 세탁소에 고용되어 상당한 돈을 저축하였다. 그 후 쇼와 6년(1931) 5월 상순에 칭다오를 출발하여 상하이로 건너갔다.

3) 범인의 공술에 의하면, 상하이 도항과 동시에 프랑스조계에 있던 대한교민단 사무소를

16) 망명시절 희의(熙儀)라는 별명도 사용

17) 실제로는 윤봉길의사는 11세에 덕산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으나 『상하이에서의 윤봉길 폭탄 사건 전말』(내무성 보안과, 1932. 7) 사료 원문에 17세라 기록되어 있다.

찾아가서 김구·김동우 등을 만나 독립운동에 참가하려는 희망을 밝혔고, 마침 그곳에 와 있던 안명진의 안내로 동(同)조계 하비로 화합방(和合坊)에 있던 안명기의 집으로 가서 하숙을 했다. 약 1주일 동안 무위도식한 후 민단 사무소에 가서 김동우에게 취직을 의뢰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약 20일 후 안명진의 알선으로 프랑스조계에 거주하던 조선인 정안립과 공동으로 말총을 재료로 하는 모자 제조업을 프랑스조계 도이비사로(陶爾斐斯路)에서 열었지만 자금난으로 일시 중지하였다.

4) 그런데 이 사실을 들은 조선인 박진(朴震)이 위 사업을 인수하여 프랑스조계지 망지로(望志路)에서 경영하게 되었고, 윤봉길은 여기서 직공으로 일을 하며 공장에서 기거하였다. 같은 해 9월 중순 무렵부터 자금난으로 공장이 일시 중지되었고, 11월 하순에 이르러 위 공장은 프랑스조계 강제방(康梯坊)으로 이전하여 중국종품공사(中國鬃品公司)라는 이름 아래 다시 가동하게 되었고, 윤봉길은 이전처럼 직공의 신분으로 프랑스조계 하비로 1014롱(弄) 27호에서 통근하였다.

5) 그런데 금년 들어 상하이사건이 일어나자 베이핑(北平)에서 재료 반입이 두절되었다. 이 때문에 위 공사는 사업을 축소하기로 결정했고, 윤봉길은 3월에 해고되어 프랑스조계 마랑로 보경리 23호 전차검표원 계춘건의 집에 기거하면서 동인과 함께 매일 오후부터 공동조계 흥커우시장에서 밀가루 장사를 시작했고, 4월 20일경까지 계속했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만두고 이후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4월 27일 프랑스조계 패룩로 동방공우 30호에 숙박, 4월 29일 범행 당일 아침까지 체류하였다.

4. 가족관계 및 통신관계

(1) 가족 상황

범인의 자백에 의하면 본적지 주소의 가족은 아래와 같으나, 고향을 떠난 쇼와 5년(1930) 5월 3일 이후에 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

| | | | |
|---------|-------|------|-----|
| 아버지(호주) | 尹墳 | 어머니 | 金元祥 |
| 처 | 裴[用]順 | 장 남 | 尹模淳 |
| 차 남 | 尹淡 | 동 생 | 尹永錫 |
| 동 생 | 尹英儀 | 누이동생 | 尹姪儀 |

생가는 농업을 경영하는데 논 20마지기, 밭 약 4마지기, 그밖에 산림 약 1만평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에는 지장이 없다고 함.

(2) 통신관계(충청남도 조사)

1932년 6월경(주: 4, 5월 무렵일 것이다) 아버지 앞으로 수해위문금 50원을 칭다오에서 송부해 왔고, 상하이 도항 후 본적지에 거주하는 처갓집 앞으로 「상하이 프랑스조계 포석로(蒲石路) 화합방(和合坊)으로 이사하여 종품공사 직공으로 일하며 월수 40원을 받고 있다」고 적고, 또한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는 취지를 기술한 편지도 있다. 동생에게는 이번 상하이 사건의 실황을 간단하게 적고, 말미에 (다시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면 좋은 때가 오겠지만, 이대로는 고향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했으며, 그 밖의 내용에 불온한 점은 없었다고 함.

5. 상하이 도항 동기

범인의 자백에 의하면, 고향에서 동포가 일본인에게 박해받는 것에 분개하여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해 보려는 사상을 품게 되었고, 17~18세 무렵부터 신문 잡지를 열독하기에 이르러서 조선은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자력으로 훌륭하게 통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일본에게 복종하고 그 통치 아래 있어야 하는가? 세계 문명이 진보하는 오늘날 타국에 병합되어 있는 것은 치욕이라는 생각을 품기에 이르렀고, 신문지상에서 상하이에 독립운동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곳으로 가서 한국독립을 위하여 활동하려고 도항한 것이라고 함.

6. 범행까지의 경위(주모자 김구와의 관계)

범인 윤봉길은 체포 직후 군현의 취조에서 처음 범행을 획책·교사한 것은 李春山, 즉 이유필(李裕弼)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수상한 점에 대하여 깊고 엄중하게 취조를 진행함에 따라 마침내 5월 11일 제4회 예심관의 취조에서 본 사건을 획책하고 사주한 자는 김구라는 취지를 공술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제5, 제6회 취조에 의하여 사건의 내용이 판명되기에 이르렀으며, 이하 범인이 상하이로 건너온 이후 김구와 교제하며 사건을 획책한 상황의 주요 공술의 요점을 적으면,

(1) 상하이 도항 이후 범행 전날까지의 상황

- 1) 범인은 쇼와 6년(1931) 5월 8일 상하이 상륙과 동시에 인력거를 타고 곧바로 프랑스계 대한교민단 사무소로 가서 김구 및 김동우와 첫 대면 인사를 나누었으며, 아울러 상하이에 온 목적, 즉 독립운동에 참가하고 싶다는 뜻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두 사람은 윤봉길의 운동 경력 등을 묻고 나서 그대로 헤어졌다. 그리하여 윤봉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종품공사에서 일하던 중, 같은 해 11월 하순 무렵까지 김구가 매주 한 번 정도 동 공장주 박진을 방문하였고, 그때 다른 종업원과 함께 김구를 중심으로 시국 문제 등에 대하여 서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점차 김구와 친교를 맺기에 이르렀다. 그 후 김구의 방문이 뜸해졌지만, 윤봉길은 그 사이에 올해 3월 무렵까지 김구와 노상에서 여러 번, 종품공사에서 한 번 만났고, 담화 중 김구로부터 독립당이 이봉창을 파견했다는 취지를 듣게 되었다.
- 2) 금년 3월 윤봉길은 중국종품공사에서 해고된 후 전술한 바와 같이 밀가루 판매상을 시작하고 매일 흥커우 시장에 다니던 중, 4월 초순경 프랑스조계의 노상에서 우연히 김구를 만났으며, 김구가 최근의 동정을 물어서 근황 및 거처를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김구가 다시 “흥커우 쪽으로 가게 되어 기분은 어떠한가?” 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독립운동에 관한 초지(初志)에는 변함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상담할 것이 있어서 가까운 시일 안에 통지할 테니 즉시 와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 3) 4월 중순 오후 7시 반경, 윤봉길의 거처인 계춘건의 집으로 김구가 찾아와서 윤봉길을 부근의 사해다관으로 데려가 독립운동을 위하여 활동하겠다는 결의를 확인하고, 독립당 안의 암살단 입단에 필요한 사진촬영에 관하여 윤봉길의 승낙을 받고 돌아갔다.
- 4) 4월 20일경 오후 8시가 지난 무렵, 윤봉길은 김구가 보낸 심부름꾼(김동우?)을 따라 프

랑스조계 살파새로(薩坡賽路)와 여반로(呂班路) 사이에 있는 어느 조선인의 집으로 가서 2층의 한 방에서 김구와 만났다. 김구가 4월 29일 천장절에 즈음하여 흥행을 결행할 것과 애국단 가입을 권유하여 이에 승낙했는데, 김구는 다시 윤봉길에게 당일 사용할 물통 모양의 폭탄과 도시락 모양의 폭탄 각 1개씩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5) 4월 24일 오후 7시 반이 지난 무렵에 김구가 다시 윤봉길을 방문하여 두 사람은 사해다관 부근의 어떤 찻집으로 들어갔다. 김구는 사진 촬영을 위한 양복 준비, 기타 비용으로 중국 돈 90불을 지급하였고, 또한 시라카와 대장, 우에다 중장을 암살하라고 지시하여 윤봉길은 그것을 승낙했다. 이때 흥행의 결의를 다지기에 이르렀으며, 26일 오전 9시에 사해다관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윤봉길은 24일에도 20일과 마찬가지로 김구의 심부름꾼을 따라 4항에 기재한 어느 조선인의 집으로 갔으며, 처음에는 앞문으로, 다음 번에는 뒷문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를 공술했으나 대화 내용은 불명).

6) 4월 26일 윤봉길이 약속대로 사해다관으로 갔더니 김구는 이미 와 있었다. 즉시 프랑스 조계 패룩로 신천상리(新天祥里) 20호에 있는 어느 조선인의 집(주: 조선인 安恭根의 집임)으로 들어갔는데, 사진촬영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구는 소형 트렁크 속에서 한국 국기 1개, 폭탄 1개, 권총 1자루 및 선서문을 쓴 서양 종이를 꺼내 윤봉길에게 서명하도록 하고, 촬영은 날씨가 좋지 않아 중지했으며, 다음날 다시 이 집으로 올 것을 약속하였다. 그 후 김구는 윤봉길에게 다음날 27일 패룩로 동방공우에 숙소를 정하라고 했고, 이어서 시라카와 대장, 우에다 중장의 사진과 보자기 1장을 사 둘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7) 4월 27일(시간 미상) 전항의 조선인 집에서 윤봉길은 양복차림으로 혼자서 1장, 가슴에 선서문을 붙이고 왼손에 폭탄을, 오른손에 권총을 들고 한국 국기를 배경으로 하는 사진 1장, 또 김구 뒤에 서 있는 사진 1장씩을 각각 촬영했다. 그때 김구가 말하기를 이 폭탄은 이봉창이 가지고 간 것과 동일한 폭탄이라고 하였다. 그 후 김구는 윤봉길을 무궤도 전차통(無軌道電車通)까지 내려다주고 헤어졌는데, 위 폭탄의 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윤봉길은 곧바로 공동조계 오송로(吳淞路)의 일본인 상점으로 가서 보자기 1장을 구입하고 숙소로 돌아갔고, 이어서 동방공우로 숙소를 옮겼는데, 오후 7시 반경 김구가 찾아와서 시라카와 대장 및 우에다 중장을 전날 보여준 폭탄으로 살해할 것, 투척할 때 끈을 당기면 소리가 난 후 4초 안에 폭발한다는 것, 사용할 폭탄은 29일 아침에 건네주겠다는 뜻을 알려주고, 내일 28일 중국기독교청년회관(大世界 옆)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8) 4월 28일 정오에 윤봉길은 약속한 대로 김구와 회식 중 김구로부터 오늘은 신공원에서 관병식 예행연습이 있으니 현장을 조사해 둘 것을 지시받고 헤어졌다. 윤봉길은 오송로에 있는 일본인 상점에서 시라카와 대장, 우에다 중장의 사진 각 1장씩을 구입하여 당일 사람을 착각하지 않게 준비하고 곧바로 신공원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한 후 오후 6시반경 동방공우로 돌아와 숙박했다. 오후가 지나고, 오후 7시 반경에 김구가 찾아왔으므로 윤봉길은 자신의 이력서를 김구에게 전했고, 곧바로 프랑스조계 화룡로(華龍路) 원창리(元昌里) 13호로 안내되었다. 2층의 한 방에서 김구는 책상 위에 있던 도시락 모양의 폭탄과 벽에 걸려

있던 물통 모양의 폭탄을 보여주며 내일 사용할 폭탄이라는 것과, 각 폭탄의 마개를 열고 끈을 약간 당기면서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또한 김구는 내일 아침에 이 집에서 아침을 먹도록 지시하고 돌아갔다.

덧붙여서, 그 집에는 중국옷을 입은 50대 정도의 조선인 남자가 있었지만 성명 등은 알 수 없다고 한다.

(2) 범행 당일의 상황

1) 4월 29일 아침 6시경 동방공우를 나와 앞에서 말한 집에 도착, 세 명이 아침을 먹고 김구에게 전해 받은 폭탄 2개 중 도시락 모양의 폭탄은 27일 구입한 보자기에 싸고, 물통 모양의 폭탄은 전술한 바와 같이 어깨에 메고 김구와 함께 나와 하비로까지 걸어갔는데, 김구는 좋은 기회를 기다렸다가 2개 모두 투척하도록 지시하고, 만일의 비용으로 중국 돈 3, 4불을 윤봉길에게 주었다. 그리고 윤봉길은 근처의 법대기차공사(法大汽車公司)에서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인 신공원으로 갔고, 오전 7시 50분 문 앞에 도착하여 하차한 후 즉시 정문으로 입장하려는데 중국인 문지기가 입장권의 제시를 요구했지만 “나는 일본인이다. 입장권 따위가 왜 필요한가?”라고 일축하고 그대로 장내로 들어갔다. 덧붙여서 윤봉길의 복장은 양복과 스프링코트를 착용하였다.

2) 공원 내에서는 일반관람석에 잠입하여 관병식과 축하식을 참관했는데, 사방의 상황이 도저히 폭탄 두 개를 투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물통 모양 폭탄이 편하겠다고 생각하여 이를 투척하겠다고 결심했다. 마침내 축하식이 끝나고 시라카와 대장과 우에다 중장, 기타 여러 명이 식단으로 올라와 예식이 시작되었다. 기미가요의 합창이 끝나갈 때쯤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직감하면서 도시락 모양의 폭탄을 발아래 내려놓고(식단을 향하여 오른쪽으로 2칸 반 정도 되는 장소), 물통 모양의 폭탄을 어깨에서 풀러 내리고, 이어서 마개를 뽑아 오른손으로 폭탄을 들고 왼손으로 끈을 당기며 앞쪽의 2, 3명을 어긋죽지로 밀어 제치면서 앞으로 나가 단상 후방 약 1칸 정도쯤 되는 거리까지 달려가서 물통의 가죽 끈을 왼손으로 들고 단상의 시라카와 대장과 우에다 중장을 겨냥하고 투척했다. 그러는 와중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폭행, 구타를 당하고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윤봉길은 폭발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점화용 끈을 당겼을 때 성냥을 켜는 것 보다 조금 큰 소리가 난 것을 들었다. 기병은 단상 후방에 나란히 서 있었지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3) 기타 윤봉길의 공술 중 참고할 만한 사항

1) 현재 조선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본에 반항하여 독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강대국이 피폐해지는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야말로 조선은 물론 각 민족이 독립할 수 있다.

현재의 강대국도 나뭇잎처럼 자연히 쇠락하는 시기가 오는 것은 필연적이며, 우리들 독립 운동가는 국가 성쇠의 순환을 앞당기는 것이 그 역할이다. 물론 한 두 명의 상급 군인을 살해한다고 해서 독립이 쉽게 될 리는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같은 것도 독립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으며, 단지 기대하는 것은 이로 인하여 조선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아가 세계로 하여금 조선의 존재를 명료하게 하는 데 있다. 현재 세계지도에 조선은 일본과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은 조선의 존

재를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이러한 때 조선이라는 관념을 이들 모두의 뇌리에 깊이 새겨 넣는 것이 장래 우리의 독립운동에 관하여 결코 헛된 일이 아닐 것임을 믿는다.

2) 김구로부터 애국단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것은 암살단과 이름만 다른 동일한 단체일 것이며, 그 조직과 규칙 등은 알지 못한다. 또 김구는 스스로 자신이 단장이라는 말을 했고, 나(윤봉길) 역시 당연히 단원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 더군다나 암살단은 비밀리에 행동하는 단체로서, 우리는 단지 명령을 받은대로 이를 실행하는 것이 임무이며, 김구에게 폭탄의 출처 등을 물어본 적도 없고, 또한 그럴 필요성도 인식하지 않았다.

3) 4월 24일부터 28일 사이에 김구가 조선에 파견했던 兪鎮軾이 체포되었다는 말을 들은 것 이외에, 그밖에 몇 명을 파견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으며, 물론 김구가 이러한 사항을 누설하는 등의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이다.

7. 범인 윤봉길의 처리

(1) 윤봉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일단 그를 흥커우공원 맞은편의 헌병분대에 유치한 후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후 총영사관측과 헌병측이 협의한 결과 그를 군법회의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고, 즉시 신병을 楊樹浦의 군사령부 구치소로 옮겼다. 그 후 윤봉길의 조사는 전적으로 헌병측에서 맡아 5월 2일 마침내 예심청구를 했다. 이후 상하이파견군법회의에서 5월 4일부터 조사 중인데, 5월 25일 별지 판결서와 같이 살인 및 살인미수, 폭발물단속법칙 위반으로 사형에 처해지고, 현재 상하이 헌병구치소에 구금 중이다.

(2) 그리고 사건에 관하여 김구가 교사한 것이 판명된 이상 이 심리는 김구를 체포하지 않으면 완결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김구는 지난번 이봉창 불경사건의 교사범인으로서 이미 대심원에서 기소되어 있는 자이므로 그를 상하이 군법회의에서 심리할 수 없다. 당연한 결과로서 상하이폭탄사건에 대해서는 범인 윤봉길을 김구로부터 분리하여 단독심리하기로 하고 전항과 같이 판결을 내린 것이다.

8. 범인이 사용한 폭탄

(1) 휴대방법 및 구조

1) 범인이 휴대한 폭탄 2개는 휴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물통 모양으로 만들어서 알루미늄으로 만든 물통 안에 장치하고, 주둥이 부분에는 신관을 장착하고 발화용 삼베 끈을 붙였으며, 외부를 흰색 옷감으로 덮고 가죽으로 만든 끈을 달았다.

2) 다른 한 개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도시락 상자에 장치하고, 신관 부분은 작은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발화용 심지를 내놓았다. ① 용적은 길이 5촌 4푼, 폭 3촌 4푼, 두께 1촌 5푼 ② 중량은 3킬로그램 반(약 1관)이다.

위 폭탄은 무쇠(주철)로 만들었으며, 중앙의 양끝을 관통하는 구멍은 한쪽은 크게, 다른 쪽은 작게 횡혈(橫穴)을 뚫었고, 구멍이 큰 부분에 점화장치를 달았다. 폭약은 균박(均剝), 유향, 다갈약(茶喝藥, 삼초기(三硝基)) 트롤의 합성물로서 약 270그램이다. 점화장치는 먼저 마찰약 안에 있는 톱 모양의 쇠조각 한쪽 끝에 끈을 달고, 이것을 잡아당길 때

췌조각의 톱니는 마찰약에 작용하여 이것을 발화시키며, 도화약에 점화하고 다시 완전도화약(緩燃導火藥)을 거쳐 기폭제로 옮겨진다.

이 장치는 중국 육군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독일 및 러시아식 기구이다. 구조비가 적게 들고 싼값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한다.

- 3) 본 폭탄의 감정을 담당했던 상하이파견군 군사령부 이쿠타(生田) 참모중좌의 말에 의할 때, 이 폭탄이 단순한 시중의 모조품이라면, 무쇠를 이용하여 거푸집에 넣고 주조하는 점으로 볼 때 단지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여러 개를 동시에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 4) 그리고 이번 폭탄사건에 사용된 도시락 모양 및 물통 모양의 폭탄은, 축하회를 거행하기 며칠 전의 일본 신문지상에 올리는 식당 안에 매점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각자 도시락과 물통을 휴대하고 가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고, 여기서 힌트를 얻어 급히 만든 것이라고 전해진다. 정말로 그러하다면 이런 종류의 폭탄을 짧은 시간 안에 매우 용이하게 제작·입수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 배경이 상당히 유력하다는 것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덧붙여서 5월에 다롄(大連)에서 검거된 유상근(柳相根)이 소지했던 폭탄은 이번 사건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물통 모양으로 앞으로 엄중한 경계를 요하는 바이다.
- 5) 도시락 모양 폭탄의 외피를 이루는 「알루미늄」도시락 상자에 대하여 조사한 바, 상하이 공동조계 오송로의 한 일본인 상점에서 동시에 6개를 사들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따라서 적어도 같은 수의 폭탄을 제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종류의 범 죄 단속에 관하여 다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8) 1932년 9월 상하이전과 국제법 462P~ 가나자와 시립 다마가와 도서관

제3항 전대미문 사건의 돌발

홍한 폭탄을 천장절 단상에 투척하다

마침 제네바에서 국제연맹총회가 위의 수정 결의안을 가결시키기 전날, 즉 4월 29일 상하이에서 청천벽력, 대대적인 불상사가 발생했다. 바로 공동조계 연장도로 구역 내 흥커우공원(일명 신공원)에서 일어난 제국 관민 천장절 축하 회장 폭탄 투척사건이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신문지의 기사는 즉시 금지되었으나, 이후 일주일이 지난 5월 6일, 상하이의 군무관헌이 사건 요령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 이유이다.

군무관헌이 발표한 사건 개요

본적: 조선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현주소: 상하이 불조계 패륙로 동방공우 30

윤봉길, 1908년 5월 19일생

윤봉길 본인은 4월 29일 오전 7시 45분 흥커우 공원에 이르러, 민관 합동 축하회의 마무리로 기미가요를 합창하던 때인 오전 11시 40분경, 단상 뒤쪽 군중 속에서 나타나 소지하던 폭

탄을 단상에 투척하여 시라카와 군 사령관, 노무라 사령장관, 우에다 사단장, 시게미쓰 공사, 무라이 총영사, 가와바타 행정 위원장, 도모노 민단 서기장에게 중경상을 입혔고, 그중 가와바타 행정 위원장을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범인은 현장에서 바로 경비 군헌이 포박하여 헌병대에 유치하였고, 일단 심문한 후 이미 군법회의에 예심을 청구했다.

사용 폭탄은 두개로 하나는 물통형, 나머지는 도시락형이다. 투척한 것은 물통형의 것으로, 도시락형의 것은 지상에 두었다가 그대로 투척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본인 진술에 따라 불조계 거주 다수 조선인의 단체적 배경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즉시 불조계 경찰 당국에 요구하였고, 그 수배를 통한 29일에서 30일에 걸친 대대적 수사를 실시하여 피의자 안창호 이하 열두 명을 포박하고 신병을 인도받았다. 현재 엄중 취조 중이다.

그 후 본 건에 관하여 당국의 어떠한 발표도 없고, 신문 기사의 금지가 해제되었다는 것도 듣지 못했다. 게다가 예심은 빨리 끝나고, 범인은 이미 총살 선고를 받고 그저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다. 심리 종료 후는 상세 사실을 공개함에 있어 특히 해가 없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건의 진상을 오해하게 하는 게 오히려 득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뭔가 어둠에서 어둠으로 묻혔다는 느낌은 지우기 어렵다.

그렇지만 범인의 신분, 흥행의 동기, 교유의 범위, 사전의 행동 등을 헤아려 기술하는 것은 당국 연계 관계자 등과 관련된 이 이상의 조사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굳이 사양하고 삼가야 하지만, 저자의 당일 현장에 있어서 눈앞에서 목격한 흥행 전후의 객관적 상황은, 사실의 단순한 한 기사로서, 이를 서술하는데 특별한 지장도 없을 것이라 믿는다.

목격한 객관적 상황

당일 오전, 현장인 흥커우공원 안팎에서 육군 관병식의 성대한 의식이 거행되었다. 승마 및 차량을 탄 육군 부대(기관총대, 산포대, 중포대, 기병대, 병참 자동차대 등), 다음으로는 해군 전차대의 분열식이 앞서 공원의 담장 밖으로 이어진 강만로(江灣路) 거리에서 진행되고, 이후 공원 내 육군 도보부대의 열병식 및 분열식으로 옮겨졌다. 당일 경비는 공원 밖 도로면은 육군이 주로, 도로의 한쪽을 따라 이러진 가옥 내 및 옥상은 해군육전대에서 경비를 맡았으나, 공원 안은 모두 육군헌병 및 총영사관 경찰관들만 경비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들었다. 본래 공동조계는 조계경찰 관할에 속하는데, 공원 소재지인 이른바 연장도로구역은 조계경찰을 본체로 하지만 해당 구역 중 어느 부분은 지나 경찰도 들어와, 즉 연장도로구역 중 일부 방면은 조계 와 지나 공안국이 이중으로 경찰을 담당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일본 경찰권은 전혀 이에 미치지 못한다. 다만 상하이사변 발발 이전의 각국 사령관 간 협정에 따라 북부 연장도로 구역은 일본군 경비구역으로 할당된 결과, 일본 병사는 조계경찰과 함께 그 경비를 할 수 있다는 법적인 원칙이 생겼다. 그러나 당일은 공원 안팎으로 모두 일본 군헌이 경비를 맡게 되어 자연스럽게 사양한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당일에만 경비를 위임하도록 협의했는지, 여하튼 사실 상 조계경찰은 경비에서 손을 떼 터라, 평소처럼 23명의 조계 경사(警事(지나인))가 공원 입구 문지기로서 있는 것 외에는 공원 내외에 그들의 경비를 선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공원 내에서 진행된 육군 도보부대의 분열식은 오전 11시 30분에 끝나고 곧바로 민관합동 축하회로 넘어갔다. 곧 한쪽 잔디밭에 임시 설치한 봉축대(두 간×세 간, 높이는 10척 내외로 예상) 위로 시라카와 군 사령관, 노무라 제3함대 사령장관, 우에다 사단장, 시게미쓰 공사, 무라이 총영사, 및 가와바타 행정위원회 회장이 나란히 올랐고, 도모노 민단 서기장도 행정위원회 회장 뒤를 따라 단상위로 올라갔다. 아침부터 흐린 날씨였는데 이 무렵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가와바타 축하회 위원장 및 무라이 축하회 회장의 축사 낭독이 끝나고, 일동은 공손하게 두 번 국가를 합창하였는데, 그 두 번째가 끝나고 다음으로 만세 합창으로 넘어가려 했다. 그 순간, 때는 마침 11시 40분, 봉축대의 왼쪽 후방, 몇 개의 의자 주변에 서 있던 관중 속에서 약 십 미터(아마 그 정도라고 생각) 떨어진 곳에서 폭탄을 단상에 투척한 자가 있었다. 폭탄은 시게미쓰 공사와 노무라 사령관 사이에 낙하했다. 한 가지 설(說) 중에는 단상 위 도모노 서기장이 그 낙하하는 원형의 물건을 폭탄이라고 눈치 채지 못했기 때문에 발로 걷어차려고 했다고 한다. 그것을 노무라 사령관이 “위험하다!”라며 제지하려던 그 순간, 탄알은 굉음을 내며 작렬했다고 한다. (노무라 장관은 그 제지를 할 때 몸을 왼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오른쪽 눈에 파편이 박혔다). 단상의 인사들 모두 중경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가와바타 위원장은 가장 심각한 중상을 입어 수십 시간 후 마침내 사망했다. 탄이 떨어진 바닥 위에는 큰 구멍이 뚫렸다.

범인은 폭탄을 봉축대 위에 투척함과 동시에 급히 도망가려 한 것을, 그의 뒤에 있던 한 수병이 즉시 그에게 달라붙어, 옆드리게 하고 이를 제압했다. 주위의 군중은 흥분한 나머지 그의 머리와 함께 허벅지를 난타했으나, 끌고 갈 수 있는 병사들은 간신히 이를 제지하면서 범인을 헌병대 본부로 압송했다. 당초 범인에게 달려간 수병은 우에마츠 육전대 지휘관의 호위 일등병조인 고모토 군조(後本武彦)며, 달라붙어 범인을 제압한 것은 총영사관 경찰서원은 타카야나기 요시히데(高柳吉衛)라는 인물이라 들었다.

범인의 흉행 연출까지의 경로는 지금 생략하고, 또 폭탄의 구조나 출처에 대한 상상 등도 일부러 삼가고 있으나, 여하튼 폭탄은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즉 얼핏 보면 평범한 물통 모양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락 모양이어서 이를 공공연하게 휴대해도 딱히 의심받지도 않았다. 그가 던진 것은 물병 모양이고, 만약 도시락 모양의 것을 먼저 던졌다면 그것은 몇 배의 강력한 파괴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재앙이 얼마나 더 격렬했을지 가늠할 수 없다.

범인이 조선인이라는 것은 바로 판명이 났다. 그리고 그의 공범 혐의자를 수색 체포하는 것이 매우 긴급하다는 것은 논할 여지도 없다. 그리고 그것이 불조계 내에 잠재되어 있다고 추정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 상하이 거주 선인은 약 1천 명으로 그중 700명 내외는 불조계 내에 거주하는데, 그 중에는 주의 인사도 적지 않다. 따라서 그에게 공범자가 있다면 거의 백프로 불조계에 숨어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그를 체포해야 할까.

본 건에 관한 해외 신문의 논조

본 건에 관한 국내외 신문, 특히 상하이의 사건은 모두 흉행을 극도로 증오하고 거의 이구동성으로 조난자에게 강력한 동정을 나타냈다. 또한 상하이에 있는 지나인의 23개 신문 및 지나 지식인의 의견을 대표하는 영자 신문의 논조도 대체로 흉악범을 비난하는데 일치했다. 사실 당일 육군 관병식에 대해서는 이전에 비하여 조계 내 유력한 외국인 측 평판이 별로 좋지 않았다. 실제로 관병식 전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영·미·독·불의 각 상업회의소 주간(主幹)들은 최근의 사태 속에서 일본이 대규모 관병식을 거행하는 것은 아직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조계 내에 속하는 흥커우 공원에서 이를 거행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를 일본인 측 유력자(有力者)에게 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해진다. 이 의견이 과연 어떠한 경로로 우리 측에 전해졌을지에 대한 여부는 알 수 없다. 또한 당일의 춘사(椿事, 불상사)는 관병식에 대한 반감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관병식과는 전혀 무관한

동기로 단지 이 기회(관병식)를 이용한 것뿐이라고 들었다. 어쨌든 외국인 측에서는 일본의 관병식을 다소 시위(示威)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식당에서의 어떠한 불상사를 예상한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를 탐탁하지 않게 본 사람은 외국인 유력자 중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사건 다음 날인 4월 30일 『상하이 이브닝 포스트』지면에 실린 우헤드 씨가 전날의 해당 사건을 통탄하는 논평을 실었는데, 여기에 나온 아래 한 구절은 위의 의견을 어느 정도 대표한다고 생각된다.

이 논평은 앞선 사건의 발생을 통절히 개탄하고 흥행을 가장 큰 죄악이라 비난하며, 일본 국내에 퍼지는 분개는 당연한 결과라 하면서, 게다가 일지(日·支) 양국이 이 시기에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논하면서

“첫째, 만약 지나 정부의 책임자가 이번 흥변을 사전에 알고, 승인하거나 움직이게 했다는 확증이 나오면 다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한 일본의 군무관헌들은 스스로 흥변의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들은 관병식 동안 흥커우 공원을 지배했고, 몇 명을 입장 또는 거부할지 모두 그들만의 전권에 속했다. 당일 규정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지 아니하고 특별한 통행권을 지니지 않은 자는 모두 입장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통행을 흥한(凶漢)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책임은 주로 일본의 군무관헌들에게 있다. 따라서 자객에게 넘겨준 폭탄 투척의 기회로 행한 불행한 이 과실에 대하여 그들은 책임을 져야만 한다.”

“다음은 그 유난스러운 어제의 관병식은 지나인의 현재 사상에 비추어 보면, 확실히 도발적이었다는 사실이다. 관병식 거행은 지대한 걱정을 외국인 측에 끼쳤다. 반드시 이러한 종류의 어떠한 흥행이 일어나야 한다고 예상했기 때문은 아니지만, 결국 최근 교전의 영향에서 점차 회복되어 오는 지역에 대해 더욱 불안정한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본 황제 폐하의 탄신을 봉축해야 하는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오늘날의 사태 속에서 이러한 대대적인 의식을 행할 필요가 과연 있었는가. 당일 내외국인을 큰 군중으로 모았던 것, 이것이 이미 어떤 불행한 사건의 위험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논하고 일전(一轉)하여 지나에 대한 충고로서 지나 신문들이 이 시기에 흥한에게 어떠한 동정을 표하거나 흥행을 찬미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바이다.

군사 회의에 넘기다

범인은 일단 헌병관헌의 심리를 받은 후, 상하이 파견군의 육군군법회의 관할로 넘겨졌다. 육군당국이 그를 군법회의 관할로 넘기길 원하는 심정에는 저자 12명의 동정에 힘을 기울이는데 주저하지 않으면서도 동정과 이성을 분리해 매우 냉정히 이 판결을 비판함에 있어서는 다소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29) 1932년 10월 11일 윤봉길 청취서 (<외무성경찰사>) 시가현립도서관

청취서

본적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39
주소 상하이 불조계 패륙로 동방공우 30호
성명 윤봉길

당년 25세

위 자가 1932년 10월 11일 상하이파견헌병대본부에서 본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임의 진술 하였다.

[문] 너는 尹奉吉이냐?

[답] 그렇다.

[문] 너는 금년 4월 29일 상하이 신공원에서 관병식장에 폭탄을 투척하기 이전에 유서를 쓴 일이 있느냐.

[답] 사건의 명령자인 김구의 요구에 따라 나의 약력과 감상 등을 써서 넘긴 일이 있다.

[문]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말하라.

[답] 금년 4월 27일 내가 상하이 신공원의 관병식장의 상황을 미리 조사하고 돌아온 날 오후 6시 반경 김구가 동방공우의 내 집으로 찾아와서 말하기를 “이것이 너의 최후이니 너의 경력과 감상을 써라”라고 하므로 나는 평상시 쓰고 있던 중국제 수첩에 연필로 쓰고 다른 일을 적어둔 곳을 파기하고 그 수첩을 김구에게 넘겼다.

[문] 유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답] 나의 이력서와 내가 작성한 향리의 ‘시량리’와 나의 자식에 대한 유서 및 조선 청년에 대한 나의 감상을 수필로 쓰고 끝으로 내가 금년 4월 27일 오후 1시경 상하이 신공원의 식장을 미리 조사하려 갔을 때 내가 밟은 잔디가 그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다시 일어서는 것도 있었다. 그것을 보고 나는 인간도 또한 강한 자로부터 유린되었을 때 이 잔디와 하등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슬픈 감정이 샘솟아 났다. 그 감정을 유서로 썼다.

[문] 유서 중의 이력은 사실과 틀림없느냐.

[답] 김구로부터 갑자기 요구되어 쓴 것이므로 연차에 다소 틀린 것이 있다. 유서를 쓸 때에도 나는 김구에게 그것을 말했던 바, 김구는 “연차 따위는 다소 틀려도 지장이 없으니 자기의 의사만은 명료히 써라”라고 말한 정도였다. 그리고 오후 9시경까지 약 2시간 반이 걸려 썼으나 몹시 의미 없는 것이 되었다.

[문] 너는 시를 짓는 소양이 있느냐.

[답] 내가 서당에 통학하고 있을 당시 매일 시를 가르쳐 주어 열심히 공부하였는데 내가 지어 발표한 것 중에서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은 것도 있다. 잘 된 것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당시에 지은 대로 틀림 없이 쓸 수 있다.

[문] 네가 향리 시량리를 지었다는데 누가 의뢰한 것이냐.

[답] 누구한테서 의뢰를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홀로 지은 것에 틀림없다. 그러나 곡은 당시 유행가의 譜를 썼다.

[문] 너의 유서는 김구가 세상에 발표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답] 그것은 말하지 않았다. 만일 발표한다고 말한 것이라면 나는 충분히 생각해서 상세히 자구도 훌륭하게 썼을 것이다. 그러나 김구는 내가 갑작스러운 가운데서 쓰고 있는 것을 보고 “군은 참으로 소양이 있구나” 하고 말했다.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유서내용 속에 김구에 대한 유서도 동시에 썼다.

[문] 너는 이상 말한 외에 유서 같은 것을 쓴 사실이 없느냐.

[답] 전술한 이외에 없다.

[문] 너의 유서문제에 대해 달리 무엇인가 말할 것이 없느냐.

[답] 없다.

진술인 윤봉길

위를 기록하여 읽어 들었던 바 사실에 틀림이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 무인케 하다.

1932년 10월 11일

상하이파견헌병대 육군사법경찰관 육군헌병군조 須藤貞一郎

30) 1932년 10월 19일 폭탄 범인 윤봉길의 약력 및 유서 (<외무성경찰사>) 시가현립도서관

발신: 재(在)상하이 이시이(石射) 총영사

수신: 우치다 외무대신 보고

폭탄 범인 윤봉길의 약력 및 유서

상하이 흥커우 공원 폭탄 범인 윤봉길의 약력과 유서란 것이 최근 입수되었는데 이에 관해 상하이 헌병대에서 윤봉길에 대해 신문한 바에 의하면 흥행의 전전일인 4월 27일 오후 6시경 윤은 그의 주소 동방공우에서 김구의 지시에 따라 소지한 중국 수첩에 연필로 그의 이력과 두 아이에 대한 유서 등을 써서 김구에게 수교한 것 같다.

그리고 그 후 김구 일파가 별지와 같이 <윤봉길 열사의 자서 약력 및 유촉>이라 하여 등사판으로 인쇄하여 각지 한인에 배부하였다고 한다.

선언문

나 윤봉길은 赤誠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한인 애국단의 일원으로서 중국을 침략하는 적 장교를 도륙할 것을 맹세한다.

대한민국 14년 4월 26일

한인 애국단 앞

윤봉길

윤봉길 의사 자서, 약력 및 유촉

이력서

본적: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39번지

본관: 파평(坡平)

부(父): 윤황(尹璜)

모(母): 김원상(金元祥)

애국단원 윤봉길 무신년 5월 22일생 (서력(西曆), 양력) 1901년)¹⁸⁾

7세에 사학에 취학하건데 8, 9세에 또래들보다 빼어나 총명하였으므로, 선생과 인근 부모(父老)자들이 신동이라 호명하였다. 반면 또다른 별호(別號)는 '살가지(狸)'였다. 성질이 남달리 굳세고 조급하였으므로 동년배(同輩)들과 다툼에 패한 적이 없었으며, 또는 접장(서당의 한문 선생을 칭하는 말)한테 맞더라도 눈물을 흘리고 울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하였으며 서당 규칙 위반으로 선생이 종아리를 치려고 걸으려하면 두 눈을 말뚱말뚱 크게 뜨고 쳐다만 보았다.

십오세가 되도록 독공(篤工)을 하였으므로 4율(四律) 1수(一首)는 어렵지 않게 만들었고, 아래에 기재된 옥련환시 한 절은 십오세 때 7월 파접(서당에서 계절 책이 바뀔 때 하는 행사) 때 지은 것이다. 여러 내빈이 나의 재능을 보기 위하여 낙운성시를 하였다.

부후성명사기명(不朽聲名士氣明) 사기명명만고청(士氣明明萬古晴)

만고청심도재학(萬古晴心都在學) 도재학행부후성(都在學行不朽聲)

16세에는 여러 선생의 충고를 듣지 않고 일어 속성 독본을 구입하여 일어 독학을 마음먹고 1년 간 부지런히 힘써 정진하여 통화를 능숙하게 하는데 이르렀다.

17세가 되고는 개도 안 먹는 똥을 누는 사람이 되었다 (서당의 선생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부형(父兄) 등의 권고 또는 주변 선생의 권유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성찰하여도 할 일이 없었으므로 7, 8명의 학생을 가르치기로 하고 18세까지 2년간 계속 하였다.

19세에는 피폐한 농촌을 개혁할 목적으로 마을 어르신들과 상의하여 마을에 작은 집을 마련하여 빈곤하여 공부를 못하는 아동을 모집하여 야학을 시작한 결과, 그 성적이 매우 우수해졌다. 그 아동과 부형과 친목을 도모하여 미풍양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학예회를 개최하였고, 또는 월진회를 조직하여 매일 1회씩 월례회를 집합하여 고담(古談) 및 신사조(新思潮)를 강연하였다.

이하의 기재는 시량(柿梁)의 동가(洞歌)이다 (곡조는 반월가조로)

1. 조화신공의 가야산의 정기를 받아
금수강산 삼천리 무궁화원에
기리기리 빛을 발하는 우리 시량리
2. 가야산은 우리의 배경이 되고
온천의 들판은 우리의 무대가 되고
두 팔 걷고 두 발 벗어 출연하여
어서 자족자급을 실현하자
3. 암흑(暗黑)동천(東天)의 계명성(啓明星)이 떠오르면
약육강식의 잔인성을 내버리고
상조(相助) 상애(相愛)의 녁자(字)를 철안으로 삼아
군세계 단결하는 우리 시량리를

23세가 되어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압박과 고통은 나날이 커져갈 따름이다. 나는 여기에 한 가지 각오를 하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날로 메말라가는 삼천리강산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고, 수화(水火)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대로 태연하게 앉아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 각오는 그저 나의 철권으로 적을 즉각 부수는 것이며, 이 철권은 관에 들어가면 쓸 수 없고, 늙게 되면

18) 의거 이전 4월 27일, 윤의사가 직접 작성한 이력서에는 부친의 이름이나 자신의 생년월일에 다소 오기가 있다.

무용지물이다. 나의 귀에 들린 것은 상하이 임시정부였다. 다언불요(多言不要). 이 각오로 상하이를 목적으로 사랑하는 부모형제와 처자식과 정든 고향 산천을 버리고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압록강을 건넜다.

출가(出家)하여 보니 아아! 닥쳐오는 것은 금전(金錢)의 고통이다. 겨우 칭다오까지는 왔으나 상하이까지 갈 여비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인 나카하라의 세탁소에서 일을 하였다. 출가 여비(旅費)는 나의 것이 아니라 월진회비였으므로 내가 고용되어 있는 동안 벌린 돈은 값고 여비가 만들어지는 대로 떠나자는 결의를 했으므로 1년간 체류하였다.

24세가 된 해 5월 8일에 목적지인 상하이에 도착하였다. 맞이한 사람은 없었으나 목적지에 도착한 것만으로도 기뻐다. 남의 주머니에 돈이 들었는지 똥이 들었는지 누가 알 텐가. 와서 보니 또 닥치는 것은 금전의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중국 종품공사의 직공이 되었다.

이 공장은 한인 직공이 17명 있어, 한인 공우 친목회가 설립되었고 공우회 회장이 되었다. 그런데 공장주 박진과 사소한 감정 때문에 해고를 당하고 계춘건 군과 함께 흥कु우에 채소상점을 열었다. 그리고 이후는 여러 선생들이 아실 것이다.

유족

부: 윤항 신묘년 11월 5일생

모: 김원상 (경주 김씨) 기축년 12월 16일생

처: 배용순 (성주 배씨) 정미년 8월 15일생

장남: 모순 정묘년 9월 11일생

차남: 담 (나의 출가 후에 태어난 자) 경오년 5월 19일생

젓내 나는 강보에 싸인 병정에게...모순, 담

너희가 만약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에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버지 없음을 슬퍼하지 말거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한 사람이 된 것을 ...

동서양의 역사를 보건대

동양으로 문화가 맹가가 있고

서양으로 프랑스 혁명이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에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수필

피 끓는 청년제군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무궁화 삼천리 우리 강산에

왜놈이 어찌 와서 어찌 광분하는가를

피끓는 청년제군들은 아는가

중국인은 돌아왔다 되돌아가는데

왜놈은 왜 와서 왜 돌아가지 않는가

피 끓는 청년제군들은 자는가

동천에 서색은 점점 밝아오는데

고요한 아침이라 하면서 광풍이 일어날듯하고

피끓는 청년제군이여 준비하세

군복을 입고 총을 메고 검을 쥐어

군악 나팔에 보조를 맞추어 행진하세

27일, 신공원을 답청하며¹⁹⁾

처처(萋萋)한 방초(芳草)여 명년(明年)에 봄색이 도래하면 왕손(王孫)과 함께 오시게
청청(靑靑)한 방초여 명년에 봄색이 도래하면 고려강산에도 다녀가오
다정(多情)한 방초여 올 4월 29일에 방포일성(放砲一聲)으로 맹세하세

백범선생에게

높고 웅장한 청산이여 만물을 품어 기르는구나
저 멀리 우뚝 선 푸른 소나무여 사시 변함이 없구나
번쩍번쩍 빛나는 봉황의 날음이여 천 길이나 드높게 날아 오르는구나
온 세상이 모두 흐림이여 선생만은 홀로 맑아 있도다
늘을수록 더욱 강건해짐이여 오직 선생의 의기뿐이로다
참고 견디며 원수 갚을 날을 기다림이여 선생의 붉은 정성이로다

**31) 1932년 4~12월 『외무성 경찰사』재(在)상하이총영사관 조선민족운동 제4 (5권 중)
시가현립도서관**

(25253) 1932년 4월 29일 발신: 상하이 시계미쓰(公使光) 공사, 수신: 요시자와 외무대신
전보 요지: 불령선인 폭탄 투척 사건

(25254) 1932년 4월 29일 발신: 상하이 시계미쓰 공사, 수신: 요시자와 외무대신
전보 요지

(25256) 1932년 4월 30일 발신: 상하이 무라이 총영사, 수신: 요시자와 외무대신
전보 요지

(25257) 1932년 4월 30일 발신: 헌병 사령관, 수신: 외무대차관
통보 요지
1. 상하이 파견 군헌병대장보(報)
2. 시계미쓰 헌병 대위보(報)

(25261) 1932년 5월 1일 발신: 상하이 시계미쓰 공사, 수신: 요시자와 외무대신
전보 요지: 공사 부상 용태 아래와 같음

(25263) 1932년 5월 3일 발신: 상하이 시계미쓰 공사 수신: 요시자와 외무대신
전보 요지

19) 일본어 원문에 靑菌이라 오기된 것을 사료 원문에 고쳐서 기재함.

- (25266) 1932년 5월 25일, 26일 발신: 상하이 시계미쓰 공사, 수신: 요시자와 외무대신
전보 요지
- (25267) 1932년 5월 3일 발신: 상하이 무라이 총영사, 수신: 요시자와 외무대신
전보 요지: 상하이 흥커우 공원 폭탄 투척 사건
1. 재류 관민 합동 천장절 축하 식장의 폭탄 투척한 범인 체포
2. 식당 경비 상황과 폭탄 투척 당시 상황
3. 범인 사용한 폭탄 구조 및 휴대 행동 상황
4. 범인의 신변과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5. 본범행의 연루자와 그 조사
- (25292) 피고인 신문조서 4월 29일
- (25302) 제2회 피고인 신문조서 4월 30일
- (25309) 1932년 6월 20일 발신: 상하이 무라이 총영사, 수신: 사이토 외무대신
전보 요지: 폭탄 사건 범인 윤봉길에 대한 판결, 판결문
- (25320) 1932년 10월 19일 발신: 상하이 이시이 총영사, 수신: 우치다 외무대신
보고 요지: 폭탄 범인 윤봉길의 약력 및 유언
- (25333) 청취서 10월 11일
- (25339) 1932년 11월 18일 발신: 상하이 이시이 총영사, 수신: 우치다 외무대신
보고 요지: 현지 파견 헌병대는 장교 이하 28명을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철수하기로 결정. 오는 28일 현지 출발 귀환할 예정이나, 흥커우 공원 폭탄 사건의 범인 윤봉길은 11월 18일 현지발 다이요마루로 오사카로 호송됨. 고베 상륙할 예정.
- (25340) 1932년 12월 26일 발신: 마쓰모토 육군성 법무국원, 수신: 데라지마 외무성 조약국 제2과장
통보 요지: 윤봉길 사형집행. 금년 5월 25일 상하이 파견군 군법회의에서 살인, 살인미수, 상해, 폭발물단속법칙 위반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 이달 19일 위의 형을 집행하였음.
- (25341) 1932년 5월 25일 발신: 상하이 무라이 총영사, 수신: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전보요지
- (25342) 1932년 6월 3일 외무성 아세아국 제2과
상하이 조선인 독립운동가 단속 대책(요지)
- (25356) 1932년 6월 4일 발신: 상하이 무라이 총영사 수신: 사이토 외무대신
보고 요지: 흥커우 사건 폭발 사건 범인 연류 혐의 조선인의 취조 전말

- (25361) 1932년 6월 4일 발신: 무라이 총영사, 수신: 사이토 외무대신
보고 요지: 안창호 등의 재류 금지
- (25370-1) 1932년 6월 6일 발신: 무라이 총영사, 수신: 사이토 외무대신
보고 요지: 김구가 밀파한 암살단원 체포
- (25373) 1932년 6월 24일 발신: 무라이 총영사, 수신: 사이토 외무대신
보고 요지: 김구 일행의 움직임과 체포 계획
- (25383) 1932년 9월 30일 발신: 상하이 이시이 총영사, 수신: 우치다 외무대신
보고 요지: 안동에서 체포된 김구의 밀사 조선인(女) 김금호
- (25394) 1932년 9월 28일 발신: 상하이 이시이 총영사, 수신: 우치다 외무대신
보고 요지: 조선인(女) 김금호의 재류 금지
- (25399) 1932년 7월 15일 발신: 상하이 무라이 총영사, 수신: 우치다 외무대신
보고 요지: 상하이 독립 운동자의 내분
- (25414) 1932년 10월 3일 육군성 군무국 軍事化國分 소령 전화 아래와 같음.
상하이 헌병 철수 및 장교의 잔류
- (25417) 1932년 11월 10일 발신: 상하이 이시이 총영사, 수신: 우치다 외무대신
보고 요지: 폭발 사건 후의 김구 일파 그 외 동향
제1. 흥커우 공원 폭파 사건 후의 김구의 도피
제2. 독립운동자 사이의 분야와 그 파벌 분쟁
제3. 동북의용군 후원회장 저보성의 김구 비호
제4. 불령선인 간의 통신 연락
제5. 흉폭 행위에 사용된 폭탄 및 자금의 출처
제6. 최근의 조선인 독립운동자 사이의 반(反) 김구파의 대두와 김구의 광둥 여행설
제7. 한국 각 혁명단체의 연합과 한중 항일운동의 합작
- (25465) 1932년 11월 21일 발신: 상하이 이시이 총영사, 수신: 우치다 외무대신
보고 요지: 대역 사건에 관한 김구의 성명
- (25472) 1932년 12월 1일 발신: 상하이 이시이 총영사, 수신: 우치다 외무대신
보고 요지: 불령선인 김철(金徹) 및 김철(金哲) 체포 계획의 건
- (25476) 1932년 12월 2일 발신: 상하이 이시이 총영사, 수신: 우치다 외무대신
보고 요지
- (25478) 1932년 12월 8일 발신: 상하이 이시이 총영사, 수신: 우치다 외무대신

- (25480) 1932년 12월 20일 발신: 우치다 외무대신, 수신: 상하이 이시이 총영사
통달 요지: 이시이 총영사 외 2명 계●의 건
- (25482) 1933년 1월 6일 발신: 상하이 이시이 총영사, 수신: 우치다 외무대신
보고 요지: 김철(金徹)과 김철(金哲)의 체포 조치에 관한 총령 및 두 사람의 계●의 건
- (25484) 1932년 12월 19일 발신: 상하이 이시이 총영사, 수신: 우치다 외무대신
보고 요지: 불조계 내 불령선인 입수(入手)
- (25491) 1932년 12월 8일 발신: 상하이 이시이 총영사, 수신: 우치다 외무대신
보고 요지: 재(在) 상하이 민족파 조선인의 근황에 관한 건
- (25498) 재(在) 상하이 조선인 단체 일람표 (1932년 말 조사)
민족주의파, 공산주의파
- (25507) 재(在) 상하이 조선인 민족주의 단체 계통도(圖)

32) 1932년 11월 18일 전보(윤봉길 호송)

발신: 상하이 이시이 총영사, 수신: 우치다 외무대신 (<외무성 경찰사>), 시기현립도서관

현지 파견 헌병대는 장교 이하 28명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수하기로 결정하여 오는 28일, 현지발(發) 귀환하게 된다. 흥커우 공원 폭탄 사건 범인 윤봉길은 11월 18일, 현지발 다이요마루를 통해 오사카로 호송되거나 고베에 상륙할 예정.

33) 1932년 11월 19~20일 『오사카 아사히』 『오사카 마이니치』 『키타쿠니』

『키타쿠니신문』 11/20 (이시카와현립도서관)

**폭탄범 어제 상하이에서 국내로 이송
군법 회의 계승 관계상 가나자와로 호송될 것인가**

올 4월 29일 오전 11시 상하이 신공원의 천장절 축하 식장에 수류탄을 투척하여 시라카와 군사령관, 우에다 제9사단장, 노무라 함대 사령장관, 시게미쓰 공사 등 다수의 유력 인사를 살상한 폭탄 사건의 범인 윤봉길은 그 후 상하이 헌병대에 수용되어 범행 동기, 연락, 조직 일당 등에 대해 엄중히 조사받았으나, 심문이 일단락되어 국내로 호송되어 18일 다이요마루로 상하이를 출발, 21일에 고베로 도착할 예정이다. 범인은 제9사단 군법회의가 상하이 파견 군법회의를 계승한 관계로 당연히 가나자와로 호송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위 사안에 대해 네모토 제9사단 법무부장은 말한다.

“폭탄사건 내용은 물론 범인에 관해서도 나는 일절 배포할 수 없다. 범인이 가나자와에 올

지 아직 통보는 못 받았으나, 만약 온다고 해도 발표는 불가능하다. 사건이 명료해지면 조만간 발표될 때가 올 것이다.”

『오사카 아사히 신문』 11/19

상하이 폭탄범 윤봉길 호송, 어제 상하이 출발 고베로

【상하이 특전 18일발】 올 4월 29일, 상하이 우리 축하 회장에 폭탄을 던져 시라카와 대장이하 다수의 일본인에게 사상을 입힌 폭탄 사건 범인 윤봉길은 그 후 상하이 헌병대에서 엄중 조사 중이었으나 이번에 국내 호송이 결정되어, 18일 오전 11시 상하이 출발 다이요마루로 헌병대 부속 고베로 송치되었다.

『오사카 아사히 신문』 11/20

상하이 폭탄범 내일 고베로, 이후 오사카 위수 형무소 호송

상하이 폭탄범 윤봉길은 20일 오후 고베 입항 예정인 수송선 다이요마루로 호송되는데, 상하이에서는 동선(同船)으로 개선(凱旋)하는 교토 헌병 분대의 상하이 파견반 스기야마 조장 외 3명이 보조하고, 고베부터는 고베 헌병 분대의 헌병 2명이 합류해 수상서(水上署) 원(員)과 협력, 육상 및 해상(陸海)의 엄중한 경계 속에 오사카 위수 형무소로 호송할 예정이다.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 11/20

**상하이 폭탄범 오사카서 사형집행, 이미 1심에서 즉결
윤봉길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한 유서**

상하이 본사 특전 【19일발】 기보(既報), 18일 상하이를 출발한 다이요마루로 오사카에 호송된 상하이 폭탄 사건의 범인 윤봉길(26)에 대해 상하이 헌병대가 체포 직후 군법회의 예심에 부쳐 심리한 결과, 극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는데, 판결을 들은 윤은 창백한 얼굴을 들고 재판관에게 종이와 펜을 빌려 “나는 이대로 죽어도 미련은 없다. 그러나 강보에 싸여 잠든 두 아이를 생각할 때 심장이 찢기는 심정이다”는 의미의 유서를 썼다고 한다. 한편 윤은 20일 오후 4시경 고베로 입항할 예정이며, 즉시 오사카 위수 형무소에 수용되어 형의 집행을 받을 것이다. 【사진은 윤봉길】²⁰⁾

34) 1932년 11월 21일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 『오사카 아사히 신문』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

11월 20일 윤봉길, 다이요마루로 일본 도착

고베항으로 윤봉길을 인도받으러 간 오사카 헌병대는 깜짝 놀랐다. 제3 돌제(突堤) M안벽(岸壁)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신문기자는 론치(작은 배, 보트)를 대절해 다이요마루로 향하고 있었다. 경쟁하듯 트랩으로 달려오는 신문기자를 간신히 제압한 오사카 헌병대는 기자의 카메라에서 필름을 빼내고 윤봉길을 연행해 수상서(水上署) 론치에 실었다.

론치는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원래 상륙 예정이던 제3 돌제를 피해 미쓰비시 조선소 부두에 도착했다.

일행은 대기하던 검은 차로 갈아타고 오사카로 향했다. 어둠이 깔린 요도가와(淀川) 대교에

20) 본문과 다르게 당시 윤봉길 의사는 25세이다.

는 기다리고 있던 신문사 차량 10여 대가 오사카 헌병대의 차를 뒤쫓았다. 그 앞의 다마츠크리몬(玉造門)에서 대기하던 자들은 3, 40명의 카메라맨으로, 그들도 달리면서 헌병대의 차로 몰려들었다. 이를 뚫고 헌병대 일행은 오후 5시, 간신히 오사카 위수 교도소에 들어왔다. (「4월 29일의 윤봉길」 발췌)

『오사카 아사히 신문』

상하이 폭탄범 윤봉길 엄중한 경비 속 오사카로

육군 위수 교도소에 수용, 머지 않아 결국 총살 예정

을 4월 29일 천장절 즈음하여 상하이 신공원에서 진행된 우리 파견군 관병식 종료 후의 민관 합동 축하 회장의 단상에 폭탄을 투척하여 시라카와 대장, 가와바타 행정위원회회장의 생명을 빼앗고, 시게미쓰 공사의 오른쪽 다리와 노무라 중장의 오른쪽 눈을 잃게 해 전 국민을 극한의 분노에 빠지게 한 폭탄범, 그의 본적은 조선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29이다.²¹⁾ 당시 상하이 불조계 바이런로 동방공우 30 윤봉길(26세)은²²⁾ 현장에서 즉시 우리 경비 군헌에게 체포되어, 상하이 파견군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확정짓고 드디어 오사카 육군 위수형무소에서 총살당하는 것으로 되었다. 20일 오후 2시 40분 수송선 다이요마루로 고베항 와다미사키(和田岬)에 도착, 육로로 오사카에 호송되어 같은 날 저녁 오사카 육군 위수형무소에 수용되었다.

얼굴 창백한 범인, 론치에서 자동차로

쩍새게 사람들 눈을 피해

상하이에서 귀환하는 개선 헌병 스기야마 조장 외 ●●에게 호송되어 고베에 도착한 윤봉길의 경계는 훌륭하고 엄중하여, ●고베 헌병 분대 및 수상서원(水上署員) 수●●는 정오경부터 와다미사키(和田岬) 수상서(水上署) ●●에 쾌속 론치 ‘마야마루(摩耶丸)’를 준비해 다이요마루를 대기 정박●.

●일행은 곧 탑승하였고, 신문기자 사진반은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하고 호송 경로도 완벽히 극비에 붙여져 있●●. 3시가 지나 범인은 갑자기 3등 42●●실로부터 끌려나와 인접 의무실에서 의사에게 간단한 건강진단을 받았다. 범인은 낫빛은 창백하고, 여름용 메리야스셔츠 위에 연갈색의 합복(合服)²³⁾, 오버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덥수룩하게 자랐지만, 수염을 깎은 흔적이 푸르고 예리한 눈빛과 함께 일종의 무시무시한 느낌을 주었다.

배 안에서 완전히 안정된 듯 스기야마 조장에게 정확한 일본어로 “신문 사진만은 넣지 마세요.”라고 속삭이자 “사진은 안 찍을 테니 안심해”라고 듣고 쥐색 중절모자를 쓰고 수갑을 찬 채 오사카에서 온 사복 헌병에게 둘러싸여 갑판으로 나와 트랩을 내려와서 ‘마야마루’에 올랐다. ‘마야마루’는 와다미사키에 정박하는 듯 보이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어, 미쓰비시 조선소 부두로 들어가 조선소 배선부(配船部) 앞으로 가 미리 몰래 준비된 자동차 3대 중 병고(兵庫) 제1422호에 스기야마 조장과 함께 탑승하였다. 10여 명의 헌병들이 나눠서 탑승한 자동차 2대가 앞뒤를 경계하면서 고베 시내를 횡단하는 한신 국도를 통해 엄청난 속도로 오사카로 향했다.

21) 본문에는 시량리 129라 적혀 있으나 실제로 윤봉길 의사의 본적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39이다.

22) 본문과 다르게 당시 윤의사의 나이는 25세이다.

23) 합복(合服)은 일본어로 봄, 가을철에 입는 양복을 의미한다.

자동차 안에서 섬뜩한 미소,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독방에 수용되다

오사카 헌병대는 나카바야시(中林中慰) 중위 이하 6명이 고베로 급파되어 상하이에서부터 온 호송 헌병, 고베 헌병대원과 함께 윤의 탑승을 경비하며 오사카로 돌아왔으나, 창문의 커튼…… 교차로에서 기사를 만나자 사진을 못 찍게 하려고 헌병은 무릎을 내민다. 이윽고 해질 무렵 평소에는 열린 적 없는 오사카성 다마츠쿠리문(玉造門)에서 3…… 자동차는 그 안으로 재빨리 들어갔고, 수갑을 찬 윤봉길은 중절모를 눈 쪽까지 깊게 눌러써 얼굴을 가리고 양옆을 사복 헌병에게 보호받으면서 하차했고, 상하이에서부터 호송을 한 헌병 4명 및 나카바야시 중위, 미야이 형무소장 등에게 둘러싸여 형무소 내로 들어갔다. 이후 온수로 몸을 닦고 식사를 지급받은 후 곧 미결수를 수감(未決監)하는 중앙동 수감방에 수용되었다.

특별 경계하며 집행 기다리다 미야이 형무소장 말하다

의외로 솔직한데, 기분 탓인지 어려운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딱히 조사할 것도 없기 때문에 뭐 꼭 자도 된다고 말하고는 옥색 옷으로 갈아입게 하고 독방에 수용, 병대(兵隊)의 식사나 저녁밥을 주어도 그럭저럭 먹고 있었다. 어쨌든 중요한 수감자이기 때문에 특별 경계를 하고 있다. 보통 죄수는 소(所) 내에서 교련과 기타 활동을 하게 하는데 윤은 군인이 아니므로 그런 일을 시키지 않고 앞으로는 형 집행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일체 독방에서 나오게 하지 않을 생각이다. 형 집행은 육군 대신의 명령으로 진행하나, 그 시기는 전혀 모르겠다.

35) 1932년 11월 22일 『키타쿠니 신문』 이시카와현립도서관

상하이 폭탄범 오사카에서 사형집행 어제 오사카 위수 형무소에 수용

<고베 전화> 올 4월 29일 천장절에 상하이에서 우리 축하 회장에 폭탄을 던져 시라카와 군 사령관 이하 다수의 귀중한 인명을 잃게 한 폭탄 사건의 범인 윤봉길(27)은 상하이 군법회의에서 이미 1심으로 사형 판결이 확정.²⁴⁾ 오사카 위수 형무소에서 형 집행을 위해 일본 수송선 다이요마루로 20일 오후 4시 반 고베로 입항한 중대범의 호송인 만큼 당국의 경계가 특히 엄중하다. 배가 안벽에 도착하자 미리 마중 나온 론치로 오사카 헌병대 나카무라 중위 이하 헌병 수 명의 경비를 받으며 윤은 쥐색 양복에 모자를 쓰고 수갑을 찬 채 미쓰비시 조선소 크레인 부근에 사람들 눈을 피해 상륙을 기다리고 있던 자동차로 오사카 위수 형무소로 향하여 오후 5시 1분 수용되었다. 한편 범인의 형 집행은 현재 제9사단 군법회의의 이름으로 육군대신에게 신청 중이다. 신청 허가가 나는 대로 5일 이내에 오사카 위수 형무소 내에서 집행될 것이다.

일체를 엄중 경비 제9사단 군법 회의

당국은 고등 정책상 범인의 호송은 물론 사건 일체를 극비에 부치고 있다. 참고로 제9사단 군법회의에서는 동일인(同人)의 호송과 수취에는 별도로 담당관을 파견하지 않았다.

24) 본문에는 27세로 되어 있으나 당시 윤봉길 의사의 실제 나이는 25세이다.

36) 1932년 12월 2일 『오사카 아사히 신문』

상하이 폭탄 범인 2명을 체포

1명과 우리 측 경관 2명, 불조계 경찰에. 문제의 인물 놓치다

【상하이 특전 1일발】 30일 밤, 일본 총영사관 경찰은 지난 4월 29일 천장절 당일 신공원 폭탄 사건의 연루자인 중요 범인이 불조계 근처의 지나 마을에 은신 중인 것을 탐지해 오후 7시 스키무라 경감, 야마자키 경감 외 9명의 경관이 사복 차림으로 범인의 주거를 습격해 ○○, ○○ 2명을 격투 끝에 체포했다. 이때 불조계의 경관대가 달려와 이곳이 불조계 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범인 1명과 우리 경관 2명은 불조계 경찰과 강제 동행해야 한다 하여 이튿날 아침까지도 유치되었다. 이에 우리 당국은 당 사안을 취하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편 다른 범인 한 명은 우리 총영사관 경찰에게 인도되었는데, 문제의 인물 ○○은 현장에는 없었던 모양이다.

37) 1932년 12월 2, 4일 『키타쿠니 신문』(가나자와로 호송, 협의) 이시카와현립도서관

(12월 2일) 폭탄범의 중대한 감시에

또 진노(甚野) 상등병은 폭탄범 윤봉길의 감시라는 중임(重任)을 맡고 있었는데 윤의 모습에 대해 말했다. “폭탄 사건 당시에 우리는 전선에 있어 몰랐지만, 구금소에서는 윤의 감시를 맡고 있었다. 윤은 말이 없는 편이고 결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참으로 태연한 태도로 기죽은 곳도 없었다. 오히려 일본 역사에도 남게 되어 본인은 만족한다는 안하무인의 말을 할 정도였다. 그리고 빨리 죽여주면 된다고 독일어로 말을 했는데, 오사카로 이송되어 내 책임이 끝나 한시름 놓았다”

(12월 4일) 상하이 폭탄범 조사 사정으로 가나자와 호송되나

네모토 법무부장 출장, 합의

사형 당분간 집행 안 하나

지난 달 21일 상하이 헌병대로부터 국내로 호송된 상하이 폭탄 사건의 범인 윤봉길(27)은 당일 고베 상륙 이송 후 곧장 오사카 위수 교도소에 수용되어 아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위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조사를 요하는 점이 생겨 다시 신중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이른듯하다.²⁵⁾ 네모토(根本) 제9사단 법무부장은 지난 달 25일 오사카로 출장, 위 사건에 대해 자세히 협의했을 정도로, 범인의 사형은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취조 상황에 따라서는 상하이 파견군 군법회의를 계승하고 있는 제9사단 군법회의에 범인이 인도될 가능성도 있다고.

38) 1932년 12월 9, 10일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 『오사카 아사히 신문』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 12/9

25) 본문에는 27세로 되어 있으나 당시 윤봉길 의사의 실제 나이는 25세이다.

가메야마(亀山) 검사 오사카로, 중대범 조사

도쿄 지방 검사국의 가메야마 검사는 8일 밤 오사카로 내려왔는데, 이는 스스로 오사카 위수 감옥에 수용 중인 모 중대범에 관해 조사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으로, 약 일주일간 체류할 예정. (도쿄발)

『오사카 아사히 신문』 12/10

가메야마 검사, 윤봉길 취조

도쿄 지방 검사국의 가메야마 검사가 예가와(江川) 서기와 함께 9일 오전 8시 56분 도착, 곧바로 오사카 지방 검사국 요시무라(吉村) 검사와 논의하였다. 이후 오사카 육군 위수 형무소에 모습을 드러내 미야이(宮井) 소장과 만난 후 상하이 폭탄 사건 범인 윤봉길을 여러 가지로 조사했다. 위는 모 사건에 관해 조사가 필요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 12/10

상하이 폭탄 범인 윤봉길(26)의 조사를 위해 체류 중인 도쿄 지방법원 가메야마 검사는 10일에도 오전 11시부터 오사카형무소에 도착해 약 1시간에 걸쳐 조사를 하고 정오 이후 퇴실했는데, 그는 며칠 더 체류하면서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²⁶⁾

39) 1932년 12월 15일 윤봉길 형 집행의 건(육군만밀 제896-33 육밀 제489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기원청(起元庁) (과(果)) 이름 제9사단

주무국과수령(主務局課受領) 쇼와 7(1932)년 8월 9일

제출(主務局課提出) 쇼와 7(1932)년 12월 14일

대신관방수령(大臣官房受領) 쇼와 7(1932)년 12월 15일

완료(大臣官房完了) 쇼와 8(1933)년 8월 3일

大臣으로부터 제9사단장에게

達案

陸密 제 호

별지 명령은 그 사단 군법회의 검찰관에게 전달할 것.

陸密 제49호 쇼와 7(1932)년 12월 15일

◆ 이유

군법회의에서 언도한 사형집행은 육군대신의 명령을 필요로 하는 데에 따름.

(참조 육군 군법회의법 제502조 사형 집행은 육군대신의 명령에 의함)

命令案

제9사단 군법회의 검찰관 根本莊太郎(네모토 소타로)

26) 본문에는 26세로 되어 있으나 당시 윤봉길 의사의 실제 나이는 25세이다.

윤봉길 살인, 살인미수, 상해, 폭발물단속벌칙 위반 사건 判決書대로 형을 집행할 것.
쇼와 7(1932)년 월 일
육군대신 荒木貞夫(아라키 사다오) 印
쇼와 7(1932)년 12월 15일 印

40) 1932년 12월 15일 윤봉길에 관한 소송기록 반환의 건 (육군만밀 제896-33)
아시아역사자료센터

(1페이지)

기원청(과) 명 제9사단
주무국과수령 쇼와 7년(1932년) 8월 9일
제출 쇼와 7년(1932년) 12월 14일
대신관방수령 쇼와 7년(1932년) 12월 15일
종료 (공백)

(2페이지)

대신(大臣)으로부터 제9사단장에
육밀 제 (공백) 호
위에 제출한 윤봉길의 살인, 살인미수, 상해, 폭발물단속벌칙위반 사건 소송 기록 사용 용도
종료로 반려함.
육밀 제490호 쇼와 7년(1932년) 12월 15일
이유
육군 군법 회의법 제503조에 의거하여 제출한 것도 사용 용도 종료로 반려함.

(3페이지)

검사 발 제75호
윤봉길에 관한 소송기록 제출의 건
쇼와 7년(1932년) 8월 5일 제9사단장 우에다 겐키치(植田謙吉)
육군대신 아라키 사다오 앞
조선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39
살인, 살인미수, 폭발물단속벌칙위반 윤봉길
상기의 죄명에 따라 상하이 파견군 군법회의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다. 당분간 형을 집행
연기 중인 자(者)에 대한 건은 육군군법회의법 제503조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4페이지)

검사 발 제74호
사형 판결 확정에 관한 소송 기록 제출의 건
제9사단 군법회의
1932년 8월 5일 검찰관 육군법무관 네모토 소타로(根本莊太郎)
제9사단장 우에다 겐키치 앞

조선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39

살인, 살인미수, 폭발물단속벌칙위반 윤봉길

상기의 죄명에 의해 상하이 파견군 군법회의에서는 1932년 5월 25일 사형 선고가 있었고, 같은 달 28일자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 대리의 명령에 따라 당분간 상기의 형 집행이 연기 중인 자이므로 육군군법회의법 제503조에 의거하여 위의 소송기록을 제출한다.

41) 1932년 12월 17일 9사보 제521호 출동명령 (<검찰비록 2.26 사건2>)

이시카와현립도서관

명령

1932년 12월 17일 제9사단장 아라마키 요시카츠(荒蒔義勝)

보병 제7연대장 이가라시 후사키치도노(五十嵐房吉殿)²⁷⁾ 앞

장교가 지휘하는 보병 1소대(장교 1, 하사관 2, 소총병 16)를 오는 12월 19일 오전 6시 30분 까지 미쓰코지 작업장으로 차출하여 제9사단 법무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할 것.

42) 1932년 12월 17일 <사단명령 외 2통의 전달통보> (오토 히로시 <처형의 전후>)

이시카와 현립 도서관

첫째.

공병 제9대대는 작업소대를 편성해 이시카와 군 우치카와무라 미쓰코지야마 육군 작업장 동북단의 일부에 총살형 집행 장소를 설치한다. 그 요령은 별지 약도에 의한다. 형틀은 방 3촌 각, 편백나무 목재(檜材)이다. 지표 3척, 지하 매몰척 5촌. 높이 2척 위치에 가로 3척과 같은 각목을 본기등과 직각, 10자로 장착한다. 오른쪽 십자가는 절벽의 2미터 앞이다. 그리고 절벽에서 남서쪽 30미터 장소에 군용 이간(二間) 천막을 세우고 형틀과 천막이 있는 지표에 짚 받침을 깔아둔다. 이상은 18일 오후 5시에 수료할 것.

소대는 별도로 방3촌각, 높이 3척의 기둥 1개, 2촌 5분각, 높이 3척 5촌의 나무기둥 1개, 그리고 높이 폭 2척 5촌, 길이 6척, 두께 5분, 소나무 재질의 관 1개를 제작하고, 동일 오후 5시 노다야마 육군묘지 가나자와 헌병대 파견분대에 전달할 것. 구사보 제520호

둘째.

보병 제7연대는 총살형 집행을 위해 1소대 2개 분대를 편성해 12월 19일 오전 0시, 이시카와군 우치카와무라 미쓰코지야마 육군 작업장에 파견, 상하이 군법회의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처형수 조선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무직 평민·윤봉길의 육군 총살형을 집행한다. 집행요령(執行要領), 추후에 기재, 현지 지휘관에게 구두 지시할 것. 구사보 제521호

셋째.

27) <<매헌윤봉길의사전집>> 2권 419쪽 '제9사보 제521호' 사료 원문을 확인한 결과, 수신자가 '五十嵐房吉殿'임. 현재 전집 본문에 '五十嵐房吉'라고 오기함.

제9사단은 앞서 1932년 5월 25일, 상하이 파견 군법회의에서 살인, 살인미수, 상해, 폭발물 단속벌칙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조선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39번지, 당시 상하이 불조계 패룩로(貝勒路)²⁸⁾ 동방공우 30호, 무직 평민 윤봉길, 1908년 5월 19일생에 대한 육군 총살형을 12월 19일 오전 7시 이시카와 현 이시카와군 우치카와무라 미쓰코지야마 육군 작업장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한 귀직(貴職), 귀관(貴官)의 현장 감시를 명한다.

제9사단장 · 육군 중장 · 아라마키 요시카츠(荒蒔義勝). 제9사단 군법회의 검찰관 육군대신 대령 법무관 · 가나자와 위수 구금소장 · 육군 감옥장 · 네모토 소타로(根本莊太郎). 제9사단 군법회의 육군녹사 · 육군중령 법무관 · 다치무라(立村) 병위. 오사카 위수 구금 소장 · 육군 감옥장 · 육군 중령 법무관 · 미야이 산페이(宮井三平). 보병 제7연대장 · 육군대령 · 이가라시 후사키치도노(五十嵐房吉殿)²⁹⁾. 육군 1등 군의 · 위수 병원장 · 세가와 요시오(瀬川吉雄). 제5사단 군법회의 검찰관 육군 중령 법무관 · 스즈키 타다요시(鈴木忠義) (이하 생략). 구사보 523호

넷째.

지난 4월 29일, 상하이 신공원에서 폭탄 폭발 사건의 범인 조선인 윤봉길은 12월 18일 오후 5시 29분 오사카발 하행 급행열차에서 호쿠리쿠본선 니시가나자와역에서 하차, 제9사단 법무부 니시마치 구금소로 호송되었다. 범인은 수감 중인 19일 오전 7시, 이시카와 현 이시카와군 우치카와무라의 미쓰코지야마 육군 작업장에서 총살형에 처해졌고, 약간의 불미스러운 오늘 제반의 사항을 배려해 주셨다. 자세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건은 추후 구두로 지시할 것. 구사보 제524호

43) 1932년 12월 19일 전보 사형 집행 무사히 종료(육군 만밀 제896-35)

발신: 제9사단장

수신: 대신

9사 36

금일 오전 7시 40분 윤봉길에 대한 사형 집행 무사 종료함.

44) 1932년 12월 19일 사형집행 시말서 (<검찰 비록 2.26 건 2>)

조선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39번지

상하이 불조계 패룩로 동방공우 30호

무직 윤봉길

1908년 5월 19일생

위 자는 1932년 5월 25일 상하이 파견군 군법회의에서 살인, 살인미수, 상해, 폭발물단속벌

28) 자료집 본문에는 현재 동방공우의 주소가 ‘勤路(근로)’로 오기되어 있으나 사료 원문에 ‘貝勒路(패룩로)’로 기록된 것을 확인함 (<<매헌윤봉길전집>> 2권 402쪽).

29) <‘제9사보 521호’ 사료 원문에서 확인한 결과, 보병 제7연대장은 이가라시 후사키치도노(五十嵐房吉殿)이다. 일본어 자료집 본문에는 ‘五十嵐房吉’라 오기되어 있음. (<<매헌윤봉길의사전집>> 2권 419쪽)

인미수, 상해, 폭발물단속벌칙위반죄에 의하여 사형선고가 있었고 그 사형을 집행한다는 취지를 알렸다. 유언이 있는지 물었는데, “미리 각오하고 있었으므로 아무런 할 말이 없다”라고 진술했다. 감옥장이 다시 소지품 처리에 대하여 묻자 “필요 없다”라고 대답했다. 그의 언어는 명료했고 태도는 침착했다. 이어서 감옥장은 간수장에게 범인의 눈을 가리고 형틀 앞의 가마니 위에 범인을 정좌시켰고, 간수에게 신체 양손을 형틀에 묶게 하여 오전 7시 27분 사수에게 총살을 명했다.

1. 사수는 육군보병 군조 나카노 요시사부로(中野吉三郎), 요코이(横井外吉) 2명이었고, 정해진 위치에 의탁(依托)하여 엎드려봐 자세로 사격하였다. 먼저 나카노 군조 사수는 미간을 사격하여 그 부분에 명중했고, 정중앙에서 후두 결절부에 관통하여 출혈이 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 군의 사체검안서 기재 그대로이다. 군의는 창상 및 심장맥박을 검사하여 오전 7시 40분에 범인이 절명했다는 취지를 진술했다. 검찰관 겸 감옥장은 이를 승인했고, 이에 따라 오전 7시 40분에 윤봉길의 사형집행을 종료했으며, 동시에 경계를 풀고 감옥장에게 사체 매장 처치를 하게 하였다.

1932년 12월 19일

제9사단 군법회의 검찰관 육군법무관 네모토 소타로
가나자와 위수구금소장 육군감옥장 네모토 소타로
제9사단 군법회의 육군 녹사 다치무라 병위

45) 1932년 12월 19일 사체검안서 (<검찰비록 2.26 사건 2>) 이시카와현립도서관

1. 이름: 윤봉길
2. 성별: 남
3. 출생년월일: 1908년 5월 19일생
4. 직업: 무직
5. 병사 자살 기타 변사 중독 분류: 변사(총살)
6. 병명: 두개천투성(頭蓋穿透性) 관통 총상
7. 사망년월일시: 1932년 12월 19일 오전 7시 40분
8. 사망장소: 이시카와 현 이시카와군 우치카와무라 미쓰코지 내 (육군작업장) 위와 같이 검안합니다.

1932년 12월 19일

제9사단 군의부 부원 육군 1등 군의 세가와 요시오(瀬川吉雄)

46) 1932년 12월 19일 기자회견문 (<처형의 전후>96p~) 이시카와현립도서관

오전 7시 10분. 상하이 투탄 사건의 범인·조선 태생 윤봉길, 미쓰코지야마 처형장 도착. 상·하의는 양복, 중절모, 가죽 단화 차림인 채 십자형틀을 뒤에 두고 정좌. 때마침 해가 동북쪽 절벽 위로 올랐고 아침 안개는 온통 은백으로 빛난다. 군의관의 간단한 검진 후, 유언 등을 물었으나 아무것도 없다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답했다. 즉시 형모(刑帽)와 눈가리개를 씌우고 기둥에 상체를 단단히 묶는다. 범인은 그동안에 유유히 무언가를 읊조린다. 7시 16분, 18명의

사격수 병사가 엎드려 자세로 정확히 안면에 첫 탄을 명중, 7시 20분, 즉사 절명을 확인한다.³⁰⁾ 따라서 오전 8시, 형장을 철거. 시신은 12시간 내 화장할 수 있도록 가나자와시 위생과에 수속 중에 있으며, 이후 약간의 유품도 조선의 유족에게 인도할 것...

47) 1932년 12월 19일 상하이 폭탄범인 윤봉길 사형 집행의 건 통첩 (금헌고비 제517호)

1932년 12월 19일 가나자와 헌병대장 소노 요시히코

사상계 검사 헌병대장 앞

상하이 폭탄범 사형수 윤봉길은 12월 18일 오사카에서 가나자와 위수구금소로 호송되어 다음 날 19일 오전 7시 30분 가나자와 시 교외에서 총살로 사형을 집행하였고, 또한 그 취지를 제9사단 군법회의 검찰관이 신문기자단에게 발표하였다. 사형 집행에 관한 상세한 상황은 참고로 후일 통첩 가능하나 불량자의 책동 시찰 경계 등의 상황을 보고 통첩한다.

발송처

사진: 二〇師參 검사정(檢事正) 대하(隊下) 경기, 황해, 강원도

48) 1932년 12월 20일 <키타쿠니 신문> 석간 이시카와현립도서관

상하이 폭탄범 미쓰코지 작업장에서 오늘 아침 총살 집행

어젯밤 오사카에서 가나자와로 호송, 유해는 가나자와에서 화장

금년 4월 29일 천장절에 상하이 축하 회장에 수류탄을 던져 시라카와 군 사령관, 우에다 제9사단장, 노무라 제2함대 사령장관, 시게미쓰 공사 등 다수의 유력 인사를 살상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흉악 무도한 범인 윤봉길(25)은 5월 25일 상하이 파견군 군법회의에서 살인죄, 상해죄, 폭발물 단속법 위반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11월 20일 상하이 헌병대에서 국내로 호송되어 오사카 육군 위수 형무소에 수용 중이었는데, 어젯밤 오사카 헌병대에서 헌병 4명이 붙어 엄중한 감시 하에 극비리로 가나자와로 호송되었다. 가나자와 헌병대 및 분대, 히로사카, 다마가와 경찰서에서는 위 중대범의 호송 소식을 접하고, 그제 17일 오후 10시부터 비상소집을 실시해 시 안팎으로 물샷 틈 없는 대대적 경계를 하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였으나, 범인 도착과 동시에 당국의 경계가 특히 엄중하여 일절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었다. 윤은 수갑을 찬 채 즉시 자동차로 사단 구금소로 이송하려 했으나, 때마침 구금소는 수리 중이라 법무부에 구금하였다. 밤을 새며 엄중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19일 오전 6시에 이르러 범인 윤봉길은 가나자와시 교외 미쓰코지야마 육군 작업장으로 끌려가 제9사단 군법회의 네모토 검찰관, 소노(僧野) 가나자와 헌병대장, 노무라(野村) 특고과장, 미야이 오사카 육군 위수 교도소장, 스즈키 제5사단 군법회의 검찰관 등의 입회하에 ○○대가 파견한 1개 분대 병사의 일제 사격으로 허무하게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때는 오전 7시 40분

30) <尹奉吉 사형집행 전말 보고> (구사밀 제20호, 1932.12.21.) 사료 원문에 따르면, 처형 당시 사격수는 2명이었다. 사격수 2명이 윤봉길을 쏜 시각은 7시 27분이며, 군의관이 절명을 확인한 시간은 7시 40분이다.

아침 해가 스며드는 잡목림에서 총성 울리는 그 순간!

범인은 각오하고 형틀에 기대, 일본에서 세 번째 총살 집행

가나자와 헌병 분대에서는 19일 오전 4시 헌병에게 불시 소집을 행하여 시가 전체에 경계망을 폈다. 이와 동시에 제9사단 군법회의에서 네모토(根本) 검찰관, 소노(僧野) 헌병대장, 스와(諏訪) 분대장, 사토(佐藤) 검사정, 야다(八田) 헌 검찰부장 등 일행은 헌병대 경계차량과 함께 오전 6시 형장 미쓰코지야마를 향해 출발했다. 형장인 미쓰코지야마 작업장은 이미 제반준비가 완료되어 한적한 겨울 잡목림을 배경으로 구석에는 돛자리가 깔리고 새로 지은 형틀이 아침 안개 속에서 어슴푸레 보였다. 오전 6시 30분 범인 윤봉길이 형장에 도착하여 헌병의 권총에 둘러싸여 수갑이 채워져 형복을 입고 끌어내려졌다. 윤봉길은 이미 단념한 침착함을 보이며 유유히 앞으로 나아갔는데 후회하는 마음에서인지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리곤 하였다. 곧 헌병의 손으로 집행준비가 이루어지고 입회한 검찰관이 “무언가 할 말 없는가? 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눈가림을 당했다. 때마침 북국의 밝은 아침 해가 잡목림을 비추이며 떠오르는데 견학하고 있던 각 대 장교 대표자 중에 떠드는 자는 아무도 없고 쥐죽은 듯 고요한 기운이 가득 찼다. 이리하여 “사격!”이라는 명령과 함께 일제사격이 이루어져 흉악한 윤봉길은 최후를 맞이했다. 이어서 9사단 군의부의 세가와(瀬川) 일등군위가 검사한 후 7시 40분, 형집행은 완전히 끝났다. 가나자와 지방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최초의 일이며, 특히 군법회의의 총살형도 러일전쟁 당시 과거에 두 건이 있었을 뿐이고, 전국에서도 세 번째의 총살이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노무라(野村) 특고과장의 말

오늘 아침 9사단 당국에서 통지가 내려와 사형집행에 입회했지만 우리 쪽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9사단 당국은 대개 극비주의였던 것 같아서 나도 많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형 집행 모습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 일과는 상관없으니까요.

우리 쪽은 관련 없음, 야다(八田) 경찰부장의 말

경찰부장으로서는 단순히 집행에 입회했을 뿐이고, 범인의 호송 등 일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관련이 없으므로 범인이 언제 와서 어느 역에 하차했는지 전혀 모른다. 우리 쪽에서 이것저것 말하면 법무부 쪽에서 곤란해 할 것이라 생각되므로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다.

사람 시선 피하여 가나자와 역에서 도중에 하차

권총으로 에워싸고 자동차 일곱 대가 경계

오사카 헌병대 본부는 가나자와 군법회의 이송에 엄중을 기하여 시모우라(下浦) 헌병특무조장 외 세 명의 헌병대를 호위하게 하였다. 통과 지역의 각 역은 각지의 헌병 분대가 경비하는 가운데 18일 오후 5시 29분, 니시가나자와 역에서 폭탄범을 내리게 하였다. 사람의 시선을 피해 출장 중인 네모토(根本) 제9사단 검찰관, 스와(諏訪) 가나자와 헌병 분대장, 노무라(野村) 특고과장 등이 엄중 경계하는 가운데 범인을 자동차에 태웠다. 헌병이 권총으로 에워싸며 경계하고 일곱 대의 자동차가 늘어서서 곧바로 제9사단 법무부로 오후 6시경 들어갔다. 또한 현(縣) 특고과(特高課)에서는 노무라 과장의 총지휘 하에 히로사카(廣坂), 다마가와(玉川) 두 경찰서의 특고계가 총동원되어 가나자와 시외의 경계에 임하였다. 가나자와 헌병 분대는 19일 오전 4시 헌병을 불시 소집하여 총살까지 철야 경계를 하였고, 가나자와 시 안팎에는 물샐 틈

없는 긴장감이 넘쳤다.

외부에 새는 것을 매우 걱정했다

유해 처치와 그 외의 것은 말할 수 없다, 네모토 제9사단 검찰관의 말

폭탄범의 사형집행에 관하여 네모토 제9사단 군법회의 검찰관은 말하였다.

군법회의의 사형집행은 관련 군법회의 검찰관이 입회하여 진행하도록 하는데, 윤봉길을 일부러 오사카에서 가나자와로 호송해 와서 오늘 아침 사형집행을 한 것이다. 사형 방법과 모습은 사형폐지설이 시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참혹하게 들릴 테니 말할 수 없다. 아무튼 가나자와 시의 교외 어떤 곳에서 비밀리에 거행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는 상하이 영사재판소에서 조사를 할 테니, 해당 사단 군법회의와는 관계가 없다. 이번에 범인을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도 외부로 새어나가서 불상사가 생길까봐 적잖이 걱정을 했는데 이제 나도 안심했다. 범인의 유골에 대한 것과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은 일절 말할 수 없다.

내가 말할 입장 아냐, 사토(佐藤) 검사정의 말

내가 말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헌병대 관련 사건이므로 전혀 말할 수 없다. 물론 사형집행 광경이나 범인 호송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하고 싶다.

철야 경계했다, 집행 끝나니 안심

소노(會野) 헌병대장의 말

소노 가나자와 헌병대장은 윤봉길의 이송에서부터 총살까지의 경계를 마치고 말하였다.

가나자와 관내로 들어오고 나서 지방민의 주의를 우려하여 모두 비밀리에 경계하는 데에 만전을 기했다. 가나자와 헌병대는 오전 4시 불시 소집을 실시하여 형장 그 외의 경계를 담당하여 철야했는데 이제 완전히 형 집행이 끝나 일단 안심했다. 그 외의 모습 등에 대해서는 관찰 밖의 일이어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가나자와에서 사형 집행한 이유, 상하이 군법회의 계승으로

상하이 폭탄범 윤봉길은 처음에는 도쿄 또는 오사카 위수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할 것으로 보였으나, 상하이 군법회의의 ●은 제9사단 군법회의로 승계되었다. 윤봉길은 상하이에서 이송되어 이미 수용지인 오사카 위수형무소에 수용되었다. 그러나 형 집행은… (불명) …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장은 가나자와로… (불명) …한 것이다.

가나자와서 화장하나, 법무부와 시 당국 협의

총살을 마친 윤봉길의 사체는 중형자라고는 해도 제9사단 군법회의에서 정중히 ●●하고 헌병이 호위하여 경계하고 있으나, 사체 인수자인 가족이 와 있지 않으므로 가나자와 시 ●화장터에서 화장에 처하였다. 법무부는 추후 유골 처분방법을 강구하는 등, 화장 방법에 관하여 19일 오후 …과장과 협의한 바 있다.

49) 1932년 12월 20, 21일 <호쿠리쿠 마이니치 신문> 이시카와현립도서관

(12월 20일)

윤봉길 호송되어 오늘 아침 사형 집행

어젯밤 헌병 호위 하에 가나자와에 도착

일제사격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짐

살인, ●●, …로 올 5월 25일 상하이 파견군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상하이 폭탄 사건 범인 윤봉길(25)은 지난 달 상하이에서 고베로 상륙… 파견되어 있다가, 어제 18일 오후 5시 47분 가나자와 역에 도착하는 열차로 사복으로 변장한 오사카 헌병대 특무조장 이하 하사관 4명 및 미야이 오사카 위수형무소장, 스즈키 제5사단 군법회의 검찰관 등의 호위 속에 범인은 세련된 양복으로 몸을 감싸고 비밀리에 가나자와 역 홈에 하차하였다. 그 직후 자동차에 태워져 우선 가나자와 형무소에 수용되었고, 오늘 아침 네모토 제9사단 법무부장이 입회하여 교외 미쓰코지 작업장에서 모 연대에서 선발된 모 대위가 지휘하는 1개 분대에 의해 형이 집행되었다. 때는 오전 7시 40분. 이날 범인 윤봉길은 창백한 표정 속에 태연하고 배짱 있는 모습으로 형장으로 끌려 나갔다. 형장에 도착하자 즉시 눈이 가려졌다. 때마침 푸른 하늘에 울리는 일제사격 총성과 함께 목을 푹 떨어뜨리며 그토록 흉악했던 범인(흉한)도 약 2분 만에 숨을 거두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또한 사체는 ○○화장장에서 태워진 것 같은데 유골은 공산당원의 탈취를 두려워하여 모 장소에 안치되어 있으나, 조만간 인수자에게 보내질 것이다. (사진은 상하이 남경 모처의 임시정부 국기 앞에서 오른 손에 권총을, 왼손에 수류탄을 갖고 선서 중인 모습 -> 사진은 검열로 전면 가림 처리)

흥분한 모습의 네모토 법무부장의 말

형 집행을 마친 담당 검찰관 네모토 제9사단 법무부장은 흥분이 채 가시지 않아 뺨에 흥조를 띠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형 집행은 언도(言渡) 군법회의 검찰관에 의해 집행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상하이 파견군 군법회의를 승계하는 군법회의로서 이곳에서 형 집행을 한 것이다. 사형 집행은 비밀리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꽤 걱정했다. 어제 중에 제군에게 임무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신사복(背広)³¹⁾ 사복 차림으로 유유히 왔기 때문에 기자단의 망을 잘 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으로 만주사건과 관계있는 당 군법회의 취급 사건은 전부 끝났다. 상고 중인 적전(敵前) 도망 건만 정리되면 우선 무거운 짐은 내려놓게 된다. 오사카에는 지난 달 비밀리에 가서 조사를 마치고 왔다고 하였다.

엄중한 경계 속 시 전체에 걸친 대경계망

헌병, 다마가와, 히로사카 두 서(署)에서

폭탄범인 윤봉길을 가나자와로 호송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특고과(特高課)는 그제 밤 특고과원 ●●●에게 히로사카, 다마가와 두 경찰서의 서원을 전부 모아 만일의 경우 당원이 탈취하거나 불온한 행동에 대비한 경계에 임하여 훈사(訓辭)를 내려 전 현에 걸쳐 엄중한 경계를 하고 있었다. 가나자와 헌병 분대도 어제 18일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원 집합시켜… 이하 9행 불명… …고 있었다. 오사카에서 압송을 위해 파견된 헌병 일동도 평소와 다른 긴장

31) 背広 : 일본어로 '신사복'이라는 뜻

- 를 배치하고 필요한 경계에 임함. 보조 배치는 별지 요도 제2와 같음.
5. 검찰관 겸 감옥장 네모토 소타로 및 구금소 소속 육군 일등 군의 세가와, 육군 녹사 다치무라 병위는 같은 날 오전 7시 15분 그곳에 나가 형장의 설비를 완료함.
 6. 같은 날 오전 7시 15분 범인은 간수장 및 간수 2명, 헌병 3명의 호위 하에 형장에 도착하였음. 검찰관은 곧 의관에게 건강검진을 하게 하여 범인의 심신이 모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음. 범인 윤봉길에 대해 올해 5월 25일 상하이 파견군 군법회의에서 살인, 살인미수, 상해, 폭발물단속벌칙 위반에 의해 선고받은 사형을 집행한다는 뜻을 고하고 유언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니 사형은 미리 각오하였으니 이 시기에 임하여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말했음. 이에 눈가리개를 하고 형틀 앞의 깔자리 위에 정좌하게 하고 간수로 하여금 신체, 양손을 형틀에 단단히 고정하게 하고 동 7시 27분 사수에게 사격을 명하였음.
 7. 정(正)과 부(副) 2명 모두 하사관을 사수로 선정하고, 범인의 눈가리개 직후 검찰관의 신호에 따라 정한 위치에 엎드려 자세를 함. 이후 정사수의 첫발로 미간부에 명중한 뒤 곧 절명하였음. 의관은 창상을 검사하고 범인이 완전히 절명했음을 확인한 뒤 검찰관에게 보고함으로써 오전 7시 40분 경계를 풀고 윤봉길의 사형 집행은 이것으로 종료하였음.
 8. 유해는 사형 집행 후 곧 이어서 이를 정하게 하여 납관한 다음 가나자와 시 노다야마 육군 묘지에 인접한 가나자와 시 공동묘지 한 구석에 매장하고 동 10시 30분 전부 종료하였음.

51) 1932년 12월 22일 상하이 폭탄범 윤봉길 사형 집행의 건 보고 <통첩>

(금헌고비 제522호)³²⁾

1932년 12월 22일 가나자와 헌병대장 소노 요시히코(會野芳彦)

4월 29일 상하이에서 시라카와 군 사령관 등에게 폭탄을 던져 상하이 파견군 군법회의에서 5월 25일 살인, 살인미수, 상해, 폭발물단속벌칙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범인 윤봉길은 12월 19일 오전 7시 40분 가나자와 시 교외 미쓰코지 육군 작업장에서 제9사단 군법회의 검찰관 네모토 소타로(根本莊太郎)의 지휘 하에 사형 집행되었고, 그 상황을 아래에 보고 '통첩'함.

-아래-

1. 범인의 본적, 성명, 연령

본적: 조선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39번지

한국독립당원 윤봉길 1908년 5월 19일생

2. 사형 집행 장소

형장은 부도(附圖) 제1과 같이 가나자와 - 오하라 간 산중 도로 동측 이시카와 현 이시카와 군 우치카와무라 미쓰코지의 가나자와 육군 작업장 내 서북쪽 계곡 사이로 함. 공중에 위험이 없고 동쪽의 절벽은 높이가 약 7미터로 총발이에 적합하므로 형장에 가장 적당한 자리임.

32) 비슷한 내용이 <<매헌윤봉길전집>> 2권 410쪽에 있는 <上海爆彈犯死刑囚尹奉吉死刑執行竝=憲兵ノ警戒=関スル件報告(通牒)> <<憲高秘 제1,820호>>에 있으나 문서의 날짜와 번호로 볼 때(1908년 12월 22일, 金憲高秘 제522호) 같은 문서는 아니다.

3. 집행 전의 상황

범인 윤봉길은 오사카 위수 형무소에서 오사카 헌병대 본부 준사관 이하 4명의 헌병(사복)에게 압송되어 12월 18일 오전 6시 25분 오사카역을 출발, 같은 날 오후 4시 35분 이시카와현 가호쿠군(河北郡) 모리모토(森本)역에 하차, 직후 자동차로 밀행하여 오후 5시 5분 가나자와 위수 형무소에 수용됨.

4. 집행 당일의 상황

(1) 사형 집행의 상황(부도 제2 참조)

(가) 범인 윤봉길이 가나자와 헌병대장 지휘 아래 헌병 하사관 이하 3명 및 군법회의 간수 2명의 호송 하에 자동차로 12월 19일 오전 6시 30분 가나자와 위수구금소를 출발, 오전 7시 15분 형장에 도착하자 제9사단 군법회의 검찰관 겸 육군 감옥장 네모토 소타로는 세가와 군 의에게 건강검진을 하고 심신에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범인 윤봉길에게 ‘올해 5월 25일 상하이 파견군 군법회의에서 살인, 살인미수, 상해, 폭발물단속법칙 위반에 의해 선고받은 사형을 집행한다.’는 뜻을 고하고 유언의 유무를 물으니 범인은 “사형은 이미 각오하였으니 이 시기에 임하여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말하였음(그 언어는 일본어로 명료했고 엷은 쓴웃음을 지었으며 그 태도는 매우 담담하고 침착했음). 이에 간수로 하여금 형틀 앞 깔자리 위에 정좌시키고 눈가리개를 하고 신체, 양손을 형틀에 묶고(별지 사진 제1) 오전 7시 27분 사수에게 사격을 명하였음.

(나) 사수는 정(正)과 부(副) 2명으로 모두 보병7 하사관을 선정하였으며 범인의 눈가리개 후 곧 검찰관의 신호에 따라 정한 위치(수인의 전방 10미터)에 엮드린 자세를 하고 정사수의 첫발로 미간부에 명중한 후 13분이 지나 절명하였음. 의관이 창상을 검사하고 범인이 완전히 절명하였음을 확인한 후, 검찰관에게 보고하고 오전 7시 40분 윤봉길의 사형 집행이 종료하였음.

(2) 사체의 매장 상황

사형 집행을 종료하자 곧 유해를 정결하게 하여 납관한 다음 법규에 근거하여 가나자와 시 노다야마 육군 묘지에 인접한 가나자와 시 공동묘지 서쪽에 깊이 약 6척을 파 그곳에 매장하고 오전 10시 30분 전부 종료했음.

5. 입회관 및 입장 허가자

(1) 입회관

제9사단장 군법회의 검찰관, 가나자와 위수구금소장, 육군법무관 겸 육군감옥장 네모토 소타로(根本莊太郎)

제9사단 군법회의 녹사(綠事), 가나자와 위수구금소부 다치무라(立村久) 병위(兵衛)

육군 일등군 의(一等軍醫) 세가와 요시오(瀬川吉雄)

가나자와 위수구금소 간수장 녹사 다쓰다 소토지로(立田外次郎)

(2) 입장 허가자³³⁾

제9사단군법회의 법무관 津村幹三
동일 阪口實

제9사단군법회의 판사

| | | |
|----|-------|------|
| | 輜重兵중좌 | 米山久馬 |
| 동일 | 보병중좌 | 水田一貫 |
| 동일 | 포병중좌 | 森本一夫 |
| 동일 | 공병소좌 | 尾崎知暢 |
| 동일 | 기병소좌 | 田中春雄 |

| | |
|-----------------|-------|
| 가나자와헌병대장 | 曾野芳彦 |
| 제9사단부관보병중좌 | 猪鹿倉徹郎 |
| 제5사단법무부장법무부장 | 鈴木重義 |
| 오사카위수형무소장육군감옥장 | 宮井眞武 |
| 가나자와지방재판소검사국檢事正 | 佐藤伊惣治 |
| 동일 주석검사 | 猪原敬勝 |
| 이시카와헌경찰부장서기관 | 八田三郎 |
| 동일 특고과장지방경시 | 野村喜平 |

6. 헌병의 경계 상황

12월 17일 미리 사형수의 도착 및 형 집행 사이의 경계 등에 관해 제9사단 군법회의 검찰관과 제반의 협의를 마치고, 윤봉길의 호송 도착 및 사형 집행은 절대 비밀에 부치도록 기획하였음. 12월 18일 오후 3시 가나자와 분대 하사관 1명에게 자동차 2대를 동반해 모리모토역으로 보내 가나자와 분대장 및 상등병 1명을 시켜 몰래 맛토우(松任)역에서 사형수가 승차한 열차에 타 압송 중인 오사카 헌병과 합류하여 가나자와역을 통과하고 모리모토역에서 하차하게 하였음. 이 역에서 가나자와 위수구금소에 이르는 사이는 자동차 압송을 하여 신문기자 등의 탐색, 기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피하여 불령자의 불온한 책동과 기타 구경거리 등을 일절 경계하여 막게 하였음. 또 집행 당일인 19일은 가나자와 헌병대장 이하 본부 및 가나자와 분대 직원 전원이 출장하여 오로지 인근 도로 및 형장의 경계를 맡았음. 그 중 하사관 이하 3명은 간수와 함께 직접 호송을 담당하게 하여 완벽한 비밀을 유지하며 예정대로 사형 집행을 무사히 종료함.

7. 기타 참고 사항

- (1) 제9사단 군법회의 장관은 네모토 육군 감옥소장의 신청에 따라 집행 당일 오전 6시 30분까지 보병 중위 니시노 쓰넨오(西野恒夫)의 지위 하에 있는 하사관 18명을 차출하여 헌병의 단속 경계와 연계하며 사격 형장 내외의 경계를 맡았음.
- (2) 19일 오전 1시 검찰관은 검찰부에서 가나자와 신문기자단에 19일 오전 7시 40분 사형수 윤봉길의 사형을 가나자와 시 교외에서 총살로 집행하였음을 공표하였음.

33) <<매헌윤봉길전집>> 2권 393쪽

8. 반향

- (1) 범인의 압송 및 사형 집행은 관계자 외에는 절대 비밀리에 시행했으므로 19일 오전 1시 제9사단 법무부장이 신문기자단에 발표하고 나서야 비로소 신문기자와 기타 일반에게 알려진 상황임. 따라서 그 전후에 우려할만한 일은 없었으나 그 반향은 현재 절대 비밀리에 탐색 중임.
 - (2) 매장은 발표 전에 완료하였고 또 묘지의 소재는 극비리에 부쳐서 현재 묘지 등에 대한 책동은 없으나, 날짜가 지남에 따라 자연히 일반이 알게 될 것이니 상당한 경계를 요함. 따라서 요주의자, 특히 조선인 좌경분자 또는 불령분자의 동정에 관해 헌병경찰이 밀접하게 연계하여 엄중 시찰 중인데 현재로서는 이상을 인지하지 않음 (부도는 생략).
- (사진) 발송처 검사정 ●下各道 隊下 20師●

52) 1932년 12월 22일 『오사카 아사히 신문』 (이시카와현립도서관)

윤봉길의 유골 아무도 인수 안 해

조선 고향집도 소식불통, 황량한 겨울 가나자와 교외에 매장

총살된 상하이 폭탄범 윤봉길의 유골에 대해 제9사단 법무부에서는 유골 인수 방법을 조선의 본가에 조회하였으나, 아무 답이 없어 수취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본인의 유언에도 “본국에 처자가 있지만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기 때문에 유골은 송환할 필요도 없다”고 되어 있어 20일 가나자와 시외 ○○○ 묘지 일부에 매장했다. 가나자와 헌병대는 현 특고 과원과 협력해 공산당 일당의 유골 탈취를 대대적으로 경계함과 동시에 ○○인의 단속을 엄중히 하면서 그 책동을 억압하는데 힘쓰고 있다.

53) 상하이 폭탄범 사형수 윤봉길 사형집행 및 헌병의 경계에 관한 건 보고(통첩) (육군만밀 제896-37 헌고비 1,820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헌고비 제1820호

상하이 폭탄범 사형수 윤봉길 사형 집행 시 헌병의 경계에 관한 건 보고(통첩)

쇼와 7년(1932년) 12월 26일

헌병사령관 하타 신지(秦真次)

육군대신 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 귀하

4월 29일 상하이에서 시라카와 군 사령관 등에게 폭탄을 던져 상하이 파견군 군법회의에서 5월 25일 살인, 살인미수, 상해, 폭발물단속법칙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범인 윤봉길은 12월 19일 오전 7시 40분 가나자와 시 교외 미쓰코지 육군 작업장에서 제9사단 군법회의 검찰관 네모토 소타로(根本莊太郎)의 지휘 하에 사형 집행되었고, 그 상황을 아래에 보고 '통첩'함.

-아래-

1. 범인의 본적, 성명, 연령

본적: 조선 충청남도

한국독립당원 윤봉길 메이지 41년(1908년) 5월 19일생

2. 사형집행 장소

형장은 부도(附圖) 제1과 같이 가나자와 - 오하라 간 산중 도로 동측 이시카와 현 이시카와 군 우치카와무라 미쓰코지의 가나자와 육군 작업장 내 서북쪽 계곡 사이임.

3. 집행 전의 상황

범인 윤봉길은 오사카 위수 형무소에서 오사카 헌병대 본부 준사관(准士官) 이하 4명의 헌병(사복)에게 압송되어 12월 18일 오전 6시 25분 오사카 역을 출발, 같은 날 오후 4시 35분 이시카와 현 가호쿠 군(河北郡) 모리모토(森本)역에 하차, 하차 직후 자동차로 밀행하여 오후 5시 5분 가나자와 위수 형무소에 수용됨.

4. 집행 당일의 상황

(1) 사형 집행의 상황(부도 제2 참조)

(가) 범인 윤봉길이 가나자와 헌병대장 지휘 아래 헌병 하사관 이하 3명 및 군법회의 간수 2명의 호송 하에 자동차로 12월 19일 오전 6시 30분 가나자와 위수구금소를 출발, 오전 7시 15분 그가 형장에 도착하자, 제9사단 군법회의 검찰관 겸 육군감옥소장 네모토 소타로는 세가와 군의에게 그의 건강검진을 하게 시킨 후 그 심신에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범인 윤봉길에게 '올해 5월 25일 상하이 파견군 군법회의에서 살인, 살인미수, 상해, 폭발물단속법칙 위반에 의해 선고받은 사형을 집행한다.'는 뜻을 고하고 유언의 유무를 물으니 범인은 "사형은 이미 각오하였으니 이 시기에 임하여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말하였음(그 언어는 일본어로 명료했고 약간의 엷은 쓴웃음을 지었으며 그 태도는 매우 담담하고 침착했음). 이에 간수로 하여금 형틀 앞 깔자리에 위에 정좌시키고 눈가리개를 하고 신체, 양손을 형틀에 묶고(별지 사진 제1) 오전 7시 27분 사수에게 사격을 명하였음.

(나) 사수는 정(正)과 부(副) 2명으로 모두 보병7 하사관을 선정하였으며 범인의 눈가리개 후 곧 검찰관의 신호에 따라 정한 위치(수인의 전방 10미터)에 엎드린 자세를 하고 정사수의 첫발로 미간부에 명중한 후 13분이 지나 절명하였음. 의관이 창상을 검사하고 범인이 완전히 절명하였음을 확인한 후, 검찰관에게 보고하고 오전 7시 40분 윤봉길의 사형 집행이 종료하였음.

(2) 사체의 매장 상황

사형 집행을 종료하자 곧 유해를 정결하게 하여 납관한 다음 법규에 근거하여 가나자와 시 노다야마 육군 묘지에 인접한 가나자와 시 공동묘지 서쪽에 깊이 약 6척을 파 그곳에 매장하고 오전 10시 30분 전부 종료했음.

5. 입회관

제9사단장 군법회의 검찰관, 가나자와 위수구금소장, 육군법무관 겸 육군감옥장 네모토 소타로(根本莊太郎)

제9사단 군법회의 녹사, 가나자와 위수구금소부 다치무라(立村久) 병위

육군1등군의 세가와 요시오(瀬川吉雄)

가나자와 위수구금소 간수장 녹사 다쓰다 소토지로(立田外次郎)

6. 헌병의 경계 상황

12월 17일 미리 사형수의 도착 및 형 집행 사이의 경계 등에 관해 제9사단 군법회의 검찰관과 제반의 협의를 마치고, 윤봉길의 호송 도착 및 사형 집행은 절대 비밀에 부치도록 기획하였음. 12월 18일 오후 3시 가나자와 분대 하사관 1명에게 자동차 2대를 동반해 모리모토역으로 보내 가나자와 분대장 및 상등병 1명을 시켜 몰래 맛토우(松任)역에서 사형수가 승차한 열차에 타 압송 중인 오사카 헌병과 합류하여 가나자와역을 통과하고 모리모토역에서 하차하게 하였음. 이 역에서 가나자와 위수구금소에 이르는 사이는 자동차 압송을 하여 신문기자 등의 탐색, 기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피하여 불령자의 불온한 책동과 기타 구경거리 등을 일절 경계하여 막게 하였음. 또 집행 당일인 19일은 가나자와 헌병대장 이하 본부 및 가나자와 분대 직원 전원이 출장하여 오로지 인근 도로 및 형장의 경계를 맡았음. 그 중 하사관 이하 3명은 간수와 함께 직접 호송을 담당하게 하여 완벽한 비밀을 유지하며 예정대로 사형 집행을 무사히 종료함.

7. 기타 참고 사항

(1) 제9사단 군법회의 장관은 네모토 육군감옥소장의 신청에 따라 집행 당일 오전 6시 30분까지 보병 중위 니시노 쓰네오(西野恒夫)의 지휘 하에 있는 하사관 18명을 차출하여 헌병의 단속 경계와 연계하며 사격 형장 내외의 경계를 맡았음.

(2) 19일 오전 11시 검찰관은 검찰부에서 가나자와 신문기자단에 19일 오전 7시 40분 사형수 윤봉길의 사형을 가나자와 시 교외에서 총살로 집행하였음을 공표하였음.

8. 반향

(1) 범인의 압송 및 사형 집행은 관계자 외에는 절대 비밀리에 시행했으므로 19일 오전 11시 제9사단 법무부장이 신문기자단에 발표하고 나서야 비로소 신문기와 기타 일반에게 알려진 상황임. 따라서 그 전후에 우려할만한 일은 없었으나 그 반향은 현재 절대 비밀리에 탐색 중임.

(2) 매장은 발표 전에 완료하였고 또 묘지의 소재는 극비리에 부쳐서 현재 묘지 등에 대한 책동은 없으나, 날짜가 지남에 따라 자연히 일반이 알게 될 것이니 상당한 경계를 요함. 따라서 요주의자, 특히 조선인 좌경분자 또는 불령분자의 동정에 관해 헌병경찰이 밀접하게 연계하여 엄중 시찰 중인데 현재로서는 이상을 인지하지 않음 (부도는 생략).

발송처

육상, 사진: 법무국장, 병무과장

55) <폭탄 조난으로부터 사변을 말하다> 시게미쓰마모루 저

(『중앙공론』 1932년 11월호) 이시카와현립도서관

조난 당일을 기억하다

(생략) 관병식도 차질 없이 끝나고 드디어 민단이 주최하는 식전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종료되면 신공원 곳곳에 설치된 임시 상점이나 각 학교 학생의 운동경기 혹은 거류민 각종 행사

가 진행될 예정이라 재류 일본인 일동은 한층 기쁨에 차 있었다. 그 식전은 무라이 총영사 회장 아래 민단의 가와바타 행정 위원장이 주최하고 있었고, 주최자 측 자리를 차지하던 단상은 높이 1간(間) 반 정도에 설치되었고, 상부는 세로 3간, 가로 2간 정도의 넓이로 홍백의 현수막으로 꾸며져 있었다.

식장인 신공원에는 앞에서 말한 단상 전면으로 수많은 재류 관민이 줄지어 보았다. 관병식에 참석한 전 군대 및 우리 육전대는 물론, 그 외 육해군 장성(將星)도 전부 참석하였다. 각 학교 학생 모두가 식에 참석했으며, 그 밖의 일반인은 내외인 공용 줄로 설치된 구획 밖에서 참관하고 있었다.

(생략)

조금 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점차 강해지기 시작한 때도 그대로 진행하며 식장 전원이 직립부동의 자세로 기미가요를 합창하고 있었다. 그 때 갑자기 “폭탄이다?” “두 번째 폭탄이 올지도 몰라!”라고 몇 사람이 단상 위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이미 수통형 폭탄이 내가 서 있는 반대쪽 후방에서 던져진 것으로 보이며, 내 오른쪽 전방 1미터 내지 2미터 근처에 구르는 것이 보임과 동시에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걸 깨달았다. 그러나 나는 그대로 일어나 같은 자세로 기미가요를 계속 불렀는데, 이내 폭탄은 굉장히 잘 단련된 강철과 강철을 세계 맞부딪히는 듯한 매우 날카롭고 강한 소리와 함께 폭발했다. (생략)

만주 상하이 사건을 말하다

애당초 상하이 사건이라는 것은 일·지(日·支) 양 국민의 감정이 악화되어, 특히 지나 측의 배일 행위가 매우 격렬하여, 공공연한 일본품 불매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방관헌의 묵허 또는 지도하에 공공연히 일본인에 대한 모멸행위를 일부러 하기에, 이것이 쌍방 사이에 수많은 충돌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생략)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하이사건이 배일 행위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양쪽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대체 이 배일행위라는 것이 지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략)

지나는 쑨원(孫文)의 대아시아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불평등 조약의 개정 또는 폐지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으로, 난징정부는 이를 혁명외교라 명명하고 치외법권의 철폐, 조계거류지 회수, 조차지(借地) 반환 등을 한시적으로 외국에 호소하는 직간접적인 의지의 발표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만약 이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지나는 그 상대에 대한 배외(排外)배화(排貨)의 행동으로 이를 위협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생략)

이 정책(혁명외교)이 추진되면 분명 일본이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몰릴 것은 매우 명백한 사실이다. 어찌되었든 일본 측에서 노력을 한다 해도 우리의 사황이 달린 문제인 만주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권익과 지나의 혁명외교 사이에 융화의 길은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지나 측은 불평등 관계인 점을 들어 관세 자주권의 회복, 치외법권의 철폐, 조계 거류지의 회수 문제, 조차지 반환 문제, 연안 무역, 내하(內河) 항행권의 회수 및 내수(內水)에서의 외국 군함 배제 문제를 들고 있는데, 그 중 관세 자주권은 주로 경제무역 관계상의 문제이므로 적당히 조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치외법권 철폐 문제는 만주의 상조권(商租權)(내지잡거)과 관련된 문제가 즉각 발생한다. 그리고 상조권의 문제는 이른바 21개 조약으로 지나 측이 요란하게 폐기를 선언하는 조약의 일부라는 점에서, 뤼순 다렌 조차권 및 만주철도(滿鐵)의 권리 등에 관한 만주의 근본적 문제가 야기되게 된다. 그리고 만주 문제는 일본에게는 실로 사황이 걸린 문제이며 오늘날의 생명선이라 불리는 것으로, 이 만주에서 권익을 건드리는 것은 어떠한 시대라도 우리 국민이 절대 승인할 수 없는 일이다.

(생략)

지나는 상하를 막론하고 혁명외교에 몰두하고 있으며 그 수단은 배외배일이다. 일본의 사활이 걸린 만주문제에 대해서도 가차 없이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해왔다. 이런 식이라면 곧 불상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9월 18일에 일어난 만주 사건의 발단이다.

상하이에서 일어난 일·지의 충돌도 실제로 같은 원인에서 일어난 것이며, 불평등 조약의 폐지 등 기타 혁명 외교로 인하여 벌어진 하나의 사건이다. 만주 문제가 배일 운동에 기름을 부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단순히 만주사변이 있었기 때문에 배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견해라 할 수 있다. (생략)

56) 1932년 <재류 조선인의 운동> 『사회운동 상황 4』 (내무성 경보국편 1932년)

이시카와현립도서관

총설

…을 1월 8일 사쿠라다몬 앞 육군 시관병식(始觀兵式)에서 황궁 행렬에게 황송하게도 폭탄을 투척한 이른바 이봉창 불경사건을 야기하기에 이른다.

4. 일본 반제 동맹 관계

(5) 주요 지방위원회의 상황 (1456P)

1) 오사카 지방위원회

… (나) 상하이 폭탄범 윤봉길이 11월 20일 오사카로 호송되어 육군 형무소에 수용된 본 건에 관해 <조선이 낳은 반제국주의자 윤봉길의 총살 반대 운동을 펼치자>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각 방면에 배포함.

제12. 재(在)상하이, 조선인의 불온 상황 (1551P~)

2. 민족파

(3) 대동단결 운동

상하이 사건 후 사방으로 흩어진 불령선인 중 일부 간부가 파벌투쟁을 일으켜 반목질시(反目嫉視)하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김규식(텐진) 등의 알선과 분주한 노력의 결과 각 단체가 대동단결하는 기운을 초래하였고, 12월 1일 상하이에서 중국 각지에 거주하는 조선인 독립운동단체 대표자가 모여서 비밀리에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성립대회>를 열고 석상에서 협의한 결과, 본 동맹의 성립을 결의함과 동시에 선언을 발표하여 “…조선 민중의 일반적 혁명 투쟁은 극도로 고조된 긴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은 일체의 반일 혁명세력의 단결과 통일을 위하여 이에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결성하였다… 본 동맹은 중국 내 여러 혁명집단의 총집합체로서 그 결합의 중심은 종교적, 지방적 혹은 개인적 중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독립의 공동 목표를 견지하는 것으로, 그 성질은 당면한 이해관계에 따른 일시적인 타협이 아니라 혁명의 모든 이익을 위하는 것이며, 그 범위는 중국 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국내 및 미국, 하와이, 러시아령까지를 총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유력한 우군 등

과 각종 상황에서 필요한 연락을 취하고… 특히 진실한 민중의 기초와, 아울러 직접 군사적 행동을 전개하려는 것이다…”라고 기술하였다. (생략)

(4) 흥포계획

- 1) 1931년 말, 불령단 간부들은 반역행위(不軌敢行)를 계획하고 동지 이봉창을 일본으로 밀파하여 도쿄에 잠입시켜 올해 1월 8일 마침내 사쿠라다몬 불경사건을 감행하였다. (제6 민족주의운동 참조)
- 2) 계속해서 제2의 불령스러운 감행을 모의했지만 일본 국내의 경계가 엄중하여 잠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자, 결국 방향을 바꾸어 3월 중순에서 4월 상순에 걸쳐 조선·타이완·다렌·안동현 등지에 암살단원 유진식, 이덕주, 최흥식, 유상근에게 각각 권총과 폭탄 등을 휴대하고 잠입시켜 요직 고관의 암살을 도모했고, 별도로 김금호(女)를 연락원으로 밀파했으나 모두 사전에 식민지 관헌에게 발견, 체포되었다.
- 3) 4월 29일 상하이에서 별도 기록과 같이 윤봉길로 하여금 폭탄을 투척시킨 이른바 상하이폭탄사건을 야기하였다.

(5) 상하이 폭탄 사건

지난번 이봉창을 일본 국내로 밀파, 잠입시키고 1월 8일에 불경사건을 교사, 감행했던 상하이 소재 불령단 간부들은 계속해서 반역을 계획하여, 동지 윤봉길로 하여금 4월 29일 상하이의 천장절 축하 회장에서 단상을 목표로 수류탄을 던져 시라카와 군 사령관, 우에다 육군 중장, 노무라 해군 중장, 시게미쓰 공사 등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범인 윤봉길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어 취조한 결과 사형에 처해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범인, 본적: 조선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39

현주소: 상하이 프랑스조계 패륙로 동방공우 30호

무 직 윤봉길 당시 25세

② 상하이 도항 동기

고향에 머물던 당시 일본 통치에 대한 반감을 품기에 이르렀고,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뜻을 세우고 칭다오로 가서 1년 동안 일본인 상점에서 일을 하였다. 그러던 중 상하이에 독립운동가가 많다는 말을 듣고 작년 5월에 상하이로 건너가 중국인이 경영하는 종품공사에 직공으로 고용되었으며, 올해 3월 해고된 후에는 밀가루 소매업 등을 하였다. 도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교민단 간부인 이춘산, 즉 이유필과 만났고, 그 후 한 달에 두세 번 찾집 혹은 자택에서 독립운동에 관하여 그의 지휘를 받았으며 같은 해 7월경 이춘산의 소개로 한국독립당에 가입하였다.

③ 범행 동기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고 다시 만주와 상하이를 빼앗으려는 책동(策動)에 분개하고 있던 때, 어떤 조선인에게 사주를 받아 시라카와 군 사령관, 우에다 사단장 등을 죽이면 일본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믿고 4월 24일 칙유 하사(勅諭下賜) 기념식에서 결행할 예정이었으나, 폭탄을 입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천장절 축하식이 거행된다는 말을 듣고 27일(또는 26일?) 모 조선인으로부터 물통 모양의 수류탄 1개, 도시락 상자 모양의 수류탄 1개를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암살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28일 오후 축하 식당으로 가서 폭탄 투척 위치와 거리 등을 정찰하며 연구하고, 다음날인 29일 오전 8시경 식당에 도착, 폭탄 2개 중 물

통 모양의 폭탄을 어깨에 메고 도시락 모양의 폭탄은 손에 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오전 11시 40분경 시라카와 군 사령관 일행이 단상 위에 등장했을 때 범인은 단상 후방 약 20미터 지점에 있었다. 기미가요의 합창이 끝나갈 무렵 마침 비가 내려 군중이 조금씩 흩어지자 이때를 틈타 앞으로 나아가 도시락 모양의 폭탄을 아래에 내려놓고 단상 쪽으로 대여섯 걸음을 달려 나가서 물통 모양 폭탄의 발화 마개를 제거하고 단상 위로 투척하였다.

④ 공범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상하이 소재 각 관계 관헌과 연락, 협력하면서 전력 수사 중에 있다.

⑤ 남은 폭탄을 감정한 바, 발화 마개를 빼고 3, 4초 안에 폭발하는 최신식 폭탄이라고 한다.

⑥ 처리: 상하이 파견군 군법회의에서 살인, 살인미수, 폭발물단속법위반으로 5월 25일 피고는 사형 판결을 받았고, 11월 오사카 위수형무소 호송, 구금되었으며 12월 18일 가나자와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³⁴⁾

57) 『대장 시라카와』(사쿠라이다다요시(桜井忠温) 저 1933년 발행) 이시카와현립도서관

63. 어른다운 모습을

(전략) 관병식이 끝나자 민관 합동 축하회가 열렸다.

한 단 높은 단상 위에는 오른쪽부터 무라이 총영사, 우에다 사단장, 시라카와 군 사령관, 시게미쓰 공사, 도모노 민단장(주: 민단 사무국장), 가와바타 행정 위원장 순으로 나란히 서 있었다.

단상의 난간은 홍백의 형식으로 감았고, 아랫단은 같은 색의 포장막으로 둘러쳐져 있었다. 마이크는 정면에 있었으며, 단상은 2미터 반이나 되는 높이로 계단이 붙어 있다.

관병식이 끝난 뒤에는 군중이 식당 쪽으로 몰려왔다. 단상 뒤쪽으로도 연못을 등지고 가득 몰려왔다.

단상 앞쪽만 조금 비어 있었다.

일동 ‘기미가요’를 합창하였고, 두 번째 합창이 끝날 무렵 ‘이끼가 낄 때까지’라는 가사를 부르는 순간, 왼쪽 뒤에서 단상 위로 작은 물건이 데굴데굴 굴러왔다. 누군가의 장난이겠거니라는 정도로 보였다—는 것은, 그것이 물통이었기 때문이다.

시라카와 대장의 발밑에 굴러온 물통?에서 담배 연기 같은 연기가 펄펄 뿜어져 나왔다.

아차 하는 순간, 그것이 엄청난 소리를 내며 폭발했다.—4월 29일 오전이었다.

평 하는 소리가 이어졌다.

납에 눌린 풀이 됐다.

속연했던 단상은 이 한 발의 음향으로 갑자기 화재 현장처럼 소동이 벌어졌다.

픽픽 무너지듯 쓰러졌다. 검은 것과. 카키색 일동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막대기처럼 쓰러졌다. “당했다! 큰일이다!”

군중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밖으로 도망가는 것과 단상으로 몰려드는 것이 서로 밀치며 아우성이었다.

던져진다. 밟힌다.

어떤 자는 소리치고, 어떤 자는 신음 소리를 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또 당했다!”라고 외치며 달리는 자가 있었다.

34) 본문과 다르게 실제로 윤의사의 사형 집행일은 12월 19일이다.

수천 마리의 짐승을 연못 속으로 밀어 넣는 듯하다.

단상 아래에서는 바로 달려 올라가 쓰러진 사람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 중 불쑥 막아서는 군복 차림의 한 사람이 있었다. 피가 얼굴에서 물보라처럼 뿜어져 나오면서 옷에 떨어져 구슬처럼 흘러내리고 있다. 여기저기서 핏줄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그것이 퍼져 나갔다.

바로 시라카와 군 사령관이였다.

단상 바닥은 피로 하나가 되었다. 그곳에 엎드려 있는 자, 옆으로 쓰러져 있는 자, 그리고 그것을 안고 있는 자들이 영겨있었다.

막료는 단번에 달려갔다. 그러나 군 사령관은 “나는 괜찮다”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하 생략)

64. 인생은 외로운 것

(생략) 폭탄 사건 범인은 조선인 윤봉길이라는 놈으로 현장에서 잡았는데, 조사해보니 그 뒤에 거물이 있는 것 같으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입이 찢어져도 말하지 않겠노라고 배짱을 부렸다.

그런데 갑자기 상하이 차이나 프레스라는 영자 신문에 김이라는 남자가 투서를 했다.

자신의 내력을 적고, 1931년 1월 8일의 사쿠라다몬 폭탄 사건은 자신이 시킨 일이라는 등의 글을 썼다.

일본에 대한 복수의 의지를 피력한 뒤,

“나는 처음 이봉창을 도쿄로 보내 1월 8일 사건을 일으켰고, 이어 4월 29일 신공원에 청년 애국단원 윤봉길을 파견해 일본군 사령을 폭격했다. 당일 나는 아침 일찍 운을 불러 내가 만든 폭탄 2개를 주었다. 하나는 암살용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자살용으로 계획했다. 그는 숙연하게 나의 훈령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답하고 눈물을 흘리며 악수하고 헤어졌다. 나는 누구인가? 김구라 하며 57세, 21세 무렵부터 한국 독립운동에 분주히 임하는 자이다”라고 말하고, “나의 무기는 여러 개의 권총과 수백발의 탄환이며, 이것으로 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끝까지 분투할 것이다”라고 마무리 지었다. (생략)

58) 『1932년 상하이사변지』(상하이거류민단 1933년 발행) 가나자와시립 다마가와도서관

37. 폭탄 범인의 체포 (643P)

1932년 4월 29일, 신공원에서 이른바 폭탄 사건 당시, 때마침 식당 부근을 경계 중이던 총영사관 경찰 다카야나기(高柳) 순사는 불명함이 첫번째 탄을 던지고 이어 두번째 탄을 던지려는 것을 목격하자마자 과감히 몸을 던져 범인에게 달려들어 해군측 고모토(後本) 일등 병조와 함께 그를 제압하여 두번째 탄의 투척을 저지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사와하타(澤島), 사코다(迫田) 두 순사와 하나사토(花里) 경찰서장도 달려가 범인의 신원 조사와 함께 실상을 목격하고 극도로 격앙한 군중의 범인에 대한 사형을 저지하며 서장의 지휘에 따라 범인을 자동 차로 헌병대에 송치했다.

위 순경의 민첩 과감한 행동은 경찰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라 칭찬해야 할 것이다.

59) 『가와바타 사다지 평전』(상하이거류민단 1933년 발행) 고지현립도서관

제2편 조난 제1장 부상부터 서거까지

1. 부상 전후의 상황

1932년 4월 29일, 예년마다 진행되는 관민 합동 천장절 축하회는 무라이 총영사를 회장으로, 가와바타 행정 위원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신록이 푸르른 신공원에서 거행되게 되었다. 또 이에 앞서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대장은 이날 통솔하는 약 1만 명의 비휴(貔貅: 용맹스러운 무사를 가리킴)를 모아 장엄한 관병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아침저녁으로 구름이 낮게 드리워졌지만, 재류 동포는 성수의 무궁을 축하드리면서 상하이에서는 실로 전무후무하다고도 할 이 장관(盛觀)을 접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행사장인 신공원으로 몰려들었다.

관병식은 앞서 오전 10시, 신공원 문 앞 도로 위에서 육군 특과대의 열병으로 시작되었고, 이어 10시 반부터는 원내에서 도보 부대 관병식이 거행되어 맑은 나팔 소리에 맞춰 우에다 중장의 지휘 하에 군 사령관 시라카와 대장의 열병 분열이 감동적인 장엄함 속에 진행되어 11시에 끝났다. 이후 11시 반부터 드디어 관민 합동 축하회가 시작되었다. 정각에 시라카와 군 사령관, 노무라 제3함대 사령관, 우에다 제9사단장, 시게미쓰 공사는 축하 회장 무라이 총영사의 주도로 가와바타 축하회 위원장 및 도모노 민단 서기장과 함께 회장 정면에 설치된 단상에 착석하였고, 그 외에 식장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단상 아래 지정석에 앉았다.

그 무렵 아침부터 시작된 먹구름은 강우로 변하였지만, 식은 11시 45분 도모노 서기장의 개회사로 엄숙하게 시작되었다. 개회사에 이어 가와바타 위원장은 마이크 앞으로 나아가 대략 아래와 같이 인사를 하였다.³⁵⁾ (중략)

이어 무라이 회장의 축사 낭독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기미가요의 두번째 합창이 끝나려는 순간, 왼쪽 후방 약 3미터 거리에 서있던 일반 군중 사이에 섞여있던 한 조선인, 불령스러운 흥한이 단상을 향해 던진 폭탄이, 단상에 기립해 있는 노무라 사령관과 시게미쓰 공사의 중간쯤에서 폭발해 버려, 단상의 7인이 모두 부상을 당하는 일대의 불상사가 발발했다. 이 흥행 때문에 가와바타 행정 위원장은 시라카와 파견군 사령관, 우에다 사단장, 노무라 제3함대 사령관, 시게미쓰 공사, 무라이 총영사, 도모노 서기장 등과 함께 부상을 입었는데, 불행히도 가와바타 행정 위원 회장은 오른쪽 흉부에 치명적인 중상을 입었고, 그 외 전신에 백여 곳이 폭상을 입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2. 응급 처치부터 서거까지

부상과 함께 그는 스스로 단상을 내려가 그 자리에 있던 학교 직원 등에게 오른쪽 손목 부상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았는데, 그 사이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군인과 학교 직원 등의 부축을 받으며 즉시 장내 구호반실로 옮겨졌다. 아마 꿈에서조차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춘사였고, 구호반에서도 이에 대한 응급처치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당황했으나, 다행히 구사지마(草島), 아키타(秋田) 두 의사가 달려와 캠퍼 주사를 놓았다. 이와 거의 동시에 제4야전병원의 의관련(醫官連)도 달려가 위의 두 의사와 함께 복부를 검사하였으나, 오직 전신에 무수한 폭상만 보일 뿐 약간의 출혈도 없었다. 그러나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특히 심장부의 기능도 거의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다. 때문에 연속으로 캠퍼 주사를 두, 세통 놓았고 군의는 삼각건으로 압박 붕대를 감는 도중 미약하게나마 맥박이 잡혔기 때문에 여러 군의관과 두 의사의 부축을 받으며 복민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다.

35) 『大阪朝日新聞』(1932년 5월 2일) 신문에는 4월 29일 오전 9시 반부터 관병식, 11시 반부터 도모노의 개회사로 축하회가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매한윤봉길전집>> 3권, 929쪽)

그런데 두부를 제외한 전신에 207군데의 폭상을 입은 증상인데다가 축하 회장에서 일어난 재앙이기 때문에 원장 돈구 박사는 즉시 상하이 파견 육해군 군의부 및 상하이 일본 의사회를 총동원하여 치료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유감스러운 일이 없도록 임하기로 했다.

당시 복민 병원에는 동시에 부상을 당한 시게미쓰 공사, 무라이 총영사도 함께 입원했기 때문에 변보를 접한 대내외 명사들이 대거 문병을 했는데 군부, 총영사관 및 민단 당국에 의해 경비나 접객은 유감없이 이루어졌다.

이리하여 응급처치 후, 여러 군의관 및 의사 회원의 협력 하에 선혈로 오염이 된 프록 코트,³⁶⁾ 기타 의복을 제거하고 면밀한 검진이 이루어졌지만, 몇 분간의 다량의 내·외출혈로 빈혈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캠퍼 등 강심제를 반복하여 주사 처치를 하였고, 이어서 혈액 300그램, 링겔액 50그램 총 350그램의 수혈을 실시한 결과 맥박도 약간 호전되었다. 그러나 각 부위의 폭상으로 인해 통증이 심하여 진통제를 주사하는 한편, 산소 흡입 등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나, 효과가 없이 결국 다음날인 30일 오전 3시 10분 모친과 지인 등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하였다. 시체는 30일 오후 3시 반부터 상하이 파견군 군의장 다가와(田川) 군의관, 견외 함대 군의장 도요다(豊田) 군의대령, 거류민단 대표 이케다(池田), 의사회장 아키야마(秋山), 그 외 고인의 친우(親友) 등의 입회 아래 복민 의원 원장 돈구 박사의 지도로 부검을 했다. 사인은 우측 폐 손상에 의한 급성 빈혈이라 결정되었다.

이리하여 유해는 이날 저녁 무렵 해녕로(海甯路)의 자택으로 옮겨졌는데, 이 비보를 한번 접하자 주둔 육해군 관계자 및 재류 민관 다수의 조문객이 끊이지 않아, 특히 민단 관계 인사들은 이 집에 머물면서 조문객 응대에 실 새 없이 큰 혼란을 겪었다. 또한 흥변 보도가 한 번 신문 호외,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모국에 보도되니, 곧 다수의 위로 전보에 이어 조문 전보가 민단과 유족 앞으로 몰려왔다. (이하 생략)

60) <1934년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조선인의 불온 책동 상황> 『사회운동 상황 6』 (내무성 경보국편 1934년) 이시카와현립도서관

4. 부정 도향의 상황(1483P~)

…등 밀항자에 섞여 언제 해외에서 불령선인이 일본 국내에 잠입하는 것도 헤아리기 어렵다. 특히 1932년 1월 이봉창의 대역사건 이래, 상하이 불령선인 일당의 준동(蠢動)이 매우 치열하여 일본 국내 잠입에 관해 온갖 수단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정보…

1934년 <부록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조선인의 불온 책동 상황 (1620P~)>

1. 개요 설명

…1932년 1월 8일 애국단을 표방한 김구 일당은 단원 이봉창에게 사쿠라다몬 불경 사건을 감행하게 하고, 또한 같은 해 4월 29일 동 단원 윤봉길을 사주하여 이른바 상하이 흥커우 공원 폭탄 투척 사건을 야기하기에 이르러, 현저히 그 이전 세력을 만회하기에 이르렀다. (생략)

…그들 불령선인 중 김구, 김원봉, 이청천 등은 그 후 와야 할 1935·6년 이른바 일본의 국제적 위기에 즈음하여 일·소 및 일·미전쟁의 발발을 예상하고, 개전(開戰) 때에는 미리 군사훈련을 실시해 둔 조선인 청년을 일본 국내, 조선, 만주에 잠입시켜 두는 등, 일본 국내, 조선,

36) 19세기에 착용한 주머니 없는 조끼.

만주 후방의 치안을 교란시킴으로써 일본의 입장을 불리하게 이끌어 어부지리를 차지해 조선을 완전히 일본제국의 패륜으로부터 이탈시켜 한 번에 그 독립을 완성시킬 계획에 이르렀다. (생략)

…1931년 11월 이후 일본, 조선, 각 민족 사이에서 무정부주의자라는 뜻을 갖고 새로운 사회혁명의 한 수단으로, 이른바 '테러' 공작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적 공포단체 'B·T·P'라는 단체를 조직해 중국인 유력인사의 원조 아래 다수의 자금과 폭탄, 권총을 입수하여 마침내 1933년 3월 아리요시(有吉) 공사 암살 미수 사건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무정부주의자의 행동은 지극히 몰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이면 즉시 당을 위장하고, 흩어지면 즉시 양민을 가장하는 이른바 본부 이동 조직이 되어, 마치 단체로 존재하고 있는 듯, 없는 듯하여, 그 출몰 움직임을 상당히 시찰하기 어려움을 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상하이 방면의 조선인의 불령 운동은 여전히 창궐하고 있고 특히 중한(中韓) 연합 항일 반만 운동은 점차 구체화되어 이미 실행기에 접어든 것처럼, 그중에서도 특히 김구, 김원봉 등의 조선인 청년에 대한 군사 훈련 공작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한 일이며, 그들의 향후 동향에 대해서는 가장 엄중한 시찰 단속을 필요로 해야 한다.

2. 민족주의파

…본 사건(외 사쿠라다몬 불경사건)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가 본디 지나 측 항일 단체들로부터 예상외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이에 힘을 얻어 상기의 사건 후 그들 일당의 암약(暗躍)은 한층 더 활기를 띠며 점차 흉포 과격하기에 이르렀다. (생략) 또한 김구는 그 사이 상하이에서 따로 음모를 기획하여 같은 해 4월 29일 상하이 신공원에서 개최한 천장절 축하회 당시, 일당 윤봉길로 하여금 매우 정교하고 강렬한 폭탄을 중요 인사들이 모인 회장에 투척하게 하여, 시라카와 대장, 우에다 중장, 시게미쓰 공사 등 이하 7인을 살상한, 이른바 윤봉길 상하이 폭탄 사건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위와 같은 각종 불령사건을 결행하기에 이르자, 중국 관민의 동정은 점점 이들 불령 운동자에게 집중되어, 이후 조선인 민족주의 운동자와 중국 관민의 교류가 날마다 밀접하여 중국 관민의 이러한 불령운동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구휼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모양으로…우리 관헌의 탄압적이고 엄격한 압박이 가해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중국 관민의 동정과 비호(庇護)는 점점 거세져, 중국 측 항일단체와 불령 조선 단체는 완전히 구별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61) 『척각기』 (시게미쓰마모루 저 1937년 12월 발행) 이시카와현립도서관

폭탄 터짐 (생략)

의견 상신

(생략) 나는 생각했다. 범인이 조선인이라도 어떤 배경이 있으므로 일이 중대해지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본은 만주 문제의 장래를 앞두고 있다. 상하이 사건은 이쯤에서 명예로운 종국(終局)을 고하는 것이 대국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필요하다. 멀리 떨어져 있는 도쿄 정부는 어쩌면 판단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도쿄의 사정은 복잡할 것이다. 국가의 안위가 갈릴 판이다. 이때 나 자신이 해야 할 직무 중 뭐가 남아 있는 것은 없는가, 하고 거듭 고심해 보았다. 그 결과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형세에 대하여 정부에 의견을 올리는 것이 당장의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의 의향을 말하여 시급히

요시자와 외상(外相) 앞으로 의견을 전보로 보내도록 전문(電文)을 띄엄띄엄 구술했다. 벌써 어느새 밤이 되었고 처참한 마음이 글에 담겨있었다.

“이번 부상은 치명상은 아니지만 상당한 중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당분간 공무를 볼 수 없음이 유감스럽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관계없이 정전협정은 그대로 성립시켜야함이 국가의 대국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때, 한 걸음만 잘못되어도 국가의 앞날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처할 것이다. 만약 대내외 연락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시급히 마쓰오카(松岡) 씨를 다시 상하이에 오도록 부탁하여, 위의 정전 협상 성립에 노력하기를 희망한다.” 라는 취지였다. (생략)

4월 29일 정오 가까운 시간에 일어난 신공원 폭탄사건은 9월 1일 정오 즈음에 발생한 도쿄 대지진처럼 상하이인의 심경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 시민들은 전기에라도 맞은 것 같았다. 신공원 내 천장절 행사는 비와 함께 쓸려갔고, 그날 밤의 축하 연회도 모두 중단되었다. 총영사 관저에는 오전 11시 반경부터 외국인 관련 축하 연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며... 그때 신공원에 참석하고 있던 한 무관이 달려와 사건을 보고했다. 일동의 놀라움은 대단했다. 지나 측 시장이나 그 외의 사람들은 우선 자취를 감추었다. 이것은 제2의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영, 미, 불, 이 4개국 공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선후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 측 수뇌부 모두가 빠짐없이 당한 것은 무엇보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하면 될지 엄청난 불안과 우울한 시선으로 세계인이 바라봤다. 특히 제네바 군축회의 중 동아시아 문제로 모여 있던 각국 정치가의 신경까지도 고통스럽게 자극했다. 당장의 세계 전쟁을 연상시킨 사람도 있었다. 그때 나의 최종 의견으로서 폭탄사건은 폭탄사건으로 처리하고 정전협정은 반드시 성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전보가 제네바에도, 그밖에 지역에도 도착했다. 재(在)상하이 램슨 영국 공사는 상황을 상세히 제네바에 있는 사이먼 영국 외상에게 전보로 보고했고, 일본 공사의 폭탄 사건에 대한 태도 및 의견도 간접적으로 파악해 전보한 모양이다. 각국 대표도 물론 세부 상황을 보고했을 것이다. 제네바의 분위기는 상하이 중상자인 일본 공사의 의견을 알고는 갑자기 완화되면서 깊은 동정의 뜻을 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도 정전 협상을 성립시킨다는 결의를 곧바로 표명했기 때문에, 한때 세계를 뒤덮던 먹구름도 머지않아 개면서 협상은 급속도로 성립을 향해 나아갔다.

62) 『일본헌병 소와(소와)사』(헌병사령부 1939년 발행 다시로 간이치로(田代皖一郎) 강연록) 이시카와현립도서관

제3관 상하이에서의 윤봉길 폭탄 사건

제1항 사건의 개요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공동조계 신공원에서의 천장절 축하 회장에서 시라카와 육군대장, 노무라 중장 등을 겨냥해 수류탄을 던져 시라카와 대장, 우에다, 노무라 두 중장, 시게미쓰 공사, 무라이 총영사 등에게 다치게 한 조선인. 현장에서 체포 취조한 결과, 본적은 조선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39번지, 당시 주소는 상하이 불조계 패륙로 동방공우 30호, 무직 윤봉길(당시 25세)로, 윤봉길은 몇 년 전부터 조선을 일본이 통치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며 조선 민족을 위해 그 독립을 회복시킬 것을 열망하였다. 끝내 조선독립운동에 진력할 목적으로 본가를 출발, 1931년 5월 상하이로 건너가 불조계에 거주하는 대한교민단장 김구와 기

타 불령들과 여러 차례 접촉하였다. 그 결과, 1932년 4월 중순경 동조계 마량로4의 찻집에서 김구의 초대로 그와 만나, 김구는 그에게 4월 29일 천장절 당일 시라카와 대장 및 우에다 중장의 살해를 설득했고, 그는 이를 흔쾌히 수락하고, 이후 김구의 지시대로 행동하고 지나 지폐 90불과 물통형 및 도시락형 수류탄을 교부받아 천장절 축하 식장에 몰래 잠입해 기회를 엿보다, 기미가요 합창 후 수류탄 1개를 단상으로 투척하여 폭발시켰다. 이에 시라카와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 노무라 제3함대 사령관, 우에다 제9사단장, 시게미쓰 주지 공사, 무라이 상하이 총영사, 상하이 거류민단 행정위원회 위원장 가와바타 사다쓰구 등에게 폭창을 입혔고, 범인 윤봉길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범인 윤봉길은 상하이 파견군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고 5월 1일 사건이 상하이 파견군 군법회의 검찰관으로 송치되어 심리한 결과, 5월 25일 피고인 윤봉길을 사형에 처하고 도시락형 수류탄은 몰수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제2항 본 건을 통해 얻은 향후 참고 사항

본 사건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그 사범이 매우 단순하나, 그 사건에 의해 일어났고 그 원인 동기의 배후에는 크고 깊은 요인이 있으며, 파급 영향은 매우 큰 것이므로, 우리 헌병으로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 집행에 참고가 될 만한 것도 많다. 여기에 당시 상하이 파견군 참모장으로, 사건 발생 시 그 현장에서 목격되고 또 본 사건의 처리에 깊이 관여했던 다시로 간이치로 중장이 1935년 8월 헌병 사령관 시절에 우리 헌병을 위해 특별히 기록한 “상하이에서의 폭탄 사건의 교훈”을 적어 참고로 제공한다.

제1. 사건의 경위

(1) 사건 발발의 시기 (시간적 환경)

먼저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제군이 아시다시피 1932년 4월 29일 천장절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가 상하이 전쟁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상하이 전쟁이 시작된 전후부터 이 사건이 돌발한 당시까지 기간의 매우 개략적인 경과를 서술해 본 것입니다.

만주사변이 돌발한 것은 1931년 9월로, 이 사건의 발생과 동시에 지나 전국의 일-지 관계가 완전히 돌변했다. 즉 만주사변이 일어났다는 보도로 인해 모든 지나인은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을 정도로 중대한 자극을 받았다. 따라서 일본인에 대한 태도가 금세 급변하고 말았다. 예를 들면, 우리와 친하게 교제하던 지나인도 그 사변 이후에는 도중에 만나거나 혹은 어떤 석상에서 얼굴을 마주해도, 외면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심리상태로 바뀌었다. 이와 동시에 맹렬한 배일(排日), 배일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이 배일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격해졌다. 예를 들어 상하이의 일본인 초등학교 학생이 통학할 때 돌을 던지거나 때리는 등의 박해 사건이 매일 경찰에 보고된 기록을 보면 60건, 70건, 많게는 100건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결국 쉬게 된 곳도 있다. 또한 상당히 격한 배일 포스터가 도처에 붙었다. 기존의 배일이라는 것이 점점 더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지나에서 경험한 이래, 동시에 이 만주 사변이 일어난 직후만큼 격렬한 배일 포스터가 붙은 걸 본 적이 없다. 예를 들면 “일본인을 죽여 버리자”라는 식의 포스터가 활발히 붙었다. 여기서 혈기 왕성한 일본인, 취중 청년들은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끝을 보자며 청년들이 무리를 지어 낮 사이에 부착된 포스터를 밤중에 대나무 끝에 낮 같은 것을 묶어 이걸로 포스터를 떼면서 순회한다. 그러면 이들과 지나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고, 결국 그 유명한 니치렌(日蓮) 종(宗) 승려가 살해를 당하는 시기에 이르러, 더더욱 격렬한 상태가 되었다.

1932년 1월 28일에 해군 육전대가 지나 군대와 충돌한, 이른바 상하이 사건이라는 것이 돌발했다는 것은 지금 말한 분위기가 내포된 끝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1932년 1월 28일 한밤중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2월 7일에는 육군 전투부대 곳곳의 혼성여단이 오송에 상륙하였다. 13일에 제○사단의 선두가 상하이에 상륙하고, 이어 18일 밤에 우에다 사단장은 지나군을 향해 최후의 통첩을 날렸다. 결국 평화적 해결을 보지 못하고, 2월 20일 아침부터 육전대가 드디어 작전 행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이 기간 약 20일 동안 소수의 해군 육전대로 수십배의 지나군 즉 19로군을 저지한 것이다. 이어 3월 1일 제○○사단이 양자강(揚子江) 연안의 칠자강(七子江)이라는 곳에 상륙했다. 이 상륙을 계기로 지나군이 전원 퇴각하기 시작했고, 일본군은 점차 추격에 나섰다. 3월 3일 즉, 절구날(명절) 오후 2시에 일본 군 사령관은 작전 행동 중지 성명을 발표했다. 육군이 행동을 개시한 이후 약 열흘간 이어진 상하이의 전투는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그 후 3월 6일이 되어서야 제○○사단의 선두가 도착했으나 전쟁에는 늦었다. 그리고 15일이 되자 제○○사단 및 혼성여단은 철수명령이 내려와 빨리 철수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점점 사태가 변해 3월 24일부터 정전협정이라는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이 정전회의라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지만, 꽤 어려워 4월 중순경에 일단 정리하고, 이를 국제연맹 쪽으로 가져간다는 등의 여러 가지 분류가 있었다. 우리는 정전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재개하는 쪽으로 이끌기 위해 거의 전력을 다해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한다. 이러한 시점에 폭탄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난 것이다. 그동안 아군은 언제라도 작전행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공방(攻防)의 준비를 갖추고 대기 상태에 있었고, 때때로 척후(斥候) 충돌이라는 다툼 등은 있었지만, 요컨대 3월 3일 이후에 전쟁이라는 것은 없었다. 점점 전쟁 이후의 기분처럼 바뀌어 온 것이다. 사건 며칠 전인 4월 24일에는 칙유하사 50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이 행사는 폭탄사건 때인 천장절 축하회와 같은 곳에서 거의 같은 방식으로 열렸다.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나는 그 기념식 때는 단상 위에 올라가 참열을 했다는 전말이다. 이런 경과를 거쳐 4월 29일 천장절을 맞이하였다. 이것으로 이 사건이 어떠한 때에 일어났다 라는, 당시의 관계는 제군들이 대략 이해했을 거라 생각한다.

2. 사건 발발의 장소 (장소적 환경)

이번에는 장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발생 장소는 상하이의 신공원, 이곳은 상하이의 시가지(지도를 가리켜 설명), 여기에 색칠된 부분이 상하이의 시가지, 이 강이 황포강(黃浦江), 양자강의 큰 물줄기에서 크게 떨어져 나와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일본에서 오는 여행객이 자주 이 상하이에 와서 양자강이 작다고 하면서 양자강과 그 지류인 황포강을 착각한다. 아울러 큰 기선도 모두 여기로 온다. 이 강 안이 상하이의 항구이다. 상하이의 시가지는 대체로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지나 거리, 이 부분이 지나 거리(지도를 가리킨다), 이를 성내라고 일컫고 그 외 부분은 조계, 조계라는 것은 거류지를 말하는 것과 이곳 조계로, 두 종류가 있다. 바로 공동 조계와 불란서 조계인데, 공동 조계는 즉 국제적 거류지이다. 이곳이 공동 조계이고, 이곳이 불란서 조계(지도를 가리키며 설명), 이곳은 불란서만 소유하고 있는 조계. 그래서 신공원이라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 공동 조계의 북쪽에 있는데 여기 파랗게 보이는 곳이 신공원이고, 조계의 진짜 경계는 이것이다. 잠깐 나왔지만 이곳 역시 조계의 일부이다. 이런 곳은 그밖에도 얼마든지 있는 곳인데, 이것을 익스텐션이라고 한다. 이 익스텐션이라는 것이 무엇이나면, 각국이 상하이의 거류지를 점차 확장해 가는, 즉 지나측과 타협 없이 일종의 이유를 붙여 거류지를 확장해 가는 것인데, 거류지에서 간도로라는 큰

도로를 점차 늘려, 그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해 버린다. 그곳에 어찌면 전화가 생기고, 수도가 늘어가는 식으로 조계의 문화적 시설을 점점 확장해 간다. 이런 식으로 확장해가는 것을 익스텐션이라 칭한다. 이는 애초부터의 조계는 아니지만, 사실상 조계가 자연 연장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다.

이 거류지 즉, 조계 이곳은 공동 조계라면 행정권이 당연히 각국에게 있고, 불란서 조계라면 불란서에 있으므로 지나의 행정권은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이야기가 복잡해졌는데, 요약하자면 사건이 벌어진 신공원은 공동 조계의 북쪽 부분, 이 경계의 가장 끝 부분에 위치한다. 즉, 조계의 일부인 지나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거류지의 일부분이 이 신공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여기서 이 신공원과 전쟁터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 지도는 이 근처가 공동 조계이고, 여기가 불란서 조계, 여기가 지나 거리(지도를 가리켜 설명), 현재의 상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매우 큰 곳이다. 이곳이 신공원, 상하이 사건의 전쟁터라고 하는 부분이다. 해군 육전대와 총돌과 전쟁이 처음 일어난 곳은 갑북(갑북은 이곳이다),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다. 해군 육전대와 지나 군대 간 전쟁이라는 것은 요컨대 이 부분에서 끝까지 행해진 것이다. 그 후 육군이 점점 나오게 되었고 직전에 온 혼성여단이 오송에 상륙하여 이곳에 잠시 있었다. 그리고 제○사단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와 이곳에 상륙을 했고, 여기서 집결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20일부터 점점 더 전쟁이 진행되었고, 그 경과가 바로 이것이다. 이 파란선이 일본군이 행동한 방향이고, 이 빨간 선이 지나군의 진지로, 전투가 발생했다고 설명한 곳이 여기, 신공원은 여기, 이것으로 대략 전쟁터와의 관계는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신공원, 이곳은 꽤 넓다. 그중 대부분은 이렇게 골프를 칠 수 있는 깨끗하고 평평한 잔디밭, 일부에는 호수가 있고 수목이 있고 건물이 있어, 이러한 풍경이었다. 그리고 주위에는 담장을 둘러 지금 확실히 기억나진 않지만, 두 세 개의 출입구가 있었는데, 그곳은 마치 정류장 표를 끊는 곳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밖의 곳은 출입할 수 없다. 이 신공원 소속은 공동 조계 공부국에 속해 있는, 즉 이곳은 국제적 공원이다. 그래서 가령 일본인끼리 뭔가 큰 행사를 열 때는 조계 당국에게 이 공원을 빌린다. 사건이 있었던 천장절 축하회 같은 경우도 이처럼 공원을 빌렸던 것. 이상이 장소에 대한 설명.

3. 경찰 관계

이번에는 평상시의 경찰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계의 경찰은 공동 조계의 공부국 경찰, 공부국이라는 것은 이른바 시청과 같은 곳으로, 공부국의 경찰, 이 경찰은 국제적인 조직이므로 경찰관 중에는 일본인도 있고 인도인도 있고, 혹은 유럽인도 있다. 불란서 조계는 불란서 공부국의 경찰, 그리고 일본은 치외법권의 범위에서 영사관 경찰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렇게 큰 조직은 아니며, 이러한 것이 평상시 조계 경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조계 밖의 지나 거리 쪽은 물론 지나 경찰이 있었다. 그 후 전쟁이 발발했다. 거기서 지나를 시작으로 전투지 부근의 경찰기구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투지에 인접한 조계 부분, 즉 일본군의 군사 행동 구역이라 해도 좋은, 이런 부분, 이 부분의 경계는 조계에 속한 부분은 우리 해군이 하는, 즉 이 사건이 있던 신공원 같은 식이다. 그 후 전투지 중 조계 밖은 모두 우리 육군이 경비를 서게 되었다. 전쟁 발발 직후 일본 헌병이 수십 명 파견되어 헌병으로서의 경찰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제군들이 아는 그대로이다. 그 밖에 군 사령부에는 군 사령부의 위병이라는 게 있었다. 이들은 주로 군 사령관의 호위를 맡는다. 이 군 사령부의 위병은 보병과 기

병 두 부류로 구성되어 있다. 말을 타고 단상을 경계하는 것이 군 사령부의 위병, 경비는 대략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

4. 천장절 축하회 (사건의 전말)

다음은 천장절 축하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천장절 축하회라는 것은 상하이에서는 관례입니다. 매년 행해지던, 총영사관측과 거류민단의 행정위원 (행정위원은 시청을 말함) 그 양측이 합동 개최하는, 즉 관민 연합의 축하회, 이런 방식이 관례가 되어 그 관례를 바탕으로 올해도 실시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예년마다 신공원에서 진행하는, 그 방식도 거의 예년과 같은 방식이다. 다만, 전쟁때문에 육해군이 출동해 있었기 때문에 민단측의 요구에 따라 육해군측에서 아마 한 명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을 보내 민관연합 축하회에 참석했다. 이런 형태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라카와 군 사령관 각하 혹은 해군의 노무라 함대 사령관 각하라는 분들은 관민 연합 개최측에게 초대를 받아 참석하시는, 이런 관계였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초대장을 받고 손님으로 온 것이다. 그리고 육군은 오전 10시부터 군 사령관이 관열자가 되어, 우에다 중장이 제병 지휘관을 맡아 관병식이 거행되었다. 이 관병식의 장소는 신공원을 중심으로 한 그 인근 거리로, 특과대 쪽은 신공원 측면의 큰 거리 위에 줄지어 있고, 도보 부대는 주로 신공원 안에 정렬되어, 그것을 시라카와 대장 각하가 막료 및 기타 외국 무관 등을 거느리고 승마로 검열하시는, 이쪽은 이렇게 끝났다. 이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육군 자체 행사로, 그 행사가 11시경 마무리되고, 그로부터 30분이 지나 이번엔 무대가 모두 바뀌어 민관연합의 천장절 축하회가 될 것이므로, 당연히 관병식 당시 관병식장의 경계같은 것은 육군 자체가 담당했다. 축하회 부대가 바뀌면서 동시에 경계 책임 등도 앞서 말한대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그 후 이른바 천장절 축하회의 식장 경계는 어떻게 된 것이었는지 묻자, 그 첫 번째 책임은 당연히 영사관 경찰이며, 헌병 역시 책임의 일부를 짊어야 한다. 이것이 그 식장의 모습이다 (그림을 가리키다). 이 네모난 것이 지금 둘러본 사진에 보이는 홍백의 현수막으로 장식된 단상이다. 미리 설명을 해 두자면, 나중에 설명할 높은 분들이 여기에 쭉 늘어서 있을 것이다. 이 그림으로 말하자면, 여기에 막료와 외국 무관이 나란히 서있고, 여기에는 해군 군악대, 여기에는 학교 학생이나 군대, 단체가 참여하며, 여기에는 일반 거류민이 서 있는, 이런 식이다. 그리고 이 단상의 뒤편에는 헌병과 경찰과 군 사령관 위병이 둘러싸고 있다. 이 군 사령부 위병이 말을 타고 있는 게 사진에는 나오지 않지만, 15미터 내외인 곳으로 기억하고 있다. 다만, 이 선이 식이 진행되면서 어느새 점점 밀렸던 모양이다. 그리고 식장 밖 이외 지역 전반의 경계는 앞서 말한 대로 해군이 담당했다. 대강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한다.

다음은 식장의 상황과 식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식장은 신공원의 거의 중앙부의 깨끗하고 평평한 잔디 한가운데로, 단상 높이가 약 2미터, 폭은 5·6미터에 깊이는 2·3미터나 되었다. 이렇게 단상을 만들고 이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앞서 설명한 여러 참석자들이 서 있는 것이다. 이 단상에는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말하면, 무라이 총영사, 우에다 사단장, 그리고 시라카와 군 사령관, 노무라 함대 사령장관, 시게미쓰 공사, 가와바타 민단 행정 위원장, 이것은 일본의 시장격 직책, 그 왼쪽으로 민단 서기장 도모노, 이만큼의 사람이 단상 위에 올라 있다. 11시 40분이 되자 그 도모노 서기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식은 매우 엄숙히 열렸다. 그 다음 가와바타 행정 위원장 즉, 축하회 위원장이 마이크 앞에 나와 분명 개회사를 쓴 글을 읽고 있었다. 이것이 끝나자 주최자 중 하나인 무라이 총영사 즉, 축하 회장이 축사를 낭독했다. 이후 해군 군악대에 맞춰 기미가요를 두 번 제창하게 되었다. 이것이 끝나면 시라카와 군 사

령관 각하의 천황 폐하 만세 이창 후 식을 내릴 예정으로, 식순은 지체없이 진행되어 이제 기미가요의 2장 중 1장이 끝나고 2장째 맨 끝인 “이끼가 낄 때까지”라는 곳, 이런 시기에 만장(滿場)의 일본인은 일심불란으로 성수의 무궁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정말로 통일된 정신으로 기미가요를 제창하고 있다. 진정으로 만장한 일본인의 정신이 하나에 집중되는 신성한 기분의 최고조에 이른 순간,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때 단상의 좌측 후방 관중 속에서, 바로 이곳(그림을 가리키다), 한 장한(壯漢)이 돌진하였다. 돌진해 온 다음 순간에 뭔가를 단상을 향해 던졌고, 그 던진 물건이 이쯤에 떨어져 작은 연기가 폴폴 올라온다. 누군가가 폭발! 이라 외친 그 순간, 잠시 바닥에 있다가 다음 순간에 굉음을 내며 폭발한 것이다. 여기(단상) 계셨던 분들은 모두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이곳(단상 좌측 후방 관중)에 있던 사람 중에는 안구가 터진 사람도 있다. 상당수는 심한 중상은 아니었지만 많은 부상자를 냈다. 즉, 폭발은 이런 방향으로- 단상을 향해 요좌편- 파편이 날아갔고, 나는 이 근처- 단상 우측 아래에 접근해서- 있었지만, 이쪽에는 아무도 부상자가 없었다. 이런 일이 발생해 엄숙한 축하 회장의 모습이 아수라장으로 급변하고 말았다. 사건이라는 건 그뿐이다. 더 이상 설명할 방법도 없다.

따라서 다음은 범인 체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나중에 조사한 것이지만, 범인은 알다시피 조선인 윤봉길, 불란서 조계에 거주하던 불량 선인으로, 양복 차림의 일본어에 능통했다. 식당의 (식장이라기보다는 공원 입구) 그곳에는 물론 경찰관이 서서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다. 그곳을 지날 때는 이런 복장으로 일본어를 썼고, 그리고 물병을 어깨에 걸쳐놓고 보자기에 짠 알루미늄 도시락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아무도 이를 의심하는 자가 없었다. 그 물병도 도시락도 둘 다 폭발이다. 흥행 시에는 나중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먼저 들고 있던 도시락을 발밑에 놓고 물병을 분리해 폭발을 점화시켰다. 이 폭발의 발화 방식은 지나의 폭발과 같은 방식이다. 이미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폭발이라면 이런 끈이 붙어 있는, 그 끈을 딱 잡아당기면 발화되는 방식, 이는 지나, 러시아식 폭발과 같다. 일본처럼 평 쏘아서 발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다. 끈을 당기면 발화하는 것이다. 그 조작을 해서 발화한 것을 지켜보며 관중 속에서 사생결단으로 돌진한, 급기야 폭발이 닿을 곳까지 돌진해 와서 획 던졌다. 이 범인은 현장에서 즉시 헌병 및 해군 병사 등에게 체포되었다.

처음에 예고했듯이 전제가 훨씬 길고, 사건 자체는 어이없이 황당한, 이 정도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얻은 교훈에 대해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한다.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63) <경찰총서 제45책> (<있어! 불령 선인> 에모토(榎本三郎) 강연 부록 1940.5) 특고 경찰관계자료집성 12-5-15 (수평운동-재일조선인운동) 이시카와현립도서관

2. 지금까지 어떤 불령을 감행했는가

(1) 지나사변 발생 전

- 1923년 9월 박열사건 박열 경시청 검거
- 1924년 2월 이종교 폭발사건 김지섭(김원봉파) 사건 발생
- 1932년 1월 8일 사쿠라다몬 대역사건 이봉창(김구파) 사건 발생
- 1932년 4월 9일 조선 총독 암살 음모 이덕주 외 1명(김구파) 조선 검거
-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흥커우공원 폭발사건 윤봉길(김구파) 사건 발생

1932년 5월 23일 국제 연맹 조사단 일행 저격 음모 최흥식 외1명(김구파) 대련 검거
 1933년 3월 17일 아리요시 공사 암살 음모 원심창 외 2명(김구파) 상하이 일본기관 검거
 1934년 3월 3일 상하이 신사 폭탄사건 강병학 외 1명(박창세) 미검거
 1936년 8월 10일 상하이 폭탄 폭발사건 김순곤 외 1명(김원봉파) 파견 관한 검거

**64) <최근 재(在)지 불령선인의 책동상황> (1941. 12 내무부 경보국 보안과)
 특고경찰관계자료집성 12- 5-16 (수평운동-재일조선인운동) 이시카와현립도서관**

1. 개요 설명 (생략)
2. 재지 불령선인의 사상적 분야 (생략)
3. 민족주의파 책동 상황
 - (1) 지나사변 발생 전에 있어서의 책동 상황
 - 1) 국제연맹 조사단 암살 미수 사건 1932년 4월 국제연맹 조사단을 암살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국제적 위기에 빠뜨리려 함. ……유상근 외 1명
 - 2) 상하이 폭탄 사건 한인애국단 윤봉길이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흥커우 신공원에서 열린 천장절 축하회 식당에 폭탄을 투척함. 시라카와 육군 대장 (사망), 우에다 육군 중장 (중상, 한쪽 다리 절단), 노무라 해군 중장 (중상, 오른쪽 안구 적출), 시게미쓰 공사 (중상, 한쪽 다리 절단), 가와바타 거류민회 행정위원 (사망) ……김구의 사주에 의함.
 - 3) 아리요시 공사 암살 음모 사건 김구, 안공근 등이 사주하여 남화한인청년연맹 향화암을 통해 흑색공포단원 원심창 등이 아리요시 공사 암살 계획 중 1933년 3월 17일 검거…… 폭탄 1개, 수류탄 1개, 권총 2정 압수
 - 4) 상하이 신사 사건 1932년 3월 3일 상하이 신사의 상하이사변 전몰 장사 초혼제에 참석하는 재량 관민 유력인사를 암살하려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불발로 끝나…… 한국 독립당 박창세의 사주에 의함.
 - 5) 상하이 폭탄 사건 1936년 8월 14일 상하이 불조계에서 조선민족혁명당원 김순곤 등이 테러공작 준비로 폭탄 제조 중 3번째 폭탄이 폭발함…… 김원봉의 사주
 - 6) 조선 총독 암살 미수 사건 1932년 4월 9일 검거. 상하이 한인청년당 이덕주 외 일명은 조선 총독을 암살하고 나아가 일본에 잠입해 대관을 암살하기 위해 조선에 잠입해…… 김구의 사주로 말미암다.

65) <백범일지 (김구 자서전)> (1947년 발행) 이시카와현립도서관

바로 그 무렵, 윤봉길이 나를 찾아왔다. ……윤봉길 군은 “제가 애초에 상하이로 온 것은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채소를 메고 흥커우 방면을 돌아다닌 것도 무슨 기회를 기다렸기 때문인데, 이제 중일 전쟁도 끝나버려 어디를 둘러봐도 좀처럼 죽을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한숨을 내쉬며 나를 향해 “도쿄 사건 같은 계획이 있다면 저를 써주십시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왜노들은 이번 상하이 싸움에서 이긴 것으로 대단히 의기양양하여 오는 4월 29일에는 흥커우 공원에서 놈들의 이른바 『천장절』 축하식을 성대하게 거행할 듯하니, 그때 한 가지 큰 목적을 이루도록 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그 행동 계획에 대해 말했다.

내 말을 듣자 윤 군은 “합시다!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부디 준비를 해 주십시오”라며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4월 29일도 점점 다가왔다. ...어느 날 윤 군이 흥커우에 다녀와 “오늘은 시라카와 녀석도 식장 준비를 하는 곳에 와 있었어요. 그것도 제 바로 옆에 와서 멈춰 섰습니다. 제가 폭탄을 들고 갔더라면 그때 해버렸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오후 1시경에야 겨우 중국인들의 입에 “흥커우 공원에서 누군가 폭탄을 던져서 일본인이 많이 죽었다더라”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드디어 신문 호외가 “흥커우 공원에서 일본인 천장절 축하식 단상에 대량의 폭탄이 터져, 민단장 가와바타는 즉사, 시라카와 대장, 시게미쓰 대사, 노무라 중장 등 문무대관 다수가 중상”이라 전했다.

이 사건이 터지자 은주부(殷鑄夫), 주경란(朱慶蘭) 등 중국 명사들이 나에게 특별 면회를 청했고, 남경에 있던 남파 박찬익 형의 활동도 있어 물질적으로도 지원이 쇄도했다. ‘만주사변’, 만보산 사건 등으로 악화됐던 중국인의 우리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윤봉길 의사의 희생 덕분에 크게 호전된 것이었다.

68) 『아키타 우자쿠 일기』, 『우자쿠 자서전』 이시카와현립도서관

『아키타 우자쿠 일기』(1932년)

1932년 1월 8일

또 맑음. 조선인이 행렬에 폭탄을 던져 이누카이(犬養) 내각이 전원 사직했다. 대명(大命)이 다시 내려올 듯하다. (폭탄사건으로 신문이 발각뒤집혔다.)

1932년 1월 9일

폭탄 사건으로 일단 사직한 이누카이 내각은 대명이 다시 내려와 유지하게 된 모양이다.

1932년 4월 29일

오후, 상하이의 천장절 축하 식장에서 ‘기미가요’ 두 번째 합창 때에 단상 뒤에서 폭탄을 던진 자가 있어 시라카와, 우에다, 노무라, 시게미쓰, 민단 대표자들이 중상. (관병식인 듯하다. 비행기가 날고 있다. 상하이 폭탄 사건)³⁷⁾

1932년 4월 30일

온갖 신문들이 어제 일로 가득하다. 시라카와 장군은 안면에 부상, 노무라 해군 중장은 한 눈을 잃은 것 같다. 시게미쓰 공사도 출혈이 많다. 민단장은 가장 심각하다. 상하이인들이 받은 인상은 큰 듯하다. 상하이도 만주도 점점 미궁에 빠질 뿐이다. 불합리한 활동은 그 불합리성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가와바타라는 민단장은 사망했고, 노무라 중장은 실명한 듯하다.

『우자쿠 자서전』(1953년) 180P~

4월 29일, 천장절, 상하이의 천장절 축하 식장에서 ‘기미가요’ 두 번째 합창 때에 단상 뒤에서 폭탄이 날아와 시라카와, 우에다, 노무라 장군, 시게미쓰 공사 및 가와바타 민단장이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양심적인 일본 민중에게 깊은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준 것 같다고 나는 생각했다.

37) 본문에는 오후라고 적혀 있으나 실제로 폭탄을 던진 시간은 오전 11시 40분 즈음이다.

올해의 노동절은… 파시즘 시대의 첫 노동절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었다. …참가 인원은 작년보다 오히려 많아, 1만 3천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70) <<憲兵祕錄>> (쓰노다 츠시치로 저 1856년 발행) 178p~ (홋카이도 도립 도서관)

상하이폭탄사건

기미가요의 노래가 2번, 곧 끝나려고 할 때였다. 회장의 분위기는 엄숙했다. 그 때, 구경꾼의 군중 사이에서 한 장정이 뛰어 들어 식단의 뒤에 있는 경계선을 돌파했으나 생각했을 때 단상을 향해 무엇인가를 던졌다. 그것은 단상에서 시게미쓰 공사의 뒤에 떨어져 쉬이, 쉬이, 싹! 하고 연기를 내고 있었다. 그렇지만 공사들은 태연하게 기미가요를 계속 부르고 있었다. 누군가가 “폭탄이다!” 라고 소리쳤다. 다음 순간, 굉음! 폭탄이 파열되었다. 단상의 사람들 - 시게미쓰공사는 바로 왼쪽에 있는 노무라 기치사부로 함대사령장관, 오른쪽에 있는 시라카와 요시노리 군사령관, 시라카와의 오른쪽에 있는 우에다 겐키치 사단장이 일제히 쓰러졌다. 폭탄 투척 방향의 바로 정면에 있던 시라카와 군사령관은 가장 중태에 빠졌다. 시게미쓰 공사와 우에다 사단장은 다리를, 노무라 사령장관은 눈을 당했다. 이 외에도 단상 위에 있던 무라이 총영사, 가와바타 민단행정위원장, 토모노 민단 서기장 총 7인이 전부 부상을 입었다. 파편은 식단의 후방에도 흩날려 관중의 사이에서도 부상자가 나왔다. 그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엄숙했던 축하회장은 한 순간 야수라장으로 변했다. 만주사변 발발 이듬해 쇼와 7년(1932년) 4월 29일 상하이에서의 천장절 축하회장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장소는 상하이의 훙커우 공원이다. 원래 상하이의 시외는 3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중략) 신공원의 관리단은 공동조계의 공부국工部局³⁸⁾(시청)에 있다. 그래서 신공원은 국제적인 공원이고 일본거류민단이 그날 천장절 축하회를 시행한 때에는, 민단이 공부국에 신청하고 공원을 빌린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공원의 경계는 보통이라면 공부국경찰이 시행하겠지만 그날은 일본거류민단이 주최자이기 때문에 일본의 영사관경찰이 제일의 책임자가 된 것이다. 게다가 공원부근의 일본군 군사행동구역은 일본해군의 수병이 경계하고 조계 이외 지역은 일본 육군이 경비하고 있었다. 그 외에 육군의 군사령부에는 위병衛兵이 있었다. 그들은 주로 군사령관의 호위를 맡았다. 그 위병은 보병과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병은 말을 타고 경계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본헌병이 파견된 상태라 (공원을 경계하는 군사의) 수가 적었다. 대체로 이런 형태로 식장부근의 경계경비는 지극히 복잡했다.

당일 식단式壇의 후방에는 일본영사관경찰과 헌병, 그리고 군사령부의 위병이 있었다. 식단의 높이는 약 2미터 / 폭 5.6미터 / 깊이 2, 3미터로 그 위치는 식장의 북단(北端, 북쪽 끝)에 있었다.

상하이 파견군 헌병대장은 오기네(타케노스케) 중좌였으나 당일은 제1분대장 마세 (칸파치) 소좌이하 제일분대의 전원 20명과 다른 분대의 지원자를 더하여 경계를 맡겼다. 당일 근무했던 모리요 조장은 침착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헌병이 된 이후로 이미 수십년 경비에 관해서도 상당한 경험이 있었다. 축하회의 준비에는 관계하지 않았으나 동일한 날에 신공원을 중심으로

38) 중국 상하이에 있던 공동조계의 행정기관

하는 길가에서 시행한 육군관병식과 그 천장절 축하회와의 경계를 명받았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관병식은 많은 군사 지휘관이 우에다 중장에서 시라카와 군사령관이 관계자로 되어 십일시 경에 지체 없이 끝났다. 무리요는 계속해서 십일시 삼십분부터 시작한 천장절 축하회장 경계를 위해 서둘러 공원의 식당에 다다랐다. 관중은 이미 잇따라 장내에 몰려들었다. 식당에 진입해 그것을 한눈에 봤을 때 무리요는 직감했다.

‘식단의 위치가 좋지 않다. 북쪽 끝에 치우쳐 관중으로부터 얼마간이라도 떨어져있지 않다. 오늘 모인 사람은 대부분 일본인이겠지만 일본인이 있다고 해도 조선인도 대만인도 있다. 특히 상하이에는 일본정부에 불만이 있는 조선인이 많다. 조선의 독립정부도 있다. 군중 사이에도 그러한 인종이 들어와 있어서 혹시 이 단상 위의 요인要人들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쉬울 것이다. 충분히 경계를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가 필수다. 이 거리는 기껏 십오 미터도 안 되어 어떻게 해서라도 최소한 이십 미터는 되어야 군중 사이에서 목숨을 걸고 돌진할 사람을 도중에 제지가 가능하다.’

이 무리요의 불안은 그대로 관중은 계속해서 밀어닥쳤고 앞줄은 점점 앞으로 밀려 왔다. 관중의 선에는 울타리는 물론, 줄도 묶여있지 않았다. 무리요는 다른 헌병이나 일본경찰과 협력하여 이것을 원래의 줄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으나 대중의 힘은 어떻게 해도 안되는 것이었다. 그 사이 식은 시작되었다. 관중은 조용해 졌으나 그때 이미 관중과 식단의 거리는 최초의 반 분 정도에 그쳐있었다. 무리요는 안절부절 못했다. 한 눈에 본 바로는 관중의 복장이나 휴대 품에 의심스러운 것은 없으나 실제로는 하나하나 만져서 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것이다. 흉악한 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보통의 수단을 쓰지 않아도, 예를 들어 알루미늄의 도시락통으로 국민 폭탄을 던질지도 모른다. 혹은 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외투를 이중으로 입는다면 안에 있는 주머니에 삼 정, 사 정, 총을 가지는 것도 가능하다. 총을 가진 놈이 다가 온다면 간파하여도 빠가 부서진다.

무리요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상상해 보았다. 이미 식은 끝에 가까워졌고, 기미가요의 합창이 시작되어 왔다. (중략)

무리요가 대중과 함께 기미가요를 부르는 바로 그때, 매우 빠른 기세로 뛰어 드는 한 사나이가 있었다. 무리요는 깜짝 놀랐다. 내가 이것을 막으려고 한다고 해도 저 흉악범은 이미 식단에 다다를 것이다. 무리요가 그를 막으려 달려들 때와 장정이 무언가를 단상에 던지려고 할 때는 거의 동시였다. 불문곡직不問曲直하고 그를 체포할 때 폭음이 울렸다. 하지만 나머지 식단의 아래에 가까웠으나 발사방향과 반대로 있던 까닭일까, 범인도 무리요도 부상을 하나도 입지 않았다. 게다가 일본경관과 일본해병이 체포에 협력했다. 흉악범은 양복 위에 외피를 입고 있었다. 일본어로 말하나 조선 어투가 있었다.

범인은 곧 상하이파견군헌병대에 수용되었다. 취조에 따르면 그는 윤봉길이라 하고, 조선의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39번지를 본적으로 하는 조선인으로 상하이 프랑스 조계 패특로 동방공우 30호에 살면서 특별히 말할 만한 직업도 없는 이십 오세의 청년이었다.

윤군은 수년 전부터 조선이 일본의 통치하에 있는 것에 불만으로, 조선민족을 위하여 그 독립을 회복하는 것을 희망하였다. 조선독립운동에 참가하는 목적으로 고향을 떠나 쇼와 6년(1931년) 5월 상하이에 도착하여 프랑스 조계에 거주하고 대한교민단장 김구와 그 이후로 관계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쇼와 7년(1932년) 4월 중순 김구로부터 “프랑스 조계 마랑로 사해다관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와라.”라고 알림이 왔다. 가보니, 김구가 “이번 달 29일에 신공원에서 일본의 천장절 축하회가 있다. 그 때에 물론 일본군의 수뇌들이 참가할 것임이 틀림없다. 자네 이 기회에 시

라카와 대장이나 우에다 중장을 해보지 않겠는가?” 라고, 말을 걸었다. 윤은 조금 생각해본 뒤, 조선독립의 염원을 위한 반석이 되는 것도 명예라고 생각이 들었다.

윤이 두 번의 대답으로 일을 승낙했고, 김은 준비한 중국지폐 90불과 수통형에 도시락형 의 수류탄 각 1개를 윤에게 주었다.

윤은 당일 아침 일찍 신공원으로 다다랐다. 폭탄장치를 한 수통을 어깨에 매고, 동일하게 알루미늄 도시락 모양의 폭탄을 보자기에 싸고 공원의 입구에 왔다. 입구에는 공동조계의 경관이 있었다. 하나하나 입장하는 사람을 점검하고 있었다. 윤은 가능한 한 일본인 경관을 피하려고 생각했다. 아주 다행히 인도인(피고인 신문조서 상에는 중국인 문지기로 誤記로 보임) 경관이 있어서 그 앞으로 갔다. 경관은 윤을 점검하려고 했다. 바로 그때, 그는 “나는 일본인이다!”라고 확실히 일본어로 말했다. 그것을 듣고 인도인 경관은 “좋아요, 좋아요”라고 말하여 금방 통과했다. 어깨에 맨 수통도 보자기에 싣 도시락도 외견상으로는 전혀 의심스러운 점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을 손에 들고 본다면 그 무게로 반드시 의심이 들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외견을 보는 것만으로는 누구도 의심치 않았을 것이다. 그는 어렵지 않게 제1의 관문을 돌파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리고 평온한 얼굴로 일반거류민이 섞이는, 맨 처음엔 식당의 중앙 가까이 갔으나 수뇌부가 설 예정인 식단이 있는 북쪽의 가장자리 가까이로 갔다. 거기서 식단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곳, 최전선에 위치하였다.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수통과 도시락 통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오전 십일시 사십분, 단상에 사람이 올랐다. 시라카와 대장도 있었다. 우에다 중장도 있었다. 모두 육군의 군복을 입은 까닭에 윤도 곧 알아차렸다. 목표한 인물을 눈앞에 보며 윤의 가슴은 저절로 뛰었다. 곧 도모노 민단서기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식은 엄숙하게 열렸다. 주변은 정숙했다. 다음으로 가와바타 행정위원장이 단상의 마이크 앞에 나와 개회의 말을 내뱉었다. 그다음 무라이 총영사가 축사를 낭독했다. 식은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그다음 무라이 해군 군악대의 연주가 어우러져 기미가요의 합창이 시작되었다. 윤은 기미가요의 합창까지에도 여러 번 기회를 보았으나 지나치게 정숙한 탓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곧바로 알아차릴 것 같아 좀처럼 시행에 옮기질 못했다. 윤은 기미가요를 들으며 그는 ‘이것이 끝나면 다음은 만세 삼창만 남는다. 이 시간에 다다르면 짧다. 우물쭈물하면 식이 끝난다. 그렇게 되면 만사가 허사가 된다!’ 초조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기미가요가 되자 경계하는 헌병도 일본인 헌병도 둔해졌고 식단 방향을 향해서 제창을 하고 있었다. 기미가요가 끝나가면서 조그마한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와중에도 합창은 점점 진행되어 갔다. 그는 이 기회에 자신의 마음을 편달鞭撻했다. 우선 들고 있던 도시락의 보자기를 발 언저리에 놓았다. 그 다음 어깨에 맨 수통을 꺼냈다. 그리고 과감히 결심하고 세계 던졌다. 그것은 수통의 수류탄 점화였다. 불이 붙었다. 그것을 본 그는 관중을 벗어나 뜨거운 마음으로 쏠살같이 돌진했다. 자신이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 등은 조금도 생각할 수 없었다. 전부 무아몽중無我夢中이었다.³⁹⁾ 식단의 아래까지 다다르고 단상의 시라카와 대장을 노리며 있는 힘껏 던진 것이다.

오월 1일, 윤은 상하이파견군법회의에 송치되어 군사법회의에 따라 심리한 결과 동월 25일 윤은 사형, 도시락형 수류탄은 그것을 몰수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39) 자기를 모르고 꿈속에 있는 것 같다는 뜻으로, 마음이 외곱으로 쏠리거나 낮을 잃어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는 지경을 이르는 말.

72) <<제9사단전쟁사>> (1956년 발행) 115p~116p

4 정전停戰 및 복원復員⁴⁰⁾

5월 5일, 중일 정전 협정이 성립되었다. 이것보다 이른 4월 29일 천황 탄신일의 명절을 맞이하여 관병식을 시행한 후 흥커우 공원에 관민합동의 축하회가 개최되었으나 그 행사에서 한 조선인이 식대에 던진 폭탄에 의해 시라카와 군사령관, 노무라 사령장관, 우에다 사단장, 시게미쓰 공사 및 무라이 총영사관 등이 전부 심한 상해를 입은 불상사(시라카와 대장은 머지않아 서거)가 발생한 것으로 상하이 사변의 종국을 장식한 것은 전부 탐탁지 않은 비극인 것이다.

(중략) 폭탄에 의해 왼쪽 다리를 붉게 피를 흘리며 매우 당황한 와중에도 장병에게 “대단한 부상인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조치(치료)를 빨리 해라”라고 일어서면서 천천히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것을 본 장병은 비로소 자신의 동요를 금세 가라앉혔다. (중략)

동연 우에다 사단장은 왼쪽 다리 절단의 증상을 입게 되었던 것이다.

92) <순국 의사, 윤봉길의 최후> (오토 히로시 '액터스' 2003년 12월호) 이시카와현립도서관

가나자와 전(全) 시에 엄중한 비상선이 쳐지는 긴박한 사태는 토요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날 1932년 12월 17일 오전 10시, 이례적인 사단 명령이 가나자와 보병 제7연대와 동(同) 공병 제9대대에 하달되었다. 두 부대는 대대장인 오치 사부로(越智三郎) 소령과 다케바야시 타카오(竹林貴雄) 소령이 각각 부관을 동행, 법무부의 네모토 소타로 대령으로부터 아라마키 요시카츠(荒蒔義勝) 사단장이 서명한 사단 명령을 받는다. 내용은 군 문서에 붓으로 작성한 상세 지시로, 전문은 몇 줄에 걸친 다음과 같은 서두였다.

앞서 상하이 폭탄 사건의 단독범 · 조선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 무직 평민 · 윤봉길(25)의 총살형을 19일 오전 7시 이시카와군 우치카와무라 육군 작업장에서 집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명한다.

보병 제7연대는 19일 자정, 극비로 비상 소집을 발령, 장교 1명의 지휘하에 2개 분대 선발, 하사 18명의 사수로 구성하여 형장에 파견, 집행에 임해야 한다.⁴¹⁾

공병 제9대대는 18일 정오, 1개 분대의 하사를 형장에 파견, 별도 지시에 따라 형틀을 정해진 자리에 만들고, 입회인의 천막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19일 오전 5시 1개 분대의 하사를 형장에 파견해 지시하는 위치에 처형자 시신을 매몰해야 한다.

네모토 법무부 대령은 30분 정도 시간을 들여 상세히 이어지는 명령서를 낭독, ...석상, 상호 확인한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처형에 관련한 장교, 병졸은 이에 관해 이후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
2. 형틀은 삼촌각 편백나무 기둥에 3척의 나무를 가로로 댄 십자형으로, 땅속에 3척을 묻는다. 형틀 앞에 멍석을 깔고 처형수를 앉히고, 처형이 끝나면 멍석에 눕혀 묘지로 옮긴다.
3. 유해 매장 장소는 육군묘지 변두리의 오목한 땅으로 하고, 지하 2척 깊이에 표주를 세운다.
4. 사수인 병졸은 9명이 서서 사격하고, 하사 2명을 포함한 10명은 실탄, 8명은 협착탄을

40) 동원된 인력을 원래 상태로 되돌림

41) <<윤봉길 사형집행 전말보고>> (九師密 제20호, 1932년 12월 21일)에 따르면 사수는 2명이었다. 다만, 집행 당일 헌병의 단속 경계, 사격 형장 내외의 경계를 맡은 인원은 18명이다.

일제 사격한다.

5. 총격은 보병, 설영은 공병이 하고, 모든 것은 비밀리에 행하여 다른 사람을 가까이하지 않는다. 35명의 장병에게 각각 60전, 70전, 1엔, 1엔 80전의 특별 가봉을 지급한다.

(생략) 7연대는 이가라시 보우키치(五十嵐房吉) 연대장을 중심으로 대응을 가다듬고, 처형을 지휘하는 장교는 제1대대 제3중대 제1소대의 니시노 쓰네오(西野恒夫) 중위를 결정, 즉시 니시노 중위를 연대본부로 불러 상세 준비를 정비한다.

(생략) 그리고 오후 4시까지에 걸쳐 오가타(尾形) 준위를 섞어 각무 중대장의 의견을 들으면 서, 2개 분대 18명의 하사를 뽑는다.

제1반은 나카노 요시사부로(中野吉三郎) 군조 이하 무코다 마사키치(向田孫吉), 사카이 순지(酒井俊二), 아다치 다로스케(足立太郎助), 미치시타 야스시(道下靖), 기무라 고이치(木村幸一), 아사노 히코타로(浅野彦太郎), 사이토 토시아키(斎藤敏明), 고미야 타츠헤이(小宮達平) 각 상등병. 제2반은 요코이 소토요시(横井外吉) 중사 이하, 오타니 사시치(大谷佐七), 다카기 스테오(高木捨雄), 사사키 모토(佐々木元), 후카야마 마사타케(深山昌武), 하시다 토모아키(橋田友明), 고쿠다 코스케(御供田貢介), 닛타 요시후미(新田嘉文), 아라이 요시오(荒井義雄) 각 상등병. 선정을 저녁때까지 마치고 각각 본인의 양해를 받고 전원 대기한다.

공병 대대에서는 야나가와(柳川) 소위 이하, 쓰노다 료헤이(角田良平) 군소 등 2개 분대 병사들로 이루어진 작업반을 편성한다. 노다데라쵸(野田寺町)의 막사에서 새로운 재료로 형틀을 제작, 일요일에 처형장에 설치하고 이어 입회관 참석용 천막을 두 개 세우고 접이식 의자 20개를 나른다. 유해를 매장할 묘지 변두리에 구멍을 파, 모든 준비를 마쳤다.

(생략) 군부의 명령 하달을 끝낸 사단 법무부는 현 경찰 본부를 통해 17일 오후, 헌병 분대의 스와(諏訪) 분대장으로부터 이번 육군 군법회의와 관련된 총살형의 집행과 전후 환경 경계에 대해 사단 사령부에서 협의하여, 경찰부, 특고와, 검사국, 히로사카, 다마가와 경찰서 간부를 한자리에 모아,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월요일에 걸친 시중 경계의 설명을 하였다. 동시에 사복 헌병이 형장 가까이 미쓰코지야마, 히라구리, 나가사카와 노다데라마치 일대의 대표를 방문해, 18일 밤부터 19일 오전 중까지, 일절 외출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 외출이 필요할 경우는 구장의 증명을 제시해, 비상선을 치는 헌병에게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18일의 일요일은 맑음. 처형수는 구깃구깃한 양복차림에 갈색 증절모, 레인 코트를 입은 양팔에 수갑이 채워져, 시모우라(下浦) 헌병 준위와 두 명의 하사관 헌병에 둘러싸여, 오사카 형무소를 뒤로 하고 급행열차의 이등 차량에 타, 마이하라 경유로 호쿠리쿠선을 이용해 가나자와로 향한다. 역마다 헌병이 모습을 드러내 일행을 확인하는 삼엄한 경계였다. 따로 이소하타(磯畑)라는 통역 철도원이 합류해, 도시락과 차를 준비해 준다. 동행하는 오사카 법무관·미야이 산페이 중령은 차량의 떨어진 자리에 앉았고, 도야마행 12량 편성의 급행은 한 길로 동쪽으로만 달린다.

열차는 제9사단의 지시로 가나자와역 이전인 니시가나자와에서 임시 정차, 오사카에서 같이 온 일행 6명이 낡은 시골역에 내린다. 때는 오후 5시 29분. 이어 세 대의 차를 몰고 시의 중심, 가나자와성의 법무부 구금소로 향하는 것이었다.

(생략) 그 무렵, 사단 법무부, 니시마치의 헌병대, 헌경 특고, 시(市) 경찰서는 불면불휴(不眠不休)의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대략 천 명이 동원되어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하였다. (생략) 미쓰코지야마 육군 작업장의 처형 준비는 공병 분대의 손으로 모두

완료, 황야의 한가운데에 두동의 천막 막장이 세워졌다. 북쪽의 잡목림을 등지고 새 나무향이 나는 형틀이 세워지고, 골짜기의 노무라 연병장에서 긴 오르막길에 걸쳐 헌병둔소가 생겨 밤 길을 걷는 행인이 카키색 사람들의 검문을 받았다.

(생략) 처형수를 태운 차를 사이에 두고 7대의 군용차가 히로사카, 가타마치, 사이카와 대교, 데라마치, 주이치야, 노무라, 육군묘지 통로를 달렸다. 서리가 내린 황야는 동이 트기 시작하더니 금세 밝아졌다. 스와 헌병 분대장은 입회하는 사람들을 중앙의 천막 장소로 안내했고 모두 정해진 자리에 앉았다. (생략) 네모토 법무부 대령, 미야이 오사카 법무관, 사토 검사정, 핫타 경찰 부장, 노무라 특고 과장, 이가라시 제7연대장, 스즈키 검찰관, 히로사카, 다마가와 경찰서장, 세가와 일등 군의 등이 (생략) 기다렸다.

(생략) 니시노 중위 이하, 18명의 7연대 병사가 형틀의 멍석 앞에 9명씩 늘어서, 무언으로 38식 보병총에 탄환을 장전, 조용히 안전 장치를 풀었다. (생략) 처형수는 검은 형모를 쓰고 양복 차림으로 기둥에 묶이고, 무릎을 꿇고 형틀을 등에 대고 앉았다. (생략) 세가와 군의가 검시, 절명을 확인하고 헌병에게 신호하여 모든 처형이 완료되었다. 때는 오전 7시 40분. (일부 가명)

97) 『일본반제동맹사 연구』(이노우에 마나부 저 2008년 발행) 219P~ 후쿠이현립도서관

제5장 제2절 (3) 이봉창과 윤봉길

1월 8일 육군 관병식에서 귀로에 있던 일왕 일행이 사쿠라다몬 밖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수투탄(手投彈) 같은 것'이 던져졌다. '범인'은 경관, 헌병에게 '포박'되어 '인치, 조사 중'인데, '조선 경성 출생, 일명 천산정일(淺山正一) 토공 이봉창(당시 32세)'라고 보도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반제(反帝)신문> 제14호 (32.1.29)는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진범은 파쇼"라 주장했다. 반제신문이 꼽은 논거는 "이봉창은 헌병의 명함을 사용했고, 던진 폭탄은 일본 군대에만 있는 수류탄"이라는 것이며, "조선 노동자 농민은 결코 조직에서 동떨어진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반제신문'이 "사건의 배후에는 파쇼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 것은 '놈들'이 '조선인 토공이니 사상관계니 하는 마치 공산주의의 음모인 것처럼 꾸며 이를 빌미로 조선의 형제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며 '사건을 배외주의의 선동에 이용'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박춘금의 상애회(相愛會) 일파'가 '조선인 중에 걸리는 무분별한 자를 낸 것은 죄송하다'고 '이중교 앞에 늘어선 '기만'에 단호히 '대항'하기 위해서였다.

...『적기』 제62호 (32.1.21)에 게재된 이나가키 고조(稲垣耕造)의 글 '반동정치의 강화와 싸우자'는 "지난 9일의 이른바 『불경사건』은 결단코 범인 이모의 개인적 『음모』가 아니다. 그것은 파시스트 단체의 사주에 의한 극히 계획적인 음모이다"라고 두 페이지에 걸쳐 기술하였다.

...『제2무신』제85호 (32.1.14)는 '조선 노동자 수투탄을 던지다, 일왕주의자 주장 낭패'를 게재하고... 즉 '9일 오전 11시 일왕 행렬에 사쿠라다몬 밖 경시청 앞에서 조선 노동자 이봉창 군은 수투탄을 투척'했다. '값은 유약함, 극도의 착취에 허덕이는 조선민족이 원통에 불타올라 행동에 나선 것은 천황 자본가 지주 스스로가 획득한 징벌'이다.

『적기』제97호 (32.9.20)는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조선의 민족혁명가, 공개금지로 사형을 구형한다.'를 신고, '지난 17일 '암흑의 법정'이 '조선 토목 노동자 이봉창 군'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일본 천황제의 조선 민족에 대한 민족적 편견과 학대, 야만적 식민지 억압이야말로 이 군으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며 '자기희생적 헌신적 열정은 조선민족혁명

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 조선 노동자 농민들은 공동으로 이 민족혁명가에 대한 사형 반대에 나서 즉각 무죄 석방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봉창 사건'으로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난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흥커우 공원의 '천장절 검 전승' 축하 식전에서 시라카와 요시노리 상하이 파견군 최고사령관 등 7명의 '주빈들이 늘어선 단상' 위를 향해 윤봉길이 폭탄을 투척했다. 김구가 조직한 '한인 애국단'이 '이봉창의 사쿠라다몬 사건'에 이어 실행한 '대적 암살, 파괴' 행동이었다.

윤봉길은 체포되어 5월 25일 상하이 파견군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11월 20일 일본으로 이송되어 오사카 육군 위수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신문기자 무리'가 '엄청난 취재 경쟁'을 벌였다.

일본 반제동맹 오사카 지방위원회는 '상하이 폭탄범 윤봉길이 11월 20일 오사카로 호송되어 육군 형무소에 수용되어 있는데, 본 건에 관해 『조선인이 낳은 반제국주의자 윤봉길의 총살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치자』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각 방면에 배포했다 (『사회운동 상황』 1932년)

'이봉창 사건'에 대한 『반제신문』의 대응과는 다른 오사카 지방위원회의 항의 행동은 주목 받았으나, '반제신문'에서는 관련 보도를 찾지 못해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 윤봉길이 이송, 수감된 것이 오사카였다는 사정 외에 일본 반제동맹 오사카 지방위원회가 조선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활동했다는 것이 이러한 행동을 가능하게 한 요건이라 생각된다...

윤봉길은 오사카의 육군형무소에 한 달간 구치되어 12월 18일 새벽 오사카역을 출발한 열차로 가나자와 제9사단 사령부로 '호송'되었다가 다음날 12월 19일 총살형에 처해졌다.

101) <윤봉길의사 처형지의 조사보고> (2010. 12 윤봉길 의사 처형지조사팀 김승권)

1) 조사의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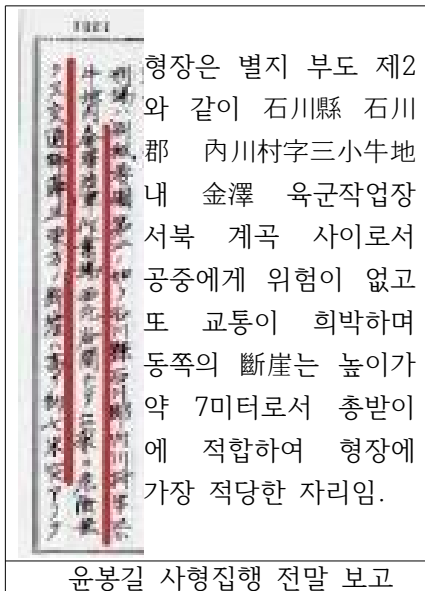
1946년 3월 윤봉길 의사의 유해가 발굴된 이후 처형장소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 '윤봉길과 천장절 사건 시말기' (하라카라 통신)에서는 미쓰고지 작업장 내 이오우젠(医王山)을 멀리 하는 '동남 쪽 높은 언덕(東南高台)'가 처형장으로 제시되어 왔는데, 그 근거는 1932년 12

월 20일자 '키타쿠니신문'에 실린 '처형장 사진'과 1946년 3월 발굴 직후 시신 수색대가 찍은 기념사진이다.

윤봉길 의사 처형에 관한 여러 <군보고문서>안에 처형장소에 대한 보고와 약도, 사진이 있으며, 최소한 1932년 8월경부터 제9사단(가나자와)에서 윤봉길 의사 처형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고, 미쓰고지 육군 공병 작업장 내 <서북쪽 계곡>의 <가나자와-오하라 사이 산중 도로의 동방>이 '교통이 적고', '공개될 위험이 없는 곳', '동쪽에 7m 높이의 절벽이 있어 총탄 차단에 적절한 곳'으로써 처형지에 적절한 장소가 지정되었다.

2008년 봄, SBS가 윤봉길 처형지 조사를 벌였다. 우리는 이 방송 프로그램을 보지 못한 채 2010년 4월부터 처형 장소에 관한 <문서> <약도> <사진>을 검토하고 지도를 수집하여 지역 주민의 협조를 얻어 <서북쪽 계곡>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2) 서북쪽 계곡의 검사



<사형집행 시말서(검찰비록)> <윤봉길 사형집행 전말보고(구사단 기밀九師密 20)> <상하이 폭탄범 사형수 윤봉길 사형집행 및 헌병의 경계에 관한 보고(헌병중요기밀憲高秘 1820)> <상하이 폭탄범 사형수 윤봉길 사형집행에 관한 보고통첩(金憲高秘 522)> 등에 따르면 처형장소를 미쓰고지 육군 공병작업장인 서북쪽 계곡 동쪽으로 7m 높이의 절벽이 가나자와-오하라 사이의 산중도로의 동쪽이라고 하고 약도 3장이 첨부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를 원자료로 하여 1956년 등고선 지도, 1962년 항공 사진, 2002년 지도를 검증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① 1956년 지도의 검사

미쓰고지 주변 지도는 1889년 등고선 지도부터 현재 것까지 수십 종류이지만 1932년 당시 지형에 가장 가깝고 알기 쉬운 지도는 1956년 등고선 지도(3,000분의 1), 1962년 항공사진(10,000분의 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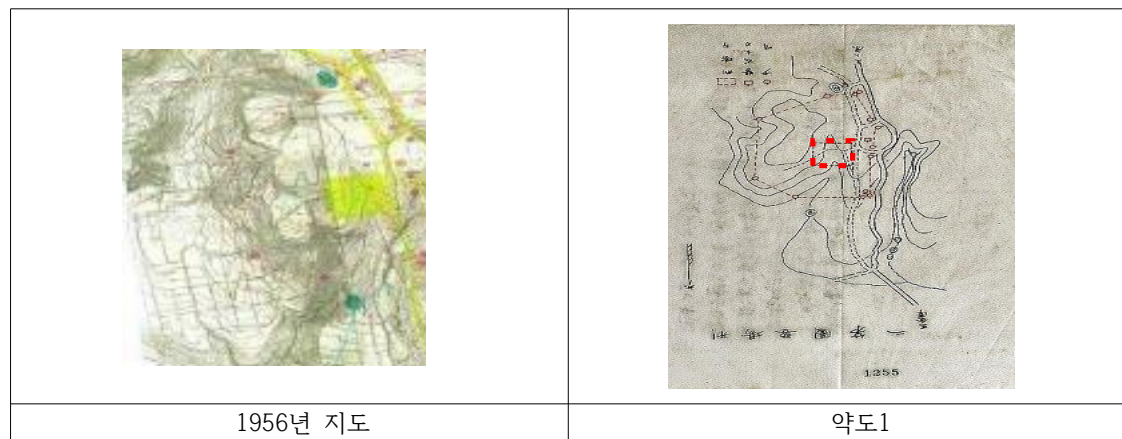
현재의 '서북쪽 골짜기'는 1975년 농지정비를 통해 산을 깎고 계곡을 메우고, 북쪽은 해발 100m, 남쪽은 140m 정도로 평준화되어 완만한 밭농지로 북에서 남쪽을 향해 작곡천을 따라 오르막길이 일직선으로 뻗어 있다.



② <약도 1>과 1956년 지도의 비교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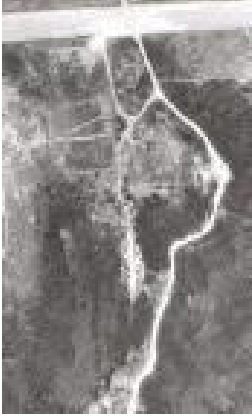
보고서에 첨부된 <약도 1>에도 서쪽부터 스즈메 다니가와雀谷川(육군정수지), 2개의 도로, 中尾山川이 그려져 있어 1956년 지도와 완전히 일치한다.

<약도1>에 그려진 처형장소(점선사각 내)는 능선 위에 도로의 동쪽에서 中尾山川⁴²⁾을 걸쳐 있는 곳으로 1956년 지도상에서는 세로로 '大桑町오쿠와마치'라고 쓰여 있는 문자 주변에 해당한다.



42) 中尾山川의 상류는 비가 내리면 개울이 될 정도의 좁은 골짜기이다.

③ <전경사진>과의 비교검사



| | |
|---|--|
|  |  |
| <p>보고서 사진</p> | <p>1962년 항공사진</p> |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처형장 주변의 식생은 잡초지(조릿대나무 숲)이다. 군데군데 팔뚝만한 굵기의 관목이 나 있지만 드문드문하여 숲이라 할 만한 곳은 아니다.

1962년 항공사진을 보면 中尾山川 하류부분(북쪽)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는데 상류(남쪽)는 회백색으로 되어 있으며 낮은 잡초지(조릿대나무 숲)가 펼쳐져 있다. 1956년 지도에는 中尾山川 주변은 활엽수, 침엽수, 잡초지의 기호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사진, 약도, 1956년 지도, 1962년 항공 사진을 검토하면 ,처형지는 1956년 지도의 中尾山川을 따라 ‘大桑町오쿠와마치’의 ‘桑’자가 있는 곳이며 1962년 항공 사진에서는 회백색으로 찍힌 곳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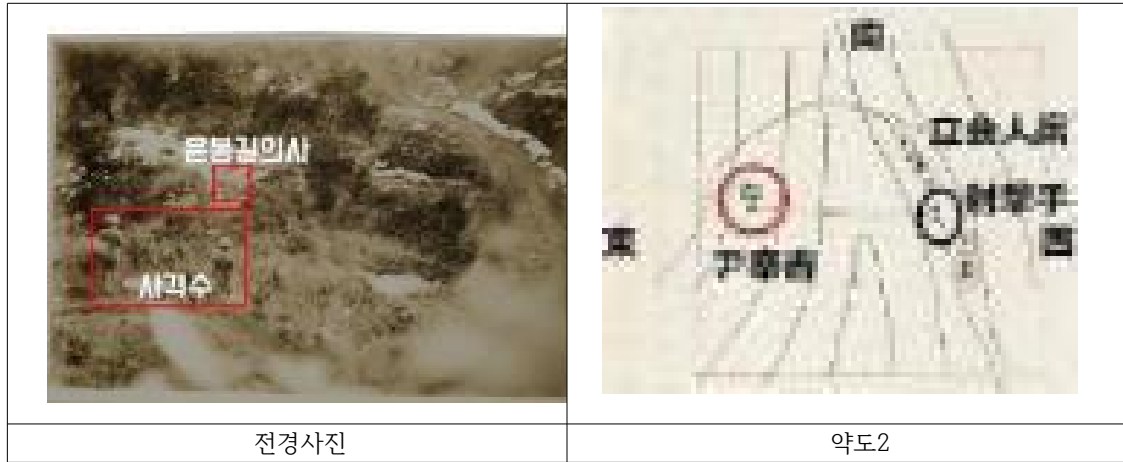
④ 1956년 지도와 2002년 지도와의 비교검사

| | |
|---|--|
|  |  |
| <p>1956년 지도</p> | <p>2002년 지도</p> |

2002년 지도를 보면 <활주로(1956년 건설)>, <기본사격장(1974년 건설)>와 그 후에 건설된 경비도로에 의해 中尾山川의 상류부분이 매립되었고 1956년 지도상 ‘大桑町오쿠와마치’의 ‘桑’자가 있는 곳부터 ‘町’의 글자가 있는 주변의 지형이 상당히 변형되었다.

2002년 지도상의 中尾山川과 '경비도로'의 교차로가 1956년 등고선 지도상의 '桑' 글자 부근으로, 1962년 항공사진의 회백색 부분에 해당한다.

⑤ <전경사진>과 <약도2>과의 비교검사



카메라는 운봉길 의사나 경비 헌병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 내려다보듯 보인다. 카메라보다 낮은 위치에 헌병과 사격수의 위치가 있고, 구덩이(中尾山川)를 사이에 두고 운봉길 의사가 앉아 있다. 운봉길 의사의 뒤쪽(동방)은 수 미터의 낭떠러지로 되어 있다. 주변은 조릿대나무 같은 잡초지이다. 사진에는 운봉길 의사로부터 15~20m 정도 남쪽을 향해 오르막길이며 찍혀 있다.

'약도 2'에는 남북의 가는 선(점선) 위에 사격수가 배치되어 있고, 운봉길 의사의 남쪽을 동서 방향으로 가는 선(점선)이 그려져 있다. '약도2'의 가는 선(점선)과 '전경사진' 우측(남측)에 있는 '오르막길 도로'는 일치한다.

1956년 지도에도 이 中尾山川 상류부분에 '오르막길 도로'의 일부로 보이는 동서로 가는 선이 그려져 있고, 1962년 항공사진의 회백색 부분에서도 길로 보이는 하얀 줄기를 여러 줄 볼 수 있다.

⑥ 현지조사

2010년 11월 하순에 수회에 걸쳐 현지 주민과 함께, 미쓰고지 작업장(서북골짜기)을 시찰했다.

'경비도로'는 中尾山川이 흐르는 계곡(폭 10m)에 토관土管을 매설埋設하고 흙더미를 만들어 놓았다. 中尾山川과 '경비도로'의 교차로에서 남쪽(상류)을 보면 '기본 사격장' 건설을 통해 골짜기(원류)를 메워 놓았다. 계곡의 동서 양쪽은 수 미터 높이의 절벽으로 되어 있다.

中尾山川과 '경비도로' 교차로에서 북쪽(하류)을 보면 깊은 골짜기를 이루고 있다. 이 골짜기에 내려가 보면 가느다란 물줄기(中尾山川의 원류)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 토사 유출 방토풀土가 설치돼 있다. 방토의 동쪽은 수 미터의 절벽으로 되어 있다.

3) 결론

이상의 조사·검토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운봉길 의사는 능선 위 도로의 동쪽으로 흐르는 中尾山川과 '경비도로'의 교차로에서 동쪽 벼랑을 사다(사다: 활을 쏠 때 과녁의 배후에 흙을 산 모양으로 쌓은 곳)로 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비도로’의 남쪽의 골짜기 폭은 10m 정도밖에 되지 않고 ‘약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북쪽 골짜기 폭은 20m가 넘어 ‘약도’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

SBS 조사팀은 처형지를 [북위 36도 31분 31초 동경 136도 40분 17초]라고 발표했고 우리도 거의 같은 위치의 결론을 얻었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지일 뿐 본격적인 재조사에 의해 더욱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